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종합 심사평가 보고서

2005. 3.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목 차

## I. 일반 현황 (1)

1. 문예진흥기금 운용 (2)
2. 이사회 운영 (7)
3. 문예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 운영 (10)
4. 지원시설 운영 (26)

## II. 문예진흥기금사업 성과평가 (67)

1.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총평 (68)
  - 가.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종합평가결과 (68)
  - 나. 자체평가 (69)
  - 다. 종합평가위원 총평 (71)
2. 지원목표별 성과평가 (78)
  - 가. 지원목표별 지원대상/평가 현황 (78)
  - 나. 지원목표별 성과평가 결과 (79)
  - 다. 지원목표별 자체성과평가 (82)
3. 분야별 성과평가 (84)
  - 가. 분야별 지원대상/평가 현황 (84)
  - 나. 분야별 평가 결과 (85)
  - 다. 분야별 평가위원 성과평가 (85)
4. 단위사업별 성과평가 (106)
  - 가. 단위사업별 지원대상/평가 현황 (106)
  - 나. 단위사업별 성과평가 결과 (107)
  - 다. 단위사업별 평가 내용 (109)
5. 문예진흥기금 복권사업 (204)

6. 국민모니터링 성과평가 (210)

Ⅲ. 기관운영평가 (216)

1. 경영혁신 과제 추진 실적 (217)

Ⅳ. 평가제도운영평가 (224)

1.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심사평가 추진체계 (225)

2.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심사평가 추진방안 (226)

3.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228)

4.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229)

5.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종합평가 추진절차(230)

6.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항목별 배점표(231)

7. 심사평가 대상사업 현황분석(232)

8.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제도 평가 (236)

부록 1.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 복권기금사업 자체평가보고서

부록 2.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 존치평가보고서

부록 3. 서울무용제 및 젊은 안무자 창작공연 심층평가보고서

부록 4. 국민모니터링 요원 대상 국민만족도 설문 결과

부록 5. 문예진흥기금사업 서면 및 현장평가 양식

부록 6.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 조건부기부금 수납내역

부록 7.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 세출집행실적

부록 8.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세부추진실적

# I . 일 반 현 황

# 1. 문예진흥기금 운용

## 가. 수입

(단위:천원)

구 분	2004년 계획	2004년 실적	실적/계획
1.건물대여료	440,625	289,298	65.6%
2.이자수입	25,578,000	28,375,584	110.9%
3.법정부담금	6,000,000	7,942,616	132.3%
4.민간출연금	710,000	328,858	46.3%
5.반환금 등	700,000	290,083	41.4%
6.입장료수입	7,236,350	7,110,403	98.2%
7.기타잡수입	23,400	14,373	61.4%
8.용자원금회수	1,416,000	1,334,837	94.3%
9.여유자금회수	404,832,000	388,709,455	96.0%
10.전년도이월금	731,880	745,410	101.8%
11.조건부기부금	3,400,000	4,379,995	128.9%
12.공공기금전입금	44,569,000	44,583,768	100.0%
13.국고보조사업		3,300,000	-
14.방송발전기금사업		1,700,000	-
<b>합계</b>	<b>495,637,255</b>	<b>489,104,680</b>	<b>98.7%</b>

## 나. 지출

(단위:천원)

구 분	2004년 계획	2004년 실적	실적/계획
1.기금관리비	8,746,371	8,603,789	98.3%
2.사업운영비	6,133,474	5,764,176	94.0%
3.예술창조역량강화	16,989,540	16,334,205	96.1%
4.문화예술향수기회확대	50,744,908	50,430,356	99.4%
5.문화예술교류활성화	2,319,630	2,195,362	94.6%
6.예술의보존과계승	6,418,396	6,246,185	97.3%
7.여유자금운용	400,153,056	388,903,911	97.2%
8.전년도 이월금	731,880	731,880	100.0%
9.조건부기부금	3,400,000	4,446,702	130.8%
10.국고보조사업		3,300,000	-
11.방송발전기금		1,700,000	-
<b>합계</b>	<b>495,637,255</b>	<b>488,656,566</b>	<b>98.6%</b>

## 다. 2004년도 수입, 지출 현황 분석

### 1) 수입 현황 분석

- 2004년도 수입은 목표액 491,505,375천원의 97.24%인 477,927,610천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 각 항목별 수입유형을 살펴보면, 건물대여료의 경우 하반기 예술극장 공사로 인해 목표액에 미치지 못하는 65.66%의 실적을 보였다. 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 및 기타재산수입은 문예진흥기금 적립금의 운용결과이다.
- 우리 원 자산 운용은 금융시장에 대한 적절하고 탄력적인 대처 등 효과적인 자금운영 결과에 따라 이자수입이 11% 초과 달성되었다. 이자수입의 경우, 2003년에 이어 지속적인 금리하락 추세로 자금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나, 부동산투자신탁, 주식형투자일임, 파생상품 활용 등 다양한 자산배분에 의해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 운용계획서' 상의 당초 목표 5.30%을 상회하는 5.79%의 수익률을 냄으로써 목표액 대비 30억원을 초과 달성하게 되었다.
- 입장료 수입은 목표액 7,236,350천원 중 7,110,402천원의 실적으로 목표대비 98.26%을 달성하였다. 뉴서울골프장 운영수익금은 목표액인 6,500,000천원을 달성하였으나 예술극장 및 미술관의 입장료수입이 미달하였다.
- 기부금 수입의 경우, 순수 기부금은 목표액을 84.22% 초과하여 386,857천원의 기부금을 유치하였으나 실명제 기부금의 경우는 이자율 하락 등 실명제 기부금 사업 고유의 메리트가 사라지면서 실적이 미비한 상태이다. 2004년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좀 더 적극적인 기부금 유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에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4년 하반기 기부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이후 실행할 예정으로 추후 기부금 수입 증대가 기대된다.

### 2) 지출 현황 분석

- 2004년도 세출은 목표액 4,956억원의 98.6%인 4,887억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기금관리비·사업운영비는 95%이상 집행실적을 보였으며, 인건비 및 4관의 시설관리비로 지출된 비용이다.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사업으로는 예술창조역량강화·문화예술향수기회확대·문화예술교류활성화·예술의보존과계승 사업이 있으며 97%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다. 100%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예산잔액이 발생되었다. 문예진흥원 지원사업 외에 국고보조사업으로 33억원, 방송발전기금보조사업으로 17억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 라. 문예진흥기금 적립, 운용현황

### 1) 문예진흥기금 모금관리 추진 실적

- 2004년 1월 1일부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 후 미납금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분기별 납부독려 출장 외에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대한 상시 출장 제도를 운영하는 등 모금 미납금 및 잔여금 회수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였으며 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 2) 문예진흥기금 적립금 조성 및 기금운용

#### (1) 문예진흥기금 적립금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구분	73~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비중	비고
국고	124,700	-	-	-	-	-	-	-	124,700	23.65%	
공익자금	65,000	-	2,000	3,000	-	-	-	-	70,000	13.28%	
모금/이자	95,287	7,591	30,603	45,160	27,155	35,560	69,768	21,430	332,554	63.07%	
계	284,987	7,591	32,603	48,160	27,155	35,560	69,768	21,430	527,254	100	

#### (2) 문예진흥기금 운용 현황

- 문예진흥기금 적립금 예치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3년 12월 31일		2004년 12월 31일		비 고
		금액	예탁비중	금액	예탁비중	
제1금융권	정기예금,채권	320,177	63.30%	349,180	66.22%	
제2금융권	채권형	170,647	33.73%	163,074	30.94%	
	주식형	15,000	2.97%	15,000	2.84%	
계		505,824	100.00%	527,254	100.00%	

○ 기금운용 실적

- 2004년 기금운용은 당초 내외의 전망과는 다른 금융시장 상황으로 인해 문예진흥기금의 운용환경은 금융시장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은행권의 수신 금리는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또한 금융시장의 시장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목표했던 기금의 장기 투자 확대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 2004년 기금운용은 『2004년 기금운용 세부계획』에서 계획한대로 시장상황의 악화와 모금중단에 따라 다소 적극적인 운용정책과 수익성에 바탕을 둔 운용정책을 시행 하였으나 채권시장의 불안과 시장금리의 급락으로 투자형 자산의 확충에는 다소 미흡하였다.
- 또한 일정금액이상 장기상품에 투자 시에는 기능이 확대된 기금운용위원회 중심의 투자 의사 결정과 외부전문가 집단을 통한 운용상품 및 운용사 선정 작업을 정례적으로 실행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향상시켰다.
- 이에 따라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금융권의 구조조정에 따른 안전성 강화 차원에서 우량금융기관에의 거래규모 확대와 수익형 상품에 대한 투자위주 정책을 시행하였고 적정시점에서 고수익이 기대되는 틈새상품으로 부동산신탁,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시행하여 수익성 확보를 위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신축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그 결과 2004년도 기금운영 실적 세부 내역은 <표 I-1, I-2, I-3>과 같다.

<표 I-1> 2004년 문예진흥기금 기금운용 실적(운용수익)

구 분	금 액	수익률	비 고
목표금액	256억 원	5.30%	2004년 기금운용계획서상 목표금액
금 액	285억 원	5.79%	11% 초과 달성

※ 목표금액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세부운용계획서』의 세입목표 준용

<표 I-2> 2004년 문예진흥기금 기금운용 실적(기금자산 배분 실적)

구 분	배분기준	실 적	비 고
확정부 예탁	50%이상	60.79%	국채포함
안정배당형투자	40%미만	36.37%	
주식형투자	10%미만	2.84%	

※ 배분기준은 '2004년 기금세부운용계획서' 상의 금액임

※ 운용기간별 자산배분은 계획서상의 배분비율을 유지함.

(배분비율 : 장기 78%, 중기 20%, 단기 2%)

<표 I -3> 2004년 문예진흥기금 기금운용 실적(신규투자상품 운용 실적)

구 분		투자일	만기일	금 액	비 고
상 품	회사명				
부동산신탁	은행권	2004.1.	2005.12	120억원	
주식형투자일임	한가람자문	2004.4.28	2005.4.28	50억원	
해외채권펀드	씨티은행	2004.3.5	2005.3.5	50억원	
	삼성증권	2004.2.27	2005.2.27	50억원	
주식연동파생상품	미래에셋 증권	2004.5.18	2005.5.18	50억원	
	굿모닝 신한증권	2004.8	2005.2	60억원	
중국연동파생상품	신한은행	2004.1.26	2007.1.26	100억원	
SOC 펀드	하나은행	2004.12.13	2019.12.13	50억원	
CP	하나은행 등	2004. 2	2005.5	250억원	

○ 기금운용 제도 개선

- 2001년도 말 구성되어 운용하고 있는 기금운용자문회의를 운용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로 전환하였으며, 구성원을 8명으로 확대하여 현장 전문가의 참여를 강화하였다.
- 추가 영입 기금운용위원
  - 거시경제 전문가 2인 (학계 교수)
  - 성과관리 전문가 1인 (공인회계사)
  - 운용전문가 1인
- 금융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2002년 기금평가단의 지적사항을 수용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2003년에 이어 문예진흥기금 운용지침을 개정(2004년 3월)하여 지속적으로 운용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금운용위원회(신설)
  - 부실자산의 처리보고(신설)
-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위험관리의 계량화를 위해 VAR(Value at Risk) 지표의 활용 관련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05년 이후 시행을 위해 외부전문기관 및 운용위원회의와 협의보고를 시행하였다.
-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04.4월)에 따라 기금자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문예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을 제정하여 우리 웹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 2. 이사회 운영

가. 운영근거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정관 제10조 내지 제13조

### 나. 주요 기능(부의사항)

-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문예진흥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등

### 다. 문예진흥원 이사 구성 현황

(2004. 12. 31 현재)

상임 / 비상임	성명 (생년)	임기	현직	주요경력	비고
상임	현기영 (1941)	2003.2.17~ 2006.2.16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	서울사대부고 교사, (사)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당연직
상임	강형철 (1955)	2003.5.3~ 2006.5.2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사무총장	송의여자대학교 교수, (사)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이사	당연직
비상임	김창완 (1942)	2003.4.30~ 2006.4.29	한국문인협회 사무국장, 시인	조선일보 가정조선부장, 도서출판자유문고 주간	문학
비상임	김호석 (1957)	2003.4.30~ 2006.4.29	화가(동양화)	전남대 강사, '81한국현대수묵화전 등 그룹전 및 개인전 다수	미술
비상임	허영환 (1958)	2003.4.30~ 2006.4.29	한국예술종합학교음악원교수	계명대·성신여대·숙명여대·한양대 강사, 경원대학교 조교수	음악
비상임	최종원 (1950)	2003.4.30~ 2006.4.29	연극배우	한국연극협회 이사, 한국연극배우협회 회장,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콜렉터(연극), 투깝스(영화) 등 연극·영화 다수	연극
비상임	최청자 (1945)	2003.4.30~ 2006.4.29	세종대학교 무용과 교수, 한국무용협회 부이사장, 킷마루무용단 예술감독	세종대학교 무용학과장, 한국현대무용협회 회장, 최청자무용단 창단, 대한민국문화공로상 수상	무용
비상임	박인배 (1953)	2003.4.30~ 2006.4.29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기획실장, 한국민족극운동협회 부의장	극단 현장대표, 민예총사무차장,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운영위원장	공연 일반
비상임	임정희 (1957)	2003.4.30~ 2006.4.29	문화기획자, 연세대 문리대 디자인학부 겸임교수, 문화연대 (사)시민자치문화센터소장	홍익대, 서강대, 경희대, 서울여대대학원, 성신여대대학원 강의	문화 일반
비상임	위옥환 (1952)	2004.8.19 ~任免일	문화관광부 예술국장	문화관광부 영상진흥과장, 국어정책과장, 도서관박물관과장, 국립중앙박물관 관리과장, 종무1과장,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당연직

※ 현재 기금운용분야 1인 공석

### <참고> 감사

상임 / 비상임	성명 (생년)	임기	현직	주요경력	비고
상임	박진홍 (1943)	2004.4.1~ 2007.3.31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감사	MBC 편성국장, MBC 미주방송지사장(LA주재), 여수 MBC 사장, 광주MBC 사장	

## 라. 2004년도 이사회 및 간담회 운영 현황

### 1) 이사회 운영 현황

#### ○ 이사회 운영 총괄표

개최회수	서면이사회 개최회수	안전 총계	의결안전					보고 안전
			원안의결	수정의결	유보	부결	소계	
7회	1회	31건	17건	-건	-건	-건	17건	14건

#### ○ 이사회 운영 결과

회수 및 일자	안 건 명	회의결과	비 고
제177회 (2004.1.9)	- 제175회 이사회 의사록 및 제175회, 제176회 결의사항 처리결과 -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운용계획 - 2004년도 방송발전기금 보조사업 운영계획 -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심의결과 - 복권 및 복권기금법 법안 통과 및 주요 추진사항	접수	보고안전
	- 제560호 : 2004년도 뉴서울골프장(특별회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원안의결	의결안전
제178회 (2004.2.13)	- 제561호 : 직제개편에 따른 직제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의결안전 *서면심사
제179회 (2004.2.17)	- 제177회 이사회 의사록 및 제177회, 제178회 결의사항 처리결과 - 2004년도 복권기금 신청계획	접수	보고안전
	- 제562호 : 정관 개정(안) - 제563호 : 문화예술진흥기금모금관리규정 폐지(안) - 제564호 : 2003년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결산(안) - 제565호 : 기본재산 설정(안) - 제566호 : 문예진흥기금모금미납금 특수채권 소멸처리(안)	원안의결	의결안전
제180회 (2004.4.8)	- 제179회 이사회 의사록 및 결의사항 처리결과 - 2004년도 복권기금 사용신청현황 - 2005년도 복권기금 사용신청계획(안)	접수	보고안전
	- 제567호 : 인사관리규정 개정(안) - 제568호 : 예산회계규정 개정(안) - 제569호 : 임원및직원여비규정 개정(안) - 제570호 :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금관리규정 개정(안) - 제571호 :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의결안전

회수 및 일자	안 건 명	회의결과	비 고
제181회 (2004.5.25)	- 제180회 이사회 의사록 및 결의사항 처리결과	접수	보고안건
	- 문예진흥기금 적립금 운영지침(안) - 제572호 : 200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원안의결	의결안건
제182회 (2004.11.10)	- 제181회 이사회 의사록 및 결의사항 처리결과	접수	보고안건
	- 제573호 : 대학로 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 추진계획(안)	원안의결	의결안건
	- 제574호 : 200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183회 (2004.12.27)	- 제182회 이사회 의사록 및 결의사항 처리결과	접수	보고안건
	- 제575호 : 보수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의결안건
	- 제576호 :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운용계획 사업 중 이월 사업 예산(안)		

○ 이사회 참석률

이사회 구성	전체 참석률(%)	상임이사참석률(%)	비상임이사참석률(%)
상임이사 2명 / 비상임이사 8명	80	93	77

2) 간담회 운영 현황

- 개최 횟수 : 7회
- 보고안건 수 : 13건
- 간담회 운영 내용

회차	일자	회의 내용	비 고
제1차	2004. 2. 9	○ 문예진흥원 조직운영 체제 개편(안) 보고	
제2차	2004. 5. 20	○ 200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보고 및 검토의견 청취 등	
제3차	2004. 5. 22	○ 200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세부협의 등	
제4차	2004. 7. 22	○ 2004년도 복권기금사업 확정결과 보고 ○ 2005년도 문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심의진행현황 보고 ○ 대학로 소규모 복합공연장 조성사업 보고	
제5차	2004. 10. 15	○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보고 ○ 2005년도 복권기금 사업 내역 보고 등	
제6차	2004. 10. 29	○ 2005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주요 추진 내용 ○ 문화예술위원회 추진경과 및 향후 검토 과제 ○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자산취득(안) 보고 등	
제7차	2004. 12. 13	○ 2005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추진 현황 보고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자산운용지침(안) 보고	

### 3. 문예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 운영

#### 가. 심의 중점 목표

- 심의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의 최대한 제고와 지원신청자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
- 지원심의 운영을 개선하여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 목표 지향적 전략지원체제로 개편된 현행 사업구조 운영 중 제기된 개선점 반영

#### 나. 지원신청 공고 및 접수

##### 1) 지원신청 공고

- 공고 일자 : 2003.9.30
- 공고 방법 : 17개 중앙 일간지에 공고(3단)
  - 중앙·동아·경향·세계·국민·한국경제·헤럴드경제·파이낸셜 뉴스·조선·한국·한겨레·대한매일·문화·매일경제·서울경제·머니투데이·전자신문

##### 2) 지원신청 안내 홍보물 제작·배포

- 안내 책자 및 포스터
  - 배포처 : 16개 광역시·도, 예총·민예총 본부와 각지회(부), 전국문화원연합회와 각 지역 문화원, 문화의 집, 주요 문화예술단체 등
- 인터넷 공시 : 우리 원 홈페이지(www.kcaf.or.kr)
- 개별 안내
  - 우리 원 이메일(e-mail)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신청 안내서 전송
  - 전년도 지원신청 단체에 안내 서한(원장 명의) 발송

##### 3) 지원신청 안내 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2003.10.7(화), 10.8(수) 마로니에 미술관 3층
- 개최 의의 :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체제와 이에 따라 변경된 지원신청 방법 등을, 국민과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우리 원 지원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문예진흥기금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제고함.
- 참석자 : 일반 국민 및 예술인 400명
- 진행 방법 : 주요 내용 종합 프리젠테이션, 참석자 질의 및 우리 원 응답

#### 4) 지원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서식 교부 : 우리 원 안내실 및 각 팀, 우리 원 인터넷 홈페이지(내려받기 가능), 16개 광역시·도 문화예술(관광/체육)과, 예총·민예총 본부 및 각 지회(부), 전국문화원연합회 및 각 지역 문화원, 각 지역 문화의 집 등
- 접수 방법 : 우리 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 접수 기간 : 2003.10.1(수)~2003.10.31(금)(1개월)

### 다.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 1) 지원심의위원 선정 기준

- 범 문화계 인사의 고른 참여를 보장하고 지원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인사를 선정함.
- 신청자 또는 신청단체의 대표자 등 신청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함.
- 세부 전공 및 활동 장르를 고려하되 경향별 형평을 유지함으로써 지원심의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함.
- 2003년도 평가위원이나 전문 모니터링 요원을 사업특성별 유형을 감안하여 심의위원으로 적극 활용함.
- 지원심의 참여 실적, 성별, 연령별 균형과 안배 등 심의위원 구성의 계량적 기준을 강화하여 객관성을 제고함

#### 2) 기금지원심의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42조)

-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으로 구성
  - 8개 분야(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다원예술·문화일반)별 1인씩 선정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촉
- 역할
  -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의 기본 방향, 심사평가 결과 반영 방안, 분야별 배정 예산 등 검토
  - 공통심의기준, 지원 등급·단가 등 지원심의 기본 방침 등 검토
  -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지원 우선순위, 지원대상별 지원액 등) 최종 확정, 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 심의 등

#### 3)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

- 구성

- 14개 분야별 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
- 문화예술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 및 우리 원의 심의위원 बैं크를 토대로, 3배수 내외의 후보를 선정한 후 최종 위촉
- 역할
  - 각 분야별 지원심의 세부 방침 결정
  - 개별 신청사업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채점 집계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후 지원 후보사업들에 대해 지원 예정액 결정

## 라. 공통심의기준과 주요 고려사항

### 1) 공통심의기준

- 사업의 예술(문화)적 수월성(秀越性/빼어남)
-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신청인(단체)의 사업 추진 능력

### 2) 공통심의기준별 세부 착안사항

- **사업의 예술(문화)적 수월성**
  - 사업을 통해 발표되는 프로그램의 예술(문화)적 창의성
  - 기획·연출·구성 등의 참신성·독창성 등
  - 제작진과 참가 단체(개인)의 예술(문화)적 기량
  - 특히 정기(연례)적인 사업의 경우 전년도 사업과의 차별성 등
-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 사업 목적과 사업 활동의 연계성
  - 사업 계획의 구현을 위한 추진 전략의 적정성, 사업 활동의 구체성·적합성·실현가능성
  - 소요재원 조달 방법(수입·지출 예산의 산출 등)과 지원신청액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신청사업 목적과 문예진흥기금 지원목표와의 부합도
  - 신청인(단체)이 제시한 성과목표의 타당성 및 신청 사업의 목표와 연계되어 기대되는 파생 결과의 구현도
  - 해당 분야의 발전에의 기여도 및 기대되는 문예진흥기금 지원목표에의 달성도 등
  - 특히 정기(연례)적인 사업의 경우 전년도 사업이 해당 분야 발전에 끼친 기여도와 파급효과 중점 검토

○ 신청인(단체)의 사업 추진 능력

- 사업 추진 주체(공동참여자 포함)의 역할과 기능의 적격성
- 사업 추진 주체(공동참여자 포함)의 유사사업 추진 실적과 성과
- 문예진흥기금 심사평가 결과 등(전년도 심사평가 종합 등급은 이 심의기준에 그대로 적용)

3) 2004 심의기준의 특징적 사항

- 분야별 위원들은 해당 분야 내 모든 신청사업에 대하여 4개 지원심의 공통기준별 5개 등급(A/B/D/D/E등급)을 부여하되, 이는“심의기준의 충족도와 기금사업 지원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도”의 ‘탁월(A)/우수(B)/보통(C)/미흡(D)/아주미흡(E)’정도를 판단하는 절대평가 방식에 의함.
- 분야별 위원들은 각 신청사업들에 대한 절대평가 등급을 소정 평가표에 기재한 후 제출 (A등급 100점/B등급 80점/C등급 60점/D등급 40점/E등급 20점)
- 각 공통심의기준은 신청사업의 해당 성과목표별로 그 가중치를 달리함
- 채점결과 및 심사평가 결과의 종합 집계
  -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누적 관리하여 사후평가의 유효성을 높이고자, 2002년 평가결과를 30% 비율로 반영하고, 2003년의 평가결과를 70% 비율로 반영함.
  - ※ 단, 어느 한 위원이 해당 신청사업에 대한 심의위원 전원의 평균평점에 서 상하 40% 포인트를 벗어나는 평점을 부여했을 경우, 이를 배제하고 다시 평균평점을 산출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욱 제고

4) 주요 고려사항

-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집중지원의 지속 확대 및 보급확산형 소액지원의 병행**
  - 예술 창조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원 규모에 있어서 전략적인 집중 지원 체제를 유지 강화
  - 문화복지 및 향수권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소액다건 방침을 병행
- **지원사업 심사평가 결과의 최대한 반영**
  - 모든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현장평가 및 서면평가 결과를 반영
- **동일 조건일 경우 단수 혜택 신청사업 우선 선정**
  - 동일 분야, 동일 여건의 지원신청 사업에 대하여는
    - . 개인보다 다수 또는 단체가 수혜되는 사업을 우선 지원
    - . 지원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우선 지원
- **사업비 지원 및 소요경비 일부 지원**

- 예술단체의 경상운영비 지원은 가급적 지양하고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  
· 단 기존의 경상비 수혜 단체는 자립기반 구축 등을 유도
- 지원 규모는 지원사업 소요경비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신청단체는 적정 수준의 자체자금 또는 별도 후원자금의 확보 능력이 있어야 함.

## 마. 지원심의회 의 운영

### 1) 회의 구분

- 1차 심의 : 제1차 기금지원심의회 위원회의
  - 2003.12.8(월) 15:00, 우리 원 회의실
- 2차 심의 : 제1차 분야별지원심의회 위원회의
  - 문학A.B/미술A.B/음악A.B/무용A.B/연극A.B/전통예술A.B/다원예술/문화일반 등 14개 분야
  - 2003.12.10(수)~12.16(화), 우리 원 회의실 등
- 3차 심의
  - 문학A.B/미술A.B/음악A.B/무용A.B/연극A.B/전통예술A.B/다원예술/문화일반 등 14개 분야
  - 2003.12.18(목)~12.24(수), 우리 원 회의실 등
- 4차 심의 : 제2차 기금지원심의회 위원회의
  - 2003.12.30(화), 우리 원 회의실

### 2) 지원심의회 의 운영개요

- 1차 심의(제1차 기금지원심의회 위원회의)
  -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 사업 계획 보고(우리 원 회의실)
  -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의 기본 방향, 기금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분석, 지원심의 방침, 개개 핵심역량사업별 지원 등급 및 단가 기준, 분야별 예산 배정 등 결정
- 2차 심의(제 1차 분야별지원심의회 위원회)
  - 분야별 · 핵심역량사업별 세부 심의 방침 결정, 개별 신청사업에 대한 지원의 적격성 심의
  - 신청자(단체)의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에 대한 전 위원들의 개별 검토를 토대로 각 신청사업과 신청자(단체)에 대한 토론(정보교환 등)후 위원 각자가 독립적으로 채점
    - ☞ 채점 집계 결과는 3차 회의에 제출

- 3차 심의(제 2차 분야별지원심의위원회)
  - 2차 심의회의의 채점 집계 결과를 토대로 지원우선순위 및 지원후보 사업들에 대한 적정 지원예정액(안) 등 결정
    - ☞ 이 우선순위를 토대로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지원유형별 통합순위'는 4차 심의회의에 제출
- 4차 심의(제 2차 기금지원심의위원회)
  - 분야별기금지원심의위원회(1, 2차) 결정사항에 대한 종합 심의후 최종확정 및 의결, 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심의 등
    - ※ 기금심의회의 심의대상 사업 : 자체사업, 지역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 전국 규모의 장르별 대표행사, 기타 정책사업 등

## 바.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금액 결정 절차

- 1) 지원등급 및 지원단가 책정 : 제1차 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 2003년도 지원 등급 및 단가 기준, 2004년도 신청사업의 성격과 총 소요예산 등 규모, 우리 원의 집중지원 방침 등을 고려하여, 각 지원유형 내에서 분야별 3~4개의 지원 등급 및 단가 기준을 책정
  - 각 지원유형 내에서의 분야별 예산은, 2003년도 지원실적 및 2004년도 수요(신청)를 토대로 배정
    - 예산 배분의 연속성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가중치의 총합을 100으로 할 때 03년도 실적을 50(지원예산액 40, 지원결정건수 10), 04년도 수요를 50(지원신청액 40, 지원신청건수 10)의 비중으로 함
- 2) 채점 : 제1차 분야별지원심의위원회의
  - 분야별 위원들은 모든 신청사업별 4개 공통심의기준에 대한 점수를 평가표에 기재한 후 우리 원에 제출
  - 공통심의기준별 개별 신청사업에 대한 채점은 다음과 같이 A~E까지 5단계의 절대평가 방식을 택함.
    - A등급 : 심의기준 충족도와 기금사업 지원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도가 탁월할 경우
    - B등급 : 심의기준의 충족도와 기금사업 지원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도가 우수할 경우
    - C등급 : 심의기준 충족도와 기금사업 지원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도가 보통일 경우
    - D등급 : 심의기준 충족도와 기금사업 지원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도가 미흡할 경우
    - E등급 : 심의기준 충족도와 기금사업 지원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도가 아주 미흡할 경우
- 3) 심사평가 결과의 지원심의 반영
  - 반영 대상 :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신청자(단체/개인) 중 2002년 1월 1일에서 2003년 11월 30일까지 현장평가/서면평가를 받은 자

- 심사평가 결과 반영 원칙
  -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등급은 해당단체의 사업추진 능력으로 간주, 2004년도 지원심의공통기준 중 '신청인(단체)의 사업추진능력'항목에 적용
  - 따라서 누적된('02-'03년도) 심사평가 결과의 최종 등급은 04년도 지원신청사업의 분야나 유형에 관계없이 신청한 해당 신청 사업에 모두 적용함.
  - 한 단체(개인)가 여러 사업을 수행한 경우, 평가받은 모든 사업의 평균점수를 토대로 등급을 책정함.
  
- 평가등급 책정 기본원칙
  - '02년 평가결과를 30%, '03년(11월 30일 현재까지)의 평가결과를 70% 비율로 반영('03년 12월 1일 이후의 평가결과는 '05년도 이후에 반영 예정)
  - 2002년과 2003년 평가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각각 30%와 70%의 비율로 종합하여 등급부여
  - 2003년도에만 평가가 이루어졌을 경우, 백점으로 환산된 2003년도의 결과만으로 등급 부여 (2002년도만 해당될 경우 동일방법 적용)
  
- 평가결과 지원심의 세부 반영방법
  - 서면평가만 받기로 되어 있는 지원대상사업
    - . 지원사업 종료 후 11월 30일 현재까지 1개월이 넘도록 성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소정 서면평가를 이수치 못한 사업은 '신청인(단체)의 사업추진능력' 항목에 한하여는 우수 등급(A, B등급)을 주지 아니함.
  
  -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모두 받기로 되어 있는 지원대상사업
    - . 두 평가 모두 이수한 사업은 두 점수 (서면평가 40점, 현장평가 60점)을 합하여 '사업추진능력 항목'에 동일 등급으로 반영하며
    - . 현장평가만 이수한 사업은 이 현장평가 점수(60점)를 백점으로 환산하여 책정된 등급을 반영함.
      - ※ 이 경우 사업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성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11월 30일 현재 서면평가 없이 현장평가만 이수한 사업은 현장평가 점수(60점)만을 백점으로 환산하여 책정된 등급을 반영하되, 우수등급 이상(A, B등급)을 주지 아니함.
  
  - 한 단체(개인)가 여러 지원대상사업을 수행한 경우
    - . 평가받은 모든 사업의 평균점수를 백점으로 환산하여 '신청인(단체)의 사업추진능력' 항목(A/B/C/D/E의 5개 등급)에 동일 등급으로 반영.

-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단체 중 2002년 1월 1일 이후 기 지원된 사업의 성과보고서를 특별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지난 11월 30일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않은 단체에게는 해당 항목에 한하여는 최하 등급(E)부여

4) 채점결과 및 심사평가결과의 종합집계

- 공통심의기준 항목에 대한 채점 집계 시 A는 100점, B는 80점, C는 60점, D는 40점, E는 20점을 부여하며, 각 신청사업의 평균평점 산출 시 위원들간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어느 한 위원이 해당 신청사업에 대한 심의위원 전원의 평균평점에서 상하 40%를 벗어나는 평점을 부여했을 경우 이를 배제하고 다시 평균평점을 산출, 재 산출된 평균평점을 지원우선순위 결정시 적용함
- 성과목표별 가중치와 각 심의위원들의 평가등급별 배점 종합 결과

공통심의기준	성과목표별 가중치				평가등급별 배점				
	예술창조역량강화	문화예술향수기회확대	문화예술교류활성화	예술의보존과 계승	A	B	C	D	E
사업의 예술(문화)적 수월성	(40)	(20)	(20)	(30)	100	80	60	40	20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20)	(20)	(20)	(20)	100	80	60	40	20
해당분야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20)	(40)	(40)	(30)	100	80	60	40	20
신청인(단체)의 사업추진능력	(20)	(20)	(20)	(20)	100	80	60	40	20
계	100	100	100	100					

※ 가중치 부여의 원칙 :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및 '신청인(단체)의 사업 추진 능력'은 모든 신청사업에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항목으로 보아 각 20점씩의 기본 점수를 부여하고 '사업 내용의 예술(문화)적 수월성'과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항목은 성과목표와의 상관 정도를 감안하여 20점에서 40점까지 10점 간격으로 부여

5) 지원유형별 표준평점 및 통합순위 산출 : 제2차 분야별지원심의위원회

6)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예정액 일차 책정 : 제2차 분야별지원심의위원회의

7)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예정액 최종 확정 : 제 2차 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사. 기금지원심의위원회 명단 (8개 분야 8인)

분야	성명	성별	생년 (나이)	현직 / 주요 경력	비고
문학	오생근	남	1946(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現)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교수</li> <li>·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불문학과 졸업</li> <li>· 저서 : “삶을 위한 비평” 등</li> <li>· 상훈 : 동서 문학 비평상, 현대문학상 수상</li> </ul>	
미술	손장섭	남	1941(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現)작가, 한국미술협회, 한국미술인연합회회원</li> <li>· 상훈 : 이중섭미술상(제10회), 민족미술상 수상 등 다수</li> </ul>	
음악	허영한	남	1958(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現)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li> <li>· 서울대작곡과 졸업, 미국뉴욕시립대 음악학 박사</li> <li>· 저서 :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등 다수</li> </ul>	
무용	김경애	여	1956(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現)춤평론가, 월간(댄스포럼)발행인</li> <li>· 숙대 국문학과, 연대 언론홍보대학원 졸업</li> <li>· 월간'춤'편집장, 국립극장 기획단원 등 역임</li> </ul>	
연극	최준호	남	1959(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現)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교수, 연극평론가</li> <li>· 성균관대 불문과 졸업</li> <li>· 서울공연예술제 심층 평가위원 등 역임</li> </ul>	
전통 예술	황의종	남	1952(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現)부산대학교 국악학과 교수, 국악 작곡</li> <li>· 서울대 국악과, 동 대학원 졸업</li> <li>· 황의종작곡집, 대금협주곡, 해금을위한합주곡등</li> </ul>	
다원 예술	임정희	여	1957(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現)문화연대 시민자치센터 소장</li> <li>· 홍익대 조소과 졸업, 동 대학원 석사</li> <li>·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 철학과박사과정 수료</li> </ul>	
문화 일반	손철주	남	1954(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現)도서출판 학교재 주간</li> <li>· 영남대 국문과 중퇴</li> <li>· 국민일보문화부장, 동아닷컴취재본부장등 역임</li> </ul>	

아. 분야별 심의위원 명단 (14개 분야 116인)

○ 문학 A 분야 : 12인

성명	성별	생년	소속/직위	분야	비고
황지우	남	1952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시	
김사인	여	1956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	시	
문정희	여	1947	동국대 문예창작과 겸임교수	시	
홍성관	여	1958	시조시인	시조	
서영은	여	1943	소설가	소설	
송기원	남	1947	소설가	소설	
김원일	남	1942	소설가	소설	
윤조병	남	1939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희곡	
신현득	남	1933	한양여대 교수	아동문학	
조대현	남	1939	선린정보산업고등학교 교사	아동문학	
오생근	남	1946	서울대 불문과 교수	수필	
장윤익	남	1939	경주대 문예창작과 교수	평론	

○ 문학 B 분야 : 6인

성명	성별	생년	소속/직위	분야	비고
이문재	남	1959	<시사저널>편집위원	시	
임철우	남	1955	한신대 문예창작과 부교수	소설	
이강렬	남	1952	세종문화회관 사업본부장, 희곡작가	희곡	
원종찬	남	1959	부평여자공고국어교사, 아동문학평론가	아동문학	
황현산	남	1945	고려대 불문과 교수	평론	
정목일	남	1945	마산 창신대 문예창작과 겸임교수	수필	

○ 미술 A 분야 : 12인

성명	성별	생년	소속/직위	분야	비고
김호석	남	1957	작가	한국화	
손장섭	남	1941	작가	양화	
최태만	남	1962	국민대 교수	조각	
최광호	남	1956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강사	사진	
김수천	남	1957	원광대 교수	서예	
홍순명	남	1959	작가	설치미술	
최공호	남	1957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공예	
김원	남	1943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이사	건축	
장석원	남	1952	전남대 교수	평론	
정현이	여	1959	한성대 교수	평론	
박신의	여	1957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평론	
최민	남	1944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평론	

○ 미술 B 분야 : 10인

성명	성별	생년	소속/직위	분야	비고
문봉선	남	1961	시립 인천대 교수	한국화	
민정기	남	1949	작가	양화	
신현중	남	1953	중앙대 조소과 교수	조각	
배병우	남	1950	서울예전 교수	사진	
이동익	남	1940	작가	서예	
홍현숙	여	1958	작가	설치미술	
강관식	남	1957	한성대 교수	공예	
조건영	남	1945	서울 건축연구소	건축	
강성원	여	1955	경원대 강사	평론	
정용도	남	1964	백남준미술관 건립위원회 위원	평론	

○ 음악 A 분야 : 7인

성명	성별	생년	소속/직위	분야	비고
허영한	남	1958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평론	
김용환	남	1958	한세대 교수	평론	
이승열	남	1948	추계예술대 교수	기악	
곽진용	남	1939	강릉대 교수	작곡	
임지선	여	1960	연세대 교수	작곡	
김혜선	여	1945	단국대 교수	성악	
김 봉	남	1952	경원대 교수	지휘	

○ 음악 B 분야 : 7인

성명	성별	생년	소속/직위	분야	비고
허영한	남	1958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평론	
이장직	남	1962	중앙일보 기자	평론	
허원숙	여	1958	호서대 교수	기악	
구분우	남	1958	성신여대 교수	작곡	
이영민	여	1953	성신여대 교수	작곡	
최승태	남	1947	연세대 교수	성악	
이종기	남	1954	예원학교 음악부장	지휘	

○ 무용 A 분야 : 7인

성명	성별	생년	소속/직위	분야	비고
손경순	여	1955	숭의여대 교수	한국	
김현자	여	1947	국립무용단장	한국	
김현숙	여	1963	인천전문대 교수	현대	
김기인	여	1953	서울예대 교수	현대	
백의선	남	1953	원광대 교수	발레	
김경애	여	1956	월간'댄스포럼'발행인	평론	
김태원	남	1953	동아대 교수	평론	

○ 무용 B 분야 : 7인

성명	성별	생년	소속/직위	분야	비고
한상근	남	1953	대전시립무용단장	한국	
배정혜	여	1944	전 국립무용단장	한국	
정옥조	여	1952	숙명여대 교수	현대	
김주자	여	1944	한성대 교수	현대	
김경희	여	1958	성균관대 교수	발레	
김경애	여	1956	월간'댄스포럼'발행인	평론	
문애령	여	1959	평론가	평론	

○ 연극 A 분야 : 7인

성명	성별	생년	소속/직위	분야	비고
최준호	남	1959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평론	
김승현	남	1961	문화일보 기자	평론	
이강백	남	1947	서울예대 교수, 극작가	극작	
강영걸	남	1943	연출가	연출	
김아라	여	1956	극단 무천 대표	연출	
윤정섭	남	1950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무대	
강태기	남	1951	한국연극배우협회 이사	연기	

○ 연극 B 분야 : 7인

성명	성별	생년	소속/직위	분야	비고
최준호	남	1959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평론	
안치운	남	1957	호서대 교수	평론	
이 반	남	1943	숭실대 교수	극작	
박계배	남	1957	극단 서전 대표	연출	
이병훈	남	1952	용인대 교수	연출	
이태섭	남	1954	용인대 교수	무대	
박상규	남	1951	국립극단장	연기	

○ 전통예술 A 분야 : 7인

성명	성별	생년	소속/직위	분야	비고
한상일	남	1955	동국대 교수	국악	
임재원	남	1957	서울대 교수	국악	
임미선	여	1960	전북대 교수	국악	
최현	남	1957	부산대 교수	국악	
김현숙	여	1961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	국악	
전보삼	남	1950	신구대 교수, 만해 기념관장	종합	
현경채	여	1960	국악평론가	국악	

○ 전통예술 B 분야 : 7인

성명	성별	생년	소속/직위	분야	비고
이존희	남	1936	역사박물관장	민속	
황의중	남	1952	부산대 교수	국악	
윤덕경	여	1953	서원대 교수, 윤덕경무용단 대표	전통무용	
주강현	남	1955	우리민속문화연구소장	민속	
강동학	남	1951	강릉대 교수, 한국민속학회 회장	민속	
정형호	남	1952	중앙대 인문과학연구소장	민속	
장경희	여	1960	한서대 교수	공예	

○ 다원예술 분야 : 10인

성명	성별	생년	소속/직위	분야	비고
임정희	남	1957	연세대 겸임교수	미술	
심철웅	남	1958	서울대 미대 교수	미술	
정재왈	남	1964	LG아트센터운영부장	공연	
송애경	여	1956	연극평론가	공연	
김창남	남	1960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대중문화	
민경찬	남	1957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음악	
주홍미	여	1967	문화기획자	음악	
안이영노	남	1966	한겨레문화기획학교장	종합	
정현욱	남	1967	극단 사다리 대표	공연	
전효관	남	1964	하자센터 부소장	종합	

○ 문화일반 분야 : 10인

성명	성별	생년	소속/직위	분야	비고
박정진	남	1950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겸임교수	민속	
박찬	남	1948	간행물 윤리위원회 심의위원	지역문화	
손철주	남	1954	도서출판 학고재 주간	종합	
신동호	남	1965	문화기획자	종합	
이경철	남	1955	경기대 겸임교수	종합	
이혜경	여	1955	국민대학교 교수	공연	
정갑영	남	1954	한국문화정책관광연구원 연구실장	예술경영	
최원식	남	1949	인하대 국문과 교수	문학	
하계훈	남	1958	단국대 예술경영학과 겸임교수	예술경영	
홍승찬	남	1962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공연	

## 4. 지원시설 운영

### ■ 예술극장

#### 가. 경영 이념 및 운영 목표

- 경영 이념
  - 창조적 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 제공
  - 양질의 예술문화 제공을 통한 국민의 문화적 삶에 대한 기여
- 경영 운영 목표
  - 예술적 가치창조를 위한 최고의 문화공간
  - 기획력, 마케팅 기능 강화를 통한 국내 최우수 문화공간으로 차별적인 극장 브랜드 가치 구축

#### 나. 2004년도 예술극장 운영 전략

- 1) 고객의 관점
  - 양질의 공연예술문화 제공
  - 공연장 고객 만족도 향상
  - 신뢰받는 극장 브랜드 구축
  - 관객개발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2) 내부 프로세스
  - 인적자원의 전문 능력 제고
  - 공연 환경 개선
- 3) 공익적 관점
  - 공익 공연장으로서 사회적 서비스(예술교육프로그램) 기능 강화
  - 전문 무대 기술인 연수 프로그램 운영
- 4) 재무적 관점
  - 수익·비용구조 개선을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

#### 다. 예술극장 운영실적

- 1) 총 운영 실적
  - 대극장
    - 총 운영일수 및 공연회수 : 208일, 203회
    - 총관객수 : 64,512명

- 소극장
  - 총 운영일수 및 공연회수 : 205일, 248회
  - 총관객수 : 18,400명

## 2) 2004년도 예술극장 대관 운영 실적

- 예술극장 대극장
  - 대관일수 : 185일
  - 대관건수 : 26건
  - 공연회수 : 180회
  - 관람인원 : 58,117명(객석점유율 46.2%)
    - 유료 : 23,729명
    - 초대 : 34,388명
- 예술극장 소극장
  - 대관일수 : 151일
  - 대관건수 : 13건
  - 공연회수 : 179회
  - 관람인원 : 14,407명 (객석점유율 53.6%)
    - 유료 : 5,915명
    - 초대 : 8,492명
- 대관운영 수입
  - 대극장 : 136,216,800원
  - 소극장 : 24,778,600원
  - 연습실 및 부대시설 등 기타 수입 : 115,001,602원
- 예산집행실적 : 2,643,913,061원(예산액 2,719,957,000 원, 집행율 97.2%)

## 3) 예술극장 기획공연

- 2004년도 예술극장 자체기획 및 기획대관 추진 실적
  - 특별 기획 공연 : 1건
    - 아기용 미르 (소극장, 2004.1.8 - 2.1)
  - 공동 기획 공연 : 2건
    - 마샬 퍼포먼스 '점프' (대극장, 2004.3.27 - 4.11)

- 연극 “피악별” (소극장, 2004.6.19 - 7.11)
- 관람인원 : 10,830명 (총 객석점유율 : 54.1%)
  - 유료 관객 : 5,534 (객석점유율 : 30.0%)
  - 초대 관객 : 5,296 (객석점유율 : 24.1%)
- 세입실적 : 49,171,430원
- 예산집행실적 : 133,086,602원(예산액 199,500,000원, 66.7%)

#### 4) 예술극장 사회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 연극놀이교실
  - 운영 기간
    - 상반기 : 2003.3.27 - 5.29( 10주 프로그램)
  - 수강 대상 : 6-7세 미취학 아동 (유치원생 포함)
  - 수강인원수 : 총 38명
  - 세입실적 : 11,358,000원
- 극장 탐방 체험프로그램 “극장아 노~올자”
  - 운영 기간 : 2003. 7. 27 - 7. 30(4일간, 총 4회)
  - 수강 대상 : 6 - 10세 (초등학교 3학년까지)
  - 수강인원수 : 총 142명
  - 세입실적 : 2,815,000원
- 예산집행실적 : 7,615,400원(예산액 29,940,000원, 집행율 25.4%)

#### 5) 예술극장 전국무대기술인 현장 연수 추진 실적

- 신진 무대 기술인 현장 연수 추진
  - 기간 : 2004.1.2 - 12.31
  - 인원 : 8명 (조명 2명, 음향 2명, 무대 2명, 공연기획 2명)
- 지역무대 기술인 연수
  - 기간 : 2004. 1월 - 7월 중 수시 실시
  - 인원 : 총 18명 (조명 8명, 음향 4명, 무대 6명)
- 예산집행실적 : 64,765,269 원 (76,200,000 원, 집행율 85.0 %)

#### 6) 관객리포터제 운영

- 운영 기간 : 2004. 2. 01 - 7. 31
- 리포터 수 : 10명

- 주요 활동 실적
  - 리포터 제출건수 : 65건
  - 홍보전단대 설치
  - 소극장 물품보관대 설치 및 운영
  - 어린이용 방석 구입 및 활용
  - 화장실 방향제 보완
  - ※ 비예산 사업

## 라. 2004년도 예술극장 운영 종합평가

### 1) 공연 프로그램

- 대관
  - 공연단체의 예술극장 대관 수요와 극장 선호도는 높은 편으로 대관사업 운영여건은 대체로 양호
  - 대관신청 경쟁률 2003년도 대비 대·소극장 모두 상승
    - 대극장 : 2.93:1 → 4.2:1
    - 소극장 : 4.59:1→ 5.17:1)
  - 유료관객 점유율 하락
    - 대극장 : 2002년 34.9%, 2003년 23.4%, 2004년 18.9%
    - 소극장 : 2002년 29.1%, 2003년 27.8%, 2004년 22.0%
  - ※ 전반적인 경기불황의 여파로 대학로 주변 공연장 유료 관객 점유율이 평균 약 20% 정도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서 예술극장의 객석 점유율도 경기침체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예술극장의 인지도 향상과 위상 제고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함
- 기획공연
  - 가족대상 공연, 새로운 소재의 개발 등 창의적이며 건전한 공연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어 추진.
  - 대극장 1건 18일 22회, 소극장 2건 54일 69회로 가용일수(극장 사용일수) 대비 각각 9.0%, 26.3%공연.
  - 유료관객 점유율은 2003년 대비 다소 하락하였으나 (대극장 27.8%→19.9%, 소극장 55.6% →37.6%), 대관공연(대극장 18.9%, 소극장 22.0%)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 유지.

## 2) 예술 교육 프로그램

### ○ 사회교육

- 연습실을 이용한 어린이 연극 놀이 교실을 지속 운영하였으며 참여도가 높아 좋은 성과를 거둠.
- 초등학생을(3학년까지) 대상으로 한 특별 프로그램 “극장아 노~올자” 운영을 통해 극장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 교육프로그램으로 특화시킴

### ○ 무대전문인 교육

- 신진무대예술인(인턴) 교육프로그램
  - 2002년과 같이 예술극장 인턴 8명(무대기술 6명, 공연장 운영 2명)을 채용하여 실시
- 지역무대예술인 현장 연수
  - 무대, 조명 및 음향 분야에서 18명 연수 참여

## 3) 극장 운영 서비스

- 관객안내원과 자원봉사자, 관객리포터 등 공연진행에 참여하는 다양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하는 한편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우수한 공연장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성과제고 지속 추구
- 극장 근무 인력의 대고객 서비스 마인드 교육 활동을 통해 직원친절도 향상 추구

## 4) 경영효율성

- 무대기술인력의 해외 파견 연수 교육 실시, 극장운영인력의 대고객 서비스 마인드 교육 실시, 연수원의 예술경영교육 과정연수 실시 등을 통해 전문 공연장 운영 인력 육성을 위한 인력 개발 활동 실시
- 예술극장 대극장 객석천정 및 객석 리모델링 공사가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됨으로 인해 대관료 및 기획공연 운영등을 통한 수입계획 및 기획공연사업 및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상반기에 종료되는 등 극장운영에 차질을 빚음
- 당초 2004년도 세입 예산 편성시 소극장 임차사업(학전블루 소극장) 세입 예상액 1억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소극장 임차운영사업은 기획예산처의 예산심의시 관련 예산액 삭감으로 인해 폐지되었으나 세입 예산에는 고려되어 있지 못하였으며,

- 2004년도 예산 계획시 약 3개월간의 공사가 예상되었으나 설계작업시 5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대관료 및 기획공연 관련 세입계획차질 발생

5) 시설관리

- 대극장 천정 및 객석 교체 공사 실시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객석불편사항에 대해 상당 수준 개선
- 공연준비과정에서의 작업요원 부상 및 공연 도중 객석 천정으로부터 낙하물에 의한 관객이 부상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향후 시설 교체 및 기능 취약 부분 지속 개선을 위한 투자 필요.

※ 참고 : 2004년 예술극장 소극장 대관공연 현황

순번	월/일	단체명	공연작품명	분야	대관 일수	공연 횟수
1	1.2 - 1.4	한국서도소리연구보존회	황해도 철몰이 굿	전통	3	4
2	2.3 - 2.22	극단 작은신화	채플린, 지팡이를 잃어버리다	연극	20	25
3	2.23 - 3.14	극단 차이무	양덕원 이야기	연극	21	29
4	3.15 - 3.28	극단 돌곶이	미생자	연극	14	17
5	3.29 - 4.15	극단 성좌	달의 뒤쪽	연극	18	25
6	4.16 - 4.20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	제4회 크로스오버 즉흥춤페스티벌	무용	5	4
7	4.21 - 5.2	한국현대무용협회	Modafe 2004	무용	12	9
8	5.3 - 5.16	한국연극협회	서울연극제 2004	연극	14	20
9	5.17 - 5.30	극단 파티	자객열전	연극	14	16
10	5.31- 6.13	극단 비파	호텔 피닉스에서 잠들고 싶다	연극	14	14
11	6.14 - 6.15	김유경류 봉산탈춤보존회	김유경류 봉산탈춤 제11회발표회	전통	2	2
12	7.12 - 7.19	한국무용협회	2004 젊은 안무자 창작공연	무용	8	6
13	7.20 - 7.25	아시테지	아시테지 2004	연극	6	8
계					151	179

※ 참고 : 2004년 예술극장 대극장 대관공연 현황

순번	월/일	단체명	공연작품명	분야	대관일수	공연횟수
1	1.1 - 1.11	극단 맥토	동승동 연가2	뮤지컬	11	18
2	1.12 - 1.16	사)한국현대무용진흥회	제9회 바느레국제서울안무대회	무용	5	3
3	1.17 - 1.18	정귀인부산현대무용단	흙으로 빛은 인형	무용	2	2
4	1.19 - 1.21	문화관광부	중국 길림성 예술단 초청공연	음악,전통	3	2
5	1.24 - 1.26	김영미 무용단	동물원 이야기	무용	3	2
6	1.27 - 2.1	극단 갯가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연극	6	6
7	2.2 - 2.18	극단 모시는 사람들	블루 사이공	뮤지컬	17	18
8	2.20 - 2.22	조흥동 무용단	조흥동의 춤 반세기 공연	무용	3	2
9	2.23 - 2.29	서울예술단	소용돌이	음악,전통	7	6
10	3.1 - 3.14	극단 미학	파우스트	연극	14	23
11	3.15 - 3.18	한국현대춤협회	2004 현대춤작가 12인전	무용	4	3
12	3.19 - 3.23	극단 예맥	그날에, 그날에	연극	5	5
13	3. 24	고은시낭송회	고은시낭송회	기타	1	1
14	4.12 - 4.18	극단 서울	길	연극	7	6
15	4.19 - 4.20	한국현대춤협회	2004 현대춤작가 12인전	무용	2	1
16	4.19 - 5.2	한국현대무용협회	Modafe 2004	무용	12	10
17	5.3 - 5.23	한국연극협회	서울연극제 2004	연극	21	25
18	5.24	세종국악관현악단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새싹들의 울림소리	국악	1	1
19	5.25 - 5.27	손인영 NOW무용단	아바타 처용2	무용	3	2
20	5.28 - 5.29	문화세상 이프토피아	어머니의 정원을 찾아서	기타	2	1
21	5.30 - 6.1	국제무용협회	세계음악과 만나는 우리 춤	무용	3	2
22	6.2 - 6.7	댄스포럼	평론가가 뽑은 제7회 젊은 안무가 창작공연	무용	6	4
23	6.8 - 6.27	한국무용협회	서울무용제 2004	무용	20	13
24	6.28 - 7.11	극단 아리랑	천상시계	뮤지컬	14	13
25	7.12 - 7.15	김복희무용단	우리시대의 새	무용	4	2
26	7.16 - 7.21	아시테지	아시테지 2004	연극	6	7
27	12.28 - 12.29	김운규무용단	숫나기 (올해의 예술상 수상)	무용	2	1
28	12.30	슬기둥		음악	1	1
계					185	180

## ■ 마로니에미술관

### 가. 시설운영목표 및 기본방침

#### ○ 시설운영목표

- 하드웨어(시설운영), 소프트웨어(프로그램운영), 시스템(조직·인력 운영체제) 등 미술관 운영 전반에 걸쳐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체질 개선을 통한 위상과 자신감의 회복
- 전시·프로그램 운영의 다각화 및 기획력 강화를 통한 『동시대 예술창작의 중심, 국제교류의 창구 및 복합미술지원센터』로서 마로니에미술관의 정체성 정립
- 단순 전시공간 개념을 탈피, 미술 및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 마련
- 마로니에미술관 제2차 중장기 발전계획(가칭 'Visual Space 2006') 수립 및 실질적 구현을 위한 여건 조성
  - ※ 제1차 중장기 발전계획 : 미술관 운영개선안(2000), 문예진흥원 중장기발전계획(2001)

#### ○ 기본방침 및 중점추진과제

- 예술의 새로운 조류의 적극적·능동적 수용
  - 장르 해체·퓨전화 및 첨단 테크놀로지 환경의 전시공학적 수용력 확대
  - 주류예술의 범주와 개념, 표현 양식을 재해석하고 비제도권, 기성 예술의 주류에 속하지 않는 다양하고 새로운 예술 행위의 발굴·운영
  - 미술 신진인력 육성 및 실험적·선도적 창작활동의 텃밭 제공
- 사회문화적 담론의 생산·교류를 위한 거점 기지화(네트워크 허브 기능)
  - 인적교류 및 정보·프로그램 교류의 아지트 구축
  -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새로운 활력과 가능성을 선도하는 전진기지화 구현
- 국제교류의 창구로서 권역별 교류거점 확충 및 안정적 협력 채널 구축
  - 국제교류 다변화 및 전략적 추진 기반 마련
  - 기존 북미·서유럽 중심 교류방식 지양, 아시아·동구권·아프리카·남미 등으로 교류 대상지역 다변화 추진
  - 안정적, 항구적 교류협력 채널 구축을 위한 교류 추진성과의 피드백 강화

- 미술관 운영의 브랜드 마케팅 역량 강화
  - 일반대관전 폐지 및 자체 기획프로그램 전면 시행에 따른 미술관 운영의 새로운 전기 마련
  - 전시기획 · 프로그램 운영의 브랜드 전략 구현
  - 시설 및 조직 · 인력 운영 시스템의 이미지 통합 리노베이션 추진

## 나. 세부사업추진실적

### 1) 미술관 운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공원 프로젝트’ 지속 추진 및 시범사업 운영
  - 미술관 운영 제2차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완료
    - 연구사업명 : 마로니에프로젝트(마로니에미술관 및 인사미술공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연구기관 :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 연구진 : 박신의(책임연구원), 김성원, 이영범, 하계훈(연구원) 및 자문위원
    - 연구기간 : 2004.3.8~4.20(약 1개월)
  - 미술관 관객 조사 프로젝트 수립 완료
    - 연구사업명 : 마로니에미술관 관객조사 연구
    - 연구기관 : 동덕여자대학교 큐레이터학과
    - 연구진 : 양지연(책임연구원), 김남학, 정지연(연구원)
    - 연구기간 : 2004.7.31~12.20(약 5개월)
  - 프로그램 운영의 다각화 및 콘텐츠 확충
    - 미술관 활력 프로그램 : Red Brick Challenge 프로그램 ‘한도시 이야기 9404’(2004.5.26~6.9, 전관)
    - 미술관 활력 프로그램 : MACTOPIA 윤보라의 ‘From Alice’ (2004.8.27-9.19, 소갤러리), 구정연 · 임경용의 ‘발칸영화 상상하기’(2004.12.3~2005.2.3, 세미나실)
    - Laboratory & Factory 프로그램 : 비닐하우스AA(조성묵) ‘대안미술 워크숍 2004’(2004.3월~6월, 세미나실)
  - 아카이브 기능 강화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연구 및 창출
    - 아카이브 전용 공간 재구성(2004.2~3월)
    - 소장자료 분류·정비 추진 완료(2004.12월)
  - 미술관 인지도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브랜드 표식 특성화 구현
    - 미술관 전시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안내 브로슈어(국문 30,000부·영문 5,000부) 제작(2004.5월)

- 미술관 운영 분임조직 체제 구축 및 학예기능 강화
  - 미술관 운영의 기능별 분임 팀제 및 업무 분장 정비 추진
    - 운영지원실 : 행정관리 및 시설운영팀, 기술지원팀
    - 프로그램운영실 : 전시기획 및 학예팀, 프로그램 개발·운영팀
    - 아카이브 운영실
    - 인사미술공간 운영
  
- 전략적 컬렉션 운영 및 중장기적 소장작품 구입 방안 마련
  - 소장작품 지역순회전 추진
    - 일정·장소 : 2004.4.13~4.30(18일), 경남 거창문화센터
    - 대상작품 : 역대 대한민국미술대전 수상작품 66점
    - 관객수 : 5,800여명(1일 평균 322명)
  - 신규 소장작품 구입
    - 소장작품 구입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 2004.11.5(금)  
(심의위원 : 사무총장-위원장, 김학량, 박혜경, 심상용, 유난지, 정현이, 하계훈, 미술관장)
    - 구입작품 : 민정기의 '풍요의 거리' 등 총 12점
    - 수증작품 : 민정기의 '통방산' 기증작품 및 대한민국미술대전 작품 3점 등 총 4점
  - 소장 미술작품 대여 및 활용(360점)
    - 외부대여 : 45점(통일부 5, 문광부 1, 문화진흥(주) 39점)
    - 자체활용 : 45점(본관 16, 예술극장 11, 연수원 15, 정보관 3점)
    - 수장고 : 270점
  
- 각종 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 국제교류분과 위원 위촉 및 면담 추진
    - 대상 : 주한독일문화원장(우베 슈멜터, Uwe Schmelter)
    - 면담일시·장소 : 2004.4.26(월) 14:00, 주한독일문화원(후암동 소재)
    - 주요 면담내용 : 2005년 국제교류기획전시(해외전시) 관련 프랑크푸르트도서전(주빈국:한국) 및 베를린 아태주간(테마국가:한국) 운영 정보 자문 등
  - 전시분과운영자문위원회 개최
    - 자문위원 : 김학량, 박신의, 심상용, 전영백
    - 1차 회의개최 : 2004.7.27(화), 독립신진큐레이터육성프로그램 선정 등
    - 2차 회의개최 : 2004.9.22(수), 2005년도 전시 기획 및 주요사업 추진방안 자문 등

## 2) 전시프로그램 운영 영역 확장 및 네트워크 허브 기능 강화

### ○ 주제기획전(연간 2회)

- 주제기획전 I '이야기하는 벽, Talking to the Wall'
  - 일정·장소 : 2004.2.10~3.11(27일), 마로니에미술관 전관
  - 참여작가 : 강선미 등 12명
- 주제기획전 II '구름, Rolling Space'
  - 일정·장소 : 2004.6.23~7.31(34일), 마로니에미술관 전관
  - 참여작가 : 김미형 등 9명(팀)

### ○ 기획초대전(연간 중진작가초대전 4회, 대표작가초대전 1회)

- 중진작가초대전 I, II : 2004.3.26~4.25
  - 제1전시실 : 홍명섭 '수평에의 의지, Horizontality'
  - 제2전시실 : 윤성진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Par Lui, Pour Lui'
- 중진작가초대전 III, IV : 2004.8.10/11~9.19
  - 제1전시실 : 이형주 '선(線)'
  - 제2전시실 : 오정미 'Imagine,,,'
- 대표작가초대전 : 본 것을 걸어가듯이-Walkscape
  - 초대작가 : 민정기
  - 일정·장소 : 2004.10.1~11.14(39일), 마로니에미술관 전관 및 콘테이너

### ○ 독립·신진 큐레이터 육성 프로그램(연간 공모지원 4회, 발굴지원 2회)

- 공모지원(4건) : 고원석, 김성희, 김학범, 최빛나
  - 고원석 '유즈 유어 일루전, Use your illusion'(2004.3.18~4.11, 소갤러리)
  - 김성희 '미녀와 야수, Media Performance of 'la Belle et la Bete' (2004.4.14~5.2, 소갤러리)
  - 김학범 '진실 카메라'(2004.5.7~5.16, 소갤러리)
  - 최빛나 '전단 프로젝트'(2004.8.5~8.22, 소갤러리)
- 'MACTOPIA' 추진대상 발굴·선정(2건)
  - 윤보라 'From Alice'(2004.8.27~9.19, 소갤러리)
  - 구정연 '발칸영화전 - 발칸영화 상상하기'(2005.12.4~2005.2.3, 12회, 세미나실)
- 2005년도 공모 지원 대상 선정(3건)
  - 선정일자 : 2004.7.27(화)
  - 선정위원 : 전시분과 운영자문위원 (김학량, 박신의, 심상용, 전영백)
  - 지원대상 : 김재은 '커버스토리전', 서정신 'Triple Reality', 채은영 '무거운 근대'
  - 지원금 : 15,000,000원 (건당 5,000,000원)

- 미술관 활력 프로그램 'Red Brick Challenge'(연간 1회)
  - 사업명 : 한도시 이야기 9404
  - 기간·장소 : 2004. 5. 26~6. 9, 마로니에미술관 전관
  - 주관 : '한도시 이야기 9404'기획위원회(김선정)
  
- 네트워킹 프로그램 'Laboratory & Factory'(연중 수시)
  - 교육연수 프로그램 발굴·유치
    - 사업명 : 대안미술 워크숍 프로젝트 2004
    - 기간·장소 : 2004. 3월~6월(매주 수요일 14:00-17:00), 세미나실
    - 주관 : 비닐하우스AA(조성묵)
    - 사업내용 : 현대미술분야 집중탐구 및 실험적인 창작프로그램 교육 실시
  - 세미나실 운영
    - 상설예술강좌 : 연극(목) 18회, 문학(금) 22회
    - 대관 : 6건(유료 5건, 무료 1건)

### 3) 국제교류 다각화 및 교류협력 채널 구축

- 국제교류기획전시(해외작가 국내전시)
  - 전시명 : 새로운 과거 (a New Past)
  - 일정·장소 : 2004.12.3~2005.2.3, 마로니에미술관, 인사미술공간
  - 참여작가 : Milica Tomic 등 발칸지역 5개국 14명(팀), 노재운 등 3명(팀)
  - 현지 사전조사 : 2004.4.4~4.15, 슬로베니아 등 구 유고연방 일원
  
- 한국미술소개자료해외배포
  - 한국미술소개자료해외배포(2004.3월)
    - 대상자료 : 2003~2004년도 마로니에미술관 기획전시 도록 및 미술관 소개자료 (2003년 증진작가초대전 '공원 쉼표 사람들'전 등 3종)
    - 배포처 : 네덜란드 미디어 아트 인스티튜트 등 13개 지역 23개처
  - 미술자료 교류협력 약정 체결(2004.3.18)
    - 대상처 : 네덜란드 미디어 아트 인스티튜트(NMAI)
    - 교류조건 : 영상·미디어(싱글채널 비디오) 작품 상호교류 및 아카이브 구축·활용
    - 대상자료 : 외부단체(블라인드사운드)와 협력하여 작품 선정(9점) 및 DVD 제작

#### 4) 신진 전시기획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Curatorial Training Program·CTP)

##### ○ 강사진 위촉·구성

- 담임강사 : 백지숙(미술관 수석큐레이터)
- 전담강사 : 김령, 김선정, 김성원, 양지연, 조송식, 주은우, 정현이
- 초청강사 : 큐레이터(Yuki Kamiya, 이지은), 작가(Miltos Manetas, Jens Hanning, Jan Christensen)

##### ○ 수강생 모집공고 및 선발

- 수강생 모집공고 : 2004.3.10~3.31
- 신청인원 : 35명
- 수강생 선발(2004.4월) : 1·2차 서류전형(학예실 및 강사진), 3차 면접전형(강사진)
- 선발인원 : 강일권 등 7명
- 강의 추진 : 연간 총 56회(2004.4월~11월)

#### 5) 관객 개발 프로그램 운영

##### ○ 어린이미술교실

- '발자국 소리가 큰 아이들' 운영
  - 수강회원 : 연 2,321명(2004.1월~12월)
  - 수강료 수입 : 1인당 월 150,000원 / 연간 308,356,000원(a)
  - 운영경비 : 155,706,000원(b)
  - 수익금 배분 : 83,957,000원[(a-b)x55%]
  - \* 작품발표회(2004.5.4~5.16(12일), 마로니에미술관 제1·2전시실)
- 어린이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 주제기획전 I '이야기 하는 벽' : 모자이크 벽화(2004.2.10~3.11, 매주 수·금요일 14:00~) 및 미술관 외벽 벽화제작 프로그램(2004.3.8~4.4)
  - 주제기획전 II '구름' : 몸과 미로(2004.6.23~7.31, 매주 수요일 15:30~) 및 공간과 미로(2004.6.23~7.31, 매주 금요일 15:30~)
  - 대표작가초대전 '본 것을 걸어가듯이' : 체험풍경(2004.10.1~11.14, 매주 수요일 15:30~)

##### ○ 관객 체험·참여 프로그램 운영

- 주제기획전 I '이야기 하는 벽'
  - 소리 퍼포먼스 및 도슨트 프로그램 운영(매주 토·일요일 14:00~)

- 주제기획전Ⅱ '구름'
  - <LOST> 프로그램
  - 도슨트 프로그램(매일 14:00, 17:00)
- 대표작가초대전 '본것을 걸어가듯이'
  - 기행 프로그램 <화가 M씨와 함께 가는 벽계구곡> (2004.10.15.)
  - 작가 방담 프로그램 <회화의 경지> (2004.11.9.)
  - 도슨트 프로그램(매일 14:00, 17:00)

○ 학교연계프로그램

- 중진작가전 오정미 'Imagine..' : '작품할까 요리할까'(학교 개별섭외 진행)
- 대표작가초대전 '본 것을 걸어가듯이' : '그때로 멈춰라'(매주 금 15:30)

6) 인사미술공간 운영의 안정성 및 기획역량 강화

○ 기획초대전(연간 15회)

- 2003년도 이월전시 : 박성훈 개인전 등 7건(2004.1.3~2.22, 건당 2주 내외)
- 2004년도 기획초대전 : 김신일 개인전 등 15건(2004.3.17~2005.3.27, 건당 3주 내외)
  - ※ 2004년도 이월전시 : 천민정 개인전 등 3건(2005.1.19~3.27, 건당 3주 내외)

○ 주제기획전

- 2003년도 주제기획전
  - 전시명 : 사년 2000-2004(인사미술공간 4주년 기념전)
  - 일정 : 2004.2.25~3.14
  - 참여작가 : 오유영 등 8명
- 2004년도 주제기획전
  - 전시명 : 새로운 과거 a New Past
  - 일정 : 2004.12.3~2005.2.3
  - 참여작가 : Milica Tomic 등 발칸지역 5개국 1명(팀), 노재운 등 3명(팀)

○ 2005년도 기획공모전 선정

- 선정일자 : 2004.10.6(수)
- 선정위원 : 김혜경, 심혜련, 윤동천, 이용백
- 지원대상 : 옥정호 개인전 등 13건
- 지원금 : 26,000,000원 (건당 2,000,000원)

○ 인사미술공간 운영

- 운영인력 신규 채용 : 1명

## 다. 2004년 마로니에 미술관 자체 평가

### 1)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추진실적 성과평가

- 2004년 도중 미술관 운영의 중점 추진과제로 '미술관 운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6개 과제를 설정하였으며, 각 과제별 세부추진과제의 별도 지정을 통한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음.

#### - 미술관 운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일반대관전 폐지, 자체기획 프로그램의 전면 시행 및 미술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미술관 운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음.
- 2004년도 신규 반영된 '공원 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활용하여 당초 계획에 따라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Red Brick Challenge 프로그램 운영 및 브랜드 표식 구축(국·영문 전시안내 브로슈어 제작 등) 등 3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경쟁력 강화 기반을 조성하였음.
- 2004년 하반기에 미술관 관객 조사를 완료함에 따라 향후 관객 개발 프로그램 및 마케팅 전략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미술관 운영 체질 개선을 위한 분임 조직 등 인력 운영 체제를 시범 도입하였으나 그 시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2005년도 사업 계획시 중장기발전계획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이행점검 체크 리스트 개발이 요구됨.
- 특히 중장기발전계획 이행의 일환으로 소장품 구입 기능의 체계화 및 소장품 관리운영 체제 정비 등 소장품 운영 전반에 걸친 소장품 정책 수립이 절실함.

#### - 전시 프로그램 운영 영역 확장 및 네트워크 허브 기능 강화

- 주제기획전 2건, 중진작가초대전 4건, 대표작가초대전, 독립·신진 큐레이터 육성 프로그램 6건, '발자국 소리가 큰 아이들' 발표전시, Red Brick Challenge '한도시 이야기 9404' 전시, 국제교류기획전시 추진으로 연간 총 16건의 전시를 완료하였음.
- 특히 전시 기획 중 '발자국 소리가 큰 아이들' 발표전시, 독립·신진 큐레이터 육성 프로그램의 '미녀와 야수' 전시, '한도시 이야기 9404' 및 '중진작가초대전-이형주 선(線), 오정미- imagine' 등 5개 전시는 관객 유치 실적 등에서 미술관 활성화를 위한 전시기획의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하였음.

- 다만, 2004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 독립·신진 큐레이터 육성 프로그램은 당초 면밀한 심의 과정을 거친 기획공모형 사업으로 시행하였으나 실제 전시추진에 있어 일부 전시가 기획내용 및 전시운영 역량에 있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야기되었음.
- 향후 미술 인접 장르의 폭넓은 수용 및 시각문화 전반에 걸친 전시 기획 프로그램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과 함께 '독립·신진 큐레이터 육성 프로그램'의 경우 공모형 및 발굴형(MACTOPIA) 사업의 병행 추진 및 전시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운영체제 정비를 통해 역량 있는 신진 전시기획 인력의 발굴 육성 및 미술관 활성화 등 사업취지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강화가 요구됨.
- 2004년도 미술관 운영의 네트워크 허브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새롭게 마련된 네트워킹 프로그램 'Laboratory & Factory'의 경우 당초 지원대상 단체중 1개 단체의 사정으로 인해 비닐하우스AA(조성묵)의 '대안미술 워크숍 프로젝트 2004' 1개 사업 추진되었음.
- 동 사업은 단순 전시공간으로서의 미술관 개념을 탈피 미술관 세미나실 등 부대공간 및 시설장비의 임대지원을 통해 다양한 담론의 생산 거점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하였으나 추진사업이 소수의 회원대상 교육연수에 국한되어 운영되는 등 당초의 사업취지를 달성하기에는 다소 미흡하였음.

#### - 국제교류 다각화 및 교류협력 채널 구축

- 2004년도 상반기중 2003년도 국제교류기획전시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네덜란드 미디어 아트 인스티튜트(NMAI)와의 교류협력 약정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럽 지역 영상 미디어 아트의 거점 공간과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교류협력 채널을 구축하였음.
- 향후 동 교류협력 채널을 통해 우리 미술계의 역량 있는 영상 미디어 작가의 해외소개 및 유럽 지역 영상 미디어 작품의 국내소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적극적 운영 전략 수립이 요구됨.
- 또한 이는 마로니에미술관 아카이브 운영 및 작품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과 연계되어 국제 교류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함.
- 국제교류기획전시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중장기 전략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큐레이터가 국제적으로 협력 채널을 구축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 - 신진 전시기획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CTP)

- 2004년도 상반기중 신진 전시기획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신규 개설하여 7명의 수강생 선발 및 50회 이상의 강의 추진을 완료하였음.

- 1년 동안 이론 강의 위주로 커리큘럼이 운영되어 강의의 집중도와 효과성이 후반기부터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으며 현장 교육 및 전시 구현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수강생의 요청이 있었음.
- 향후 이론 교육과 연계된 현장 실습 교육 확충 및 실제 전시기획 추진 동기 부여 등을 통한 성과관리방안의 적극적 추진이 요구됨.

#### - 관객 개발 프로그램 운영

- ‘발자국 소리가 큰 아이들’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수익금 83,957천원을 달성하였으며 이는 성과목표의 98,9%에 해당되며 사회 전반적인 경제 상황으로 8월 이후 수강생 수가 줄어든 것이 주요인이라고 판단됨.
- 동 사업 외에도 작품발표회 추진시 진행경비의 자체 조달 등을 통해 수익성 강화 노력을 적극 추진하였음.
- 아울러 별도의 전시기획과 연계된 어린이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및 관객 체험·참여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통해 미술관 사회교육 기능 강화 및 관객 개발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전개하였음.
- 향후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 기관과의 공동기획 프로그램 운영 및 자체 프로그램 개발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 인사미술공간 운영의 안정성 및 기획역량 강화

- 2004년도 당초 계획에 따라 기획초대전 19건(2003년도 이월전시 7건, 2004년도 전시 12건) 및 주제기획전 2건의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전시기획 인력(큐레이터) 보강(1명)을 통해 기획역량 제고를 위한 인적 기반을 강화하였음.
- 다만, 당초 국제 대안공간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예정된 ‘국제 대안공간 심포지움 참가’의 경우 마로니에미술관 ‘국제교류기획전’과 공동 추진으로 대체되었음.
- 아울러 인사미술공간 운영의 새로운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운영개선 방안을 완료함에 따라 이에 따른 세부 추진 계획 수립이 필요함.

## 2) 관객 개발 성과평가

- 마로니에미술관 관객 현황 분석에 있어 그간 미술관 관객 규모 산정 방법의 변경 및 관람료 무료에 따른 관객 규모 산정의 부정확성 요인 내재 등

으로 인해 연차별 관객수의 시계열적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실정임.

- 특히 2004년도부터 일반대관전 폐지 및 자체기획전시의 전면 시행 등 전시 운영 체제의 변경으로 인해 이전의 관객 분석 내용을 차용함은 그 유의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2004년도부터 관객 분석에 있어 매 전시별 분석과 함께 일정별 분석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관객 규모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코자 하였으며 2004. 6월중 주제기획전Ⅱ ‘구름’ 전시 추진시부터 별도의 입장권(무료) 발급을 통해 관객 수 측정 방법을 좀 더 정교하게 정비하였음.
- 2004년도 전체 관람객은 66,125명, 전시장 운영일수 233일로 1일 평균 관람객 규모는 283명으로 2003년도 194명 대비 146%로 자체기획전시 전면 시행에 따라 관객 규모는 점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독립·신진 큐레이터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된 ‘미녀와 야수’ 전시일정(2004. 4.14 ~5.2, 소갤러리) 이후 ‘발자국 소리가 큰 아이들’ 및 ‘한 도시 이야기 9404’ 등 복합장르 전시기획이 집중적으로 추진된 5월~6월중 관객 규모 증가 현상이 나타남.
- 또한 8,9월 같은 기간에 전시된 중진작가초대전 오정미의 imagine, 이형주의 선(線)은 각 전시별로 1일 평균 274명, 242명이 관람함에 따라 최대 관객수를 기록했으며 이는 두 전시가 일반 관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재로 이루어진 전시인 동시에 여름 방학 기간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많이 관람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향후 전시기획 추진에 있어 다양한 장르의 시각문화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전시기획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관객 개발 전략 마련과 함께 관객 조사 기법의 체계적 정비가 요구됨.
- 2005년도부터 미술관의 재정자립도를 위하여 입장료 유료화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시범적으로 2004년 국제교류기획전시 ‘새로운 과거’에 일반인 기준 2,000원의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으나 이로 인하여 관람객 수의 하락을 가져옴.
- 이는 입장료 유료화에 따른 홍보 부족, 국제교류전시의 내용 및 성격 등으로 인한 요인도 있을 수 있으나 2005년 입장료 가격 책정 등에 있어 세심한 전략이 필요함.

### 3) 종합평가

- 2004년도 운영목표 및 기본방침에 의거 설정된 6개 중점추진과제와 그에 따른 19개 세부추진과제는 전반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되었음.

- 2004년도의 경우 지난 25년간 미술관 운영의 기본적 토대였던 일반대관전이 폐지되고 자체기획전시 프로그램의 전면 시행된 원년인 점을 감안할 때 그 시행에 있어 일부 시행착오 및 사업운영의 안정적 기반이 다소 취약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2004년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추진결과를 토대로 과도기적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미술관 운영의 안정적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함이 요구됨.
- 특히 2004년도 완료된 미술관 중장기발전계획의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구현을 위한 연차별 추진전략 마련과 함께 2005년도 문예진흥기금 운용계획 확정 절차 진척 상황을 고려한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수립이 요구됨.
- 아울러 2005년도부터 시행이 예정된 관람료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 참가 유료화를 대비한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이 절실함.

※ 참고 : 2004년도 마로니에미술관 전시실 운영 현황

일 자	제1전시실(140평)	제2전시실(140평)	소갤러리(40평)	전시운영일	
1. 1 - 1. 5	전시장 정비(19일)				
1. 6 - 1.12					
1.13 - 1.19					
1.20 - 1.26	작품설치 및 작가 워크숍(21일)				
1.27 - 2. 2					
2. 3 - 2. 9					
2.10 - 2.16	주제기획전 I 「이야기 하는 벽, Talking to the wall」			27일(전관)	
2.17 - 2.23					
2.24 - 3. 1					
3. 2 - 3. 8					
3. 9 - 3.11					
3.12 - 3.25	작품철거·설치(14일)		작품철거·설치(3.16~3.17, 2일)	○제1·2전시실 : 39일 - 중진 : 27일 - 발자국 : 12일 ○소갤러리 : 48일 - 고원석 : 22일 - 김성희 : 17일 - 김학범 : 9일	
3.26 - 3.27	중진작가초대전 I 「홍명섭 개인전 Horizontality」	중진작가초대전 II 「윤성진 개인전 Par Lui, Pour Lui」	독립·신진 I (3.18~4.12) 「고원석 '유즈 유어 일루전」		
3.30 - 4. 5			작품철거·설치(4.13, 1일)		
4. 6 - 4.12			독립·신진 II (4.14~5.2) 「김성희 '미녀와 야수」		
4.13 - 4.19			작품철거·설치(5.3~5.6, 4일)		
4.20 - 4.25			독립·신진 III (5.7~5.16) 「김학범 '진실 카메라」		
4.26 - 5. 3	작품철거·설치(8일)				
5. 4 - 5.10	「발자국 소리가 큰 아이들」				
5.11 - 5.16					
5.17 - 5.24	작품철거·설치(8일)				16일(전관)
5.25 - 5.31	미술관 활력 프로그램 'Red Brick Challenge' 「한도시 이야기 9404」				
6. 1 - 6. 9					
6.10 - 6.14	작품철거·설치 및 작가 워크숍(13일)				
6.15 - 6.22					
6.23 - 6.28					
6.29 - 7. 5	주제기획전 II 「구름, Rolling Space」			34일(전관)	
7. 6 - 7.12					
7.13 - 7.19					
7.20 - 7.26					
7.27 - 7.31					
8. 1 - 8. 4	작품철거·설치(10/11일)		작품철거·설치(4일)	○제1전시실 : 35일 ○제2전시실 : 36일 ○소갤러리 : 37일 - 최빛나 : 16일 - 윤보라 : 21일	
8. 5 - 8. 9	중진작가초대전 III (8.11~9.19) 「이형주 개인전 선(線)」	중진작가초대전 IV (8.10~9.19) 「오정미 개인전 Imagine...」	독립·신진 IV (8.5~8.22) 「최빛나 '전단 프로젝트」		
8.10 - 8.16			작품철거·설치(4일)		
8.17 - 8.22			미술관 활력 프로그램 (8.27~9.19) 「윤보라 'From Alice」		
8.23 - 8.26					
8.27 - 8.30					
8.31 - 9. 6					
9. 7 - 9.13					
9.14 - 9.19					
9.20 - 9.27	작품철거·설치(11일)			39일(전관)	
9.28 - 9.30					
10. 1 - 10. 4	대표작가초대전 (10.1~11.14) 「민정기전 '본 것을 걸어가듯이」				
10. 5 - 10.11					
10.12 - 10.18					
10.19 - 10.25					
10.26 - 11. 1					
11. 2 - 11. 8	작품철거·설치(18일)				
11. 9 - 11.14					
11.15 - 11.22					
11.23 - 11.29				25일(전관)	
11.30 - 12. 2	국제교류기획전 (2004.12.3~2005.2.3) 「새로운 과거」				
12. 3 - 12.13					
12.14 - 12.20					
12.21 - 12.27					
12.28 - 12.31					

※ 참고 : 2004년도 마로니에미술관 관람객 현황

(단위 : 명)

일 정	요일	일정별·전시실별 관람객수				전시별 관람객수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소갤러리	계	전 시 명	관객수
2004. 2.10	화	413	433	380	433	* 자체기획① 이야기하는 벽(2.10-3.11)	6,200
2004. 2.11	수	152	167	158	167		
2004. 2.12	목	161	163	171	171		
2004. 2.13	금	172	162	166	172		
2004. 2.14	토	218	222	211	222		
2004. 2.15	일	228	232	324	324		
2004. 2.17	화	253	258	226	258		
2004. 2.18	수	259	211	216	259		
2004. 2.19	목	203	201	206	206		
2004. 2.20	금	337	282	277	337		
2004. 2.21	토	286	221	233	286		
2004. 2.22	일	154	94	159	159		
2004. 2.24	화	194	157	181	194		
2004. 2.25	수	199	187	183	199		
2004. 2.26	목	223	222	224	224		
2004. 2.27	금	268	238	230	268		
2004. 2.28	토	251	289	249	289		
2004. 2.29	일	216	178	218	218		
2004. 3. 2	화	154	160	164	164		
2004. 3. 3	수	171	165	169	171		
2004. 3. 4	목	139	159	134	159		
2004. 3. 5	금	176	152	167	176		
2004. 3. 6	토	214	187	222	222		
2004. 3. 7	일	377	394	292	394		
2004. 3. 9	화	155	155	158	158		
2004. 3.10	수	167	154	168	168		
2004. 3.11	목	191	179	202	202		
2004. 3.18	목			120	120	* 독립신진① 고원석(3.18-4.11)	2,711
2004. 3.19	금			65	65		
2004. 3.20	토			127	127		
2004. 3.21	일			104	104		
2004. 3.23	화			47	47		
2004. 3.24	수			63	63		
2004. 3.25	목			73	73		
2004. 3.26	금	160	270	171	270	* 중진작가①,② 홍명섭,윤성진(3.26-4.25)	4,474
2004. 3.27	토	252	252	227	252		
2004. 3.28	일	216	236	179	236		
2004. 3.30	화	108	102	89	108		
2004. 3.31	수	110	71	95	110		
2004. 4. 1	목	97	69	113	113		
2004. 4. 2	금	141	86	117	141		
2004. 4. 3	토	120	120	154	154		
2004. 4. 4	일	297	212	214	297		
2004. 4. 6	화	53	32	46	53		
2004. 4. 7	수	109	83	66	109		
2004. 4. 8	목	53	51	55	55		
2004. 4. 9	금	114	67	92	114		
2004. 4.10	토	285	250	223	285		
2004. 4.11	일	255	249	271	271		
2004. 4.13	화	91	86		91		
2004. 4.14	수	104	110	130	130	* 독립신진② 김성희(4.14-5.2)	3,509
2004. 4.15	목	304	308	393	393		
2004. 4.16	금	79	75	150	150		
2004. 4.17	토	184	185	310	310		
2004. 4.18	일	225	184	205	225		
2004. 4.20	화	98	107	190	190		
2004. 4.21	수	106	83	114	114		

2004. 4.22	목	67	44	142	142		
2004. 4.23	금	92	104	137	137		
2004. 4.24	토	223	192	370	370		
일 정	요일	일정별·전시실별 관람객수				전시별 관람객수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소갤러리	계	전 시 명	관객수
2004. 4.25	일	166	177	212	212		
2004. 4.27	화			83	83		
2004. 4.28	수			155	155		
2004. 4.29	목			208	208		
2004. 4.30	금			202	202		
2004. 5. 1	토			432	432		
2004. 5. 2	일			76	76		
2004. 5. 4	화	424	520		520	♦ 공동기획① 발자국 소리가 큰 아이들(5.4-5.16)	7,419
2004. 5. 5	수	1,605	1,610		1,610		
2004. 5. 6	목	345	310		345		
2004. 5. 7	금	330	342	126	342	♦ 독립신진③ 김학범(5.7-5.16)	939
2004. 5. 8	토	435	378	93	435		
2004. 5. 9	일	425	404	64	425		
2004. 5.11	화	215	184	63	215		
2004. 5.12	수	220	248	69	248		
2004. 5.13	목	570	565	78	570		
2004. 5.14	금	615	596	76	615		
2004. 5.15	토	1,065	1,074	197	1,074		
2004. 5.16	일	1,020	1,009	173	1,020		
2004. 5.25	화	1,000	1,000	1,000	1,000	♦ 공동기획② 한도시 이야기9404(5.25-6.9)	4,750
2004. 5.26	수	269	480	271	480		
2004. 5.27	목	119	210	114	210		
2004. 5.28	금	88	98	89	98		
2004. 5.29	토	400	503	388	503		
2004. 5.30	일	266	331	113	331		
2004. 5.31	월	95	104	97	104		
2004. 6. 1	화	95	198	137	198		
2004. 6. 2	수	198	155	151	198		
2004. 6. 3	목	192	14	111	192		
2004. 6. 4	금	182	137	86	182		
2004. 6. 5	토	386	388	220	388		
2004. 6. 6	일	246	274	165	274		
2004. 6. 7	월	100	123	83	123		
2004. 6. 8	화	105	117	68	117		
2004. 6. 9	수	207	352	259	352		
2004. 6.23	수				410	♦ 자체기획② 구름(6.23-7.31)	9,640
2004. 6.24	목				270		
2004. 6.25	금	90	98	96	284		
2004. 6.26	토	120	41	117	278		
2004. 6.27	일	136	84	108	328		
2004. 6.29	화	107	50	67	224		
2004. 6.30	수	128	39	122	289		
2004. 7. 1	목	71	44	76	191		
2004. 7. 2	금	67	47	52	166		
2004. 7. 3	토	132	74	142	348		
2004. 7. 4	일	161	83	91	335		
2004. 7. 6	화	87	64	60	211		
2004. 7. 7	수	156	116	147	419		
2004. 7. 8	목	65	88	82	235		
2004. 7. 9	금	145	68	68	281		
2004. 7.10	토	178	88	132	398		
2004. 7.11	일	105	102	82	289		
2004. 7.13	화	60	37	33	130		
2004. 7.14	수	86	74	123	283		
2004. 7.15	목	72	53	26	151		
2004. 7.16	금	42	28	143	213		
2004. 7.17	토	149	55	154	358		
2004. 7.18	일	96	72	42	210		
2004. 7.20	화	209	63	96	368		

2004. 7.21	수	138	75	111	324		
2004. 7.22	목	49	50	96	195		
2004. 7.23	금	101	40	63	204		
일 정	요일	일정별·전시실별 관람객수				전시별 관람객수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소갤러리	계	전 시 명	관객수
2004. 7.24	토	168	75	112	355		
2004. 7.25	일	123	74	68	265		
2004. 7.27	화	165	73	163	401		
2004. 7.28	수	196	43	145	384		
2004. 7.29	목	119	48	86	253		
2004. 7.30	금	113	78	81	272		
2004. 7.31	토	134	75	109	318		
2004. 8. 5	목			100	100	♦ 독립신진④ 최빛나(8.5-8.22)	1,240
2004. 8. 6	금			80	80		
2004. 8. 7	토			90	90		
2004. 8. 8	일			123	123		
2004. 8.10	화		102	43	145	♦ 중진작가③ 오정미(8.10-9.19)	9,855
2004. 8.11	수	200	200	45	445	♦ 중진작가④ 이형주(8.11-9.19)'	8,455
2004. 8.12	목	252	270	59	581		
2004. 8.13	금	218	238	74	530		
2004. 8.14	토	540	473	85	1,098		
2004. 8.15	일	428	457	78	963		
2004. 8.17	화	280	395	87	762		
2004. 8.18	수	282	292	52	626		
2004. 8.19	목	307	356	86	749		
2004. 8.20	금	504	531	79	1,114		
2004. 8.21	토	687	720	71	1,478		
2004. 8.22	일	351	419	88	858		
2004. 8.24	화	337	433		770		
2004. 8.25	수	173	205		378		
2004. 8.26	목	163	182		345		
2004. 8.27	금	150	182	150	482	♦ 독립신진⑤ 윤보라(8.27-9.19)	1,665
2004. 8.28	토	269	313	90	672		
2004. 8.29	일	333	367	85	785		
2004. 8.31	화	99	113	35	247		
2004. 9. 1	수	140	154	47	341		
2004. 9. 3	목	162	191	73	426		
2004. 9. 4	금	95	79	59	233		
2004. 9. 5	토	323	290	134	747		
2004. 9. 6	일	215	252	133	600		
2004. 9. 7	화	53	59	42	154		
2004. 9. 8	수	76	96	28	200		
2004. 9. 9	목	102	91	88	281		
2004. 9.10	금	92	132	48	272		
2004. 9.11	토	195	219	60	474		
2004. 9.12	일	97	152	51	300		
2004. 9.14	화	142	132	64	338		
2004. 9.15	수	92	87	68	247		
2004. 9.16	목	212	475	105	792		
2004. 9.17	금	489	510	102	1,101		
2004. 9.18	토	198	312	140	650		
2004. 9.19	일	199	376	63	638		
2004. 10. 1	금	105	100	100	305	♦ 대표작가 민정기(10.1-11.14)	8,650
2004. 10. 2	토	111	42	53	206		
2004. 10. 3	일	143	31	43	217		
2004. 10. 5	화	57	18	61	136		
2004. 10. 6	수	68	37	27	132		
2004. 10. 7	목	80	36	82	198		
2004. 10. 8	금	94	14	101	209		
2004. 10. 9	토	113	39	74	226		
2004. 10.10	일	133	41	82	256		
2004. 10.12	화	248	196	145	589		

2004. 10.13	수	151	81	129	361		
2004. 10.14	목	23	22	5	50		
2004. 10.15	금	96	64	77	237		
일 정	요일	일정별·전시실별 관람객수				전시별 관람객수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소갤러리	계	전 시 명	관객수
2004. 10.16	토	70	37	91	198		
2004. 10.17	일	69	41	57	167		
2004. 10.19	화	31	17	29	77		
2004. 10.20	수	52	18	61	131		
2004. 10.21	목	165	146	58	369		
2004. 10.22	금	189	132	179	500		
2004. 10.23	토	108	28	101	237		
2004. 10.24	일	71	33	79	183		
2004. 10.26	화	306	45	60	411		
2004. 10.27	수	64	24	39	127		
2004. 10.28	목	505	55	85	645		
2004. 10.29	금	60	12	37	109		
2004. 10.30	토	103	39	96	238		
2004. 10.31	일	75	56	56	187		
2004. 11. 2	화	46	12	21	79		
2004. 11. 3	수	74	19	46	139		
2004. 11. 4	목	43	12	44	99		
2004. 11. 5	금	45	12	59	116		
2004. 11. 6	토	83	39	74	196		
2004. 11. 7	일	124	37	104	265		
2004. 11. 9	화	141	7	39	187		
2004. 11.10	수	35	17	30	82		
2004. 11.11	목	106	8	60	174		
2004. 11.12	금	43	14	43	100		
2004. 11.13	토	112	49	95	256		
2004. 11.14	일	107	47	102	256		
2004. 12. 3	금		유료	무료	300	♦ 국제교류전 '새로운 과거'(12.3-2005.2.3)	1,464
2004. 12. 4	토		38	10	48		
2004. 12. 5	일		54	5	59		
2004. 12. 7	화		15	10	25		
2004. 12. 8	수		32	14	46		
2004. 12. 9	목		39	7	46		
2004. 12.10	금		118	4	122		
2004. 12.11	토		86	5	91		
2004. 12.12	일		40	8	48		
2004. 12.14	화		36	7	43		
2004. 12.15	수		21	13	34		
2004. 12.16	목		92	12	104		
2004. 12.17	금		21	2	23		
2004. 12.18	토		50	22	72		
2004. 12.19	일		55	16	71		
2004. 12.21	화		26	8	34		
2004. 12.22	수		10	10	20		
2004. 12.23	목		18	5	23		
2004. 12.24	금		11	7	18		
2004. 12.25	토		22	3	25		
2004. 12.26	일		41	8	49		
2004. 12.28	화		12	6	18		
2004. 12.29	수		34	8	42		
2004. 12.30	목		74	5	79		
2004. 12.31	금		23	1	24		
<b>총계</b>		<b>37,729</b>	<b>35,750</b>	<b>25,117</b>	<b>66,125</b>		
<b>1일평균</b>		<b>162</b>	<b>153</b>	<b>108</b>	<b>283</b>	<b>전시실 운영일수 : 233일</b>	

## ■ 예술정보관

### 가. 시설운영목표

- 서비스 개선 및 편의성 향상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문예 정보 자료 수집, 제작 및 보존
- 멀티미디어 전자도서관 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

### 나. 주요 사업별 추진실적

#### 1) 이용자 서비스 개선

- 회원 관외대출 서비스 개선
  - 대출기간 연장 및 대출건수 확대 (1주일 --> 15일, 3책--> 5책)
- 열람환경 개선
  - 노후 기자재 교체 및 DVD 열람석 증설 : VCR 재생기 등
  - 문헌정보실 및 공동감상실 의자 전면 교체
  - 영상음악실 내 소음 방지용 카펫트 설치
  - LD, LP 진열장 제작
  - 영상음악실 안내데스크 집기 교체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문헌정보실 출입구 장애인 편의용 교체
  - 시각장애인 및 약시자용 독서확대기 및 높낮이 조절식 탁자 설치
- 이용자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
  - 기간 : 2004년 6월 14일 ~ 7월 2일
  - 조사방법 : 설문조사
  - 대상 : 예술정보관 방문 이용자
-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토요일 개관 방안 수립 및 시행
- 공동감상실 정기 대관제도 시행
  - 이용실적 : 11개 단체 총 5,432명 이용
- 직원 전문화를 통한 이용자 서비스 개선
  - 사서 요원 (4명) 등 계약직 직원 9명 신규 채용
- 도서관보상금제도 시행에 따른 디지털 저작물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서비스
  -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및 국회도서관 원문데이터 베이스 이용자 제공

## 2) 자료 수집 및 정리, 보존

- 주제별 업무 분담에 따른 자료 구입 전문화 추진
  - 해당 주제 분야의 자료에 대한 주제 담당자의 심층 연구를 통하여 참고도서 목록을 수집하고 이를 자료 구입에 반영
  - 총 1,254건(국내서 659건, 국외서 275건, 음반 244건, 영상자료76건)의 자료를 주제별 심층 연구를 통하여 구입
- 자료구입 내역
  - 총 4,490건 구입(국내서 1,544권, 국외서 537권, 음반 1,274개, 비디오 578개, DVD 494개)
  - 학술정보 D/B 73종 (신규 구독 5종 포함)
  - 2005년도 연속간행물 신규 구독 계약 체결 : 273종
  - 자료구입비
- 우수공연 및 주관사업 영상제작
  - 제작편수 : 총 189편 (소요예산 : 31,835천원)
  - 장르별 영상제작 현황

연극	무용	국악	종합	총편수
72	89	27	1	189

- 동영상 디지털 변환, DVD 및 VOD 제작
  - 외부 단체 소장자료 수증 및 변환

단체수	기증건수	DVD제작	동의서확보	비고
10개	54건	103개	13건	2세트제작

- 우리원 소장자료 변환 제작

소장본	시간	DVD제작	VOD변환	TEXT작성	CD백업	비고
207개	285시간	205개	385건	385건	200개	

- 특수자료실 설치 및 운영
  - 특수자료 취급 인가 (2004년 7월 14일)
  - 특수자료실 운영 규정 제정
  - 특수자료 이관
    - . 지원협력실 보유 예술정보관 특수자료실로 이관 (단행본 142권, 통일문학전집 CD-ROM 847개)
  - 특수자료실 활용실적 : (정기간행물 대출 : 1명 4회, 통일문학전집 CD : 1명 1회)
- 예술분야 전문 분류표 조사 작성 및 관외대출 자료 분류
  - 우리원 소장자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예술분야(음악, 미술, 무용, 연

- 극) 분류표 조사·작성
- 관외대출실 소장 영상음악자료 분류 (2,020건)

3) 이용 실적

○ 최근 3개년간 오프라인 이용실적

구 분		2004년	2003년	2002년	비 고
개 관 일		294일	291일	291일	
회 원	신규가입	390명	471명	412명	
	전체회원	1,342명	953명	481명	
대 출 건 수	전 체	25,915점	23,667점	20,052점	
	문헌정보실	5,871권	5,425권	5,161권	
	영상음악실	20,044건	18,242건	14,891건	
이 용 자 수	전 체	인원수	27,751명	27,435명	23,797명
		1일평균	94.4명	94.2명	81.8명
	문헌정보실	10,066명	11,038명	10,356명	
	영상음악실	17,685명	16,397명	13,441명	

○ 온라인 이용실적

	2004년		2003년		증 감
	년 간	월평균	년간	월평균	
문화예술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건수	1,113,996건	92,833건	N.A	N.A	
예술정보관 정보검색 접속 건수	98,328건	8,194건	N.A	N.A	

4) 사이버예술정보관시스템 구축 및 감리용역

○ 하드웨어 도입내역 및 설치내역

용 도	제 품 명	수 량
DB서버	Sun Fire V440	1식
Application 서버	HP DL380R030600-512K	1식
디스크 어레이	SE3310-1RAID-AC-RR	1식
DBMS	Oracle Standard Edition	
스 캐 너	마이크로텍 ScanMaker 9700XL	1식
모 니 터	17" 삼성 LCD 모니터	1식
랙	KVM	1식

○ 시스템 개발 및 진행관리

- 개발기관 : (주) 한국문헌정보기술(대표이사 이연창)
- 개발기간 : 2004년 6월 14일 ~ 12월 15일 (6개월)
- 개발 세부 내역
  - . 도서관자동화시스템 (수서, 편목, 대출/반납, 연속간행물 등)
  - . 통합검색시스템
  - . 비도서자료관리시스템
  - . 사이버예술정보관 홈페이지
  - . 업무 전환 및 홈페이지 개통 : 2004년 2월 예정

○ 사이버예술정보관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용역 사업

- 감리기관 : (재)한국문화정보센터
- 상시감리 : 총 6회 진행 (2004년 8월 12일 ~13일, 9월 6일, 9월 30일, 10월 15일, 11월 2일, 11월 19일)
- 최종감리
  - . 감리기간 : 2004년 12월 6일 ~ 12월 14일 (8일간)
  - ※ 현장감리 : 2004년 12월 8일 ~ 12월 11일 (4일간)
  - . 감리분야 : 프로젝트 관리 및 품질보증활동,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아키텍처 (총 4개 영역)

5) 서지 D/B 신규 구축 건수 : 12,513건

6) 사업수입 내역

내역	2004년도	2003년도	증 △감	비고
회원가입비	11,275,000원	13,520,000원	△2,245,000원	
강좌수강료	32,062,200원	24,481,000원	7,581,200원	
복사료	1,642,330원	4,379,490원	△2,737,160원	영상음악복사료, 칼라복사료
기타	765,627원	1,028,042원	△262,415원	
합계	45,745,157원	43,408,532원	2,336,625원	

7) 소장자료 매체별 현황 : 별첨

8) 사업비 지출내역 : 882,807,024원 (예산액: 902,702,000원)

## 다. 시설운영에 관한 자체평가

-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이버예술정보관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여 미래형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을 다짐.
- 소장자료의 활발한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소장자료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사회교육프로그램 수강료가 전년도 대비 31%가 증가하여 사업수입금은 전년도 대비 5.4%가 증가하였으나, 회원가입비와 복사료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재정자립도의 향상을 위한 부가서비스의 개발이 절실함.

## 라. 자체사업

### 1) 문화예술정보서비스(<http://www.artsonline.or.kr>) 홈페이지 운영

- 신규 데이터 업로드
  - 문예연감(2004년) : 1권
  - 문화예술지(2004년 1월~12월) : 12권
  - 이달의 문화인물(2004년 1월~12월) : 12권
  - 12개 단체 데이터 수정 및 자료 업데이트
  - 문화공간안내 데이터 수정 및 업데이트

### 2) 한국동인지문학관 홈페이지 운영

- 홈페이지 디자인 및 기능 업그레이드
  -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운영위원 간담회 개최 (총4회)
  - 업그레이드 주요 내용 : 개인작가방, 단체 홈페이지 만들기 기능 강화 등
- 동인지문학관 연수회 행사 참가
  - 일 시 : 2004년 8월 28일 ~ 29일
  - 장 소 : 김제 모악산 유스호스텔
  - 제3회 한국동인지문학관 연수 작가 작품집 발간

### 3) 미술작가 500인 홈페이지 및 원로미술작가 홈페이지 운영

- 미술작가 500인 홈페이지 운영
  -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 메인페이지 및 7개 하부 페이지
  - 작가별 홈페이지 업데이트 : 강성원 등 26명분
- 원로미술작가 홈페이지 운영
  - 2003년도 대상작가 및 2004년도 대상작가 : 각 12명 (장두건 등 총24명)
  - 데이터 업로드 내역 : 이미지 3,091건, text : 280건

4) 저작권 관리

- 저작권 소멸된 작품 D/B 구축을 위한 자료 조사 및 자료 디지털 변환
  - 저작권 소멸 파악을 위한 소재별 작품 내역 조사 (동화 각색 작품 455편, 월북 및 실종 작가 작품 140편, 번역/번안/각색작품 451편 등)
  - 저작권 소멸된 작품 내역 조사 목록 작성 : 총 115편
  - 저작권 소멸 한국 근대 희곡작품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 총 105편
  - 저작인격권 보호를 위한 본문 내 오류 사항 조사 및 수정
- 저작물 사용 동의 확보 내역

분 야	2004년	비 고
공연대본(희곡)	107편	저작권소멸작품 105편 포함
구술채록관련 자료	68건	
공연 영상	161건	
미술작가 500인 홈페이지	3건	
원로미술작가	24명	
합 계	336건	

5) 사업비 집행내역 : 86,786,770원 (예산액 : 96,238,000원)

6) 자체 평가

- 동인지문학회 홈페이지 기능 업그레이드를 통한 사용자 편의성 제고
- 문화예술컨텐츠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등으로 사용자 친화적인 홈페이지 운영의 기반을 구축하였음.

※ 참고 : 예술자료관 소장자료 매체별 현황

(2004.12.31.현재)

분류	분 류		단 위	보 유 량		비 고
도 서 자 료	단 행 본		권	52,888		
	연속간행물		권(합본)	12,082		368종
	동 인 지		권	5,027		774종
	소 계		권	69,997		
비 도 서 자 료	공 연 대 본	대 본	편	6,331	8,594	줄거리 432, 음악대본 64
		마이크로필름	편	4,553		
		폴텍스트 D/B	편	4,000		줄거리 432편 포함
	공연 팜플렛·프로그램		건	10,295		
	전시 팜플렛·도록		건	37,152		
	포스터	원 본	점	2,105		
		사진본	점	4,547		
	사 진 자 료		매	47,645		
	마이크로 필름 악보		편	783		
	소 계		점	111,121		
영 상 자 료	레이저 디스크		개	754		
	VHS 비디오		개	11,110		Betamax, Umatic 자료 VHS 전환분포함
	U-Matic 비디오		개	1,030		
	Betamax 비디오		개	72		
	슬 라 이 드		개	168		
	16mm 필름		개	281		
	VCD 및 DVD		장	2,109		
	소 계		개	15,524		
음 악 자 료	컴팩트 디스크		개	14,950		
	카세트 및 릴테이프		개	3,703		
	LP		개	4,137		
	SP		개	2,798		
	소 계		개	25,588		
뉴미디어	CD-ROM		개	731		학술D/B 73종 포함
총 계	222,230점					

(2003년도 12월 208,705점과 비교하여 13,525점 증가)

## ■ 문화예술연수원

### 가. 시설운영목표

- 공연예술, 무대미술 분야의 우수 인력 및 예술 현장 지원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장. 단기 교육 연수 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문화예술연수원 시설을 관리함.

### 나. 주요 사업별 추진실적

#### 1) 2004년도 예산 운영 실적

- 일반회계
  - 세입 : 173,150,000원(연간 예산), 183,407,000원(실적, 105.9%)
  - 세출 : 974,237,000원(연간 예산), 918,677,258원(실적, 94.3%)
- 특별회계(중앙문화행정연수)
  - 세입 : 90,000,000원(연간 예산), 84,808,067원(실적, 94.2%)
  - 세출 : 90,000,000원(연간 예산), 77,810,620원(실적, 86.5%)
- 분석
  - 연수원 시설은 위치의 문제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이 있으며 이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대안으로 시설 대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적인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기획 대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대관 규약을 좀 더 탄력적으로 개정하여 이용 대상자 범위를 넓히고 개방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에게 연중 홍보를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음향장비에 있어서는 개관 시부터 사용해 온 노후된 기재를 교체, 업그레이드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05년도 음향장비 “프로툴” 구입 예산 책정)
  - 세입 확대를 위해서 위탁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나 연수진행 인력이 부족 등 여건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2) 중점추진과제별 주요 사업 추진 현황

(가) 전문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1) 무대예술 전문(장기) 연수

- 목적 : 무대예술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창작여건 조성
  - 예술적, 미적 창조능력 개발(예술성 배양)
  - 무대공연분야 첨단 전문기술 교육(전문성 함양)
  - 예술현장 수요인력 양성, 지원(현장성 중시)
- 운영프로그램 : 무대예술아카데미(1년 과정)
  - 교육분야 : 무대미술, 조명, 음향, 연기, 의상 5개 분야
  - 졸업인원 : 50명
  - 졸업유보 : 5명

(2) 문화예술단기연수

- 목적 : 문화예술행정, 예술기획(경영), 무대기술분야의 실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한 재교육 전문연수
- 운영프로그램 : 총 6개 연수(25회) 19개 과정(29회)

※ 2004년도 단기연수별 연간 추진 내역(표)

구분	세부연수명	개최회수	세 부 과 정 (내 용)
정규연수	중앙문화 행정연수	10회	[3개 과정/10회] 1. 일반문화행정과정(1-2차) 2. 문화정책기획실습과정(3차) 3. 덩체인지과정(4-10차)
	지역문화 행정연수	2회	[1개 과정/2회] 1. 지역문화행정연수(1-2차)
	예술경영연수	4회	[6개 과정/8회] 1. 축제기획 2. 공연기획 3. 문화예술마케팅 4. 문화예술재원관리 5. 문화예술조직관리 6. 문화예술시설운영 * [차수별 추진내용] 1차(2회) : 축제기획+ 문화예술마케팅 2차(2회) : 공연기획+ 문화예술재원관리 3차(2회) : 축제기획+ 문화예술조직관리 4차(2회) : 공연기획+ 문화예술시설운영
	무대예술 전문인연수	7회	[7개 과정/7회] 1. 무대기계(초급) 2. 무대기계(중급) 3. 무대음향(초급) 4. 무대음향(중급) 5. 무대조명(초급) 6. 무대조명(중급) 7. 무대예술고급
소계	4개 연수	23회	17개 과정/27회
국고지원	무대예술전문인 해외연수	1회	[1개 과정/1회] 1. 무대예술전문인 해외연수(16명)
비정규	외부위탁교육	1회	[1개 과정/1회] 1. MBC 문화방송 신입사원연수
총계	6개 연수	25회	19개 과정/29회

- 연수명(정규과정) : 총 4개 연수(23회) 17개 과정(27회) / 769명 참가
  - 중앙문화행정연수(국고,특별회계)(10회) / 일반문화행정과정, 문화정책 기획실습과정, 문화행정답체인지과정
  - 지역문화행정연수(2회) : 지방문화행정과정
  - 예술경영연수(4회) : 축제기획과정(1,2차), 문화예술마케팅과정, 공연기획과정(1,2차), 문화예술자원관리과정, 문화예술조직관리과정, 문화예술시설운영과정
  - 무대예술전문인연수(7회) : 기계초급·중급과정, 음향초급·중급과정, 조명초급·중급과정, 무대고급과정(기계, 음향, 조명)
- 연수명(비정규과정) : 총 2개 연수(2회) 2개 과정(2회) / 59명 참가
  - 무대예술전문인해외연수(국고보조사업)
  - 위탁교육(비정규연수/소요경비 위탁기관 부담) - MBC 문화방송신입사원 연수
- 참가인원현황(정규/비정규) : 총 828명

(3) 무대예술전문인해외연수(국고보조사업) \* 별도추진(비정규과정)

- 연수기간 : 2004.8.29~9.8(10박 11일)
- 연수지역 :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 주요연수방문지 : 아레나극장, 빈오페라하우스, 취리히오페라하우스 등
- 연수인원 : 16명
- 예산액 : 62,000,000원 (집행액 : 59,390,458원)

(4) 위탁교육(비정규연수/소요경비 위탁기관 측 부담)

- 연수명 : 문화방송 신입사원 “문화예술의 이해과정” 위탁교육
- 연수대상 : MBC신입사원
- 연수기간 : 2004.1.6(화)~9(금)(4일), 2.12(목)~17(화)(5일)
- 연수장소 : 우리 원 마로니에미술관 세미나실 등
- 위탁요청기관 : MBC
- 총소요예산 : 35,298,000원
  - 집행액 : 33,803,800원(잔액 : 1,494,200원)
- 세입액 : 5,883,000원 (교육 컨설팅비 수입금)

(나) 경영합리화를 위한 회관 운영 및 서비스 향상

(1) 음향녹음실 등 시설 대관

○ 임대수입 비교표

(단위 : 천원)

연 도	세입예산(예상)	세입실적	달성율(%)	비 고
2003	20,250	13,550	60.76	
2004	18,000	13,084	72.68	실험무대 대관1건. 창조관 대관1건. 차량임대 1건 포함

※ 2004년도 경기불황으로 인한 각종 예술단체의 공연물 제작중단으로 인하여 대관실적이 전년도 수준과 비슷한 상황임. 향후 지속적인 대관홍보 강화를 비롯 대관을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

○ 임대수입내역

- 총 세입금액 : 13,084,500원
- 음향녹음실 대관실적 : 38타임(1타임 당 : 150,000원), 5,700,000원
- 실험무대 대관실적 : 나무와 사람 기획 / 대여기간 : 2004.7.27~7.29(3일) / 2,484,500원
- 창조관 대관실적 : 수원평화축전준비위원회 / 대여기간 : 2004.7.26~8.1(6일) / 2,100,000원
- 차량임대 : MBC 위탁교육(9일) 1,800,000원

(2) 대관단체 장르별 분포도

분야	계	연극	뮤지컬	아동극	클래식	인디음악	기타
대관일수 (타임)	24 (38)	3 (4)	5 (11)	3 (5)	3 (4)	5 (7)	5 (7)
대관율 (%)	100	10.5	29.1	13.1	10.5	18.4	18.4

(3) 시설보완 및 교육환경 개선

- 창조관 공사
- 보안시스템설치 : 창조관, 무대미술 스튜디오
- 창조관 강의실용 책상, 의자 구입
- 음향실 전원공급장치 이동공사
- 무대미술 스튜디오 시설 보완
- 실험무대 시설환경 개선 공사 및 기자재 구입
- 문화예술연수원 증. 개축공사 하자보수
- 연수원 주변 공사 및 환경개선
- 기자재 구입 관리

## 다. 문화예술연수원 운영 자체평가

### 가) 단기연수 프로그램

#### (1) 총평

- 문화예술단기연수 연수 인원은 당초 총 6개 연수 참가예상인원 868명 대비 수료인원 828명 참가로 96%의 확보율을 기록했음. 기타 연수(위탁교육 및 국고보조사업)를 제외한 4개 연수에 대하여 5단 척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 결과를 보면 '종합적인 강의 만족도' : 4(만족), '연수 수료 후 만족도' : 4.2(만족) 등의 결과 수치로 연수(강의) 내용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가장 낮은 수치는 '연수생 본인 업무에 대한 만족도' : 3.7(만족)임. 전체적으로 단기연수 과정 참가가 연수생 본인이 담당하는 문화예술 업무와 연관되어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단기연수는 '89년도부터 '03년도까지 중앙 및 지역 문화행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해왔던 문화행정연수를 올해부터 중앙·지역을 구분하여 중앙문화행정연수(연간 10회)와 지역문화행정연수(연간 2회)로 분리 추진하였음. 중앙문화행정연수는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 전문성 향상 및 문화행정혁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문화관광부 위탁교육형식으로 참가비를 받아 신규 추진하였고, '05년부터는 기금운용계획에 편성 운영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추진할 계획임.
- 예술경영연수는 기존 축제기획, 공연기획, 문화예술마케팅과정 이외에 신규로 문화예술재원관리, 문화예술조직관리, 문화예술시설운영 등 3개 과정을 신설하여 관련 종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각적인 내용의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
- 무대예술전문인연수는 무대기계(초급,중급), 무대음향(초급,중급), 무대조명(초급,중급), 무대예술고급과정 등으로 구분 시행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자격제도(무대예술전문인자격검정시험 등)에 부합되는 과정으로 개설 운영함.
- 올해 위탁교육을 MBC(문화방송) 신입직원 43명 대상으로 1회 실시하였으며, 향후 외부 단체 요청에 의한 연수 프로그램 기획 등 문화예술연수원만의 차별화된 연수 전문성 확보 및 문화예술연수원 재정자립도 향상 등 운영개선을 위하여 위탁교육 부문을 강화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2) 연수별 평가 및 향후 개선 사항

### ○ 중앙문화행정연수

- 중앙문화행정연수는 문화관광부 및 소속기관 전 직렬(職列)을 대상으로 일반문화행정과정(2회), 문화정책기획실습과정(1회), 문화행정답체인지과정(7회)으로 연간 10회 추진됨.
- 문화행정답체인지과정은 문화정책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획득, 능력개발 및 변화와 혁신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사례 중심, 토론 중심, 워크숍 분임조 편성, 현장 체험형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 운영하여 연수생의 집중도 높은 참여를 이끌어냈음. 또한 문화관광부 혁신인사담당관실과 유기적인 협의하에 추진하여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혁신 프로그램 일환으로 기획·운영하는 높은 성과를 이루어냄.
- 교과 및 강사에 대한 연수생 만족도는 최대값 5 기준시, 평균 3.9(만족)
- 변화 관리 프로그램 및 직접적 예술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올해 문화행정답체인지과정의 경우 문화관광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 전 직렬(職列) 대상으로 5급~7급 공무원, 연구원, 기능직 등이 혼재되어있어 강의 편성 및 대상에 대한 집중도를 조정하기가 어려웠으며 강의에 대한 반응도 직군에 따라 다르므로 향후 직군, 직급에 따른 차별화된 강의 프로그램 편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 지역문화행정연수

- 지역문화행정연수(지방문화행정과정)는 지역문화행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행정실무자에게 필요한 소양 및 직무 교과 중점 교육, 문화행정 실체 이해에 필요한 사례 연구 및 토론 중심 교육을 연 2회 진행함.
- 교과 및 강사에 대한 연수생 만족도는 최대값 5 기준시, 평균 4(만족)
- 오랜 경험에서 우러난 지역문화전문행정인의 실제 사례 중심 강의 및 직접적인 예술체험(마임), 지역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대형 공연(뮤지컬)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당초 예정참여인원에 비해 참가 및 수료인원이 저조한 이유는 첫째, 문화행정연수가 올해 중앙문화행정연수와 지역문화행정연수로 분리됨에 따라 당초 문화행정참가대상이었던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이 중앙문화행정연수에 대거 참여하게 되어 대상 인원이 감소한 점. 둘째, 최근 각 지자체가 연중 각종 축제·문화예술행사를 운영함에 따라 관련 업무 공무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연수 참여가 어려운 점 등이 있음. 향후 이러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보이므로 지역문화행정연수

횟수(현재 2회)를 축소하거나 기타 연수(예술경영연수 등)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예술경영연수

- 예술경영연수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민간단체(협회, 기획사, 공연단체), 정부기관,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기획 업무추진 능력 습득 및 실무자 소양함양, 직무교과에 중점을 둔 교육을 연 4회 실시하였음
- 교과 및 강사에 대한 연수생 만족도는 최대값 5 기준시, 평균 3.9(만족)
- 축제기획 현장 탐방 및 문화예술조직관리과정 혁신적 사례 중심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
- 다른 연수들과 달리 예술경영연수는 1회 연수(5일)가 2개 과정(각 3일)으로 구분 편성되어 연수생 사정에 따라 5일(2개 전과정), 3일(1개 과정)을 선별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 그러나 1회 연수에 2개 과정이 편성되므로 해서 체계적이며 연속성 있는 연수 내용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연수생 입장에서도 3일 과정 수강시 집중적인 연수 참여도는 낮았던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향후 1회 연수 1개 과정(5일)로 편성하여 체계적인 내용으로 편성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연수 대상자들이 민간단체, 정부기관, 공공기관등 다양한 소속기관에서 참여하여 수요자(연수생) 측면을 고려한 강의 방향 설정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상호 다양한 의견 교환과 교류를 통하여 연수생 상호간 서로 다른 입장과 조건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힌 것은 장점으로 판단됨.

○ 무대예술전문인연수

- 전국 공연장에 근무하는 무대기계, 음향, 조명 관련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운영기술 습득 및 능력개발 향상을 위하여 연 7회 교육 실시
- 교과 및 강사의 연수생 만족도는 최대값 5 기준시, 평균 4.1(만족)
- 한편, 강사간의 수준차이, 실습기자재 및 실기실습시간 부족 등이 설문조사 결과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향후 연수 추진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고급과정의 경우 고급과정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무대고급과정은 올해 일정 및 예산의 한계로 연수생 수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기계, 음향, 조명 전공자를 각 10명씩 한정하여 동시 모집하여 1회 교육(5일)을 실시하였음. 한편, 1회(5일) 과정에 3개 분야가 동시 진행됨에 따라 고급과정으로서의 깊이있는 연수 프로그램 추진이 어려웠음. 향후 예산을 확대하여 각 분야별 30명 정원으로 심도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나) 장기연수 프로그램(무대예술아카데미)

### (1) 총평

- 제8기 무대예술아카데미는 예년에 비해 적정선의 수강인원을 확보하였고 학생 수준이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반면 연초 수강생 모집 과정에서 분장 전공분야를 신설하였으나 지원미달로 개설하지 못한 점을 거울삼아 무대예술 분야별 수요와 공급의 정확한 측정과, 졸업 후의 취업 연계 등 구체적인 대안을 병행하여 주도면밀한 계획아래 학사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무대미술, 조명, 음향분야는 점차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의상과 연기분야는 지원인원이나 지원자들의 수준이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전문인 자격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점과 교육과정이 아직 특성화되지 못하여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커리큘럼의 다양화와 차별화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함.
- 2004년도부터 단기연수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학생 교통 편의제공과 시설사용에서 중첩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단기연수가 계속 증가된다면 중장기적으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매년 제기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무대예술전문인을 육성하기에 1년이라는 교육과정은 시간상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파생된다며 대다수 학생과 교수들이 2년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 일반 교육기관처럼 전문학사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를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하는 차원에서 2004년도에 처음 책임교수제를 도입 시행하였으나 아직 초기단계에서 교수들의 인식과 세부 추진방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함께 교수들과 지속적인 협의와 독려가 필요.
- 무대미술분야에서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 무대디자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상당수의 의견과 이론과 실기를 함께 보충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는 절대적인 교육시수 배정에서 예산과 교육장소 등에서 연계되어 제한을 받고 있는 점이 문제이나 수강생의 의견이나 전문교육에 따른 커리큘럼의 우선순위를 최대한 반영하여 교과목을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실기수업의 확대 및 강화, 전문화된 커리큘럼 개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

#### 제도의 개선 필요

- 매년 실습시설이 확충되고 있고 수강 인원이 증가 추세라는 점을 감안 강의실 및 숙소 등의 확장이 필요하나 이는 예산 확보를 병행한 중장기적 과제임. 그러나 실기시 안전성이 우려되는 유압사다리 등의 필수장비 구비는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임.
- 금년에 신설한 “공연제작(2학기 졸업작품제작)”과목은 모든 분야 전공 학생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수업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판단되며 공동작업을 요구하는 무대예술에 있어서는 필요한 커리큘럼이라고 생각되나 다수 인원이 참여하는 교과 특성상 짜임새 있는 교과진행이 미비하였다고 판단되어 이를 정규 커리큘럼화 하려면 좀 더 치밀한 추진 방법이 필요하며 내외부 인사들의 자문과 실례가 있는지 참고하여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학생들의 발표회를 통하여 생산되는 제작물들이 적절한 보관 장소의 미비로 일정 기간 지나면 1회성으로 폐기되는 경우가 보통이어서 전시적 교육효과 면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점은 무대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성과에 대한 결과물의 샘플정도라는 차원에서라도 부분적이거나 보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입학 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하계 공동워크숍과 졸업발표회를 준비하여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열의가 돋보였으나 부족한 수업(시간)과 발표회를 병행함으로써 야기될 수도 있는 부실한 교육과정의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과제임.
- 입지 조건에서 불리한 점을 감안, 모든 시설과 교과 과정을 내실화하여야 하는 점이 아카데미의 지속적 과제라고 생각되며 이것이 충족되면 우수 인재들의 확보와 질 높은 교육이 연계되어 순차적으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 아카데미의 운영에서 자료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학사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서식과 인적자료 등의 전산화 작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 다) 연수원운영(대관 포함)

- 문화예술연수원 교육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하여 창조관에 강의실 및 세미나실 개보수 공사, 창조관 옥상 방수공사, 식당 가스렌지 교체, 창조관·무대미술스튜디오 보안시스템 설치, 창조관 시설 교체 공사, 창조관 강의실 책상·의자 구입을 추진함.
- 무대미술스튜디오는 디자인실 미니어처 제작품 수납선반 설치, 휴게실 계단 이설, 실습교육실 창문 설치공사 등을 실시하여 교육생 안전 확보 및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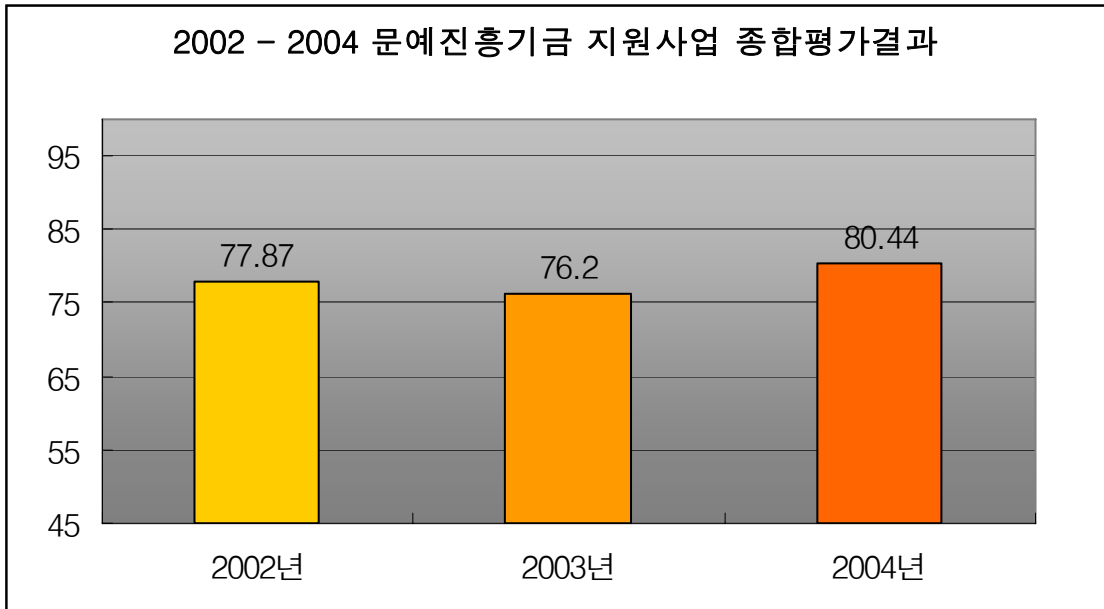
- 실험무대는 시설환경 개선공사, 기자재 및 소모품 운영창고 설치공사, 조명 디머모듈 구입, 작업용 투광등 설치공사, 소모품 구입, 현관 출입구 캐노피 빗물차단막 설치공사 실시하여 실내 환경 조성, 사고 예방 및 안전 운영, 효율적 기자재 관리 운영을 추진함.
- 음향녹음실은 당초 임대수입 세입예산 18,000,000원 대비 13,084,500원의 실적으로 총 72.7%의 달성율을 기록했음. 음향녹음실 대관료 실적이 낮은 이유는 연수원의 지리적 접근성(경기도 고양시 사리현동 소재)의 어려움과 낙후된 기자재 등의 원인에 기인하며 또한, 2004년도 전반적인 국내 경기 불황으로 인해 각종 예술단체 공연물 제작 중단에도 원인이 있음. 이러한 원인의 해소를 위해서는 연수원 지리적 접근성 개선과 노후 기자재 교체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이중 일부 노후 음향장비(음향 프로틀, 큐앰프 등) 교체는 '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 편성하였음. 임대수입 중 실험무대 대관 1건, 창조관 대관 1건, 위탁교육 차량임대 1건 등이 포함되어있음. 향후 수입 확대 및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비연수기간 동안 연수원 각종 시설(실험무대 및 강의실 대관 등) 대관과 위탁교육 활성화를 통한 세입 증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수원 증·개축공사 하자보수는 잔여건수 45건(총 174건중 125건 기이행)을 이행하여 실험무대 화단옹벽 균열 및 외벽 균열 하자보수 건 등을 건축 구조안전진단 실시후 하자보수 공사 완료함.
- 연수원 주변은 창조관 인입선 교체공사, 전기실 소모품 선반 제작, 연수원 북쪽 경계벽 메쉬 헨스 설치, 난방시설 미흡으로 히터 구입 등을 추진함.

## Ⅱ. 문예진흥기금사업 성과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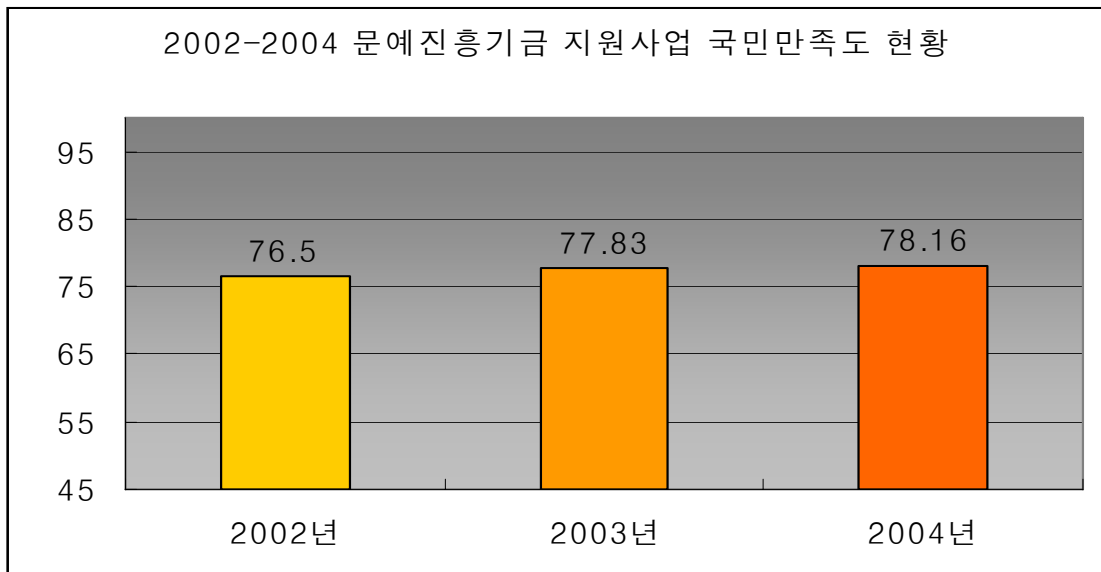
# 1.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총평

## 가.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종합평가결과

○ 최근 3년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종합평가결과



※ 참고 : 최근 3년간 문예진흥기금사업 국민모니터링 종합평가결과



## 나. 자체평가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은 예술의 본질인 '창조성'이 함축하는 의미를 공공적인 가치로 활용하여, 국가 발전의 원천이 되는 국민의 창조성 개발과 예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 이념 아래 예술의 창의성과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창조자 측면) 국민의 예술 참여 및 향수 권리 신장을 위한 여건 마련(향수자 측면)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전년도에 이어 2004년도에도 문예진흥기금사업은 네 가지 성과목표 아래 진행되었다. **첫번째로 '예술창조 역량강화'**는 예술 창작 활동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예술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대안적 활동과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 활동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예술 창작 기반과 창조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두번째의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의 경우 국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세대, 계층, 지역간 문화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예술적 욕구 및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지원목표이다. **세번째 지원목표인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는 남북 및 재외동포와의 교류 및 우리 문화예술의 해외 소개를 통해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문화적 조화 및 통합을 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술의 보존과 계승'** 사업은 민족 고유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보존 조사 연구 사업과 예술 정보화 사업, 전통예술 등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문화예술의 정체성 확립과 민족 고유문화의 발전적 계승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단위사업과 국제 교류 활동을 포함하여 약 1,184건의 개별적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예술극장, 마로니에 미술관, 예술정보관 운영, 문화예술연수원 운영 등 간접지원시설을 운영하여 우리 사회의 문화적 잠재력과 창의성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2004년의 경우 주목할 사실은 복권기금의 문예진흥사업 지원 및 문예진흥법 개정안의 통과이다. 2003년 12월 31일을 끝으로 30여 년간 지속되어 왔던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폐지되었고 대체 재원으로 복권기금의 문예진흥기금 지원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복권기금의 유입을 토대로 그간 적립에 치중해 10여 년 동안 300억 원대로 동결되어 왔던 문예진흥사업비가 대폭 증가되었으며 이를 통해 열악한 우리 문화예술계의 현실 개선 및 국민들의 예술 향수권 신장의 기반이 조성되었다. 복권 수익금이 국민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분야에 환원됨으로써 사행성 조장이나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진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주는 결과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복권기금은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수익금을 환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장애인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 올해의 예

술상 사업, 대한민국국악축전 등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목표의 사업들에 배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문예진흥원의 위원회 전환을 골자로 하는 문예진흥법 개정안이 약 2년에 걸친 과정 끝에 2004년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문화예술인들은 이번 문예진흥법 개정안 통과가 예술정책 논의를 크게 발전시킬 것으로 보는 한편, 기초예술과 문화예술을 살릴 수 있는 계기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민간자율 위원회 구성인 만큼, 장르별·분야별로 민주적인 토론이 신속하고도 성숙한 분위기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관건이며 민간단위에서 정책이 논의되고 생산되는 시스템 창출에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예술 정책에 민간 예술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자율적 예술정책 수립 및 기초예술계의 중흥과 그에 따른 국민 창의성의 점진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04년에는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문화예술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심각한 불황에 시달렸고 이른바 한국형 블록버스터급 영화나 대형 수입 뮤지컬 등 극소수의 작품들만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랜 기간 관객들에게 사랑받았던 작품들을 릴레이식으로 공연했던 '연극 열전'이 눈에 띈다. 문예진흥기금의 지원 수혜를 받았던 작품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던 연극열전은 상당히 호응을 얻었다. 물론 다른 소극장들의 작품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는 의견도 있었고 새로운 창작 공연보다는 이미 검증된 작품들을 재탕하는 사례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극열전은 불황으로 허덕였던 2004년도 공연예술계의 성공사례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할 만큼 문화가 중시되고 있다. 이제 문화예술은 토지, 노동, 자본, 경영에 이은 제 5의 생산 요소이며, 모든 산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원천으로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다. 직접적인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콘텐츠로서의 문화예술도 중요하지만 탄탄한 기초예술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다. 우리 사회의 많은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

## 다. 종합평가위원 총평

### 1) 김성수

문학분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기금사업의 운영이나 행사 관리가 내용적 형식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착된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기금지원사업이 구태의연하고 의례적인 행사를 단체별로 적당히 안배해서 관성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종래의 오해와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켰다는 말이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예술의 보존과 계승’, ‘찾아가는 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 체험 참여 활동 지원’ 등은 활발하게 진행되어 일정한 성과를 거둔 반면, ‘통일 민족문화 교류 지원’, ‘문화예술 해외교류 지원’ 등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예술의 보존과 계승’ 사업의 경우 문학작품 보존·조사·연구라는 본질적 목표보다 부수적 목표인 단체 성원의 친목을 위한 연수성 행사가 많아 문제가 되었다. 앞으로 예총, 민예총 단체간 안배가 아니라면 경상비, 진행비 성격의 지원은 대폭 줄이고 조사연구비 비중을 늘이도록 유도하고 결과를 엄정하게 관리, 평가해야 할 것이다.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 체험 참여 활동 지원’ 등은 작년보다 내용형식의 질과 완성도, 지역적 계층적 다양성, 참여도 면에서 더욱 충실하고 우수해졌다. 소규모이지만 내실 있는 몇 사업을 보면, 평소 소외된 분야, 지역, 장르라도 적절하게 지원만 해주면 얼마든지 충실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앞으로는 연례행사로 반복되는 지속성 사업, 행사까지도 매년 새로운 아이템,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사 규모가 크고 다문화적인 종합적 성격을 띠는 경우 장르를 넘어서거나 <문화 향수기회 확대>라는 기준과 함께 <예술의 보존과 계승>이라는 다중적 평가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으며, 늘어나는 것이 대체적인 추세이다. 이렇게 2가지 이상의 장르간 행사와 2가지 이상의 평가기준에 가산점을 준 다든지 하는 식의 평가/심의 지표 보완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억지로 한 장르, 영역에 국한시킬 경우 행정편의적 관료적 미비점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과 해외 교류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쏟았으면 한다. 행사 주관 단체 구성원들이 지역행사나 해외교류를 지방 나들이와 친목 도모, 해외 유람여행용으로 남발하는 경향이 없지 않는데 이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방이나 해외 여행 자체는 수도권 중심주의를 극복하는 긍정적 기여를 하지만 내실이 부족할 경우 지원사업의 대의를 훼손할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 2) 강성원

2004년도 문예기금사업은 반복되고 있는 몇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역사에 비해 볼 때는 나아가고 있다고 보인다. 그간의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역사는 문진기금사업이 생긴 이래로 지난 몇해 전까지의 사업의 역사를 말한다. 그 역사는 매우 파당적이고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비합리적인 혜택이 음성적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던 것으로 일반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의 문진기금사업은 조금씩이나마 기금의 공공성을 확립해가고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기금지원의 원칙과 기금 성격 등 문진원 자체의 분명한 지원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문진기금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지원기준은 해당사업이 얼마만큼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사업인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예술창조역량강화의 경우 예술의 내용과 형식에서 공공성을 추구하는가가 가장 근본적 기준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 자체가 공공의 이해에 부합되는가를 따져야 할 것이다.

## 3) 정완규

음악분야의 경우 2004 문예진흥기금사업은 미흡한 면도 있었지만 음악계의 창작과 공연 활성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국가적인 경제 불황의 여파로 공연 예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극도로 저하되고 기업 등의 경제적 후원도 현저히 줄어들어 창작 활동과 공연 예술은 크게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시점에서 문예진흥기금사업은 음악계에 커다란 힘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문화 소외계층이나 소외지역의 국민들에게 문화 향수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지속적인 노력도 서서히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문화 예술 향유의 기회가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문화 소외 계층과 지역에 대한 배려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계속 제기되는 문제이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주 형태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보다 참신하고 효과적인 기획과 홍보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문예진흥기금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이에 참여하는 전문인들 모두가 지원사업의 발전과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금지원을 받는 음악가나 음악단체, 또는 기획사 역시 지원된 기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지원 시의 목표를 달성하고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 4) 문애령

2004년도 하반기 무용분야 지원 사업은 예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예술창작지원은 매년 특별한 창작성을 기대하지만 기대치를 밑도는 사업이 여전히 많았다. 안성수의 작품이 제12회 무용예술상 작품상을 수상하면서 올 지원 사업을 빛내기는 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창작의 일정한 방식이 관행으로 굳었기 때문에 교육이나 지원사업의 대대적인 개혁 없이는 충실도 역시 변화되기 어렵다. 김채현 위원은 지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너리즘을 타개할 지원 방법과 지원 심사 방법이 새롭게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찾아가는 예술지원에 대해서 김채현 위원은 춤 확산 측면에서 계속 권장되어야 할 사업이나 지원액에서 심한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며, 시민 관객들과 함께 하는 분위기가 더 조성되어야 할 것을 지적했다.

문화예술체험 사업에 대해서 김채현 위원은 지역에서 악조건을 무릅쓰고 행사를 주관하는 신청 단체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 동시에 다양한 기획력이 요청된다고 평가했다.

문화 복지 지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예술 활동 지원이나 문화예술체험지원과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자체 평가가 있었다. 김채현 위원은 이 사업은 관객층의 욕구를 읽어내는 안목이 더 요청된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평가과정에서 발견한 한국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 무용으로 분류되는 춤들은 전통분야로 인정되지 않는 창작품이나 무용계 70년사를 통해서는 이미 한 장르의 전통적인 계보를 지닌 춤이다. 따라서 한국무용 레퍼토리 공연분야를 따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한국무용가들은 기존의 한량무나 입춤을 추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예술창작지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창작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겪는다. 이는 무용가나 지원자 모두에게 큰 손실만을 가져 올 뿐이다. 부채춤, 장고춤 같은 60년대 한국 창작춤을 우리시대의 고전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한국창작춤 레퍼토리 지원을 공식화하기 바란다.

#### 5) 박계배

올해의 평가대상 사업들은 대부분 지원의 취지와 목적에 적절히 부합하였다. 진흥원의 지원사업이 문화예술계의 발전과 국민문화향수권 신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차후 지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체계 수립에 현장평가 결과가 적극 활용되어지길 바란다.

대부분 단체의 역사와 전통이 지원성과의 목표달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걸 보여줬지만 오히려 그 이름값에 안주하는 단체들도 여럿 있었다. 따라서 매년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옥석을 가려내야하며 유효한 성과를 내는 단체엔 더 좋은 조건의 계속지원이 따라야 하고 반대의 경우엔 지원을 끊어 국민의 혈세를 바르게 써야 할 것이다. 현장평가에 소요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으려면 평가의 엄정성은 물론 그 평가의 결과가 최대한 존중되어야만 할 것이다.

올해의 '예술창작지원'은 참신성이나 독창성, 완성도에 있어서 눈에 띄는 사업이 드물었다. 대부분 지원금 수혜에 대한 형식적인 공연 차원의 수준이었고 특히 신작공연들은 재공연과 비교해서 밀도나 수준이 떨어지는 작품이 많았는데 희곡 심사 시 좀 더 신중하고 엄격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애매했던 것은 전국 규모의 축제가 '예술창작지원'에 4개씩이나 포함돼 있는 거였는데 전체가 재공연작으로 구성된 이들 대동소이한 야외축제를 가지고 예술창조역량을 평가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또 지원유형과 사업명을 이쪽저쪽으로 다르게 신청한 몇몇 축제는 주최 측이 같거나 비슷한 단체로 참가작이나 사업내용도 거의 똑같았는데 그 밖에 그 나물인 축제를 위한 이중지원, 그것도 많은 액수를 이중지원 하는 일은 고쳐져야 할 것이다.

반면에 '찾아가는예술활동지원'과 '문화예술체험지원'은 수용자 만족도나 사업수행능력에서나 상대적으로 돋보였다. 그래서 그런지 '예술창조역량강화' 보다는 '문화예술향수기회확대' 부문의 지원목표달성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지속지원으로 역사가 쌓인 다양한 공연예술축제들과 소외지역을 순회 공연하는 찾아가는 예술지원 등이 특히 돋보였는데 참여자들의 열정과 장인정신, 끊임없는 수요층 개발, 봉사와 희생 등으로 지원성과를 높인 예다.

축제를 평가할 때는 평가항목 배점을 수정해 그 축제가 해당분야의 발전과 지역민들의 문화예술향수기회확대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어야할 것이다. 거기에 참가작들뿐만 아니라 각종 부대행사, 축제를 운영하는 능력 모두까지를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야할 것이다. 올해의 야외축제들은 대개가 8월 우기와 11월의 쌀쌀한 날씨에 편중되어 있었는데 소나기가 내리거나 찬바람이 불면 대책 없이 공연이 연기되는 등 관객에 대한 배려가 소홀했다. 야외축제가 공통적으로 관객빈곤현상을 겪은 것도 이런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문화예술교류활성화'사업은 대체로 평가들이 좋았는데 앞으로는 단순히 해외작품을 잘 사들여 오는 것만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교류란 말 그대로 양방향적 이어야 하며 따라서 해외교류지원을 받는 축제들은 이 양방향 아트마켓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가장 성공한 해외교류지원사업으로 손꼽는 16년 역사의 <춘천인형극제>도 이 방면에선 거의 낙제점이다. 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

요한 것은 우리 것을 파는 것이다. 거기에 걸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마켓 운영으로 그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데 매진해야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계속지원의 명분도 커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러 해에 걸친 검증을 통해 지원목표달성도가 높게 평가된 사업들은 그 중 몇 개를 추출하여 허브지원사업으로 선정해 과감하고 통 큰 지원금액으로 집중지원 했으면 한다.

## 6) 임재원

전통의 재현 또는 재해석 차원으로 처음 시도되는 작품들은 그 내용이나 결과가 매우 교육적이어서 향후 연주 곡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대중의 호기심 자극을 넘어 실질적 호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주 발표(연주) 할 수 있어야겠다.

올해부터는 우리 악기와 외국 악기가 각각의 무대가 아닌 한 무대에서 서로 병주(양상블)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면 좋겠다. 차후 우리 전통 음악의 국제적 보편성 획득의 한 갈래로 외국민속 악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음악이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인원이 감상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 7) 주홍미

다원적예술분야의 2004 하반기 사업은 몇몇 사업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특히 사업심의 때부터 단체 및 개인별 안배 혹은 소액다건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다원적 예술분야의 성과목표에 걸맞다고 판단되는(독창성과 실험성 위주의) 사업에 집중 지원하는 형태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점 등은 다원적 예술의 발판 마련에 긍정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된다. 특히 2005년 사업에서의 본 분야에 대한 예산증액 등의 노력 및 결과는 문화다양성의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한 2004년 본 분야의 사업은 특정기준의 특정배분의 법칙에서 벗어나 실험성, 희소가치성, 유통과 소통방식(Item 확대 방식, PR 등 포함), 작품의 구성 및 연출방식 등 전체적 기준에서 보자면 대체로 만족할 만 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원적 예술'이라는 적절하고 합리적 정의가 정착되지 않은 근본적 한계로 인해 기존의 장르적 구분에 포함되지 못하는 분야의 사업들이 세밀한 여과장치 없이 '다원예술'이라는 큰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타 단위사

업에 비해 사업 내용과 결과가 천차만별인 점, 그로 인해 평가의 틀 또한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상반기 평가에서도 언급했듯이 다원적 예술분야는 '예술창작역량'강화'라는 성과 목표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진 사업을 살펴보면 '예술창작역량강화'라는 목표보다는 '문화예술향수기회의 확대'라는 성과목표에 가까운 사업이 적지 않다. 특히 찾아가는 예술, 문화예술체험, 관객개발 등의 목표지향에 근접한 행사에 걸맞는 사업들도 적지 않다. 물론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는 목적도 어느 정도 충족시켜야 하는 게 지금 시스템의 현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지원분야를 신설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 8) 박찬

문화일반 분야의 사업을 평가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진흥원 측이 요구하는 사업 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지원 목표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다시 말해 기획이나 연출, 구성, 내용 등 프로그램의 참신성과 독창성 및 차별성에서 탁월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프로그램의 완성도 측면에서 과연 만족할 수 있고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측정해야 하는 점이다. 해당분야 관련 전문 인사들의 현장 참여도나 호응도 측정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문화일반 분야의 경우 사실상 위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예술성이 뛰어난 출연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참여는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그보다는 주관단체의 기획 능력이나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주관단체의 열의, 또는 출연자나 참여자들의 참여도나 호응도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특정 장르의 분야가 아닌 문화일반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그러하다.

사업 현장에 나가보면 아직도 여전히 우선 지원을 받아놓고 보자는 단체도 있는 것 같다. 지원서 상의 계획은 그럴싸해 지원이 결정되어도 실제 행사 현장에 가보면 행사 일정이나 진행되는 행사내용이 원래의 계획과 다른 경우도 많고 때로는 아예 사업 자체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지원 유형에 대한 인식부족도 있는 것 같다. 현장에 나가보면 지원 유형에 맞는 사업인지...혹은 다른 지원 유형의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업의 내용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종종 있다.

누차 지적한 사항이지만 외형만 중시하는 대규모 행사보다는 내실 있는 소규모 행사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예술제나 축제에 편승해 이뤄지는 사업에 대한 지원은 재고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밖에 좋은 사업의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이에 대한 별도의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원액의 현실화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사업들에 있어 여전히 진흥원의 지원금이 종자돈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종사자(문화일꾼)들의 환경은 열악하기만 하다. 문화일반 분야의 경우 실제로 거의 이들 현장 문화일꾼들의 열의로 사업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 현장 문화일꾼들은 문화로부터 소외되고 있거나 외면하는 국민들을 문화와 접목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부추김으로써 일반인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9) 정감영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만족도에 있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보아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심의와 평가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또한 돋보인다. 또한 예술 정책분야를 별도로 구성하여 문화예술향수분야를 다룬 것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문예진흥원 자체적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통해 소기의 정책목표를 분명하게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며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과연 정확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등에 대해 지속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지원을 통해 도달하려는 문화예술의 궁극적인 비전 등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연차 계획 등이 있는지도 물어볼 필요가 있다.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상급기관, 문화예술단체 등으로부터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완벽히 벗어나 의도한 계획에 따라서만 지원계획이 수립되고 또 지원이 이루어졌는지도 여전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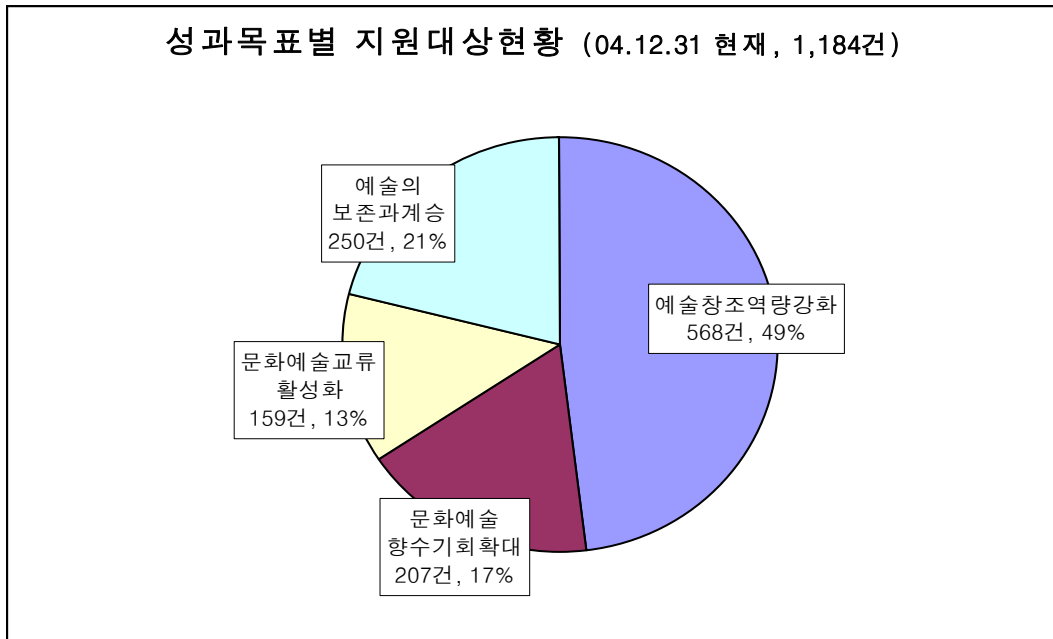
현재 창작, 향수, 전통, 다원, 교류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지원영역이 과연 타당한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찾아가는, 체험, 문화복지 등의 구분은 여전히 불분명하게 남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는 동일한 사업으로 각각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 번에 걸쳐 지적되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각 영역의 근본적인 지원방향과 과제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수용자 측면에서 요구하고 바라보는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동일한 사업으로 각 영역에 적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난 한해의 지원사업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논의해 보고 또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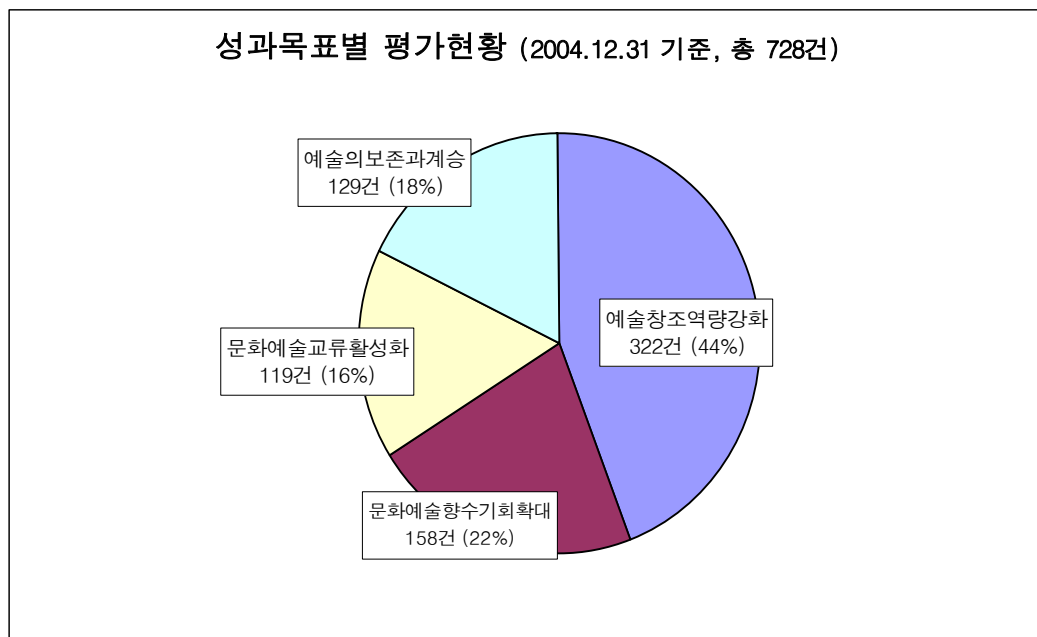
## 2. 지원목표별 성과평가

### 가. 지원목표별 지원대상/평가 현황

#### 1) 지원목표별 지원대상현황



#### 2) 지원목표별 평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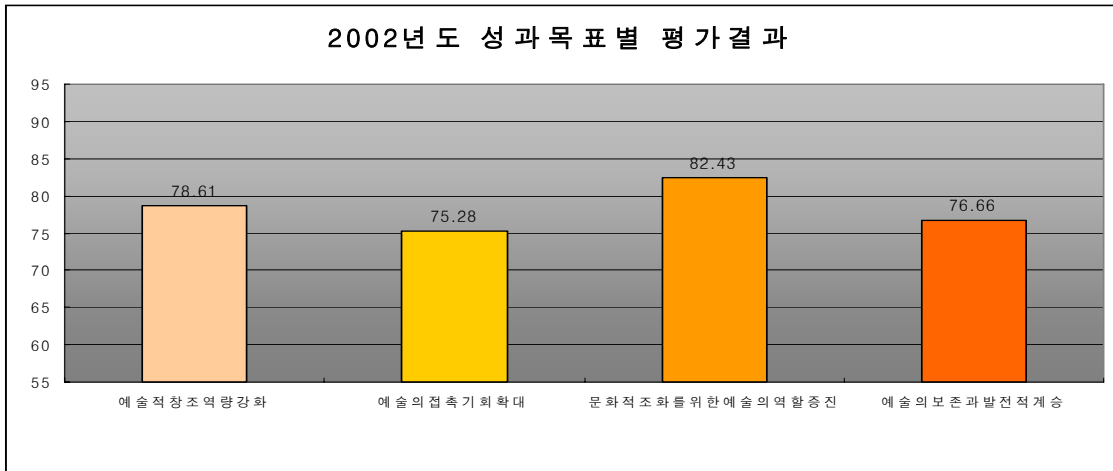
## 나. 지원목표별 성과평가 결과

### 1) 지원목표와 해당 단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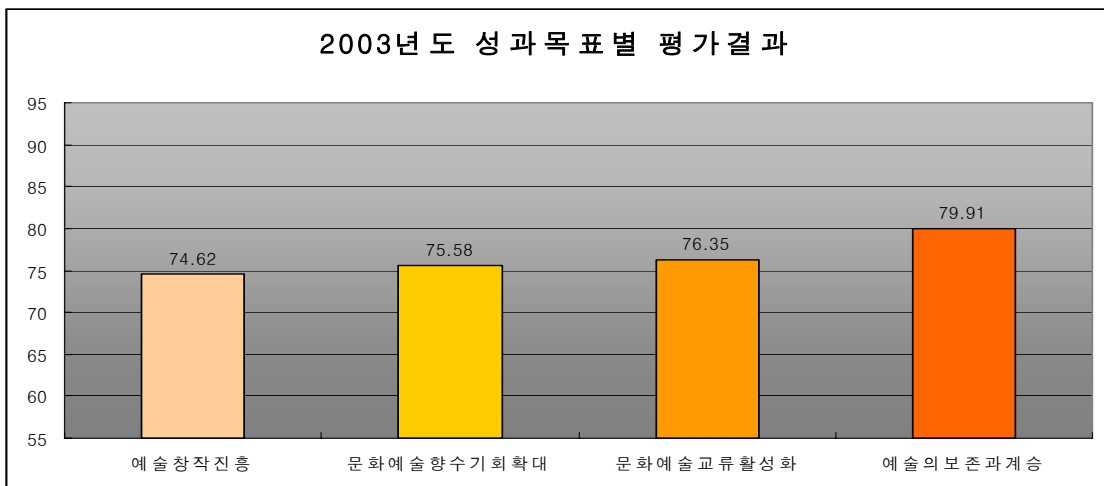
지원목표	단위사업(지원유형) 명
<b>I. 예술 창조 역량 강화</b>  예술 발전을 선도하는 창작 활동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예술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대안적 활동과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 활동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예술 창작 기반과 창조 역량을 강화함.	가) 예술 창작 지원
	나) 창작공연활성화 지원
	다) 다원적 예술 지원
	라) 신진 예술가 지원
<b>II.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b>  국민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와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문화예술보급활동과 문화소의 지역 및 문화소외계층 대상의 예술 집적기회 확대 사업,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예술 향수권을 신장함.	마) 관객개발 지원
	바) 찾아가는 예술 지원
	사) 문화예술 체험 지원
	아) 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
	자) 지역문화활성화 지원
<b>III.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b>  재외동포 및 남북간 민족문화예술 교류사업과 우리 문화예술의 해외소개 및 해외 우수 문화예술의 국내소개 사업 지원을 통하여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문화적 조화와 통합을 도모함.	차) 통일민족문화교류 지원
	카) 문화예술국제교류 지원
<b>IV. 예술의 보존과 계승</b>  민족 고유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보존, 조사, 연구 사업 및 예술 정보화 사업지원을 통하여 우리 문화예술의 정체성 확립과 민족 고유문화의 발전적 계승을 도모함.	타) 예술 보존 조사 연구 지원
	파) 예술자료 정보화 및 보급 지원
	하) 전통예술 발표 및 전승 보급 지원

## 2) 지원목표별 평가 결과 (최근 3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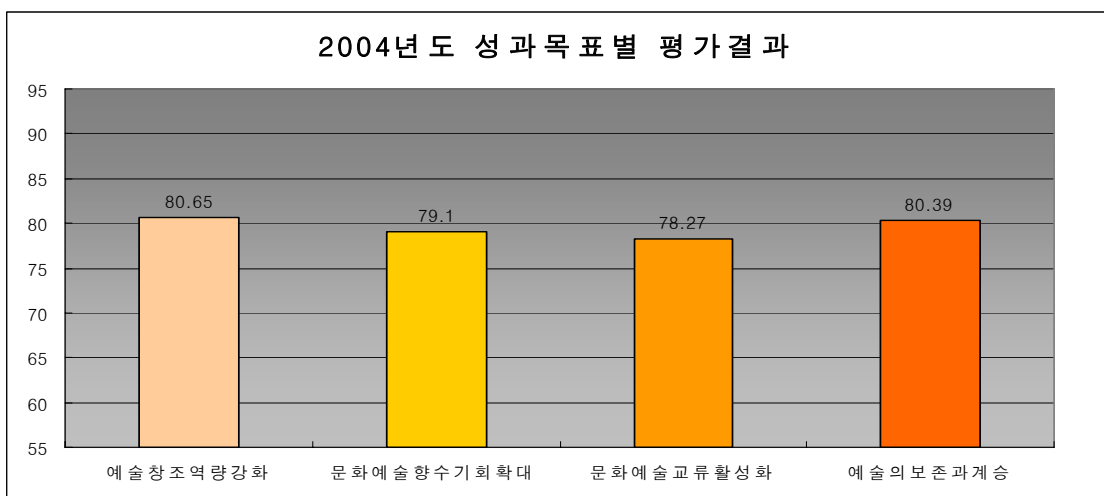
### ○ 2002년도



### ○ 2003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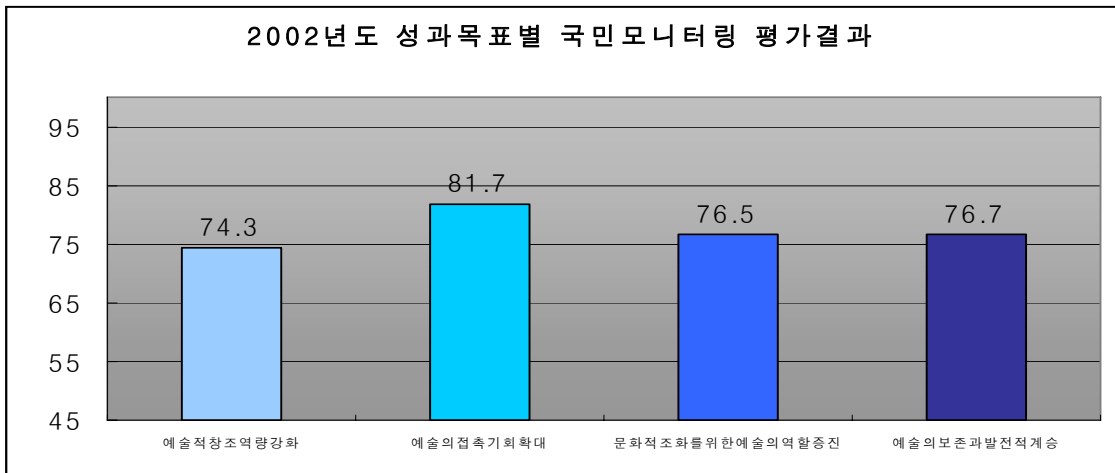


### ○ 2004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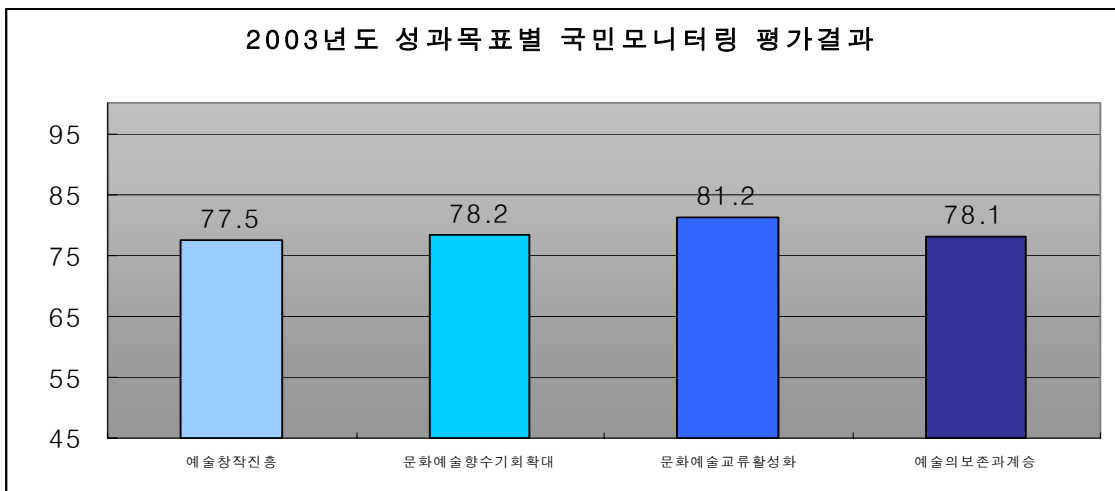


※ 참고 : 지원목표별 국민(일반)모니터링 평가결과 (최근 3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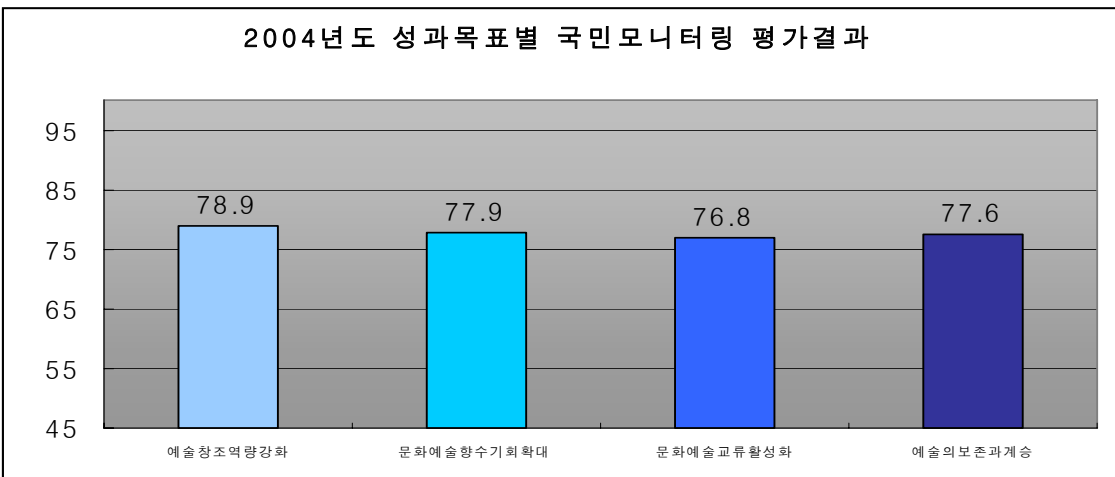
○ 2002년도



○ 2003년도



○ 2004년도



## 다. 지원목표별 자체 성과평가

성과목표별로 볼 때 2004년 문예진흥기금사업은 ‘예술창조역량강화’(163억),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504억),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22억)’, 및 ‘예술의 보존과 계승’(65억)이라는 4대 핵심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행되었다. 이중 ‘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 목표 관련 사업의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2004년도부터 신설된 복권기금사업이 상기 목표 아래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대 지원목표아래 하위 단위사업별로 문예진흥기금 사업이 수행되었다.

**첫번째 지원목표인 ‘예술창조 역량강화’**의 경우, ‘예술창작지원’(36억)을 통하여 서울발레시어터의 ‘사계’, 대안공간 풀의 ‘대안공간 풀 2004년의 대안’ 등 창의성과 예술성이 높은 문학, 전시, 공연예술의 다양한 창작 발표 활동 및 독창적인 기획행사나 예술축제 등을 지원하였고, ‘창작공연활성화 지원’(6억)을 통해 극단 성좌의 ‘달의 뒤쪽’ 등 우리나라 공연예술분야의 대표적인 창작품을 발굴, 공연까지 연계 지원함으로써 공연예술의 질적 수준 향상과 창작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다원적 예술 지원’(6억)을 통해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 2004’나 ‘일상과 예술이 만나는 흥대앞 예술시장 프리마켓’ 등 정형화된 기성예술 장르의 틀에서 벗어난 독립, 실험, 대안적 경향의 비주류 예술 활동을 장려하여 새로운 예술적 잠재력을 가진 다양한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였고, ‘신진예술가지원’(5억)을 통해 김지현, 박지은, 예효승, 임승률 등 각 분야별로 우리 예술의 미래를 책임질 유망한 신진예술가들을 발굴, 육성하고 작품 활동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예술창작 기반과 그 창조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두번째,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의 경우, ‘관객개발 지원’(32억)을 통한 전국적인 사랑티켓제도의 운영으로 일반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접근하는 문턱을 낮추었으며, ‘찾아가는 예술 지원’(52억)을 통해 문화예술 접촉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국민들을 위하여, 기존의 고정화된 예술 발표 공간이나 수도권에서 벗어나 거행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 등을 지원하였다. 여기에는 복권기금사업으로 처음 시행된 문화소외지역 전국순회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문화예술 체험 지원’(10억)으로 ‘2004 김유정 문학캠프’ 등 직접적인 예술 체험과 참여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으로 하여금 문화 감수성을 계발하고 미래의 예술 애호가를 육성하는 한편, 일반 시민들의 문화예술 의식을 고양하는 등 국민 문화 향수층을 확대하였다. ‘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133억)을 통해서도 세대간, 계층간 문화적 화합과 조화를 위해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였다. 여기에는

기존의 함께 하는 문화복지 사업 외에도 '아동복지시설 대상 문화교육프로그램 제공'이나 '도시저소득주민 및 농어민대상 생활친화적 문화환경' 조성 사업이 복권기금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267억)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였고 여기에는 '지방문예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 개발 지원', '지방문화원 중심 지역문화체험프로그램' 등의 복권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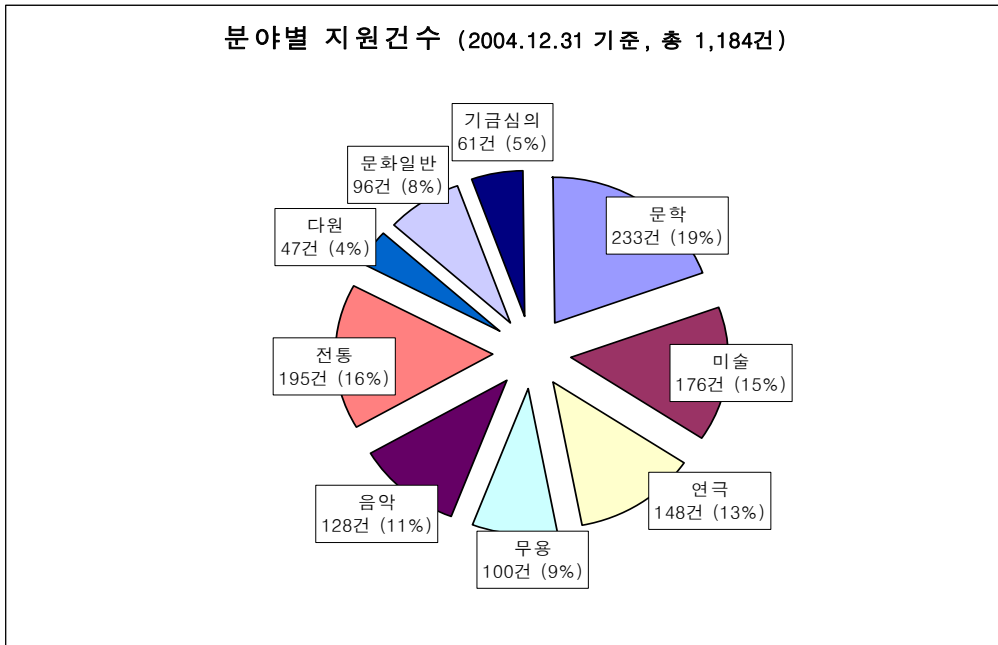
세번째로, '문화예술 교류활성화' 목표의 경우, '**통일민족문화교류 지원**'(2억5천)을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토론연극 연중 프로그램' 등 한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민족문화예술교류 활동과 재외동포대상 문화예술교류 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20억)을 통해 '2004 춘천마임축제' 등 모든 분야의 우리문화예술을 해외에 소개하거나 해외 문화예술을 국내에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국내외 문화예술인의 국제교류 및 우리문화예술인의 해외 연수를 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술의 보존과 계승'이라는 목표 하에, '**예술 보존 조사 연구 지원**'(15억)을 통해 영월책박물관의 '1950년대 교과서 그림자료집 발간' 등 소중한 예술 유산과 각종 예술 자료의 구축 및 기록 보존, 예술 현상에 대한 비평과 연구 활동,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지원하였다. '**예술 자료 정보화 및 보급 지원**'(3억)을 통해서도 예술창작 여건 개선 및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노동자문학연대의 '디지털 노동문학자료실 구축사업' 등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을 활용한 예술 정보화 및 보급, 기 개발된 문화예술 콘텐츠의 확산 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전통예술 발표 및 전승 보급 지원**'(46억)을 통해서도 '김유경류 봉산탈춤 발표회' 등 전통예술의 원형보존, 전시, 공연, 전문인 육성 등을 지원하였고, 복권기금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전통예술 대중화, 세계화 지원**', '**민속문화전통축제 지원**' 등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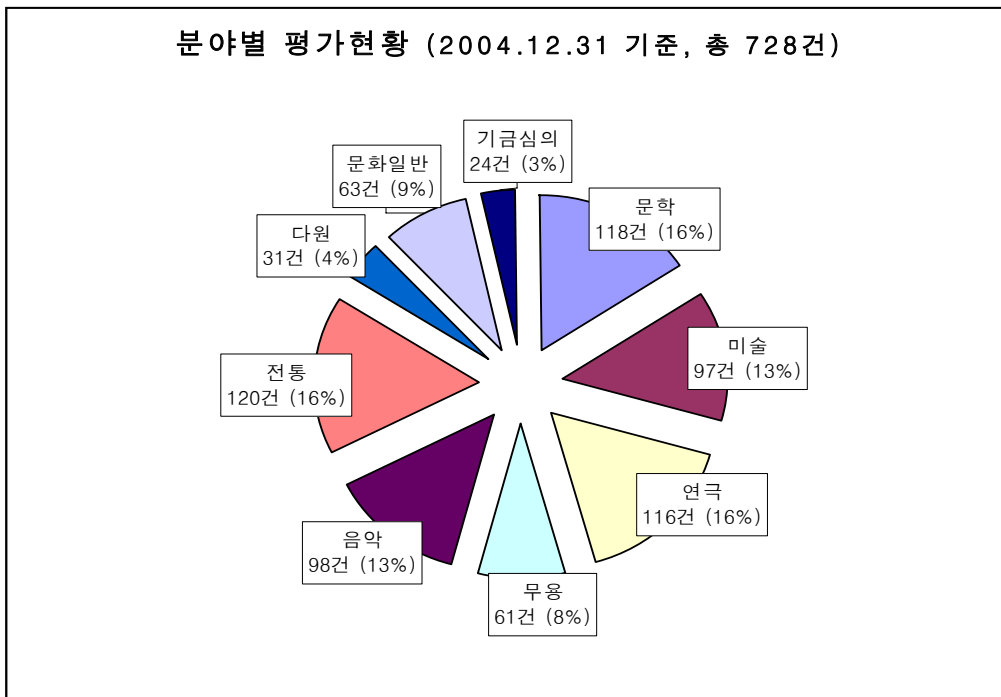
### 3. 분야별 성과평가

#### 가. 분야별 지원대상/평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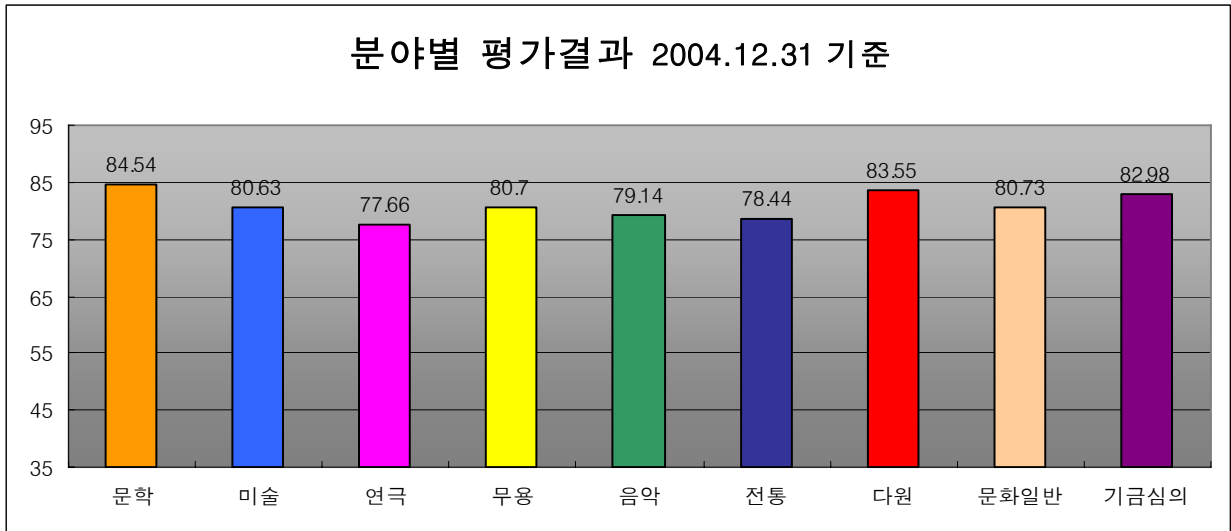
##### 1) 분야별 지원대상현황



##### 2) 분야별 평가현황



## 나. 분야별 평가결과



## 다. 분야별 평가위원 성과평가

### 1) 문학

#### <김성수>

- 단위사업별로 보면 ‘예술의 보존과 계승’,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 체험 참여 활동 지원’ 등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통일 민족문화 교류 지원’, ‘문화예술 해외교류 지원’ 등의 단위사업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다. ‘통일 민족문화 교류 지원’, ‘문화예술 해외교류 지원’에 대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 ‘예술의 보존과 계승’ 사업의 경우 문학작품 보존·조사·연구라는 본질적 목표보다 부수적 목표인 단체 성원의 친목을 위한 연수성격 행사가 과다하여 지원 심의부터 옥석을 좀더 엄밀하게 가릴 필요가 있다. 그런 한편, 궁극적으로 문협/작가회의, 노장·원로/소장·청년 세대, 지원 수혜단체/탈락 단체 간의 갈등을 화해할 수 있도록 두 집단 간의 연합행사 성격을 우선 지원하는 등 문단을 두루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공감된다.
- 올해의 경우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 체험 참여 활동 지원’ 등은 작년의 경우와 비교해서 내용과 형식의 질과 완성도, 지역적 계층적 다양성, 참여도 면에서 더욱 충실하고 우수한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김유정 문학촌, 홍명희문학제, 육사 100주년 기념 축제 등 지역문학, 아동문학, 노동문학 등 소외된 분야의 경우 적절하게 지원만 잘 해주면 언제든지 충실한 개별 사업을 기획, 연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한 것은 의의가 적지 않다고 평가된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하는 상투적인 행사치레가 아니라 매년 새로운 행사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돋보였다.

- 또한, 행사의 규모가 큰 경우 단위사업별 지원의 영역을 넘어서는 경우가 생긴다. '2004 작가축제 평화평등을 향한 한국문학발자취'나 '제9회 홍명희문학제' '이태준 100주년 기념행사' 등의 경우 일반인을 위한 <문화 향수기회 확대>라는 기준과 함께 전문가를 위한 <예술의 보존과 계승>이라는 이중적 평가기준을 만족시켰다. 이렇게 2가지 이상의 장르간 행사와 2가지 이상의 평가기준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하는 식의 평가/심의 지표 보완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다원예술과는 달리 다문화성 종합행사가 차츰 늘어가는 추세를 일정하게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평가제도의 경우 점수로 나타나는 계량적 정량적 평가(점수) 외에 비계량적 정성적 평가(중요 의견)를 지원심의 및 사업 개선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었으면 한다. 나아가 상반기, 하반기 총평가의 경우 평가위원이 직접 현장 평가를 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평가 보완을 위해 그와 관련된 다른 모니터의 의견(특히 점수화하지 않은 정성적 평가 의견) 등을 참조하게 해준다면 보다 공정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이동제>

- '문화예술지원' 항목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으나 '함께하는 문화복지지원'과 '통일민족문화교류지원' 및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은 지원사업 대상이 대체로 협소했다. 이 부분에 대한 홍보와 참여 유도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할 것 같다. 필요하다면 문예진흥원에서 사업을 계획하여 사업 대상자를 응모받는 방안도 생각해볼만 하다. 나아가 전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국민응모제'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 '예술보존조사연구지원'은 사업 취지와 내용이 서로 조화되지 않는 사업들이 다수 있었다. 사업 주체자들이 매년 관례적으로 해온 행사란 느낌을 받기도 했다. 보다 실질적인 예술보존·조사·연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사업 내용의 타당성과 성실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 과시적이고 소모적인 행사에 대한 지원을 지양하고 좀 더 생산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기 위해선 현장 평가에 대한 경험과 자료를 활용하여 부실한 행사를 가려내고, 각 장르와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국적인 축제나 행사로 자리잡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집중적이고 정기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일한 사업이 매년 선정되는 경우 구태의연한 사업의 내용이나 형식의 답습을 지양하고 매년 새로운 사업 내용이 첨가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창의적인 행사 내용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문학 분야의 경우 각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는 달라도 대체적으로 행사 내용이 비슷한 경우가 많다. 문학 단체의 난립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현상이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되도록이면 부실한 사업 내용을 가지고 소모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겠지만 비슷한 사업의 경우 단체들끼리의 통합 운영 방안도 연구해서 시도해볼만 할 것 같다.

## 2) 미술

### <강성원>

- 모든 문진기금은 일종의 기획지원 형식을 띄어야한다고 보임. 기획지원이란 문진기금의 각 부문별 중요 지원예상사업을 장기적으로 기획, 프로그래밍화하고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공모한 후 결정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 문진기금은 또한 문화예술의 창작과 향수,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여성, 아동, 노인 등과 환경, 복지, 남북문제 등 모든 류의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차원의 지원개념이 돼야한다. 즉 이런 목적을 위한 공공문화활동에 총체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에 종사할 수 있는 문화예술계의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고, 이런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의 다양한 메커니즘에 문화예술의 이론적, 실천적 가치를 창출해 볼 수 있다고 보인다. 현재와 같은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은 미개할뿐더러 실은 매우 우연적이며 권력적, 투기적이다.
- 문진기금은 국가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것이어야 하며 본질적으로 문화복지, 국가의 문화서비스 차원에서 행해져야한다고 본다. 물론 이 범주와 별도로 순수예술창작 지원금이 있을 수 있는데, 매우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작품의 창조성과 작품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소수다액지원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이것을 제외한 모든 문진기금은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복지 차원으로 나가야한다고 본다.

## <고충환>

- 2004년도 미술 분야 지원 사업은 보통인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들어 탈장르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서 정통적인 장르로는 구분할 수 없는 그 성격이 모호하거나 종합적인 형태의 전시와 행사들이 많아졌다. 이는 상대적으로 정통적인 장르와 정통적인 방법론을 구사하는 주체를 소외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그리고 대안공간을 비롯한 각 사업 주체에 대한 검증 장치가 마련돼야 하리라 본다. 또한 각 지원 사업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여 그 내용이 평가 주체에게 전달되고 반영되는 식의, 평가 시스템이 지금보다 더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다.

## <이선영>

- [예술의 창조역량 강화]
  - 방명주는 세계를 수집하는 카메라의 힘을 통해 보이지는 않지만 현대사회를 관통하는 힘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카메라의 광범위한 수집능력을 통해 다른 차원에 편재하는 동형적 질서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나 웹상에서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 디지털 사진을 아날로그적 방식으로 전시하는 방식은 뭔가 동어반복적이다. 작은 전시공간을 내실성으로 꽉 채운 방명주와는 달리 아트선재센터라는 큰 전시공간에서 열린 김소라 김홍석 전은 땀튀기 되거나 제도 공간의 핵심에서 비제도적인 제스추어를 연출하는 다소 억지스러운 모습이다. 두개의 전시를 하나로 묶은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지 못했고, 지원된 기금의 규모에 비해 기대에 못미치는 작품으로, 관객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다. 방명주, 김소라-김홍석 전은 개인전 지원의 경우 기금의 규모에 의해 효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민미협이 정기전과 구분주 추모전은 민중미술의 현재를 가늠할만한 큰 전시였다. 그러나 전시 규모에 비해 전시의 방향성에 대한 담론이 빈곤했다. 민중미술계열의 정기 기획전인 민미협이 '조국의 산하전'은 지금 횡행하고 있는 여러 문화 사조들에 대한 대항 논리를 구축하려 하였으나 역부족이고, 실제 전시된 작품들은 동호인적인 모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가령 이미 알려진 개인의 구작, 이 전시가 열리기 전후에 열린 회원들의 개인전 작품을 하나씩 내는 방식은 단체의 이름과 명분을 퇴색하게 하는 안이한 방식이다. 조각 분야에서 민중 미학을 탄탄하게 구축한 구분주의 1주기 추모전은 시간적 격차를 두고 광주와 서울 전시를 연이어 개최함으로써, 관객을 많이 확보하였다. 그러나 전시 규모에 비해 그에 담론은 미비해서, 전시서문 형식의 글 한편이 전부였다.
  - 전통에 관련된 두 전시는 진부한 명분에 매몰되어 있었다. 갈물 한글서화전은 수백명의 회원이 한작품씩 출품하여 뻑뻑이 채워진 전시장에서 서법의 여유로운 공간을 찾아볼 수 없었다. 각자의 작품이 아무리 훌륭해도 한

글날 기념 따위의 명분만으로 대중이나 해당 전문가들의 전시장으로 끌어낼 흡인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구본아의 개인전은 한국화의 현대화라는 강박관념이 투사되어 있다. 먹을 서양의 물감처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 공간보다 형태분석에 치중하는 것, 즉물적인 표면처리, 실제 공간에 설치하는 방식 등은 이미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많은 신진 한국화가들이 시도하는 것이다.

- [신진예술가 지원] 브레인 팩토리는 신생 대안공간으로 이 전시공간의 운영방식은 큐레이터나 이론가들에게 작가 선정권을 주는 것이다. 추천자의 취향에 따라 선정된 작가의 수준이 들쭉날쭉하고 이 공간의 특징이라 할만한 것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갤러리나 다른 대안공간에서 이미 선보인 작가들이 다시 등장하는 것도 치명적이다. 더구나 같은 년도에 이미 전시를 한 작가들이 연이어 초대되는 경우가 많아 신진작가 발굴이라는 명분이 퇴색해 있다.
- [문화예술향수기회의 확대] 부문은 대체로 지향점은 좋으나, 참여인원이 적고 대상도 한정적이어서 아쉬웠다. '어린이를 위한 교실 밖 건축문화 체험'에서는 단순한 건축 개념을 벗어나 '주변환경의 조직', '나의 공간'과 '우리의 공간'을 더불어 생각하는 지향점이 우수하며, 건축을 벗어난 다양한 예술장르와의 접촉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참여 인구가 적다. '청소년을 위한 도자체험교실'은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여 연 도자체험 교실과, 도예의 정보화와 대중화를 주제로 한 학술 세미나였다. 학술세미나의 경우 원론에만 치우쳐있고, 학계를 중심으로 회원들만 참석하는 수준이다. 스스로 외치는 대로 학교와 학계를 넘어서야 진정한 도예의 대중화가 가능한 것은 아닐지. 사실 현장의 많은 도예 인구를 생각하면, 전시적이고 계몽적인 행사보다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킬 수 있는 보다 실용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김종영 미술관 청소년 조형 아카데미'는 3년에 두 번정도 미술관에 들른다는 청소년들에게 미술관의 자체 기획전과 교육을 연계시켰다는 점에서 훌륭한 프로그램이다. 3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규모, 그리고 훈련된 많은 에듀케이터의 활동 등은 '문화향수기회의 확대'라는 기금의 목표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 [문화예술교류 활성화]에서는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많은 지역의 작가들이 참여하였으나 매해 전시가 계속될 수록 규모만 커지고, 커진 규모에 비해 자체 미학적인 지향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가령 '2004 금강 국제 자연미술제'는 부대행사로 학술 심포지움까지 마련했지만, 이 전시의 바탕인 '자연 미술'이라는 개념의 미학적 정의가 여전히 불확실하다. '2004 공간국제 비엔날레'는 그동안의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질서있고 안정적인 전시를 보여주었고, 더구나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시립미술관이라는 장소가

좋았다. 그러나 전시장을 채운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은 무난한 작품들은 기존 미술에 대한 통념이나 교양 수준을 넘어선 새로운 주제의식을 제시하지 못한다. '2004 아시아의 지금 에피소드'는 일상성이 주제였는데, 혁명보다는 이제는 일상이라는 식의 주제는 해묵은 주제이다. 전시장소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전시 기간이 9월서 12월 말로, 심지어 전시를 몇 달 앞두고 담당 큐레이터까지 변경되었다. 전시내용도 내용이지만, 형식면에서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기획 안과 많은 차이가 나는 전시였다.

### <민병직>

- 2004년 현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전체적으로 새롭고 참신한 사업의 성과를 보여주었던 사업이 드물었다는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예술창작지원과 신진예술가 지원의 경우 사업의 완성도 못지않게 기획의 독창성과 새로움이 중요한 요소일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요소를 충족시켰던 사업들을 많이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무난한 사업들이 많았다는 면에서 사업들 간의 편차는 많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평가는 바꿔 말한다면 기금지원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즉 지원의 타당성은 얼마간은 있었지만 지원의 효과라는 측면에서는 좀더 생각해볼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사업의 규모와 내용이 소규모적인 경우가 많았던 것도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며 그만큼 기금 의존적인 사업이 많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면이기도 하다.
- 지속적인 지원을 받은 사업들의 경우 안정적인 사업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다소 관성화된 사업의 모습을 보인 경우가 많았으며 새롭게 지원을 한 대안공간들의 경우 대안공간 특유의 역동적인 모습을 발견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사업들의 경우 좀더 다른 형식의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나 싶고 같은 맥락에서 새로운 단위의 신청사업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역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예술창작지원의 경우 기존의 협회나 공간 이외의 새로운 단위들의 사업수혜가 적었던 것이 아쉬웠으나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무난한 사업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괄목할 만한 사업들이 적었던 것이 동시에 한계로 남기도 했다. 신진예술가 지원의 경우 갖고 있는 위상에 비해 지원된 사업이 많지 않았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기금 지원의 특성상 좀더 확대되어야 하고 지원규모도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문화예술체험지원의 경우도 교육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는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시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함께하는 문화복지지원사업의 경우도 선정사업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신청 단계에서 이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홍보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들 사업의 경우는 일회

적인 현장평가만으로는 다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더 다른 평가의 틀 역시 고민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문화예술교류지원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사업의 편차가 컸던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타이틀과 명분에 걸맞지 않은 관례적인 사업들이 여전히 존재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만 몇몇 사업의 경우는 지속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꾸준한 성과를 보였다는 면에서 높은 평가를 내릴 만 했다. 문화예술국제교류 지원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좀더 엄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예술보조조사연구 지원의 경우 다른 사업유형과 중복된 사업들이 선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만큼 보존조사연구의 측면이 모호한 사업들이 (현장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것 같았다. 사업유형간의 좀더 변별적인 사업선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 전체적으로 무난한 사업들이 많았다는 것은 결국 새롭고 참신한 기획이 많지 않았다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단체, 공간들의 지속적인 기금신청과 수혜의 과정 속에서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준 사업들이 많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 사업의 경우 기금지원의 효과라는 면에서는 좀더 고민해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2004년의 경우 이러한 맥락에서 사업의 완성도와 안정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기금지원의 효과의 측면, 참신하고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사업의 성과를 볼 수 없었다는 면에서는 다소 부정적이다. 물론 전체적인 사업의 수혜의 폭과 규모는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점차 새로운 단위의 기금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지원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 (특히 신진예술가 지원의 경우 점차 그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 3) 음악

#### <정완규>

- 음악분야는 단위사업별 사업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가 매년 향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직도 기획, 연출, 구성, 내용 등 프로그램에 있어서 참신성과 독창성, 차별성 등이 비교적 미흡하지만 사업의 완성도는 계속 향상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단위사업별 지원목표(분야)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도 점차 증가되고 있다. 다만 수용자의 참여도나 호응도의 증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방으로 갈수록 수용자의 관람 수준이 낮음을 볼 수 있는데 공연장 예절 교육이 절실하다고 본다. 아울러 향수 기획의 확대가 목표인 사업에는 수용자가 편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연주 형태가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

## <하지숙>

-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비교적 문화예술분야에의 지원이 폭넓고 다양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예술적인 완성도나 내용면에서 고른 수준을 보였고, 관객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었다. 다만 지속적인 공연을 받아 온 공연이나 연주단체의 경우, 사후 평가가 반영되어 좀 더 새롭고 실험적인 내용들로 변화되고 발전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한 형태의 기금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4) 무용

### <문애령>

- 예술 창작지원에서 파사무용단의 <네 개의 장미꽃 이야기>는 관객 호응도나 공연의 질적인 수준에서 상위 그룹에 속했다. 신진예술가 지원의 '정용진 공연', 함께하는 문화복지지원의 '장애인소재공연',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의 '국제하게 현대무용', 조승미발레단의 '신데렐라', 창작공연활성화의 '댄스 씨어터 온'은 공연일정을 미리 확인하지 못해 관람하지 못했다. 지원사업의 일부는 공연 날짜가 하루에 불과해서 허점을 드러냈다. 또한, 대학 내부에서 진행되는 행사일 경우라도 평가 대상 공연은 외부 공연장을 적극 추천하기 바란다. 본인에게 배당된 사업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공연이 이뤄진 것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정보를 평가위원회에 제공해주기 바란다. 매달 배당된 공연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서 평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날짜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단체장과 직접 연락을 취해 관람권을 얻는 절차가 생소했다. 이 방식은 매우 위험한 관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김채현>

- 2004년도는 예술의 위기가 공론화된 시기였고, 무용계 역시 그런 지적이 무성하였다. 이런 이유에서 지원사업들의 충실도가 더욱 높아질 필요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기대에 미흡하였다. 물론 총괄적으로 말해서 무용 분야 지원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그러나 이는 무용 행사 내부에 치중한 판단과 평가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004년도 무용 분야 지원 사업을 한 묶음으로 놓고 이를 무용과 외부의 관계에서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느냐고 자문할 경우 그다지 긍정적인 답이 내려질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으로 흔히 제한된 예산과 소액다건 식 지원의 폐단이 들어지곤 하지만, 소액다건에 편승하여

나눠주기 식의 지원도 적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지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지원 사업에서는 특히 기획력을 주목해야 할 것인바, 누구나 피부로 느끼는 무용의 위기를 타개하려는 몸부림이 무용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다. 이는 무용 공연과 기획이 매너리즘에 안주하고 있음을 반증하는바, 이러한 매너리즘을 타개할 지원 방법과 지원 심사 방법이 새롭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창작을 비롯하여 개별 무용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능동성보다 수동성이 엿보이는 것도 위기 타개 노력이 미온적임을 대변하며, 전반적으로 지원 대상자가 잠재적인 열성을 현장에서 발휘하도록 다양한 방안이 고안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5) 연극

### <박계배>

- 올해의 '예술창작지원'은 참신성이나 독창성, 완성도에 있어서 눈에 띄는 사업이 드물었다. 반면에 '찾아가는예술활동지원'과 '문화예술체험지원'은 수용자 만족도나 사업수행능력에서나 상대적으로 돋보였다. 그래서 그런지 '예술창조역량강화' 보다는 '문화예술향수기회확대' 부문의 지원목표달성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애매했던 것은 전국 규모의 대동소이한 축제가 '예술창작지원'에 4개씩이나 포함돼 있는 거였는데 전체가 재공연작으로 구성된 이들 야외축제들을 가지고 예술창조역량을 평가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축제를 평가할 때는 평가항목 배점을 수정해 그 축제가 해당분야의 발전과 지역민들의 문화예술향수기회확대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 참가작들뿐만 아니라 각종 부대행사, 축제를 운영하는 능력 모두까지를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올해의 야외축제들은 대개가 8월 우기와 11월의 쌀쌀한 날씨에 편중되어 있었는데 소나기가 내리거나 찬바람이 불면 대책 없이 공연이 연기되는 등 관객에 대한 배려가 소홀했다. 야외축제가 공통적으로 관객빈곤현상을 겪은 것도 이런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 '문화예술교류활성화'사업은 대체로 평가들이 좋았는데 앞으로는 단순히 해외작품을 잘 사들여오는 것만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교류란 말 그대로 양방향적 이어야 하며 따라서 해외교류지원을 받는 축제들은 이 양방향아트마켓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가장 성공한 해외교류지원사업으로 손꼽는 16년 역사의 <춘천인형극제>도 이 방면에선 거의 낙제점이다. 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것을 파는 것이다. 거기에 걸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마켓 운영으로 그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계속지원의 명분도 커진다.

- 또 여러 해에 걸친 검증으로 지원목표달성도가 높게 평가된 사업들은 그 중 몇 개를 추출하여 허브지원사업으로 선정해 과감하고 통 큰 지원금액으로 집중지원했으면 한다.

### <김명화>

- 문득 우리 모두가 '열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음. 지원정책이라곤 전무하던 기초예술의 열악한 토대에 이제야 겨우 지원정책이 생겨나고, 이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지 동분서주 애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음. 이런 노력들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자리잡아, 무엇보다 연극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랍.
- 이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쓴 소리를 하자면, 일년 동안 현장평가를 죽 하다 보니
  - 진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결과물은 많지 않음. 아직까지는 가난하고 열악한 연극계 동료들을 위한 나누어주기식 지원같은 인상을 줌. 후보작들이 워낙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고만고만하거나 그 이하의 작품들이 자주 보여 쓸쓸했고, 때로 어떤 분야는 편향적이지 않은가 다소의 심스럽기도 했음(특히 <찾아가는 예술지원>에서 보여진 민족극 계열에 대한 느닷없는 과투자는 전체 연극에서 민족극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량을 생각할 때 어처구니없음.). 지원받은 팀의 역량도 문제지만, 심사위원들의 안목이나 공정성 그리고 연극에 대한 비전 역시 앞으로는 심사대상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음.
  - 신청서만으로 심사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생각 들기도. 신청서의 의도와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았고, 신청서를 잘 만드는 기술과 연극을 잘 만드는 기술은 다르다는 생각이 듦. 그러므로 신청서 이상의 예술적 역량에 대한 검토와 그것이 신청서 이상의 심사기준으로 작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낌. 가령 극단의 경력이나 혹은 최근 오년/칠년 정도의 작품성과를 심사기준의 하나로 채택한다든가 하는 식의 보조 장치들이 필요할 듯. 그리고 앞으로 신청서의 결과에 크게 미달되는 작품은 적극적으로 배제할 것.
  - 신청서를 받아서 지원금을 주는 수동적인 지원정책만이 아니라, 능동적인 지원정책도 수반되면 좋을 듯. 가령 한 해에 잘 만들어진 문제작들을 이후 몇 년 안에 재공연시켜준다든가(극장 수의 부족으로 일년 안에는 힘들 수 있음), 극장이나 연습실 공간을 확보해 준다든가, 연극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준다든가, 혹은 좋은 작품들에 관객을 동원시켜준다든가, 그런 노력들 말이다. 또 한 가지, 기획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면 좋을 듯. 지금 동승동에 떠도는 흥흥한 소문의 하나가, 지원금을 받아도 연극인의 형편은 좋아지지 않고 극장주나 기획의 배만 불린다는 소문이 있음. 관객 동원 프

로그램이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이런 불합리가 조금은 시정될 수 있지 않을까?

### <김미도>

-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평가를 열심히 하지 못했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지만 하반기에는 개별 작품의 공연보다 지역을 순회하는 사업들이 많이 몰려 있어 스케줄을 맞추기도 어렵고, 그 이전에 극단들의 스케줄을 파악하는 자체가 너무 어렵다. 순회공연을 다니는 사업의 경우에 각 극단이 따로 스케줄을 평가 사이트에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평가위원들이 일일이 극단에 전화해서 공연 일정을 챙기기에는 너무 번거로울 뿐 아니라 극단에도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
- 문예진흥원 지원 사업의 핵심 목표는 결국 질 좋은 작품을 생산하는데 보탬이 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예술창작지원'과 '창작공연활성화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창작공연활성화지원'에 비해 '예술창작지원'은 상대적으로 선정 경위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소액다건주의 지원으로 그 성과도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체험지원'과 '찾아가는 예술지원'은 그 경계가 분명치 않아 보인다. '찾아가는 예술지원'을 소외 지역에 집중시킨다면, '문화예술체험지원'은 확실히 연극행위를 함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사업에만 지원되었으면 한다. '문화예술 국제교류지원'의 경우,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국제 페스티벌 쪽에 집중되고 있는데, 사설극단에서 외국 스태프를 초청하거나 합작 공연을 제작하는 경우, 또는 국내극단이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 등에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한다.

### <이영미>

- 평가대상 사업은 대체로 우수한 편이었다. 단 여전히 '찾아가는'과 '문화예술체험'과 '함께하는 문화복지'는 좀더 그 성격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었다. 이 세 분야는, 연극계의 주요 공간이 아닌 일반 대중의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로, 대학로를 주 터전으로 삼고 있는 연극인들로서는 자신의 주요한 활동으로 생각하기 힘들다. 그러나 막상 대학로의 우수작들을 이러한 생활공간에 가져간다고 문화향수권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업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생활공간에서의 사업은 애초부터 그것을 겨냥한 사업이어야 하고, 적잖은 노하우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 정도의 지원금으로는 대학로 공연의 순회공연 이상을 계획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긴 기간의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 대신 관객수입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분야를 좀더 특화시키고 강조하여 기획단계에서부터 대학로 이외 관객을 겨냥한 특화된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이 필요하고, 또한 지원사업선정에 있어서도 대학로 중심적인 사고를 탈피하는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박준용>

- 전반적으로 지원대상 단체들은 제출된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간 것으로 평가된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체로 참여 관객들의 반응 역시 긍정적인 편이었고 특히 지역문화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지방관객층의 긍정적인 수용과 평가는 고무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공연예술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기획력의 부재는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전문적인 기획의 부재는 대상 관객층의 성격에 맞는 적합한 공연형식 및 내용을 선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관객서비스의 부재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한마디로 공연자들만 있을 뿐 관객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기획 개념의 부재는 사업의 공간 선정 및 홍보 분야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정신의 결여로 드러나고 사업의 파급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고질적인 문제점이 되고 있다. 특히 아직도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서울지역보다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각 지역과 장애인 등의 특수계층의 경우 서울 중심 공연단체들의 천편일률적이고 산발적인 순회공연으로는 기대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정리하여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 생각하자면 지방 일반관객층을 위해서는 보다 수준 높은 작품성을 지닌 정규공연물의 준비된 공연을, 복지 분야의 특수관객층을 위해서는 대상의 특이성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성격의 공연이 가능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6) 다원예술

### <안이영노>

- 다원예술 분야사업의 작품성
  - 총평) 다원예술분야의 작품성은 실험성과 개성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높다. 특히 2004년도는 우리 사회에서 그 형식부터 희소가치가 있는 사업들이 선정되었다. 하지만 다원예술분야의 작품성을 사업의 운영과 연출면의 완성도로 놓고 볼 때는, 천차만별이다.
  - 기준) 일부 사업은 장르를 융합하는 것이나 기존의 작품을 별도의 공간에 놓는 것 정도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 독자적인 기획에도 불구하고 높은 평가를 받지 못 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우리 사회에서 탈장르적 성격,

퓨전이나 복합예술을 표방한다든지, 순수예술성을 넘어 지역문화를 주제로 작품활동을 하는 것 정도로는 실험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도심거리로 예술이 뛰어나거나 자연 속에서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는 다원예술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예술이 일상을 만나고, 지역주민을 만나고 다른 장르와 만나고 관객과 직접 대면하는 것은 기본전제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 완성도의 문제) 그런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못 넘어선 일부를 빼다보면, '예술적 우수성'으로 대변되는 사업내용의 질과 가치 면에서는 대체로 탁월하거나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린다. 문제는 '사업의 완성도'로 대변되는 기획과 구성, 운영과 연출 등 형식의 평가다. 대체로 열악한 사업여건에서 대부분의 단체들은 기존의 다양한 실험을 구현하기보다, 행사를 해내는 차원에 머물기 쉽다는 게 중론이었다. 그런 점에서 대체로 사업의 완성도에 빈틈이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공통적이다. 첫째, 작가간 교류 부족이다. 둘째, 사업기간 전 지속적 홍보요원의 부재다. 셋째, 기록사업의 부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사장의 운영 및 안내에 대한 기획을 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이중에서도 행사장에서 안내를 잘 하거나, 충분히 난해한 기획취지를 설명하거나, 도전적이고도 복잡한 컨셉트를 표현해주는 스텝이나 도슨트의 섬세한(hi-touch) 역할이 있었더라면 그 작품의 완성도와 메시지 전달이 탁월했을 법한 아쉬운 사례가 많았다.
- 지원내용 구체화) 따라서 작품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정책은, 그 사업의 홍보 및 현장운동을 강조하거나, 그에 국한된 구체적 지원이 될 필요가 있다. 혹은 홍보와 현장운영 등 인건비 지원항목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품제작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경우, 추가적으로 홍보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명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홍보기획 강화)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담당자들은 재원조달 계획을 막연하게 쓸 수밖에 없지만, 홍보계획은 그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쓴다. 그 관행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 탁월한 사업들이 충분히 일반대중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은, 행사와 작품은 중요시하면서 그 홍보는 사업의 요건으로 보지 않는 잘못된 태도 때문이다. 홍보 역시 좋은 사업을 위해 창조적으로 기획될 부분임은 심사위원과, 평가위원, 문예진흥원 역시 명확히 인식하고 선정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다원예술분야가 창작자의 역량제고 사업은 될지언정 다양한 비주류와 독특한 실험에 대한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는 막아버리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확대할 것으로 판단한다.

○ 기여도와 파급효과

- 단체의 홍보) 대체로 개별사업의 파급효과가 크게 나오지 않는 것은 위에

서 언급한 홍보활동의 부재 때문이다.

- 문예진흥원의 홍보) 특히 주류를 벗어나는 소수자적, 비대중적 성격을 지닌 다원예술활동은 적극 추천해서 알려야 되는 바, 일반 장르와 달리 문예진흥원 차원에서 인터넷홈페이지 상의 읽을거리로 소개하고 좀더 상세하게 추천하는 기획이 필요하다. 실험예술과 다원예술은 이런 과정을 통해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더 빨리 기량이 향상되지 않을 수 없다.
- 기록가치) 개별사업이 다원예술분야 전체에 기여하는 것은 그 독특한 사례로서다. 장르나 활동형태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개별사업은 대부분 중요한 기록적 의미를 갖는다. 2003년도 평가모임에서 강조했듯, 문예진흥원의 다원예술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실험적 문화활동을 담고있는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다. 앞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다원예술분야에 있어 사업선정은 가능한 한, 이질적인 사례들을 뽑는 '분산적'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 물론 지원금액과 그 비중이 늘어야 함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사업 선정단체들은 홍보의 한계를 겪는 한이 있더라도, 활동의 기록과 자료정리는 철저히 하도록 사업운영 면에서 권고되어야 한다.
- 문화다양성의 효과) 다원예술분야의 개별사업들은 기본적으로 문화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비주류와 실험적 예술은 작가의 창조역량 제고라는 목적에 맞는 지원으로 명기되어 있지만, 이러한 평가들은 개선되어야 한다. 다원예술분야의 사업들은 모두, 문화선진국의 시민들이 나오는데 있어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는 목적에도 맞추어야 한다. 기존의 대중오락과 고급예술을 넘어선 다양한 문화체험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다원예술이다. 따라서 지원의 목적은 양분화하고, 특히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의 경우는, 관객서비스나 홍보에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03년도 사업평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그런 과정을 거쳐 실험활동가와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고민에까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많은 다원예술분야 신청단체들이 대중과의 소통을 고민하는 취지의 사업안을 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아이러니는, 비대중적인 다원예술 활동일수록, 홍보의 벽도 높고 홍보에 대해 고민을 덜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작품을 알리고 문화수용자에게 직접 다가가는 기획 사업을 지원하는 것 역시 앞으로 다원예술분야 심사선정의 몫이다.

### <서민갑>

- 다원예술분야에 대한 규정이 보다 세밀하고 분명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장르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은 기존의 장르분야에서 흡수하고, 복합형 장르축제의 경우에는 새로운 지원분야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지원분야가 명확하지 않은 대중음악 등의 대중예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아이টে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 주제나 장르면에서 희소성을 지닌 기획안이라 할지라도 사업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이전의 동일한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심사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만 보다 발전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기획안에 명기된 사업 아이টে에 비해 실제 창작작품의 결과물이나 행사의 진행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다원예술의 특성상 새로운 아이টে에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해야 하는 절차속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예술의 창작과 소통 방식이 단순한 창작자와 향유자의 이분법을 넘어서 감상과 향유, 모방과 재창조를 비롯한 통일적 시스템을 형성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술가와 기획자를 겸하거나, 전문 기획자로 성장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기초 교육 프로그램이 시급하게 마련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 문예진흥기금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이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 홍보, 마케팅, 사업운영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와 지원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국정홍보처에서 진행했던 민간단체지원사업의 경우에서처럼 행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샵을 실시하고 사업 결과를 공유하며 평가를 거쳐 선정된 우수 사례의 장점을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논의 건의사항
  - 현재 다원예술분야의 현장평가를 진행할 경우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수일에 걸쳐 진행하는 사업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2회 이상 현장 방문을 진행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최고 5회 이상 현장 방문을 진행해야만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제대로 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방문을 통해 사업의 공과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겠지만 현실적 여건상 어려움이 많았다. 2005년도 평가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이러한 다원예술분야 평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 평가위원을 늘리거나 평가수당을 평가 방문 회수에 따라 차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평가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7) 문화일반

### <박찬>

- <문화일반> 분야의 사업 평가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문예진흥원이

요구하는 사업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지원 목표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다시 말해 기획이나 연출 구성 내용 등 프로그램의 참신성과 독창성 차별성에서 탁월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리고 프로그램의 완성도 측면에서 과연 만족할 수 있고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측정해야 하는 점이다. 해당분야 관련 전문 인사들의 현장 참여도나 호응도 측정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문화일반 분야의 경우 사실상 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예술성이 뛰어난 출연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참여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그보다는 주관단체의 기획능력이나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의 열의, 또는 출연자나 참여자들의 참여도나 호응도 측정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특정 장르의 분야가 아닌 일반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그러하다.

- 아직도 여전히 우선 지원을 받아놓고 보자는 단체도 있는 것 같다. 지원서상의 계획은 그럴싸해 지원이 결정되어도 실제 행사 현장에 가보면 진행되는 내용이 원래의 계획과 다른 경우도 많고 때로는 아예 사업 자체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지원유형에 대한 인식부족도 있는 것 같다. 현장에 나가보면 지원유형에 맞는 사업인지... 혹은 이 사업은 XX 유형의 사업이 아닐까 할 정도로 사업 내용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종종 있다.
- 상반기 종합평가에서도 지적했지만 외형만 중시하는 대규모 행사보다는 내실 있는 소규모 행사지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예술제나 축제에 편승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은 재고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밖에 좋은 사업의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이에 대한 별도의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무엇보다 지원액의 현실화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전히 문예진흥원의 지원금이 종자돈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종사자(꾼)들의 환경은 열악하기만 하다. 문화일반 분야의 경우 실제로 거의 이들 현장종사자들의 열의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 현장 문화 종사자들은 문화로부터 소외되고 있거나 외면하는 국민들을 문화와 접목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부추김으로써 일반인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김영아>

- 문화일반 부문 사업의 경우 구성과 프로그램의 독창성도 중요하지만 참가자와 관람객의 참여 및 파급효과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2004년의 경우 “찾아가는 예술 지원”과 “문화예술 체험 지원”은 전반적으로 수용자

의 만족도가 컸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소외계층을 대상한 “함께하는 문화 복지”는 그들만의 잔치가 된 듯하다. 일반인들이 참여하여 그들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 되도록 프로그램의 구성이 중요할 것 같다. 소외계층이나 일반시민들에게 파급효과가 있는 학술행사와 축제의 경우 지원이 필요가 있지만 단순 학술 대회 및 단체의 행사만을 위한 경우에는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본다. 또한 재정지원이 취약한 예술 단체와 학회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루 이틀의 행사의 경우 지원금이 축소되어야 한다. 반대로 일년 동안 지속되는 프로그램이나 연중 행사는 지원금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2004년의 경우 전반적으로 하루 이틀 행사에 1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고 일년 및 연중 행사는 지원금이 너무 적었다고 생각된다.

- 모니터링 사이트는 접속이 안되는 경우도 많고, 문화일반 사업의 경우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일이 전화로 사업장소와 일정을 챙겨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이트의 구축도 필요하고, 업데이트 또한 제대로 되어야 한다.

## 8) 전통예술

### <임재원>

- 기획과 구성 등 내용은 매우 참신하고 탁월하였으나 관객이 수가 근본적으로 많았으면 좋겠고, 아울러 전문가 그룹이 아닌 일반 대중의 호응도가 높았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김. 따라서 향후 행사들은 질 좋은 내용에 정비례하는 적극적 홍보가 절실히 요망됨

### <황루시>

- 신진예술가 지원의 경우 기금지원의 효과가 가장 효율적으로 드러나는 사업임. 다만 현재까지는 기금신청이 주로 국악분야에 치우쳐있고 따라서 지원역시 신진국악예술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해외교류지원은 현장평가의 어려움이 있음. 갈수록 해외교류지원이 확대되고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만큼 해외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교류국가가 특정지역에 치중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배려가 필요함. 전통예술의 발표 및 전승보급 지원의 경우 두 사업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음. 발표의 경우는 예술성과 대중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게 되고, 전승보급의 경우 교육적 측면이 중시됨으로 평가의 기준이 달라짐.

### <진옥섭>

- 전통예술이 꽤 많은 분야에서 지원된다. 그중 신진예술가와 전통예술발표 및 전승보급지원을 위주로 평가하였다. 전반기에 언급한대로 전통예술을 전승하는 보존회에서 국가의 전승기금을 받는 발표공연에 문예기금을 합하여 종합 예술제 형식으로 가는 것에 주목하여 국가지정, 시도지정, 전통예술단체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원의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고 이를 다시금 거론한다.
- 후반기에서 두드러지게 생각되는 것은 전통의 앞과 뒤이다. 연주자건, 춤꾼이건 무대의 앞에 서는 사람을 위주로 공연을 바라본다. 그러나 공연의 전체는 뒤의 반주자, 고수, 장단잡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서류상에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레퍼토리 위주로 기록되어 있다. 이제 이 레퍼토리를 공연하는 데 있어, 배경 연주자들의 이름이 명기하고 심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악사를 대동하지 못하면 '녹음테입'이라고 기록하게 하는 판을 두어야 한다. 하여 현장의 공연을 서류상에서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물론 극장도 제 날짜에 잡지 못하기에 날짜나 장소를 옮기듯, 원하는 연주자와 시간이 안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몇 사람의 연주자는 정확을 기해야 그 공연의 진정한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점이 중요하게 부각되어 보다 질 높은 전통예술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한다.

### <신타근>

- 우리 전통 예술의 맥을 이어가고 후대들에게 우리 것을 알리기 위해 운영자들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대중화에 진입하기는 많은 시간이 지나야 자리매김을 할 것 같다. 각 사업단위별로는 주최 측에서 기획, 연출, 구성, 내용 등에서는 모두 충실했다. 그러나 동원되는 관객(수용자) 대부분이 서울지역에 국한되는 등 관객이 편향되어 있었다.

### <김명옥>

- 어떤 공연이나 문화활동을 접했을 때에는 일치된 견해 보다는 다양한 반응을 얻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통예술분야는 과연 어떤 것이 우수한가에 관해 너무나 다양한 의견들이 존립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일관성 없거나 혹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기준에 의한 지원은, 오히려 스스로 없어지고 생겨날 수 있도록 놓아두는 것보다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쉽게는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주체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

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예술적 완성도가 높아서라기보다는 '운이 좋아서' 지원을 받는다고 여기게 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런 예를 보기도 했다.

- 사업평가를 하는 입장에서조차 마찬가지였다. 바로 '전통예술발표 및 전승보급지원'의 개별사업평가에 있어서 공연주체가 참신성과 독창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구현했는가를 평가하는 경우였다. 전통예술에 있어서 '전통'이라는 것은 너무나 확고한 것인데 과연 참신성과 독창성을 어떻게 구현할/한 것인가? 그 해석과 구현이 너무나 다양해서 평가자의 입장에서조차 확고한 기준을 유지하기 힘들었음을 회고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해석'을 참신함으로 여겨야 할까?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기준이 없는 평가는 주관적으로 해버리는 말장난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많은 평가와 의견이 누적되었겠으나 특히, 전통예술분야에서는 여러 예술가들의 의견수렴과 그에 따른 일관된 기준 및 정책의 제시가 꼭 필요하다.
- 한 가지 더, 전통예술분야는 '전통예술발표 및 전승 보급 지원' 사업분야에 대부분의 사업이 포진되어 있다. 그곳에는 목적과 효과와 행태가 다른 수십가지 개별사업들이 한 데에 뭉뚱그려져 있는데, 그렇게 다양한 사업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단위사업이 좀 더 세분화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모니터링요원 평가의견수렴에서도 나타났듯이 개별사업에 대한 사전 정보가 많이 부족하였던 것이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여러 개별사업들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만큼 사전에 실제 사업진행에 관한 더 많은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었으면 한다.

## 9) 예술정책

### <정감영>

- 2004년도 지원사업 평가와 관련하여 담당했던 예술정책분야는 우선 예술지원정책이 목표인지 아니면 향수자의 예술감상지원이 목표인지 분명해져야 한다. 이 점은 매년 지적되는 바이지만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요즈음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향수자를 위한 것이라면 지역과 대상에 따라 접근방법이 다양해 져야 한다. 같은 레퍼토리를 여러 곳에서 무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예술작품의 경제적 규모달성에는 기여할지 모르지만 보다 효과적으로 향수자들에게 다가오는 문화예술일수는 없다.
- 또한 지원 선정 시에 다음해의 각 장르별 전국 예술행사(축제)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예술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마치 찾아가는 문화활동인양 위

장하여 지원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활동을 위하여 이미 참가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을 알리지 않고 그 지역을 소외된 지역으로 하여 찾아가는 문화활동인양 위장하는 것은 지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 연구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어떤 장르의 어떤 유형의 문화예술작품이 감수성을 함양하는데 효과적인지 연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과학적 선정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정동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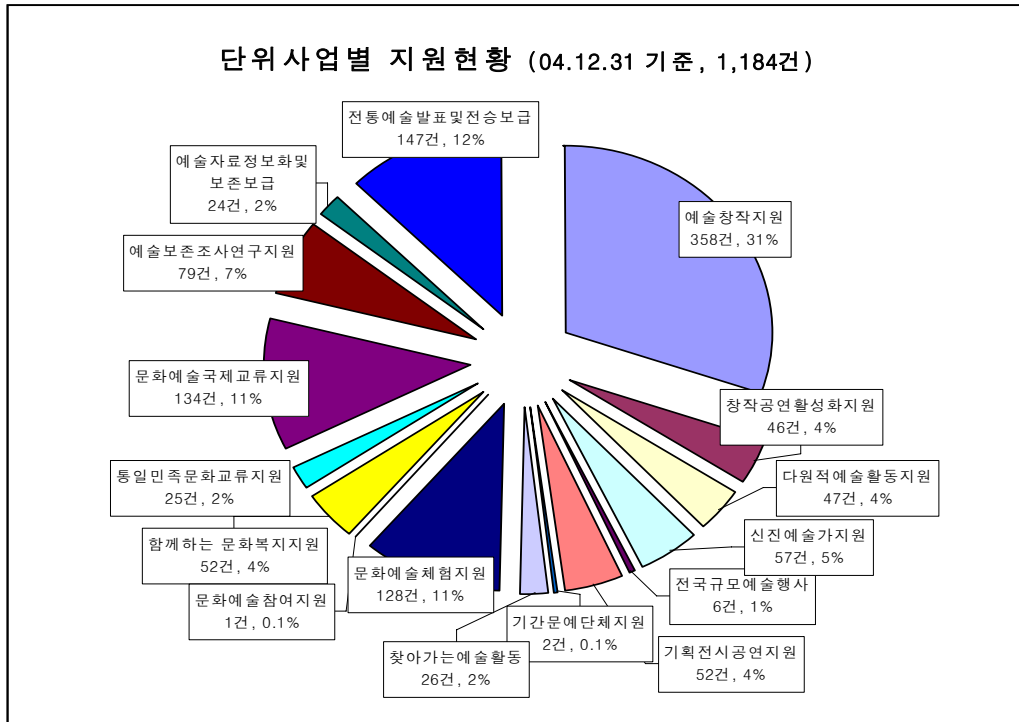
- ‘문예진흥기금의 효과적인 지원 및 이를 통한 예술역량 발전’을 위해 예술정책 분야의 경우 주로 지원방식의 효율성, 적절성 및 지원단체들이 수행한 공연의 참신성과 완성도, 일반인들의 예술향수 기회확대 및 적극적인 참여유도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특히 다른 평가분야와 달리 예술정책의 수행주체인 문예진흥원의 지원방식과 성과평가 등이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를 위한 4가지 세부 단위사업 모두 프로그램의 참신성과 독창성은 우수하다는 인상을 받았으나,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수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및 호응정도는 <보통>이었다는 평가를 하고 싶다. 아쉬운 점은 공연단체들이 의도한 만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조건 등이 열악한 현실로 인해 실제 지역민 전반에 걸친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단순히 공연장소나 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소수지역민만을 위한 1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처럼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수용자 참여도 등이 그리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 원인들은 여러 가지 존재하겠지만, 이들 중 하나로 현행 문예진흥기금의 지원방식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 먼저 기금지원방식, 즉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지원방식 및 수혜기관의 선정문제 역시 주의가 요구되는바, 소액 및 단년도 방식으로 보다 많은 단체들을 지원하는 방식을 지향할 것인지, 아니면 경쟁력있는 일부단체들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여러 지원기관들로부터 지원금을 동시에 수혜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일부 공연단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마련역시 요구된다. 또한 늘 지원받는 기관들만 매년 지원이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강화 및 당해기금의 위상강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지원방법 이외에 지원을 통해 얻어진 '결과' 혹은 '성과'가 무엇인지 명확화하기 위한 평가방법론의 개발 역시 문예진흥원의 숙제가 아닐까 여겨진다. 이를 위해 기금지원 관련 성과평가지 보다 정교화된 평가체계의 구성이 필요하며 정량적·정성적 지표들의 개발 역시 수반되어야 한다. 성과지향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평가방법 중 하나로 문예진흥원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공연단체와 지원기간동안 이른바 '성과협약' 등을 체결하여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하겠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명시적인 인센티브 등을 사후에 주는 것도 공연단체들의 지원동기 부여 및 예술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 국민들의 접근성 제고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성과평가 및 지원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경제적 자금지원기관'만의 소극적 역할이 아닌 각 공연기관들 간 정보 공유, 시설·설비 향상 및 기반강화 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육성하는 다기능 체계로 문예진흥원의 지원 및 평가업무가 진행되는 것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할 만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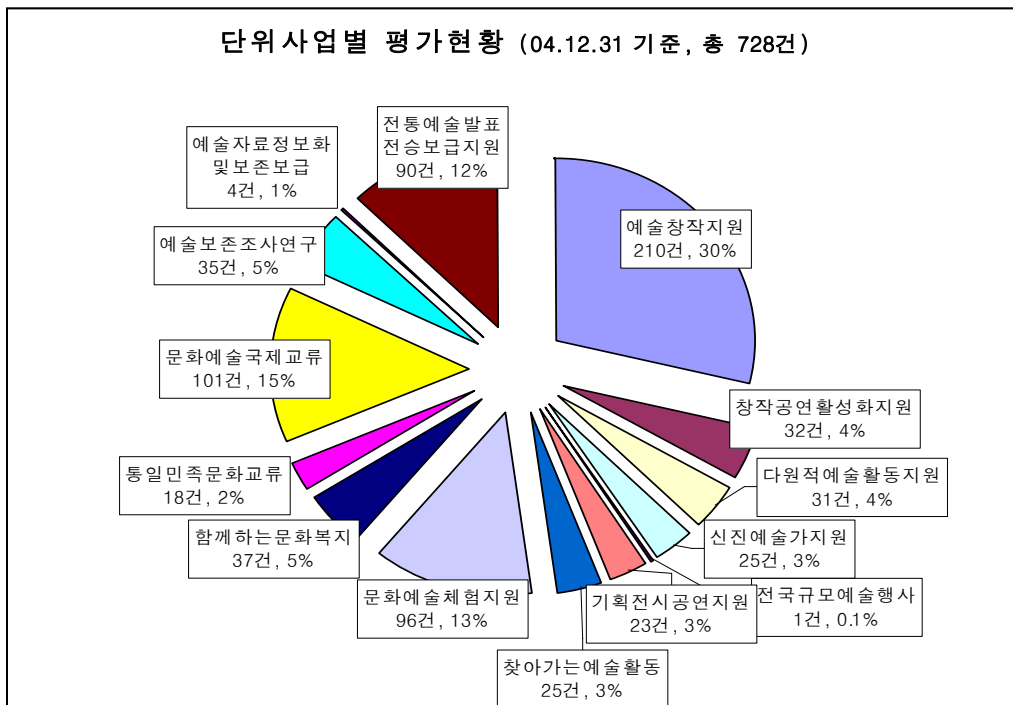
## 4. 단위사업별 성과평가

### 가. 단위사업별 지원대상/평가 현황

#### 1) 단위사업별 지원대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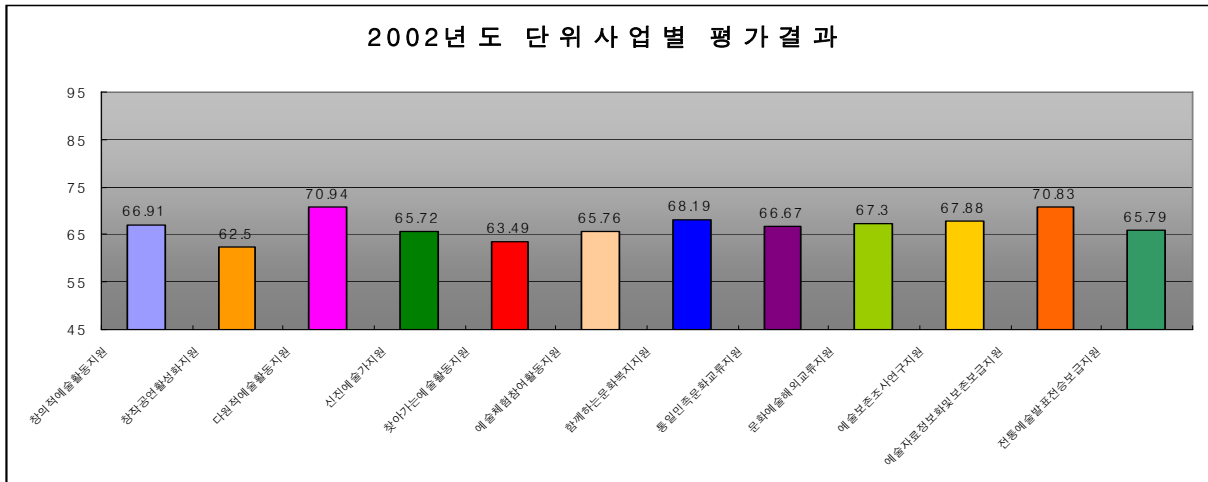


#### 2) 단위사업별 평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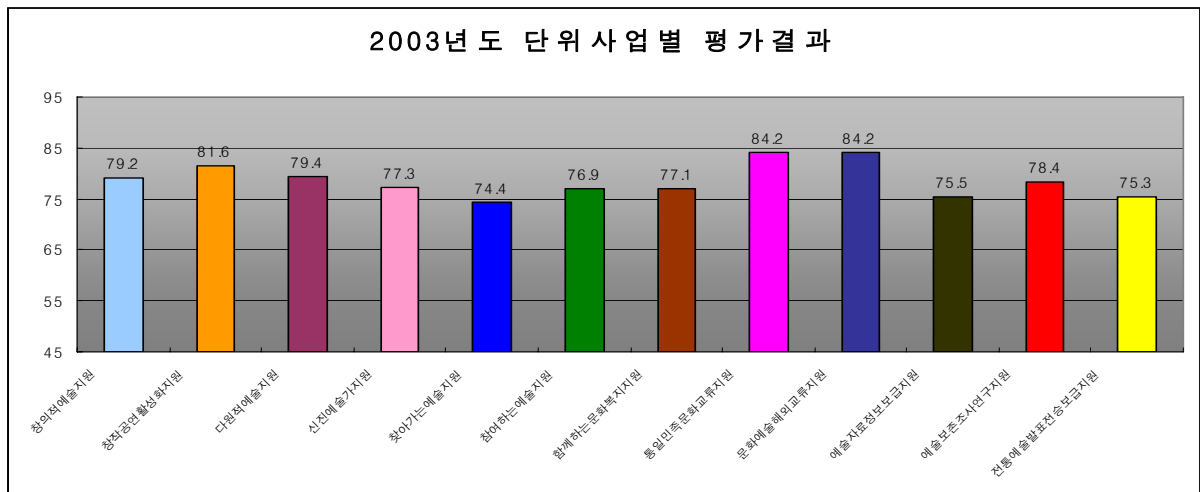


## 나. 단위사업별 성과평가 결과 (최근 3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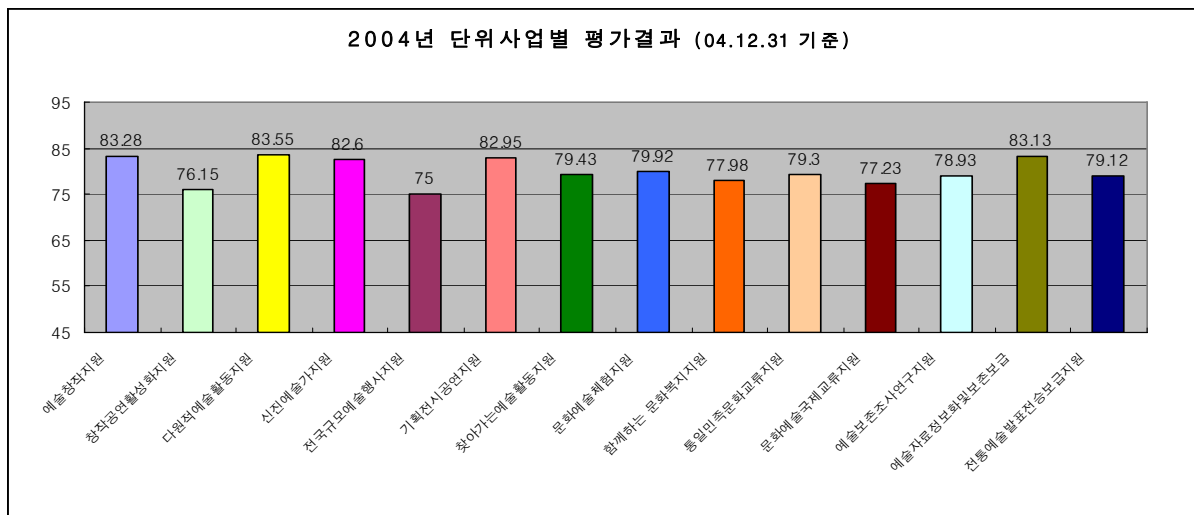
### ○ 2002년도



### ○ 2003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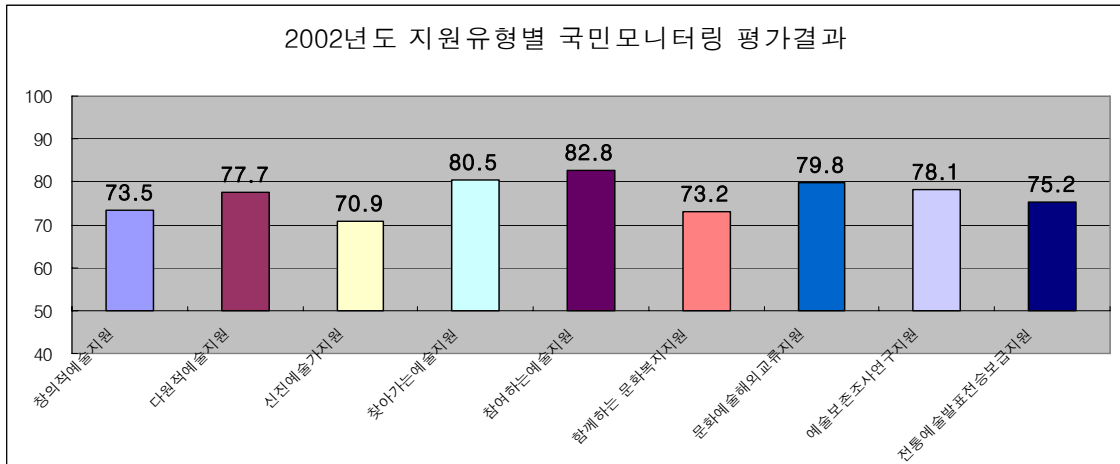


### ○ 2004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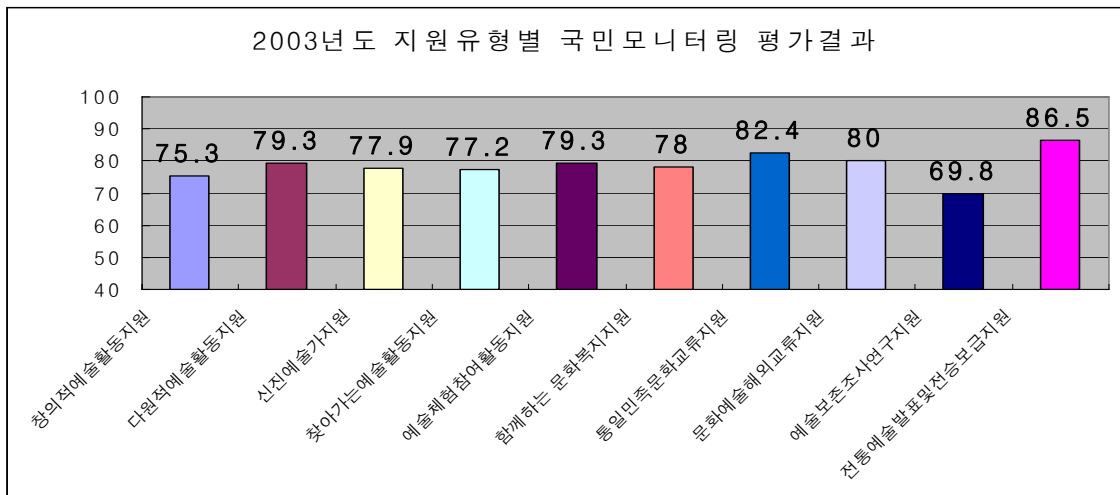


※ 참고 : 단위사업별 국민모니터링 평가결과 (최근 3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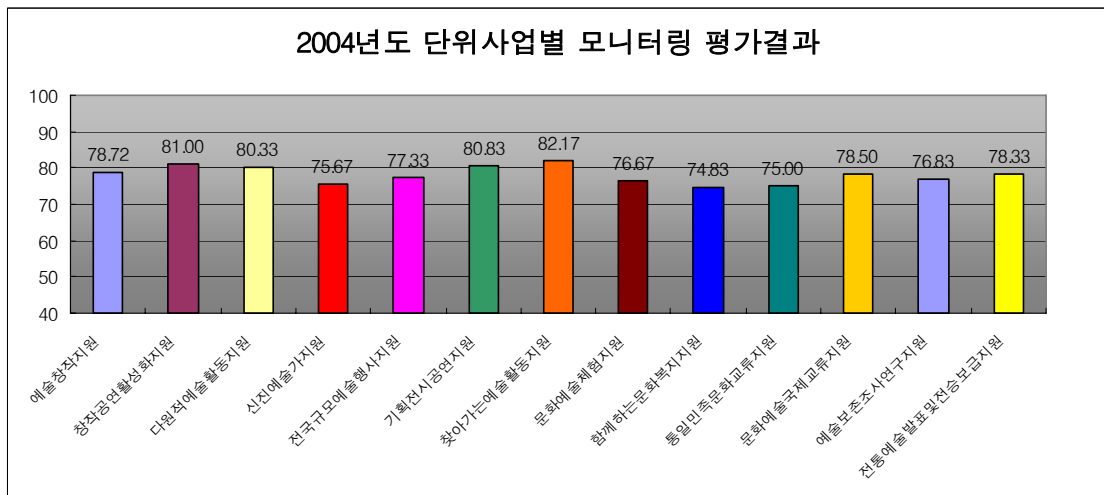
○ 2002년도



○ 2003년도



○ 2004년도



## 다. 단위사업별 평가 내용

### 예술 창작 지원

#### (1) 사업개요

- 창의성과 예술성이 높은 문학, 전시, 공연예술의 다양한 창작, 발표 활동과 독창적이고 탁월한 기획행사 및 예술축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

#### (2) 주요추진실적

(단위 : 천원)

분야	지원결정건수	지원건수	예산액	집행액	비고
문학	149건	149건	1,282,500	1,274,500	
미술	71건	70건	699,000	689,000	사업포기 1건
연극	51건	51건	581,500	496,500	사업포기 7건
무용	45건	40건	736,000	686,000	사업포기 5건
음악	42건	42건	481,000	481,000	
총계	358건	352건	3,780,000	3,627,000	사업포기 6건

#### (3) 자체평가

##### <문학>

- 위기에 처한 문학계 및 출판계의 실정을 감안, 작가에 대한 창작지원금을 가능한 적극적으로 지급하여, 창작여건 개선과 문학분야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 정지아의 소설집 '행복', 김태정의 시집 '물푸레나무를 생각하는 저녁', 신용목의 시집 '그 바람을 다 걸어야 한다', 정도상의 소설집 '실상사' 등 우리 원 지원하에 간행된 다수의 창작집이 문단과 언론의 호평을 받았음

##### <미술>

- 관련 사업내 작가 개인 및 미술그룹·단체 등의 전시기획과 함께 미술관 및 대안공간 주관의 전시기획이 혼재되어 있음에 따라 향후 지원영역 및 심의 기준 등의 정비를 통해 작가 개인 및 미술그룹의 전시기획과 미술관 및 대안공간 주관의 전시기획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음악>

- 당초 선정된 사업을 기준으로 볼때 공연수행실적이 (100%) 완료되어 대체

적으로 무난히 수행되었으나,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획력 강화가 더 필요함.

- 일부 단체의 경우 준비 소홀로 공연을 연말에 추진하여 공연장 대관난과 겹쳐 어쩔 수 없이 장소를 지방 도시, 또는 협소한 곳으로 변경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됨.

#### <무용>

- 2004년의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지원대상 45건 중 40건이 지원되어 약 89%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지원사업 중 최데레사무용단이 연작으로 발표하고 있는 “움직임과 접촉”은 창작공연활성화사업으로 선정되어 2005년도에 재공연될 예정이며, 안성수 픽업그룹의 “선택”은 무용분야의 대표적인 민간 예술상인 “무용예술상”(창무회)의 제 12회 작품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한국 무용협회의 “젊은 안무자 창작공연”은 본원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개최되어 60여명의 젊은 신청자들에서 엄선된 7명의 참여 안무자들의 열성적인 노력과 높은 기량이 돋보였던 자리로 평가한다.
- 2004년도 지원대상사업들은 대체로 무난한 진행을 보여주었으나, 공연장의 대관이 몹시 어렵고 사업 실현의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도 5건이나 되었다. 창작자들의 활동은 활발해지는데 반해 전문적으로 공연할 무용공연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무용계에서는 무용전용극장의 건립을 요구하는 등 공연장 확보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반적으로 중견 안무자들의 끊임없는 창작의지, 젊은 안무자와 춤꾼들의 생생한 활력, 새로운 영역으로의 실험의지들이 돋보인 한 해로 평가한다.

#### <연극>

- 전체적인 지원사업 중 축제 및 연극제의 지원이 12건으로 전체의 23.5%를 차지해 많은 단체들에게 지원의 혜택을 주었으나, 지원액이 부족하여 내실 있는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일반 지원단체의 경우 당초의 지원계획에 비해 지원액이 축소되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이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전체적으로 공연자체는 무리 없이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 (4) 평가위원 평가

#### <미술>

- 예술창작이란 개념은 일견 의문의 여지없는 개념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문진원의 기금이 국가공공기금이란 분명한 성격이 있으므로 국가가 공공적으

로 해야만 할 미술문화 진흥사업의 목적과 어울리는 예술창작 개념이 정리 되어야 한다고 본다. 순수예술창작가들이 해야 할 예술은 사회의 공공 삶의 확대를 위한 자기 헌신과 희생에서 나온 대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발언 으로서의 예술이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를 두고 예술창작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지원대상이 여전히 불분명했다. <강성원>

- 2004년도 예술창작지원사업은 중간 정도인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로, 대안 공간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여러 형태의 대안공간을 표방하는 시설물들이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차후에는 진정한 대안공간을 검증하고 가려내어 지원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종 협회의 연례적인 전시에 대해서는 주제가 뚜렷한 경우 외에는 가급적 지원대상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고충환>
- 방명주, 김소라 김홍석 전은 '예술창작지원'에서 현대미술의 어법을 잘 구사한 전시이다. 방명주전은 현대사회의 조작과 적응을 주제로 한 디지털 사진전으로 카메라로 잘라낸 문화의 횡단면을 보여줌으로서, 권력의 생산과 흐름에 대한 문화비평을 꾀하였다. 아트 선재센터에서 열린 김소라 김홍석 전은 거대한 무대장치를 연출하거나 고급스런 미술관 건물에 판자를 깔면서까지 썰렁하게 연출하였으나, 두개의 개인전을 하나로 묶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대규모로 열린 민중미술계열의 전시 두 건은 서로 비교가 된다. '구본주 전'은 힘있는 인체 조각을 통해 민중의 모습을 형상화한 요절 작가의 추모전이라는 발빠른 전시기획으로 자칫 소실되기 쉬운 작은 작품까지 정리하였다. 이 전시를 계기로, 민중에서 소시민으로 관심사가 변화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후배 작가들이 고인이 구상한 작품을 완성하여 설치하는 등 입체적인 전시방식이 훌륭하였다. '제 16회 조국의 산하 전'은 민미협이 정기 전시회로, 한국 사회와 현대문명 비판이라는 나름의 줄기가 있지만, 전시를 관통하는 특화된 개념이 없었다. 전통을 소재로 한 전시로 한글 서화전과 한국화전이 있었다. '갈물 한글서화전'은 영상이 범람하는 미디어 시대에 저물어가는 문자문화 시대의 유산을 연구, 개발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한글이라는 주제 외에 서법이라는 정돈된 추상의 세계는 명료한 시각적 질서 아래, 객관성의 조건과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구본아의 개인전 '物과 나눈 대화'는 사물에 귀기울이고 이미지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그러기 위해 질감 있는 표면처리나 사물에 직접 그리기 등을 시도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장식성에 함몰되어 이미지의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선영>
- 전체적으로 참신하고 새로운 사업의 성과가 두드러져 보이지는 않았다. 계속적인 지원을 받은 대안공간과 몇몇 협회의 경우 이전의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은, 다소 관례적인 사업 수행을 보여주었다는 면에서 다소 문제점

으로 지적된다. (계속적인 지원대상의 경우 좀더 차별화된 평가의 틀을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됨.) 사업역량이 우수한 몇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무난하거나 혹은 특이성이 없는 사업의 성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예술창작지원'의 분야적 특성에 걸맞는 창작의 독창성, 참신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지원의 효과가 다소 떨어진다는 생각이며 마찬가지로 기여도와 파급도의 측면에서 전체적인 호응과 관심이 떨어진다고 평가된다. 다시 말해 대중적인 수용의 측면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사업의 질과 내용이 우수한 사업의 경우에도 홍보와 대중적 파급도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들이 많아 사업의 호응도와 대중성이 기대치를 넘어서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평가된다. <민병직>

### <음악>

- 예술의 창조역량강화를 목표로 하는 예술창작지원은 예년에 비해 보다 내실있는 사업에 지원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한국작곡가협회가 주최한 '제3회 대한민국 작곡축제'와 서울뚜띠앙상블이 주최한 '드보르작 서거 100주년 음악회'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다만 아직도 부실한 행사에 지원된 경우를 볼수 있어 지원 심의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완규>
- 예년과 마찬가지로 '예술창작지원' 목표에 해당하는 공연이 기금지원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제 3회 대한민국 작곡축제'를 비롯해서 '제 6회 서울소극장오페라축제', '2004창작과 실험', '한국합창제', '한국가곡의 밤', '뮤직 스페이스21 2004 페스티벌', '창작 오페라 쌍백합 요한 루갈다' 등의 공연이 예술창작지원분야에 해당된다. 이 중 가장 주목할만한 무대를 꼽는다면, 21세기의 현대음악을 중심으로 현 시대에 공존하는 인접 예술분야와의 연계를 시도한 현대음악페스티벌 '뮤직 스페이스21'로서, 어쿠스틱 악기와 전자음악간의 앙상블을 테마로 한 무대가 마련됐는데, 과거와 현재, 그리고 청각과 시각, 과학과 예술의 어우러짐을 느낄 수 있는 독창적인 공연이었다. 예술가들의 창작 행위가 청중들에게도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는 천편일률적인 구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청중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뮤직 스페이스21'은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 울림이 오래 남는 기획력이 돋보이는 무대였다. <하지숙>

### <무용>

- 파사무용단의 <네 개의 장미꽃 이야기>와 임이조무용단의 <나비의 혼>을 관람했다. 창작지원 사업은 새로운 작품제작을 원칙으로 한다고 본다. 그러나 임이조 선생의 경우는 창작보다는 전통춤 보존에서 더 큰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선생 역시 전통춤을 프로그램 1부에, 창작을 2부에 넣었는데, 창작품은 연출을 따로 둔 작품이라 크게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였다. 이는 무용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원 사업 분류의 문제라고 본다. 한국 창작 춤인 소위 신무용 계열은 현재 매우 모호한 처지에 놓여있다. 전통분야에서는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며, 창작무용에서도 현대적인 창의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무용으로 불려온 한국 전통춤을 기반으로 제작된 창작춤은 이미 70년 역사를 지닌 무용계의 가장 중요한 유산이다. 따라서 신무용과 살풀이, 승무 같은 전통춤 공연을 독립적으로 지원하는 '한국춤 레퍼토리 지원' 사업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문애령>

- 예술창작지원 분야의 성과는 무용계의 창작력 증진과 함수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창작력이 증진되지 않으면 예술창작지원의 성과도 높아지기 어렵다. 역으로 생각하여, 예술창작지원을 통해 창작력 증진을 유도할 수 있다. 2004년도 예술창작지원 사업은 춤 창작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추세를 반영하였으며, 현장 평가작에 국한해 보면, 작품성 면에서 안성수 픽업그룹, 국은미무용단이 주목을 끌었다. 전체적으로는 통상적인 공연 행사들로 일관하여 대중의 호응을 유도하는 경영 전략에서 미온적이어서 기획과 내용면에서 특이한 행사는 눈에 띄지 않았다. 지원금의 경우 개별 공연에 대한 부분 지원 취지를 넘어 소용 비용의 절반 이상, 또는 전액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의 조정이 시급해 보였다. <김채현>

## <연극>

- 일상에서 흔히 겪어봄직한 에피소드들을 움직임 언어로 가공해 보여준 '사다리움직임연구소'의 <휴먼코메디>는 홍보로 내건 '웃음의 근원에 대한 연구보고서'같은 철학적 의미까지 포함하는 공연엔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관객과 소통하려는 진지함보다는 장기공연에서 오는 매너리즘과 배우들의 자만심이 돋보인 무대로 깊은 울림이나 감동은 없고 매직만 있는 무대였다. 1년 이상을 장기공연해오고 있고 지원금까지 받았다면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재공연시 그러한 전제 하에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평가한 사업 중 개별공연 두 작품은 긴장도가 떨어지는 여타의 재공연작들과는 달리 성실하고 에너지 넘치는 무대 만들기를 보여준 반면에 페스티벌의 참가작들은 낡고 진부한 소재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주최 측이 내건 다양하고 재기발랄한 실험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당연히 객석의 호응도는 낮았다. 또 해당 축제들이 지역민들의 '문화예술향수기회확대'에 어느 만큼의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주목했지만 대부분 기대에 부응치 못했다. <박계배>
- 하반기에 본 작품은 세 편 정도. 한 편을 제외하곤 비교적 제작진의 열의

가 보인 작품들이었음. 일년간의 총평을 하자면, 축제 중심의 지원 형태가 너무 많다는 것. 축제만 담당하는 또 다른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듯 하고, 이 지원 프로그램은 개별적 작품에 국한하되 작품성 중심으로 집약적으로 지원해야 연극이 발전하리라 판단됨. 현재로서 이 지원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인상을 줌. 개별적인 문제를 한두 가지 거론하자면, <청춘예찬>과 <삼총사>는 신청단체명이 다르지만 사실은 동일 단체임. 기획사와 극단이 연합하여 복수지원하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해야 할 지점인 듯. 그리고, 하반기에 본 작품 중에서 한국인형극협회의 <함께 하는 인형극축제>는 관객참여율은 비교적 높았지만, 작품성에 문제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사기성이 있는 단체임(현장평가 참조). 이후의 지원에서 고려하길. <김명화>

- '예술창작지원'은 진흥원의 여러 지원 사업 가운데서도 선정 과정이 다소 애매하고, 건당 지원액수도 미미하며 그 성과도 가장 미흡한 부분이다. 하반기에 공연된 작품들 가운데서는 「공연기획 이다」의 <청춘예찬>이 관객들을 많이 끌어모았고,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의 <2004 겨울연극제> 정도가 충실하게 수행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김미도>
- 본인이 평가한 작품 중에는 재공연 작품이 많았으며, 두 편은 '연극열전' 시리즈였다. 작품성이 검증된 작품이기는 하나 연극열전 출판작에 지원금이 몰렸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다행히 <관객모독>과 <청춘예찬>은 '연극열전'의 다른 작품에 비해 작품 성과가 좋았다. 혜화동1번지는, 오늘의 예술상을 받기는 했으나, 이전에 비해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신작인 <S고원..>이 안정감을 유지한 것이 다행이다. <이영미>
- 크게 전국규모 성격의 공연 축제와 극단 중심의 단위공연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예술 창작에 있어 소외되기 쉬운 지역적, 장르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후자의 경우 주로 기존의 공연물에 대한 재공연 형식으로 이루어짐으로서 형식적, 내용적으로 보다 진일보한 시도들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는 점 그리고 대 시민 홍보가 미흡한 점이 아쉽다. <박준용>

#### (4) 기타 세부사업

##### <계기성우수기획사업>

###### ○ 사업개요

- 목적 : 연초에 지원대상이 일괄 확정되는 문예진흥기금 일반 공모지원사업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4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서, 문화예술 각 분야에서 i) 연도 중반에 기획되고 예술성과 문화적 파급효과가 뛰어난 사업과 ii) 정책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요구되는 사업 iii) 국가적·사회적인 주요 계기를 맞이하여 기획되는 문화행사 등을 공모 및 발굴하여 지원
- 지원분야 :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 등 국내외 문화예술 전 분야
- 지원신청 대상 사업
  - 국가적, 사회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계기를 맞이하여 기획되는 문화행사
  - 연도 중반에 기획되고 예술성과 문화적 파급효과 등의 측면에서 특히 우수성이 인정되는 사업
  - 기타 문화예술정책의 수행상 지원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거나 지원이 자체적으로 우수 사업으로 발굴하여 추천하는 사업
-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매년 또는 격년제 등 정례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단, 계기성우수기획사업의 지원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2004년도 국고 또는 문예진흥기금 예산으로 지원이 이미 반영된 사업
  -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에서 탈락된 사업 및 유사사업
- 지원 대상 사업 선정방법 : 별도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지원심의
- 지원금 지급 규모 : 사업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책정

###### ○ 주요 추진실적

- 지원심의 : 총 5회
- 지원신청건수/지원신청액 : 94건/3,621,148,000원
- 지원결정건수/지원결정액 : 44건/687,000,000원(사업포기 등 8건 제외)
- 지원결정내역 : 별첨 참조

###### ○ 자체평가

- 이전 연도까지 수시접수로 인해 신청접수와 평가부분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2004년 상반기부터 공모제 도입과 현장평가 실시를 통해 일부분 보완함. 연간 공모일정과 현장평가 대상의 확대 방안이 요청됨.

- 우리원 직제개편 및 문화관광부 주무부서 변경에 따라 심의위원 및 의결 방식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분야의 전문위원이 심의에 참여함으로써 분야별 전문성 제고
- 우리원의 사업발굴 역량과 기획성 강화차원에서 전문위원을 통한 우수사업에 대한 자체발굴 추천제를 도입하였으나, 연도중반 도입으로 실제 발굴 건수가 전무하여 실효를 보지 못함. 향후 실질적인 발굴추천제의 확립 방안이 요청됨

○ 평가위원 평가

- 전문성을 위주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전문가들에 의한 선정 및 평가가 이루어져 비교적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에서 탈락할 경우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 등으로 공모하여 지원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정감영>

※ 2004년 계기성우수기획사업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단체명	대표자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사)민예총광주지회	김경주	민족시인 김남주 10주기 추모문화제	30,000	20,000
(사)민족문제연구소	조문기	식민지조선과 전쟁미술전	10,000	5,000
(사)사물놀이한울림	안숙선	통천 어린이를 위한 기금 마련 "unisef 난장"	30,000	20,000
(사)통일맞이	이재정	가극 '금강' 평양 공연	100,000	50,000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김학민	기초예술 개념 수립과 사회적 가치 산출을 통한 기초예술진흥정책연구	30,000	25,000
(사)한국미술협회	하철경	제11회 인도트리엔날 (The 11th Triennale-India 2004)	20,000	10,000
(사)한국소설가협회	정연희	문학 지망생을 위한 워크숍	17,600	7,000
(사)한글문화연구회	박용수	민족문학에 대한 남북 공동연구 사업 '김소월, 남북 공동연구'	42,300	15,000
(사)한중우호협회	박성용	한중서법교류전 '시를 찾는 동행'	12,820	10,000
(사)현대미술관회	김영호	미술작가 장르별 워크샵 지방순회 개최(4개도시)	50,000	30,000
(재)강릉국제관광민속제 추진위원회	심기섭	2004 강릉국제관광민속제 참가 민속공연	100,000	50,000
(주)파임커뮤니케이션즈	김의숙	여성문화 게릴라 프로젝트	50,000	20,000
국민레퍼토리극단	이혜경	연극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 러시아 초청 순회공연	25,000	10,000
국제무용협회한국본부	이종호	한국무용수 프랑스 그르노블 국립무용단 파견 및 아시아 투어	20,000	10,000
국제문화전문가단체서울총회조직위원회	강신길	제3차 국제문화전문가단체 서울총회	150,000	50,000

단체명	대표자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국제한인문학회	이명재	재외한인문학국제심포지엄 -일본에서의 한국문학 동향과 전망	16,310	7,000
권병준	권병준	리투아니아 현대미술센터 주관 국제전자음악페스티벌 참가	4,000	4,000
극단 마산	이상용	전 일본연극제 참가 '서툰 사람들' 일본 공연	10,000	5,000
기초예술살리기범문화예 술인연대	심재찬	기초예술 위기 타개를 위한 연속포럼 및 문화행사 개최	30,000	25,000
남북작가대회추진위원회	고은,염 무웅 등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백두산문화제)	100,000	70,000
대학로문화지구살리기운 동본부	채승훈	문화의 거리를 만들자 '퍼포먼스 및 거리공연'	15,000	3,000
댄스씨어터까두	박호빈	댄스씨어터까두 일본 'Dance Biennale TOKYO 2004' 초청 공연	10,000	3,000
모스크바한인회	현명철	한인 이주 140주년 기념음악회	20,000	5,000
뮤지필&중앙대학교음악 대학	윤혜경	독일 음악의 미학	35,000	7,000
민족서예인협회	여태명	2004 민족서예정신 탐색을 위한 국제 학술 세미나	30,000	8,000
박영숙	박영숙	Borderline Cases-경계선상의 여성들에게 <미친년 프로젝트, 오사카>	3,200	3,000
방기준	방기준	심청가 완창 발표	4,000	3,000
안애순무용단	안애순	싱가포르 아츠 페스티벌 초청공연	20,000	5,000
양혜규	양혜규	독일 다름슈타트 소재 헛센주립미술관 주최 양혜규개인전	15,000	5,000
이호철	이호철	이호철 소설(2권) 미국 8개 도시 순회 출판기념회	30,000	10,000
장옥진미술문화재단	이순경	장옥진 사이버 뮤지엄 구축	64,400	15,000
조승호	조승호	MONTE VIDEO (Amsterdam) 개인전	15,000	6,000
최문규, 조민석	최문규 조민석	베니스비엔날레 제9회 국제 건축전 주제관 초청 전시	20,000	10,000
최빛나	최빛나	데아펠 큐레이터 연수프로그램 국제그룹전 참여 한국작가지원	6,000	6,000
한국가곡국제협회	최동규	한국가곡 해외 콩쿠르 및 한국가곡 음악회 사업	32,300	15,000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이영욱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제도 도입방안 연구	82,000	40,000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이영욱	'문화현장' 제정작업	30,000	20,000
한국문화의집협회	강준혁	sticking과 함께 하는 봄의 소리	20,000	10,000
한국여가문화학회	조동성	조선일보 공동주최 산학협동 학술대회 ; 웰빙과 여가문화	7,000	5,000
한국인디밴드연합	조희래	서해 코리아인디뮤직페스티벌2004	50,000	20,000
(사)한국혈액암협회	고홍길	백혈병과 혈액암 환자를 위한 자선음악회 '사랑으로 나눔으로'	19,000	10,000
무용교육발전추진위원회	김화숙	무용공연"사랑,평화,그리고 미래"	35,000	10,000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 연합회	이성림	기초예술 진흥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범예술인 포 럼	15,000	10,000
이현숙	이현숙	한국 이탈리아 수교 120주년 기념 문화이벤트 행사 및 전시회	50,000	15,000
계		44개 사업	1,475,930	687,000

## <기간문예단체 지원>

- 사업개요 : 전국규모의 문화예술연합단체인 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과 민예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활동 지원 및 전용상영관 지원
  - 지원규모 : 3건, 1,876,000,000원
    - 예총 지원 : 580,000,000원
    - 민예총 지원 : 580,000,000원
    - 전용상영관 지원 : 716,000,000원
  
- 주요 추진실적
  - 예총 지원 : 580,000,000원 지원
    - 사업비 : 370,000,000원(제20차 예총대표자회의 20,000,000원, 월간 '예술세계' 발간 99,600,000원, 제18회 예총예술문화상 시상 40,000,000원, 예총 단위협회 정보화사업 운영 : 210,400,000원)
    - 경상운영비 : 210,000,000원
  - 민예총 지원 : 580,000,000원 지원
    - 문화예술인 인터넷신문 제작 : 90,000,000
    - 문화정책포럼 : 30,000,000원
    - 일일문화정책동향 발간사업 : 19,000,000원
    - 문화예술 기부 확산을 통한 문화예술 발전방안 연구 : 13,000,000
    - 문예아카데미 대중강좌 : 125,400,000
    - 문예아카데미 정기 문예포럼 : 7,800,000
    - 문화예술인 정보 및 발간자료 db 구축사업 : 27,000,000원
    - 제1회 민족예술제 : 92,950,000원
    - 제3회 문예활동가 여름학교 : 8,100,000원
    - 월간 '민족예술' 발간 : 101,750,000원
    - 민족미학의 탐색과 정립을 위한 문화예술인 대토론회 : 24,000,000원
    - 테마가 잇는 예술마당 : 24,000,000원
  - 전용상영관 지원 : 685,000,000원 지원
  
- 자체평가
  - 문화예술계의 양대 기간단체인 예총과 민예총의 활동을 지원하는 본 사업은 양 단체에 공히 5억 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경상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대내외의 지적요구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액지원에 따른 부실사업의 지원 등이 야기될 수 있는 바, 기존의 총액지원보다는 5억 8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두 단체의 개별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및 심의를 시행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용상영관 지원은 2004년도부터 모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03년도 전용상영관운영에 따른 환급금 지원을 끝으로 2005년도부터는 사업이 종료

될 예정임. 그동안 본 사업은 문예진흥기금 납부분에 대한 환급이라는 사업형태로 예술영화전용상영관의 적극적 운영 및 양적 확대에 기여하였음.

## <전국규모예술행사 지원>

### □ 대한민국 미술대전

#### ○ 사업개요

- 사업의 목적 : 미술분야를 대표하는 전국 규모의 예술행사로 참신한 신인 발굴 육성과 미술계의 건전한 창작풍토 고취 및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공익을 목적으로 함.
- 주 최 : (사)한국미술협회
- 전시기간
  - 비구상부문(2004.5.17~5.30)
  - 구상부문(2004.9.24~10.12)
  - 서예부문(2004.7.19~7.27)
  - 공예부문(2004.8.27~9.5)
- 전시장소 : 국립현대미술관 제7전시실
- 전시부문
  - 비구상부문/구상부문(한국화, 양화, 판화, 조각, 수채화)
  - 서예부문(한글, 한문, 전각, 소자)
  - 공예부문(금속, 도자, 목칠, 염직, 기타)

#### ○ 주요 추진실적

- 지원액 : 120,000,000원
- 주요추진실적 : 120,000,000원
  - 비구상부문 시상내역(219점) : 대상 1점, 우수상 4점, 평론가상 2점, 특선 43점, 입선 169점
  - 서예부문시상내역(521점) : 대상 1점, 우수상 4점, 특선 114점, 입선 402점
  - 구상부문 시상내역(326점) : 대상 1점, 우수상 5점, 평론가상 2점, 특선 59점, 입선 259점
  - 공예부문 시상내역(118점) : 대상 1점, 우수상 4점, 특선 18점, 입선 95점

#### ○ 자체평가

- 대한민국미술대전의 경우 2004년 도중 심층평가 및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와 T/F 등 구성을 통해 운영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음. 향후 개선작업 내용에 대한 실질적 이행방안 마련 등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요구됨. 아울러 전국규모예술행사에 대한 현행 지정공모제 방식을 개선하여 일반

공모형 사업으로의 운영을 통한 지원대상 선정의 경쟁체제 구축이 필요함

## □ 대한민국 사진대전

### ○ 사업개요

- 사업의 목적 : 사진인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신인발굴로 사진인구의 저변확대를 꾀하는 한편 사진문화의 발전과 진흥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함.
- 사업규모 : 지원금액 20,000,000원
- 주 최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 전시기간 : 2004.5.20~5.24
- 전시장소 : 홍익대학교 미술관 3층(동승동 소재, 구 디자인포장센터)
- 전시부문 : 공모전 170점, 초대전 107점

### ○ 주요 추진실적

- 지원액 : 20,000,000원
- 총 응모작품수 : 1,022점
- 시상내역 : 170점(대상 1점, 우수상 1점, 특선 12점, 입선 156점)
- 관람인원 : 10,500여명

### ○ 자체평가

- 현대사진예술의 흐름과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획 전시로의 검토가 요구됨.

## □ 대한민국건축대전

### ○ 사업개요

- 사업의 목적 : 매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초청된 초대작가들의 우수한 작품과 신진건축가들의 계획작품을 함께 전시함으로써 건축인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건축문화의 발전상을 알리고 건축학도들의 창작의욕을 높이며, 신인건축가들의 등용문이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사업규모 : 지원금액 30,000,000원
- 주 최 : (사)한국건축가협회
- 전시기간 : 2004.11.19~11.27
- 전시장소 : 예술의 전당 미술관
- 전시부문 : 공모전 170점, 초대전 107점

### ○ 주요 추진실적

- 지원액 : 30,000,000원
- 총 응모작품수 : 1,087점
- 시상내역 : 129점(대상 1점, 우수상 5점, 특선 6점, 입선 117점)
- 관람인원 : 85,000여명

○ 자체평가

- 신진기성작가들의 작품과 신진 건축가들의 창의적인 작품들을 통하여 건축을 문화예술로서 새로이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일반인들에게 제공함
- 건축가와 기성건축가의 창작의욕을 고취하는 것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에게는 건축문화를 바로 알리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함.
- 전년도에 비해 작품수가 많이 증가하였으며, 작품수준이 많이 발전되었음.

□ 대한민국 작곡상

- 사업개요 : 우리나라 창작음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독창적이고 우수한 작품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음악인들의 사기진작과 음악문화를 세계 수준으로 이끌어 창작음악계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 주요추진실적

- 사업명 : 대한민국작곡상
- 주관 : (사) 한국음악협회
- 일시 : 2004.12.10
- 장소 : 국립국악원 예약당
- 신청자격
  -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단. 한국음악협회회원에 한함)
  - . 협회 회원이 아닌 경우 응모와 동시에 가입이 가능함.
- 작품요건 : 신청마감일로부터 만 3년 이내의 창작되어 기 발표된 한국음악 작품에 한한다.
- 대상작품 : 2004년에는 서양음악부문을 시행하였음 (1인 1편)
  - . 부문 1 : 오페라,관현악,교성곡,협주곡 : 14개작품
  - . 부문 2 : 실내악 : 11개작품
  - . 부문 3 : 독주곡,가곡 : 6개작품
- 시상내역
  - . 부문 1 : 협주곡 부문 우수상 : 임지선(가야금협주곡)
  - . 부문 2 : 실내악 부문 우수상 : 정현수 ("Beads" for Female Singer and Seven Players)
  - . 부문 3 : 독주곡부문 우수상 : 한옥미 (20 Again <for double-bass)
- 지원액 : 20,000,000원

○ 대한민국작곡상사업 자체평가

- 대한민국작곡상은 기 발표된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하는 행사로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수하고 독창적인 작품을 발굴, 국내 창작음악계 발전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나, 협회의 행정력 부재 및 전문음악인 또는 관련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부족하고 행사에 대한 대중매체홍보가 부족한바,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대한민국 창작음악제

- 사업개요 : 새로운 작품의 신인작곡가를 발굴, 육성하여 창작예술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사업.

○ 주요추진실적

- 작품요건 : 현대적 기법이나 또는 실험적 작품을 포함하여 다수의 음악애호가들이 즐길 수 있는 한국적이고 예술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미 발표작품
- 위촉 및 공모부문 : 가곡,실내악곡,관현악곡
- 공모일정
  - . 2004.3.31 : 작품접수 (총 56개 작품)
  - . 2004.4.13 : 심사
- 선정결과 : 총 20개 작품 선정 (가곡 5곡/실내악 12곡/관현악 3곡)
- 공연일시 : 2004.5.27~5.29
- 공연장소 : 추계예술대/ 추계콘서트홀

○ 자체평가

- 매년 우리나라 창작음악발전을 위해 개최되고 있는 동 행사는 특히 신인작곡가 발굴 및 기성세대의 활발한 창작의욕 고취 등에 기여하고 있음
- 다만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행사를 주최하는 관계로 행사운영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 2005년도에는 행사전반에 대한 심층평가 및 분석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행사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함.

□ 대한민국국악제

- 사업개요 : 국악 전 장르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관객들에게 격조 있는 국악 감상기회를 넓혀주고 우리 전통예술에 대한 저변을 확대함 (제 24회)

○ 주요 추진실적

- 일정 : '04. 09. 20 - 09. 24
-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립국악원 예약당
- 주최 :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 이영희)
- 후원 : 문화관광부, 문예진흥원, 국립국악원,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 관람인원 : 3,750명
- 지원액 : 1억원
- 프로그램 및 일정
  - . 9월 20일 : 하늘과 땅의 어울림(인천문예회관) - 서해안풍어제, 은울탈춤, 줄타기, 남사당놀이
  - . 9월 21일 : 화합의 합주(인천문예회관) - 남사당, 관현악연주, 경기민요협연, 서도민요협연, 남도민요협연
  - . 9월 22일 : 판소리 그 유장한 소리(국립국악원 예약당) - 시나위,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남도창극
  - . 9월 23일 : 천년의 장엄(국립국악원 예약당) - 보허자, 포구락, 죽지사, 처용무, 만파정식지곡, 쌍무고, 천년만세, 전폐희문
  - . 9월 24일 : 흥과 멋의 우리소리(국립국악원 예약당) - 태평무, 대금산조, 가야금병창, 제주소리, 경기민요, 서도민요, 살풀이, 여성국극, 풍물

○ 자체평가

- 우리나라 전통예술의 명인들이 정악, 기악과 춤, 소리 등 각 분야의 기본과 정수를 선보이는 공연으로 궁중정재, 대금독주, 가곡 등의 정악, 산조, 시나위, 판소리, 민요 등의 민속악과 살풀이, 태평무 등의 전통무용, 그리고 각 지방의 전통연희로 구성되어 우리나라 전통예술을 아우르는 국악종합축제로 구성하였음.
- 특히 '04년은 판소리의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 지정을 기념하여 판소리 5바탕을 짧게나마 최고의 명창들을 통해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 큰 특징임.
- 이번 국악제를 통해 우리나라 최대의 전통예술축제로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고 시민들과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는 축제로서의 성격을 강화함.

□ 전국연극제

- 사업개요 : 지역연극의 균형 발전을 통한 한국 연극의 발전을 위해 우리 원 주최로 전국 15개 시·도에서 순회 주관하는 연극 축제로서,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지역예선을 거쳐 선발된

대표 단체가 참가 공연하며, 대상(대통령상) 등을 시상하는 사업임.

○ 주요 추진실적

- 행사 개요

- 행사명 : 제22회 전국연극제
- 기간 : 2004. 05. 14 - 06. 02(20일간)
- 장소 :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오페라하우스
- 참가 : 전국 15개 시·도 대표극단 및 해외교포극단
- 주최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연극협회
- 주관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연극협회
- 후원 :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예총대구광역시지회 등

- 주요 추진일정

- 2002.11.13 : 제22회 전국연극제 개최지 선정회의 개최(대구광역시 결정)
- 2004.02.11 : 제22회 전국연극제 관계자회의 개최
- 2004.02.19 : 제22회 전국연극제 추진계획 수립
- 2004.3월-5월 : 지역예선대회 개최 및 지원금 지급
- 2004.04.19 : 해외교포극단 초청대상 확정 및 지원계획 수립
- 2004.4.30-5.01 : 제22회 전국연극제 대표자회의 개최
- 2004.5월-6월 : 본선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금 지급, 시상계획(심사위원 위촉), 개막리셉션계획, 홍보계획 등 수립
- 2004.5.14-6.02 : 전국연극제 본선대회 추진
- 2004.09월 : 연출상 및 최우수연기상 수상자 해외시찰연수 지원금 지급

- 세부추진내용

- 개막식 행사 : 2004. 05. 14(금)

행 사 내 용	일 시	장 소	공 연 자
· 식전 축하공연	16:20~16:40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시립오케스트라
· 개막식	16:40~17:30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광역시연극협회
· 기념공연	17:30~17:55	대구문화예술회관	기념 총체극
· 환영리셉션	18:00~19:00	대구문화예술회관	문화관광부 장관 주재
· 축하공연	19:30~21:00	대구문화예술회관	카자흐스탄극단

· 폐막식 행사 : 2004. 06. 02(수)

행사 내용	일시	장소	공연자
· 식전 축하공연	10:00~10:20	대구오페라하우스	실내악 연주(해금)
· 시상식	10:20~12:00	대구오페라하우스	연극제 경연작품 시상
· 환송리셉션	12:00~13:30	대구오페라하우스리셉션장	대구광역시장 주재

· 해외교포극단 및 15개 시·도 대표 공연 : 2004.5.14 ~ 6. 02 (20일간)

공연일자	시·도	공연장	극단명	작품	작가	연출	비고
5월14일(금)	초청	문화예술회관	카자흐스탄	러브 앤드 레인	오은희	최따지아나	해외교포
5월16일(일)	울산	문화예술회관	극단푸른가시	작은 할머니	엄인희	전우수	
5월17일(월)	광주	오페라하우스	극단진달래피네	이어진 인생사애	최영화	최영화	창작초연
5월18일(화)	강원	문화예술회관	극단 굴렁쇠	날 보러 와요	김광림	김귀선	
5월19일(수)	대구	오페라하우스	극단 고도	조통면옥	오태영	최정운	
5월20일(목)	경북	문화예술회관	극단구미레파토리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	김태수	황윤동	
5월21일(금)	충남	오페라하우스	극단젊은무대	고마나루	오태근	최기선	
5월22일(토)	충북	문화예술회관	청주연극협회연합	일천구년 '궁'	장경민	장경민	창작초연
5월23일(일)	초청	오페라하우스	우즈베키스탄	고향	김미하일	김미하일	해외교포
5월24일(월)	전북	문화예술회관	극단 하늘	땅과 새	김정수	조승철	창작초연
5월25일(화)	전남	오페라하우스	극단 선창	옥단어	차범석	강대흠	
5월26일(수)	대전	문화예술회관	극단예사랑	인류최초의 키스	고연옥	이소희	
5월27일(목)	인천	오페라하우스	극단 보아스	벼룩열전	이재상	이재상	창작초연
5월28일(금)	경기	문화예술회관	극단 촌벽	고근과 나혜석	정운봉	정운봉	창작초연
5월29일(토)	초청	오페라하우스	일본교포극단	러브레터	김정호	김정호	해외교포
5월30일(일)	제주	문화예술회관	극단 가람	오코치의 화려한가출	이근삼	이광후	
5월31일(월)	부산	오페라하우스	극연구집단시나위	인류최초의 키스	고연옥	오정국	
6월01일(화)	경남	문화예술회관	극단백수골	선주	주평	장창석	

※ 1일 2회(16:00/ 19:00) 공연, 해외교포극단 공연은 1일 1회(19:00)

- 시상내역

- 단체상 : 대상 : 2천만원, 금상 : 각 1천만원, 은상 : 각 5백만원
- 개인상 : 각 2백만원(연출상, 최우수연기상 수상자에게 해외시찰비 각 3백만원 별도 지원)
- 심사위원 : 권오일(연출가), 이태주(서울시극단 단장), 권성덕(연기자), 이필동(연출가), 최현묵(극작가, 연출가)

※ 시상내역 1)

시상부문	시상훈격	시·도	극 단 명	대표자	작품명(작, 연출)
대 상	대통령상	대 전	예사랑	이소희	인류최초의키스(고연옥작, 이소희연출)
금 상	행정자치부장관상	강 원	굴렁쇠	김귀선	날보러와요(김광림작, 김귀선연출)
	문화관광부장관상	전 북	하 늘	조승철	땅과 새(김정수작, 조승철연출)
은 상	대구광역시장상	충 북	청주연극협회 연합	문길곤	일천구년 궁(장경민작, 장경민연출)
	문예진흥원장상	전 남	선 창	이종현	옥단어(차범석작, 강대흠연출)
	연극협회이사장상	대 구	고 도	김종성	조통면옥(오탈영작, 최정운연출)
	대구예총협회장상	경 북	구미레파토리	황윤동	옥수동에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 (김태수작, 황윤동연출)

※ 시상내역 2)

시상부문	시 상 훈 격	시·도	수상자	극 단 명	작 품 명
희곡상	대구광역시장상	전북	김정수	극단 하늘	땅과 새
연출상	문예진흥원장상	강원	김귀선	극단 굴렁쇠	날 보러와요
최우수연기상	연극협회이사장상	대전	이종국	극단 예사랑	인류최초의 키스
연기상	연극협회이사장상	강원	남호석	극단 굴렁쇠	날 보러와요
		경기	한수경	극단 촌벽	고근과 나혜석
		대전	박화진	극단 예사랑	인류최초의 키스
		울산	석호진	극단 푸른가시	작은 할머니
		전남	임세진	극단 선창	옥단어
무대예술상	협찬기관장상	경북	최정주	극단 구미레파토리	옥수동에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

- 관객현황

일 자	시 · 도	공 연 명	관 람 객 수 (명)				비 고
			일 반	학 생	초 대	계	
5.14(금)	카자흐스탄	러브 앤드 레인	-	-	983	983	해외
5.16(일)	울산광역시	작은 할머니	652	100	596	1,348	
5.17(월)	광주광역시	이어진 인생사애	252	733	499	1,484	창작
5.18(화)	강원도	날 보러와요	329	444	457	1,230	
5.19(수)	대구광역시	조통면옥	362	1,592	602	2,556	
5.20(목)	경상북도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	314	900	393	1,607	
5.21(금)	충청남도	고마나루	358	1,109	468	1,935	
5.22(토)	충청북도	일천구년 궁	506	802	529	1,837	창작
5.23(일)	우즈베키스탄	고 향	-	-	1,218	1,218	해외
5.24(월)	전라북도	땅과 새	306	770	349	1,425	창작
5.25(화)	전라남도	옥 단 어	287	2,114	425	2,826	
5.26(수)	대전광역시	인류최초의 키스	942	410	476	1,828	
5.27(목)	인천광역시	벼룩열전	368	658	427	1,453	창작
5.28(금)	경기도	고근과 나혜석	347	627	551	1,525	창작
5.29(토)	재일동포	러브레터	-	-	1,497	1,497	해외
5.30(일)	제주도	오코치의 화려한 가솔	804	652	649	2,105	
5.31(월)	부산광역시	인류최초의 키스	523	848	830	2,201	
6.01(화)	경상남도	선 주	300	259	726	1,285	
<b>소 계</b>			<b>6,650</b>	<b>12,018</b>	<b>11,675</b>	<b>30,343</b>	
부대행사 관람인원 (5. 14 - 6. 1)		아동극 및 대학연극축제, 시민축제 등 다수				27,185	
거리홍보 및 상설전시 (5. 14 - 6. 1)		대구연극자료전 등 다수				26,000	
<b>총 계</b>						<b>83,528</b>	

※ 개막식(400여명) 및 폐막식(500여명) 인원 제외

- 객석점유율(객석수 : 대구문화예술회관 1,078석, 대구오페라하우스 1,508석)
  - ※ 공연장이 2개소인 관계로 객석수는 2개소 평균인 1,293석으로 산정
  - 공연(해외교포극단 및 15개시도) 객석점유율 : 82% (총 객석수 38,790석)
  - 관람료 : 일반 8,000원 / 학생 4,000원

- 부대행사 내용

행사 내용	일 시	장 소	비 고
· 전 야 제	2004. 05. 13	특설무대	
· 거리 홍보공연	2004.05.01-05.30	주요 시내 일원	
· 열린축제마당	2004.05.14-06.01	특설무대 및 문예회관 광장	
· 학술심포지움/워크숍	2004.05.22-05.23	문예회관 국제회의실	
· 연극인 사랑방	2004.05.14-06.01	힐탑 호텔	
· 연극인의 밤	2004. 06. 01	특설무대	
· 문화유적 답사	2004.05.14-06.01	2개 코스	
· 국제대학공연예술제	2004.05.21-05.29	문예회관 소극장	
· 고교 합동공연	2004.05.18-05.20	문예회관 소극장	
· 아동극 축제	2004.05.14-05.17	문예회관 소극장	

- 지역예선대회 개최 내역

사업수행단체 (대표자)	기 간	장 소	경연참가 단체수	창작초연 작품수	비경연 참가단체	지원금(천원)		
						진흥원	시·도	계
부산연극협회	4.10-4.28	부산시민회관	8	1	4	12,000	15,000	27,000
대구연극협회	4. 1-4. 8	대구문화예술회관	3	0	0	4,500	19,000	23,500
인천연극협회	3.19-4.18	인천수봉문화회관	6	3	0	9,000	20,000	29,000
광주연극협회	3.27-3.31	광주문화예술회관	5	2	0	7,500	8,000	15,500
대전연극협회	3.31-4.53	대전시민회관	3	0	0	4,500	12,000	16,500
울산연극협회	3.31-4. 8	울산문화예술회관	6	1	0	9,000	10,000	19,000
경기연극협회	3.25-4.14	경기도내 일원	16	6	0	24,000	35,000	59,000
강원연극협회	4. 1-4.12	원주 치악예술관	6	0	0	9,000	36,000	45,000
충북연극협회	4. 1-4. 5	충북도내 일원	3	1	0	4,500	15,500	20,000
충남연극협회	3.29-3.31	공주문화예술회관	3	0	0	4,500	15,000	19,500
전북연극협회	4.21-4.25	소리문화의전당	5	2	0	7,500	9,000	16,500
전남연극협회	4.19-4.24	목포문화예술회관	6	0	0	9,000	14,000	23,000
경북연극협회	4. 3-4. 6	경북도내 일원	4	1	0	6,000	20,000	26,000
경남연극협회	3.10-3.21	거제문화예술회관	11	2	0	16,500	18,000	34,500
제주연극협회	4.24-4.25	제주도문예회관	2	0	0	3,000	15,000	18,000
합 계			87	19	4	130,500	261,500	392,000

- 지역예선대회 심사위원 명단

시·도	지역 예선대회 심사위원 명단
부 산	민병욱(부산대 교수), 손병태(연출가), 이성규(연출가), 이종근(동서대 교수), 이철우(동의대 교수)
대 구	김삼일(대경대 교수), 서영우(연극인), 김미정(영남대 교수), 원명수(계명대 교수), 권순종(구미일대 학 교수)
인 천	송인혁(연기), 이재상(연출가), 김원범(마임연구가)
광 주	김철리(전 국립극장 예술감독), 김창일(목포시립극단 상임연출), 송연근(순천시립극단 운영위원)
대 전	김지숙(한국연극협회 부이사장), 송미숙(연출가), 이원형(평론가, 성결대 교수)
울 산	정상철(연기자), 김천일(울간연극협회 고문), 장창호(극단문화가족 길 대표)
강 원	박완서(강원연극협회 이사), 오연수(강원연극협회장), 장규호(강도예총 부회장), 김학철(극단산야 대 표), 김동석(강릉연극협회 부회장), 김용수(극단혼성 단원)
경 기	최송림(극작가), 박계배(연극협회 부이사장), 복진오(연출가)
충 북	정일원(충북연극협회 고문), 최병준(서원대 교수), 홍재범(서원대 교수)
충 남	김도훈(연출가), 김재건(국립극단 단원), 박종선(한국연극협회 이사)
전 북	안상철(전주 풍남제 총감독), 박병도(전주대 교수), 김용선(전주고 교사)
전 남	박윤모(전 광주연극협회장), 정상철(전 국립극단장), 이용우(극단까망 대표)
경 북	김도훈(연출가), 김영무(극작가), 방은미(극단아리랑 대표)
경 남	정 현(극단민예 대표), 이용우(극단까망 대표), 김태수(극작가)
제 주	정운봉(연극협회 수원지부장), 부재호(극단이어도 대표), 강용준(극작가)

○ 종합평가

- 15개 시·도 공연 심사총평(심사위원장 공식 발표문)

- 연극만큼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예술장르는 없을 것이다. 관객과 직접 만난다는 측면 이외에도, 연극은 인간의 신체 각 부위가 제 각각 제 몫을 다 했을 때 하나의 생명이 건강하게 살아 움직이듯이, 연극 제작의 각 요소들이 충분히 제 역할을 다 하였을 때, 그 총체적 연극미학이 살아난다.
- 이번 제22회 전국연극제 심사에서 가장 중요시 여긴 점은, 희곡의 선택에서 연출, 연기, 무대, 의상..... 등 각각의 요소들이 충분히 조화를 이루었는가 하는 연극제작의 총체적 역량을 가늠하는 데 그 첫 번째 심사기준으로 두었다. 이 점은 역시 연극 제작의 전통적 관습과 창조적 실험정신과 유효 적절한 조화를 이루었는가 하는 점에서도 일치한다.

- 대통령상 수상단체 선정사유

- 연극의 예술성은 각 요소가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조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작품을 한 가지 기준으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각각의 장·단점, 특징점이 엇갈릴 경우에는 “연극은 배우예술이다” 라는 점은 최종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대전의 예사랑의 “인류최초의 키스” 는 출연진 전반의 연기가 고르게 안정되어 있고, 주연급 연기자들의 연기는 월등하게 우월하였다. 이에 희곡상과 연출상이 다른 작품에게 돌아갔음에도 “연극은 배우예술이다” 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또한 전체적인 완성도와 앙상블의 차원에서도 그러하다.

#### - 행사운영 관련 평가

- 창작초연작품이 5편으로 타 대회 때보다는 많이 출품되었고, 공연 수준 역시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특히 올해의 경우 2개의 공연장에서 경연을 펼쳤으며, 한 지역에 2일간의 시간을 주어 좀더 내실있는 공연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공연의 질적 향상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올해 전국연극제 개최지인 대구광역시의 경우 전국연극제를 개최함으로써 처음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공연문화 저변확대에도 기여했으며,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축제로서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됨.
- 그리고 2개의 공연장에서 개최되어 보조인력이 2배로 들어가는 등 어려운 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 없이 잘 진행시켜, 타 지역의 극단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들었으나, 이에 반해 단체 중·고등학생들의 공연 관람 분위기 저해 및 대구오페라하우스 주변의 열악한 편의시설 및 환경 개선, 전국에서 찾아온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공연장 안내 소홀 등에 대한 보완은 공연문화 활성화를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 작년에 이어 해외교포극단 3개 팀이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전국연극제의 위상이 전 세계 한민족 우리말 연극제로 한 걸음 다가 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해외교포극단들에게는 국내 공연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해외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말 연극 및 우리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욕을 북돋는 성과를 얻었음.

#### □ 전국무용제

- 사업개요 : 지역무용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지역 무용 활동의 교류와 활성화를 통해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 주요 추진실적

- 행사명 : 제13회 전국무용제
- 기간 : 2004. 9. 6(월) ~ 9. 15(수) (10일간)
- 개막식 및 개막행사 : 2004. 9. 6(월) 16:30~22:00
- 해외초청공연 : 2004. 9. 7(화) 19:00~20:00
- 시·도 경연 : 2004. 9. 7(화)~14(화) 19:30~21:10
- 폐막(시상)식 : 2004. 9. 15(수) 10:00~11:00
- 장소 :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야외특설무대 및 아트홀(대공연장)
- 참가 : 15개 시·도 대표무용단 및 축하공연단
- 주최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무용협회
- 주관 : 대전광역시, 한국무용협회대전광역시지회
- 후원 :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예총대전 등
- 주요업무 추진 일정
  - . 2003. 2. 11 : 2004년 제13회 전국무용제 개최지 확정(대전광역시)
  - . 2003. 12. 02 : 2005년 제14회 전국무용제 개최지 확정(제주도)
  - . 2004. 3. 23 : 제13회 전국무용제 관계자 회의 개최
  - . 2004. 3. 31 : 제13회 전국무용제 시행계획 수립
  - . 2004. 6월-8월 : 지역예선대회 개최 및 지원금 지급
  - . 2004. 7. 22 : 제13회 전국무용제 대표자 회의 개최
  - . 2004. 7월-9월 : 본선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금 지급, 시상계획, 심사계획, 개막리셉션계획, 홍보 및 평가계획 등 수립
  - . 2004. 8. 24 : 2006년 제15회 전국무용제 유치 신청 안내
  - . 2004. 9. 6-15 : 제13회 전국무용제 본선대회 추진
  - . 2004. 11. 19 : 제14회 전국무용제 개최 관련 관계자 업무협의
  - . 2004. 11월-12월 : 안무상 및 최우수연기상 해외시찰 지원금 지급
  - . 2004. 12월 : 2006년 제15회 전국무용제 개최지 선정(경북 포항)

○ 세부추진내용

- 개막식 행사 : 2004. 9. 6(월) 16:50-20:00

행사명	일시	장소	행사내용
개막행사	'04. 9. 6(월) 16:30 ~22:00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야외특설무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전공개행사(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칭밴드연주 (대전여자정보고등학교)</li> <li>- 포즈 댄스씨어터 공연</li> </ul> </li> <li>• 개막식</li> </ul>
		아트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막축하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민족예술단</li> </ul> </li> </ul>
		옥상 야외무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영리셉션</li> </ul>
해외초청공연	9. 7(화) 19:00 ~ 20:00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아트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초청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살바닐라 무용단</li> </ul> </li> </ul>

- 시·도 대표경연

날 짜	시 간	시·도	단체명	대표	작품명	장르
9. 7(화)	19:30	대전	구재홍 무용단	구재홍	비목2	한국
9. 8(수)	19:30	경기	오은령 무용단	오은령	푸른영혼	한국
	20:30	경남	이지은 무용단	이지은	石門(석문)	한국
9. 9(목)	19:30	광주	김미숙 하나무용단	김미숙	하얀눈물	현대
	20:30	부산	김은이 짓 무용단	김은이	벼랑 끝에서...	한국
9.10(금)	19:30	제주	제주민속무용단	강금숙	역새 바람꽃 되어	현대
	20:30	전남	여수 이운천 & 장미영 무용단	장미영	바람과 함께 풀잎이	발레
9.11(토)	19:30	전북	손운숙 발레단	손운숙	雨林의 사계	발레
	20:30	울산	김정숙 무용단	김정숙	타래 III - 끈	현대
9.12(일)	19:30	충북	박시종 무용단	박시종	가람पुर이 가얏고	한국
	20:30	경북	백경원 무용단	백경원	만나고 간 바람	한국
9.13(월)	19:30	인천	최경희 무용단	최경희	생각하는 나무	한국
	20:30	강원	j.cultures 무용단	정유라	모 독(冒瀆)	현대
9.14(화)	19:30	충남	코스모폴리탄현대무용단	서인숙	시간속의 그림자	현대
9.14(화)	20:30	대구	장현희 댄스프로젝트	장현희	피할 수 없는...	현대

- 폐막식 행사 : 2004. 9. 15(수)

행사명	일시	장소	행사내용
폐막 행사	9. 15(수) 10:00 ~ 11:00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야외특설무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축하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립무용단 공연</li> <li>- 소리마당 뒷풀이</li> <li>- 백운초댄스스포츠</li> </ul> </li> <li>시상식</li> <li>환송리셉션</li> </ul>

- 시상내역

구분	부 문	훈 격	상 금 (만원)	수 상 자		
				시 도	무용단명 (성 명)	작 품 명
단 체 상	계		6000	7	7	
	대 상	대 통 령 상	2000	부 산	김은이 짓 무용단 (김 은 이)	벼랑 끝에서...
	금 상	문화관광부장관상	1000	충 북	박시종무용단 (박 시 종)	가람पुर이 가얏고
		행정자치부장관상	1000	광 주	김미숙 하나무용단 (김 미 숙)	하얀눈물
	은 상	대전광역시장상	500	전 남	여수 이운천·장미영 무용단(이운천 장미영)	바람과 함께 풀잎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상	500	대 구	장현희 댄스프로젝트 (장 현 희)	피할 수 없는...
		한국무용협회이사장상	500	대 전	구재홍무용단 (구 재 홍)	비목 2
		예총대전광역시연합회장상	500	제 주	제주민속무용단 (강 금 숙)	역새 바람꽃되어

구분	부문	훈격	상금 (만원)	수상자		
				시도	무용단명 (성명)	작품명
개 인 상	계		1600	9	9	
	안무상	대전광역시장상	200	부산	김은이 (김은이깃무용단)	벼랑 끝에서...
	최우수연기상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상	200	대구	이인수 장현희 댄스프로젝트	피할 수 없는...
	연기상		200	경기	이동준 (오은령무용단)	푸른영혼
			200	전남	최정윤 (이윤천·장미영무용단)	바람과 함께 풀잎이
			200	전북	손윤숙 (손윤숙발레단)	雨林의 사계
			200	울산	김정숙 (김정숙무용단)	타래 III - 끈
			200	충북	박시종 (박시종무용단)	가람पुर이 가얏고
	무대기술상	한국무용협회이사장상	100	부산	남영우 (김은이깃무용단)	벼랑 끝에서...
음악상	전국무용제집행위원장상	100	강원	주상후 (j.cultures무용단)	모독	

※ 안무상, 최우수연기상 수상자에게 해외시찰경비 300만원 별도 지원

※ 심사위원 : 김성일(한국무용협회 이사), 김운미(한양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김기인(서울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 허영일(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과 교수), 유인화(경향신문 문화부장), 김란(은빛예술단 이사장), 김양근(숭의여대 무용학과 교수) 이상 7명

- 관객현황

구분	아트홀(대공연장)	야외특설무대	계
개막식	1,400	1,900	3,300
경연	10,500	15,100	25,600
폐막식	-	1,000	1,000
계	11,900	18,000	29,900

- 사랑티켓 운영 현황

- . 티켓종류 : 학생용(고교생 이하 사용) / 일반용
- . 가격(액면가격) : 학생용(3,000원) / 일반용(7,000원)
- . 티켓운영 현황

티켓종류	발행수량	판매수량	회수수량	미회수수량	환불수량	비고
3,000원권	10,000매	7,218매	7,134매	88매	-	
7,000원권	10,000매	7,820매	7,793매	27매	-	
계	20,000매	15,038매	14,927매	115매	-	

. 사랑티켓 문예진흥기금 지원액 : 45,440,000원

- 부대행사 내용

일시	공연명	단 체	내 용
9. 7(화) 18:00~18:30	B-boy & 가요 이미테이션	배재대학교 NEO 댄스팀	비보이 퍼포먼스 보아와 렉시 이미테이션
9. 8(수) 18:00~18:30	거침없는 사랑 그대에게 피구왕통키	배재대학교 비호응원단(치어)	무대액션 곡 응원 시민과 함께 하는 응원 한마당
9. 9(목) 18:00~18:30	힙합 퍼포먼스	목원대학교 크라커 댄스팀	뉴스쿨힙합 스타일의 퍼포먼스
9. 10(금) 18:00~18:30	Sp boys Girl HIPHOP 올챙이댄스 이미테이션	충남대학교 입큰개그리 댄스팀	b-boying poppin&locking SL girls 힙합 I&C Motion 이미테이션
9. 11(토) 17:10~17:30	밸리댄스	우즈베키스탄 오파린무용단	밸리댄스
9. 12(일) 17:10~17:30	우즈베키스탄 민속무용	우즈베키스탄 뮤노жат무용단	우즈베키스탄 민속무용
9. 13(월) 18:00~18:30	응원 액션	대전대학교 청룡응원단(치어)	아크로바틱 치어, 액션
9. 14(화) 18:00~18:30	B-boy 퍼포먼스	대전대학교 피노키오 댄스팀	1. 디스코 풍 안무 2. 하우스 장르 댄스 3. B-boying퍼포먼스 4. 브리트니 스피어스 이미테이션

- 축하공연

공 연 명	공연일	시간	장소	내 용	비고
해외초청공연	9. 7(화)	21:10~ 22:00	야 외 특 설 무 대	소수민족무용 중국민족예술단	공연
해외초청공연	9. 8(수)			타 투(Tatoooo) 일본 살바닐라무용단	
마 당 극	9. 9(목)			북어가 끓이는 해장국 민족예술단 우금치	마당극
댄스 스포츠 페스티벌	9. 10(금)			Pomation Dancesports 안상석 댄스스포츠선수단	댄스 스포츠
힙합 춤의 모든 것		Fever OF Street, E-Tribe Ent	힙합		
청소년무용제 대전무용협회	9. 11(토)	17:30~ 18:30	청소년무용제 대전무용협회	무용	
카테일퍼포먼스		17:30~ 17:50	카테일 퍼포먼스, 콜린스 빌	이벤트	
놀 이 극		17:50~ 18:30	꿈을 먹고 사는 품바 죽 심 회	마당	
판타스틱아트 쇼	9. 12(일)	21:10~ 22:00	야 외 특 설 무 대	판타스틱 아트 쇼 MBC 뷰티아카데미 스쿨	분장
재즈댄스와 함께	9. 13(월)			버터플라이 - 스팟재즈댄스 "포옹", "JUMP" 서은정 현대무용단	재즈
풍물과 춤의 만남	9. 14(화)			두드락 퍼포지움 신명풍무악	두드락

- 기타행사

공 연 명	공연일	시간	장소	내 용	비고
학술심포지움	9. 6 (월)	13:00~ 16:00	시립미술관	무용교육개혁을 통한 무용대중화	세미나
멀티미디어전	9. 6(월)~15(수)		로비	참가단체 전일 경연작품 상영	비디오
대전무용사진전	9. 6(월)~15(수)		행사부스	대전 무용인들 공연작품 사진전	사진전
참가단체프로필전	9. 6(월)~15(수)		로비	참가단체 공연작품 공연사진 로비에 게시 및 관람객에 홍보	실 사 출 력
네임아트	9. 6(월)~15(수)		행사부스	네일케어, 컬러링, 후렌치메니 큐어, 핸드페인팅영	MBC 아카데미 뷰티스쿨 학원
페이스페인팅				얼굴페인팅	
헤나				헤나문신	

○ 심사총평

- 한국무용 7개 단체, 현대무용 6개단체, 발레 2개 단체가 경합을 벌였다. 한국무용의 경우 기본 춤사위가 제대로 숙련되지 않은 무용수들이 출연하거나 분야가 다른 타 전공무용수들이 출연해 국적불명의 무대작품을 선보인 단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안무자의 경력 및 나이가 천차만별인데, 앞으로 지역예선때는 일정수준의 연령층을 감안해 지역 대표작을 선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첨부한다. 발레의 경우 기본기를 갖춘 무용수들이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춤의 조형미를 추구하고, 51세인 손운숙 대표의 노련한 테크닉과 여수 이윤천·장미영무용단의 최정윤도 안정된 기량을 보여 주었다. 관객의 반응도 좋았다. 현대무용의 경우 음악을 짜깁기한 작품이 많았고, 후반부로 갈수록 안무력을 상실한 채 춤과 음악, 무대미술이 유리돼 조화를 이루지 못했고 걸도는 작품이 더러 있었다.
- 15개 참가 작품은 전체적으로 춤 언어가 부재했지만 대상은 한국춤사와 무대세트, 영상, 연기력이 좋았고, 금상 김미숙 하나무용단은 무대미술인 목련꽃 세트과와 한국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개인상의 경우 경기도 오은령무용단의 무용수 이동준은 신체적 조건·객석을 압도하는 이미지로 재목이 될 로 가능성을 보여 주었고, 대구 장현희 댄스프로젝트의 무용수 이인수는 근육의 완벽한 유기적 조합을 통해 우수한 테크닉을 구사해 전국무용제의 수훈감으로 꼽혔다. 박시중 무용단은 국적불명의 한국춤을 추지 않고, 철저히 한국춤사위를 바탕으로 하고, 한국음악을 사용해 순수한 한국무용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 전체적으로 평할 때 일부 참가작들은 스모그를 남발하는 연출과 무대위에서 춤을 추지 않고, 걷는 동작으로 공연시간을 채우는 구태, 현란한 조명 등은 작품성의 효과를 반감시켰다. 음악도 신디사이저·타악기 등을 반복할 뿐 음악적 심층도를 추구하지 않는 작품이 행사의 수준을 격

하시켰다. 특히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공연장 무대공간이 높고 넓어, 참가작들은 공간을 채우는 무대미술을 제작하는 데 치중하느라, 작품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구성하는데 전력하지 못했고, 결국 무대와 춤의 일치를 이루지 못했다.

○ 전국무용제 사업 자체평가

- 제 13회 전국무용제는 제2회 대회 개최이후 10여년 만에 개최한 대회로 대전무용발전의 한 단계 재도약 계기를 마련하였고, 지역문화교류와 무용예술 활성화를 도모한 행사로 평가됨. 무용인들만의 단순한 경연의 틀을 벗어나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 보는 축제로서, 특히 해외무용단 초청공연과 시·도의 날 행사로 공연된 지역의 다양한 무형문화재 공연은 지역간의 무용교류와 무용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되었음. 다만 해외무용단 초청공연 과정에서 충분한 의사 교환과 원활한 언어 소통이 부족하여 진행에 다소 혼선이 있었으며, 행사장별 보조인력 배치가 적어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음. 참가 무용단들마다 작품 제작에 전념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어 경연 열기 못지않게 무용가들의 치열한 창작 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여 무용의 대중화를 자연스럽게 선도한 주관처인 대전시 무용관계자들의 노력은 한국의 무용발전을 위한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함. 특히, 사랑티켓 관객을 적극 유치하여 관객개발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 창작공연활성화 지원

### (1) 사업개요

- 공연예술분야의 대표적인 창작작품을 발굴. 공연까지 연계 지원함으로써 예술의 질적 수준 향상과 창작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추진실적

- 총지원실적 : 45건, 1,062,000,000원
  - 연극 : 18건, 510,000,000원
  - 무용 : 7건, 220,000,000원 (사업포기 1건)
  - 음악 : 19건, 332,000,000원
- ※ 상세지원내역은 부록의 세부추진실적 참조

### (3) 자체평가

#### <음악>

- 우리나라 공연예술계의 대표적인 작품을 발굴하여 이를 레퍼토리화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인바, 이를 활성화하고 우리원의 대표작인 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사전, 사후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사후지원방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소건 선정 집중지원방식을 도입해야 함.

#### <무용>

- 초연작을 대상으로 심사위원단의 사후평가를 통해 재공연을 지원하고 있는 창작공연활성화지원사업은 우수한 공연작품들을 발굴해 내고 있으며 지속적인 레퍼토리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전반적으로 호평을 받았던 이들 작품들을 통해 관객들은 무용예술의 즐거움을 한껏 누리고 있다고 평가한다.

#### <연극>

- 극단 물리 '서안화차', 극단 신화 '사스가죽'등이 관객이 많았고 언론이나 비평가들의 주목을 받았음

### (3) 평가위원 평가

#### <무용>

- 2004년도의 작품들은 무용계에 대해 그다지 자극을 주지 못한 편이었고 관객의 호응도 낮았다. 활성화 지원 취지를 살린 공연이 적은 현실은 창작

지원화의 취지가 현장에서 살려지지 못한 채 점차적으로 단순 재공연 지원으로 흐르고 있음을 반증하였다. 이 문제점은 낮은 창작력에서 기인하는지, 아니면 활성화 지원작 선정 과정의 부실에서 기인하는지 단정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해마다 창작 활성화 지원작을 선정하기보다 사정에 따라 유보하여 창작 활성화 취지를 살릴 대상작을 기다리는 방법도 필요한 것이다.

<김채현>

#### <연극>

- 지원액수가 꽤 큰 분야인데, 가능하다면 연극계가 주목할 수 있는 작품이 선정되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갖는다. 한 두 편이지만 작품의 완성도나 가능성이나 모두 부족하였고, 관객동원 능력마저 의심스러운 공연이 있었다. 물론 해당년도 지원 작품의 수준 여부와 상관이 있겠지만, 심사위원들은 좀더 엄선해야 할 듯 하고, 진흥원 측도 심사에 착오가 없도록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듯 하다. 본 평가위원은 신작 희곡 중심의 작품에 국한하여 살펴보았음. 모두 상반기에 몰려있으니 상반기 평가를 참고할 것. 다만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후지원이라면 공연의 성과를 알 수 있으니 평가하기 쉽겠지만, 사전평가의 경우는 좀 더 신중해야 할 듯. 나로서는 무명작가인 <달의 뒤쪽>이 삼천만원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직도 납득이 안 감 <김명화>
- 창작공연 활성화지원 사업은 비교적 잘 수행되고 있으나 그 선정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하고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김명화 작, 임영웅 연출의 <카페 신파>가 하반기에 이 사업을 통해 가장 돋보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김미도>
- 예술창작지원 작품들에 비해, 신작인 이 분야의 작품 성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만한 것은, 본인이 평가한 두 작품이 모두 올드패션이었다는 점이었고, 그 결과 앞으로 계속 작품을 다듬는다 하더라도 발전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는 점이다. <이영미>

#### (4) 기타사업 :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조성

- 추진경과
  - 2004. 5월 : '대학로 유니베르시떼' 매입방안 검토
  - 2004. 8. 30 : '대학로 문화공간 조성' 사업추진계획안 수립 및 문화부 보고
  - 2004. 9. 2 : 감정평가 및 실사용역 추진
  - 2004. 11. 26 : '대학로 문화공간 조성' 사업추진계획안(변경안) 기획예산처 최종확정 보고, 승인

- 2004. 10. 28 - 29/11. 12 : 대학로 '유니베르시떼' 사업인수 교섭 추진
  - 2004. 12. 2 : '대학로 문화공간 조성' 사업 매매계약 체결
- 2004년도 예산집행내역
    - 총예산액 : 4,800,000,000원
    - 집행액 : 4,671,951,680원
    - 이월액 : 128,048,320원
  - 자체평가
    - 동사업이 2004년도 연도 중반에 긴급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장기적 관점에서의 종합사업계획(Master Plan)의 수립과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의 부재로 인해 사업 추진방식 및 일정, 소요예산 등에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게 됨.
    - 사업의 규모,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조직적인 추진체계의 구성이 필수적인 데, 미흡한 편이며 또한 추진반 운영계획상의 차질 부분(실무전문가 중심의 소위구성 및 공사감독 채용 등)은 2005년도에는 필히 실현해야 할 사항임.
    - 준비용(총305억원)에 대해서만 세출예산 편성 및 당국의 승인은 현금 흐름상의 유동성 부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추진상 여러 제약 요건으로 작용할 소지가 많음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상기 제문제에도 불구하고 또한 신축사업 도중의 사업인수라는 난제에 적절히 대응하여 소기의 성과(매매계약 체결 및 사업인수)를 거두었다고 판단됨.
  - 2005년도 과제
    - 확보예산(305억원) 범위내에서의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우리원 시행자격의 변화(이전) 필요
    - PF자금 상환여부 및 중도금 대출 승계
    - 사업자 등록관계 조사 및 보고(별도 혹은 변경)
    - 시공사 선정 문제
    - 자문위 및 공연 실무인력(소위위원) 활동의 여건 적극화

## 다원적 예술 지원

### (1) 사업개요

- 정형화된 기성예술 장르의 틀에서 벗어난, 독립·실험·대안적인 경향의 비주류 예술활동을 지원하여 다양한 예술흐름의 수용 및 창조역량 배양

### (2) 주요추진실적

- 지원결정 건수 및 금액 : 47건, 620,000,000원
- 지원실적 : 45건(95.7%), 595,000,000원(95.7%) 지원

### (3) 자체평가

- 기획성 및 완성도가 우수한 사업들이 다수 추진되었음. 특히 2004년도 신규 선정사업인 인터넷 인디라이브음악공개방송은 시민방송과 제휴하여 매주 인디밴드들을 1주 1팀씩 소개하는 '라이브스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탁월한 사업성과를 일구어내었음.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과 달리 불성실한 추진으로 성과가 미미하였으므로 이를 지원심의에 반영하였음
- 다원적예술지원은 독립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참여정부의 공약사업에 해당하는 바, 관련예산의 확대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기획예산처와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협의조정결과 '04년 대비 36.9%가 증액되는 성과를 거둠  
※ 04년 620백만원 → 05년 849백만원 (229백만원, 36.9% 증가)
- 모금폐지에 따른 새로운 대체재원인 복권기금에 대한 2004, 2005년도 신청사업중 다원예술분야사업이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음에 따라 복권기금성격에 부합하는 지원프로그램의 신규개발이 요구됨.
- 퓨전, 크로스오버, 멀티장르 등 예술창작에 있어 장르간의 융합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예술창작과정에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소재를 적극 도입하려고 하는 실험적인 신진예술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창작공간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존 공연장·전시장 등 정형화된 예술발표공간을 탈피한 거리예술, 실험예술 성격의 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 장르 영역의 모호성, 관련 예술인 및 정보네트워크의 미비 등의 원인으로 정책 형성의 기초자료인 예술지형에 대한 연구활동과 관련통계 및 참고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육성이 요구됨.

### (3) 평가위원 평가

#### <주흥미>

##### ○ 다원예술 분야사업의 작품성

- 하반기 다원예술분야사업은 사업의 독창성이나 기획의 참신성 측면에서 눈에 띄는 몇몇 사업이 있었다. 하이테크놀로지와 공연무대(컬트 로보틱스), 건축과 음악무대(모던 스테이지 세팅), '신도시'의 문화공간적 역할로서의 전시(마을버스 11번), 전시공간의 새로운 개념 만들기(오픈스튜디오), 환경운동의 긍정적 문화콘텐츠로의 전환(안양천 살리기 프로젝트) 등 기획의도의 우수성이 돋보이는 사업이 많았다.

. 컬트 로보틱스 : 하이테크놀로지를 적극적의미의 무대예술로서 구현하기 위한 시도로서 기획된 공연. 등장인물의 캐릭터, 기술적 장치, 텍스트 등 신선한 시도가 돋보인 공연이었는데 여전히 관객과의 인터랙티브한 관계 설정에서는 아쉬움이 남았다. 창작자(연출자)의 고민이 무대(그것도 유료 관객을 대상으로 한)로 표현될 때 관객의 설정이 설득력 있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 머리에 꽃을 : 소극장에서의 테마공연, 제주지역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아마추어공연 등 행사의 프로그램은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축제. 그러나 이 축제는 지역의 문화환경이나 인프라가 낮은 제주지역에서 이루어진 행사. 때문에 절대적 기준의 예술적 우수성에 대한 기준이나 잣대를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프로그램의 질적인 우수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담보한다는 것은 기획력과 실행력은 물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물적, 인적 자원과 인프라가 필수 조건임을 감안한다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 낸 소중한 행사라고 볼 수 있다.

. 마을버스 11번 : 도심과 신도시를 잇는 키워드를 '마을버스'로 상징하고 만화, 영상, 설치미술, 회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도시'를 구현하고자 한 행사. '아름다운 가게'를 행사장으로 활용한 이 전시는 일상생활과 전시를 엮어내는 새로운 공간적 개념의 시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물품과 본행사의 작품은 매우 불친절하고 비효과적으로 디스플레이 되어있고 공간의 효율성마저 살리지 못한 전시.

. 모던 스테이지 세팅 : 국내에서 건축가들이 음악무대세팅을 시도한 첫 행사. 오페라무대를 시각적 첨단기법을 동원해 구현하려고 한 점 또한 눈에 띈다. 오페라 곡을 이미지 영상으로 표현한 작품, 프로펠라를 모티브로

한 원형극장 작품, '몽촌토성'을 활용해 별도의 인위적 재가공이 없이 그에 맞는 오페라를 선택한 점, 자금성, 상암월드컵경기장 등 무대스케일로 화제를 일으켰던 작품을 오히려 해체와 재구성을 통해 큐브로 구성한 작품(투란토티)등 구성형식도 신선했다. 애초 기획의도(지원신청서에는 무용 작품과 오페라였음)와 달리 오페라작품에만 국한된 점은 못내 아쉬움을 남겼다.

○ 기여도와 파급효과

- 아이템의 독창성과 참신성을 강조하는 다원적 예술의 경우 관객설정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컬트로보틱스]의 경우 제자들로 보이는 학생들이 관람객의 90%를 차지했고 강매를 한 듯한 느낌도 있었는데, 이 행사는 행사의 성격상 공연무대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적합했을 것이다. 또한 [모던스테이지 세팅]의 경우 관련분야(건축, 음악무대)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아이টে이였고, 기획의도 또한 관련분야 혹은 지방생을 타깃 오디언스로 하는 행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전시를 하는 물리적 조건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홍보가 되지 않아 관련업계 및 관련분야의 사람들이 좋은 콘텐츠를 놓친 것 같아 아쉽다. [프린지 페스티벌]의 경우에도 축제가 해를 거듭하면서 생긴 매너리즘을 그대로 드러낸 대표적 행사라 볼 수 있다. 좋은 작품을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티케팅, 홍보 등)보다는 예산을 조달하기 위한 마케팅만 두드러지게 드러난 행사. 제주의 [머리에 꽃을]행사는 아마추어 참가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취합, 홍보하고 전문예술인들의 참여프로그램은 워크숍 형태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듯. 보다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 [마을버스 11번]의 경우, '신도시'라는 개념을 지역문화의 자생적 발전이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화두로 등장시킨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고양시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적극적 참여와 새로운 컨셉의 전시기획을 표방하며 화려한 서술로 포장되었던 이 전시는 기획의도와 결과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 '다원적 예술분야'는 '예술창조역량강화'라는 성과목표를 지니고 있는 분야이다. 2004년도의 사업중에는 오히려 '문화예술향수기회확대'라는 성과목표에 적합한 사업도 몇몇 발견할 수 있었다. (양평 섬머 페스티벌, 머리에 꽃을, 안양천살리기프로젝트 등) 이들 사업을 지원신청시 다른 분야로 유도하고 다원적 예술분야의 경우 예술창조역량강화라는 원래의 성과목표에 걸 맞는 작품들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서민갑>

- 다원예술분야는 기존의 예술장르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예술영역을 개척하는 사업이거나 혹은 복합장르의 페스티벌 성격인 사업을 총괄하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 사업은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 실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만으로 채택된 사업들이 많아 우수성과 완성도를 평가할 때 새로운 아이템에 의한 문제제기의 특성과 그로 인한 미숙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전의 평가틀로는 평가할 수 없는 사업의 내용과 형식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고도의 주의력과 창조성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새로운 장르에 대한 이해와 인내까지를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2004년 다원예술분야의 사업에 있어서 기존의 분야에서 포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던 점은 다원예술분야에 대한 정의가 아직도 분명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앞으로 다원예술분야에 대한 정의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고 특히 종합장르형 축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야가 신설됨으로써 새로운 주제와 장르에 과감하게 도전하고자 하는 예술가들의 노력이 더욱 활발하게 벌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은 프리마켓과 함께 홍대앞의 지역문화를 넘어서 한국의 독립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 행사이다. 독립예술제에서부터 구축한 자체의 아이템과 기획력, 실행력은 이제 많은 프로그램을 무리없이 진행하는 저력을 구축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다만, 프린지페스티벌과 프리마켓이 어떠한 상징적 위치에서 머무르지 않고 명실상부한 한국 독립문화의 대표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개발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의 홍대 중심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탈피하여 각 지역의 독립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의 거점으로 자기 위상을 변모시킴과 동시에 한국의 대표축제로서의 대표성을 지니는 양면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두 행사를 정점으로 하는 독립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프린지 페스티벌과 프리마켓으로 대표되는 독립문화축제가 자체의 일상적 기획과 교육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많은 작가들에게 작품 발표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독립문화축제 전문 스태프의 역량을 안정적으로 축적해야 할 것이다.
- 컬트로보틱스와 모던스태이지 세팅의 경우는 2004년 다원예술활동지원분야에서 가장 새로운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다. 사이버와 로봇의 과학적 상상력을 예술로 표현하고자 한 컬트로보틱스와 무대미술을 독자적인 예술로 구현하고자 한 모던스태이지 세팅은 그 아이디어의 참신성을 탄탄하게 뒷받침하며 밀고 나간 예술적 완성도가 돋보였다. 비록, 기획했던 아이디어의 의도를 충분히 살린 완벽한 예술적 성취를 이루며 사회적인 영향을 만들어

내지는 못했고 특히 모던스태이지 세팅의 경우 장소선정과 홍보전략에 있어 소극성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지만 이러한 실험적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다원예술지원이 존재하는 자기 근거가 될 것이다.

- 2004서울콩그레 행사와 오픈스튜디오프로젝트, 여성공간문화축제, 노동만화전, 달라연극축제는 퍼포먼스와 미술체험, 여성문화, 노동만화, 교육연극이라는 특별한 주제를 집중화한 장르예술축제이다. 기존의 예술장르와는 다른 영역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의 유의미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열린 각 행사들은 자기 예술의 대표적 전문성을 충분히 살리며 장르의 존재의의를 부각시키지는 못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각 장르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예술적 대응이 관습적이거나 아마추어적인데 기인하며 이 창작물을 대중과의 소통을 위한 축제로 만들어내는데 있어서도 서툰 편이었다. 그 이유로는 해당 분야의 예술가들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기획/평론력의 부재를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각 장르의 예술적 성취들이 보다 많은 대중들속에서 파급력을 갖기 위해서는 해당 장르의 개별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기획력을 갖춘 전문 기획자의 육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제주 '머리의 꽃을' 거리예술제와 안양천 프로젝트, 신도시전 등의 행사는 '지역'의 특성에 착목한 프로그램들이다. 이 프로그램들의 성패는 얼마나 지역에 뿌리박은 예술가들의 자발성과 창발성을 기초로 지역적 저력을 작품으로 표현해내는가 하는 것과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역적 문화역량의 축적으로 연결해내느냐에 있다고 할 것이다.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논의를 거쳐 사업실무역량을 지역적 차원에서 구축하고 지역적 특성을 담기 위한 준비와 노력을 전개했던 팀과 그렇지 않았던 팀과의 격차는 매우 컸다. 제주 '머리에 꽃을'팀의 경우 지역적 특성상 예술적 역량이 구축되고 소통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내의 예술가들을 꾸준히 발굴, 육성, 교류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점에 큰 의미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기획역량이 함께 구축되고 있었던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안양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지역 미술운동의 거점으로 위치하고 있는 미술관을 중심으로 지역 환경의 문제를 삶과 예술의 지역시민예술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점과 치밀한 사전준비-실행-평가의 시스템이 매우 돋보였던 프로그램이다. 이에 비해 신도시전의 경우는 지역성을 담은 작품의 완성도와 행사를 지역화하는 역량의 구축 양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이 드러났다.

## 신진예술가 지원

### (1) 사업개요

- 역량있는 차세대 예술가를 발굴하여 중점 지원하는 사업

### (2) 주요추진실적

(단위 : 천원)

분야	지원결정건수	지원건수	예산액	집행액	비고
문학	13건	13건	108,000	108,000	
미술	25건	25건	146,000	146,000	
연극	4건	3건	57,000	37,000	사업포기 1건
무용	8건	8건	125,000	125,000	
음악	1건	1건	12,000	12,000	
전통	6건	6건	52,000	52,000	
총계	57건	57건	500,000	480,000	

### (3) 자체평가

#### <문학>

- 이신조, 장석원, 박진성 등 역량있는 작가들에게 창작지원금을 지급하여 신진 작가들의 발굴 및 육성이라는 사업취지를 충실히 구현하였음

#### <미술>

- 신진작가의 개인전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는 한편 전시기획의 이론적 배경 및 담론 형성의 매개 인력인 신진 큐레이터, 비평가 등에 대한 지원 확대가 요구됨. 아울러 신진예술가의 경우 전시기획 추진을 위한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한 지원규모의 실질화가 필요함.

#### <음악>

- 신진예술가사업은 역량있는 차세대를 조기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대폭증액 및 연령대를 하향조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무용>

-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은 사업의 성과에 대해 호평을 받고 있는 주요 사업으

로 이러한 지원을 계기로 젊은 예술가들이 세계 각 국의 우수한 무용교육 기관과 도시를 방문하여 미리 계획한 자신들의 일정에 맞추어 매우 적극적으로 연수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래 국제무대에 설 주역이 되기 위한 신진 예술가 자신들의 노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오민정(네덜란드), 김성용(일본), 정현진(미국), 이영일(유럽), 정지윤(오스트리아 등), 예효승(프랑스) 등 해외 연수지원과 노진환과 정용진의 창작공연이 있었다. 특히 신진예술가들의 창작공연사업은 기성 무용가들이 대관의 어려움을 겪은 것 이상으로 공연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 <연극>

- 역량 있는 신진 예술 인력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추진의 필요성이 있으며, 1회성의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또한 해외연수를 통해 보다 선진화된 공연기획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고 판단됨.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음

### <전통>

- 전통분야 신진들을 발굴하는 의의가 있음. 사업유형이 공연 위주여서 향후 연수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함.

## (3) 평가위원 평가

### <미술>

- 신진예술가 지원은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는데도 개인전을 할 수 있을 개인적 여건을 못 갖추었거나(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조건) 주류 그룹전에 참여하지 못한 40세 미만의 작가를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경험적 판단을 해본다. 이 부문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인다. <강성원>
- 2004년도 신진예술가 지원 사업은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사업의 관건은 연령이나 캐리어 면에서 신진예술가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더불어 정통적인 장르와 함께 정통적인 방법론을 구사하고 있는 작가들이 소외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고충환>
- 브레인팩토리 작가 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린 ‘애회’전은 보기/보여지기라는 미술의 중요한 테마를 분장과 작가의 역할 연기를 통해 다루었으

나, 단순화의 오류와 젊은 작가 특유의 나르시시즘에 빠져 버렸다. 순수미술에 비교해서 이미 주류가 된 대중문화의 방식을 차용하면서 무엇을 보태고 무엇을 변형시켰는가 하는 문화비판적인 반성이 부재하였다. <이선영>

- 신진예술가 특유의 독창성과 새로움, 관심도 및 파급도가 전체적으로 미약하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신진예술가의 층이 너무 얇은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앞으로는 신진예술가 지원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 이번 지원사업의 경우 신진예술가 특유의 사업의 성과를 보여준 경우가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미흡했다. 그런 면에서 지원의 효과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신진예술가 지원의 경우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는 다각적인 지원의 형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민병직>

#### <무용>

- 신진 예술가의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지원 효과는 높지 않았다. 창작의 기본 정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작품이 지원을 받는 등 다소 난맥상을 보였다. 신진들의 창작을 고무하고 새로운 실험 정신을 부추기는 지원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신진 창작자들이 춤 정신에 충실한지의 여부가 지원 과정에서 확인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김채현>

#### <전통>

- 동일무대에서의 세 개 유파 산조(한범수, 지영희, 김영재)를 한 연주자가 발표하는 기획이 매우 획기적인 내용으로 참신성과 독창성이 탁월하였고 프로그램 전체의 완성도 또한 높았음 <임재원>
- 해당 사업은 총 5건이었다. 그중 김형신의 우리춤을 평가하였다. 우선 인지도나 홍보면에서 약하여 많은 관객이 운집하지는 않았지만, 전통을 통하여 새로운 느낌을 주는 춤맛을 보았다. 이는 기존의 레퍼토리들과 전통에 의해서 새롭게 짜임을 갖춘 춤들을 선보였고 그것이 관객에게 다가간 것이다.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춤에만 몰두하는 속에서 새로운 바디를 찾은 작업도 역시 젊은 패기였다. 이렇듯 새로이 등장하는 될성부른 이를 더욱 찾아 지원하였으면 한다. <진옥섭>
- 전통예술 분야에서 이 사업은 대체로 두 가지 성격을 띤다. 첫 번째는 전통음악 위주로 짜여진 '실력검증'을 위한 공연과 두 번째는 독창성과 참신성을 내세운 '실험'을 위한 창작음악위주의 공연이다. 어떤 쪽이든 신진예술가의 지원은 필요하겠으나 전자의 경우 공연의 추진에 있어서 지원금은 윤희유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만약

그만한 지원금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나타난 공연과 같은-우수한-공연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즉, 곡목의뢰나 출연자, 악기 등에서 실제 금액의 부담이 적은 전통음악위주의 연주는 조금은 과다하게 풍요로워 보였으나 반대로, 곡목 의뢰에 거금이 들고 출연자가 많으며 여러 악기연주자를 많이 섭외해야하는 창작음악 발표는 상대적 재정적 부족함 속에서도 독창성과 차별성에서 뛰어났다. 게다가 전자의 경우는 단위사업 중 '전통예술 발표 및 전승보급지원'사업과 그 목적과 파급효과가 중복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전통예술분야 중에서 개별사업의 수가 비교적 적은 신진 예술가 지원사업에서는 후자 즉, 창작활동을 위주로 하는 신진예술가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한다. <김명욱>

## 관객개발 지원

### (1) 사업개요

- 사랑티켓지원 : 공연예술관객을 개발하고 공연예술단체의 수입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공연을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는 공연종합관람권(사랑티켓)을 관객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그 할인 차액을 공연 예술 단체에 지원
- 관객개발기반조성 : 사랑티켓 관객회원제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 문화소외계층 초대 관극행사 개최, 공연예술단체 연계마케팅 추진 등을 통해 관객을 지원하는 기초 여건을 조성하고 잠재관객을 안정적 관객층으로 흡인함.

### (2) 주요추진실적

- 주요 추진실적
  - 서울사랑티켓지원사업
    - 주관 : 좋은공연만들기협의회
    - 주최 : 한국연극협회, 한국국악협회, 한국무용협회, 한국음악협회, 전국민족극운동협의회, 한국공연예술매니지먼트 협회
    - 참가단체 및 작품 : 288개 단체 692개 작품
    - 사랑티켓 발행유형 : 2종 (일반용 12,000원 / 초중고생용 8,000원)
    - 예산집행현황 : 2,499,729,000원 (책정예산 22억 원 중 113.6%)
    - 예산초과집행내역 : 서울지역의 만성적인 사랑티켓 초과수요 현상을 감안 서울 외 지방의 사랑티켓 지원예산 잔여 예산액 일부를 서울사랑티켓지원금으로 집행 함.

※ 참고 : 예산과목상의 예산집행 내역

(단위:원)

내용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서울사랑티켓지원	2,200,000,000	2,199,729,000	271,000	99.9
지역사랑티켓지원	1,000,000,000	904,359,000	95,641,000	90.4
회원제 및 인터넷 홈페이지관리운영	197,950,000	183,473,190	14,476,810	92.7

※ 참고 : 실제 예산집행 내역

(단위:원)

내용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서울사랑티켓지원	2,200,000,000	2,509,729,000	-	114.1
지역사랑티켓지원	1,000,000,000	594,359,000	-	59.4
회원제 및 인터넷 홈페이지관리운영	197,950,000	183,473,190	-	92.69

- 지역사랑티켓지원사업

- 주관/주최 : 지역별 지역사랑티켓운영위원회 등
- 지원금 지원기준 : 지역의 상시 사랑티켓지원은 지방자치단체 확보예산의 2배까지, 일회적예술행사의 경우 확보예산의 1배까지 지원
- 지원현황

구 분	지역/예술제	지자체의 확보예산	지원가능규모	지원액
지역상설 사랑티켓	부산	30,000,000	60,000,000	60,000,000
	울산	30,000,000	60,000,000	60,000,000
	충북	30,000,000	60,000,000	30,000,000
	인천	30,000,000	60,000,000	60,000,000
	경남	30,000,000	60,000,000	30,000,000
	대구	20,000,000	40,000,000	40,000,000
	대전	10,000,000	20,000,000	20,000,000
	광주	20,000,000	40,000,000	40,000,000
	전북	10,000,000	20,000,000	10,000,000
	부천	5,000,000	10,000,000	10,000,000
	소계		215,000,000	430,000,000
국가예술제 사랑티켓	전국연극제	0	50,000,000	49,394,000
	전국무용제	0	50,000,000	45,440,000
	소계	0	100,000,000	94,834,000
지역예술제 사랑티켓	마산연극제	30,000,000	30,000,000	19,525,000
	거창연극제	50,000,000	50,000,000	50,000,000
	소계	80,000,000	80,000,000	69,525,000
	총계 (집행율)	295,000,000	610,000,000	594,359,000 (59.4%)

○ 기타 관객개발 활성화 사업

- 이웃초청 공연관람행사 개최

- 개요 : 상대적으로 관극 기회가 적은 계층을 관극행사에 초대하여 문화적인 배려와 잠재 관객을 개발함

· 개최내용

구분	일시	초청대상	관람작품	집행예산(원)
2004년 1회	2004.2.21-28	공부방 어린이 및 인솔교사 300명	놀이가 있는 마임(고재경 마임컴퍼니)등 5개 작품	4,660,000
2004년 2회	2004.3.23-31	공부방 어린이 및 인솔교사 200명, 문화사랑회원 100명	우먼인블랙 (공연기획 아트웨이) 등 7개 작품	4,440,000
2004년 3회	2004.4.11	외국인 노동자등 300명	점프(우리원 예술극장 기획공연)	6,300,000
2004년 4회	2004.5.23-26	노인복지시설이용 노인 300여명	창극 심청전(국립창극단)	4,500,000
2004년 5회 (송년행사)	2004.12.8	사랑티켓 정회원 500명, 소년소녀가장, 교통사고유자녀 등 300여명, 사랑티켓사업유관기관 200여명	뮤지컬 '미녀와 야수' (LG아트센터)	71,403,090
기타		소외층 배포 도서구입		6,972,700
계				98,275,790

- 이웃초청 기획(초청)행사 개최

- 개요 :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 기획을 통한 문화예술 향수층을 개발함

· 개최내용

행사명	사람과 사람들 - 고은의 시와 무대예술의 만남
일시	2004.3.24 19:30-21:30
장소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
주관	시가 있는 밤 준비위원회 (이윤택 국립극단예술감독, 김형수 문학 평론가, 주홍미 문화기획가, 강형철 문예진흥원 사무총장, 장용석 문예진흥원 지역문화관객개발팀원)
출연	고은 (시인) 이은미(가수) 오지혜(연극인) 문성근(영화인) 박호빈 (무용가) 어린이 2중창단 등
관객	약 520명
집행예산	16,000,000원

- 관객개발업무지원

- 개요 : 정보센터 운영, 인터넷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홍보
- 집행예산 : 183,473,190원

- 기타 : 사랑티켓 문화사랑KB카드 운영기금 적립

- 개요 : 국민카드사와의 계약에 의거 사랑티켓 문화사랑카드 사용금액의

0.2%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적립 (0.1%는 적립하고 0.1%는 회원활성화사업에 집행)

- 계약기간 : 2002.2.27-2005.2.26 (의사표시 없을 경우 1년씩 자동 연장)
  - ※ 2004년도 적립금 : 328,539,927원 (2003년도 사용금액 해당 분)
- 계약연장 갱신체결 : 2004.10.28-2007.10.27
  - ※ 주요내용 : 0.2%에서 0.1%로 기부금을 하향 조정, 사랑티켓 문화사랑카드 회원 온라인 예매 독점 조항 폐지 (사랑티켓 구입국민 모두 온라인 구매 가능)

### (3) 자체평가

#### ○ 서울지역사랑티켓지원

- 현재 서울시의 특수성에 비추어 서울지역사랑티켓 지원예산 전액이 문예진흥기금에서 집행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서울시의 자체예산확보가 이루어져 서울지역 사랑티켓 지원예산의 증액이 필요함.
- 이는 예산확보 차원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중앙-지역 기금 간 협력지원 방식으로의 정책변화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기도 함. (지역사랑티켓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를 문예진흥기금 사랑티켓 지원예산의 지원 조건으로 하고 있음)
- 서울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공연예술 장르에 따른 불균형 현상이 나타남. 연극 외의 장르는 사랑티켓 참가실적과 사랑티켓 지원 회수비율 모두 크게 낮음. 연극 외 장르의 경우 비중이 매우 낮음. 홍보 및 관심 유도를 통해 활발한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함.

※ 참고 : 공연예술장르별 사랑티켓 참여비중

분야	단체수	작품수	지원금총액	평균지원액	분야별비중 (참가작품기준)	분야별비중 (지원액기준)
국악	1	4	1,175,000	293,750	0.8%	0.05%
무용	31	66	6,665,000	100,985	9.5%	0.31%
음악	15	40	26,695,000	667,375	5.8%	1.22%
연극	237	582	2,147,080,000	3,689,141	84.1%	98.42%
계	284	692	2,181,615,000	3,152,623	100.0%	100.00%

※ 2004년 11월15일까지 회수된 사랑티켓의 현황임.

#### ○ 지역사랑티켓 지원

- 현재 12개 시도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사랑티켓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사랑티켓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소극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적지 않음. 지역문화의 활성화 및 지역 문화예술 향수층 개발을 위해 지역 사랑티켓 제도의 활성화 필요.

- 지역사랑티켓 활성화를 위해 사랑티켓 표준 운영시스템을 마련, 적극적인 홍보 필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2005년도 사업예산 편성시기인 2004년도 하반기에 적극적인 홍보 추진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예산 편성액이 부족하여 대규모 예산불용 발생,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를 유도하고 기금지원의 경직적인 연동(매칭)비율을 유지하기 보다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
- 회원제 및 이웃초청관극행사 추진
  - 사랑티켓문화사랑KB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 회원등록을 마친 회원(정회원)과 홈페이지에 회원등록만 마친 준회원으로 구분됨. 사랑티켓 사용자 전체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회원제로 운영을 확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소외층 이웃 및 회원 초청 관극행사 :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사회복지단체와 연계하여 초청행사의 연속성,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4) 향후 개선과제 및 방향

- 과제1 : 회원제운영 활성화
  - 1.1 회원제로 전환하고 사랑티켓 구매 자격을 회원으로 제한함
  - 1.2 회원가입자격 : 취학연령(만6세 이상) 전 국민
  - 1.3 가입절차
    - 사랑티켓문화사랑KB카드회원 : 사랑티켓 회원으로 자동 가입
    - 일반 : 성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 (만18세 이하)
  - 1.4 가입장소 : 홈페이지 온라인 가입 / 관객지원센터 현장 가입
  - 1.5 회원관리 : 회원ID와 비밀번호 부여, 회원카드 부여
  - 1.6 회원혜택
    - 사랑티켓을 통한 공연 관람 시 가격보조 혜택
    - 공연예술정보, 교육, 강좌 등 부대 서비스
    - 관객지원센터 사용
- 과제2 : 가격보조지원방식의 개선
  - 2.1 사랑티켓 지원대상 : 가입회원
  - 2.2 지원방식
    - 사랑티켓 통합정보시스템(인터넷)에서 참가작품 예매 또는 관객지원센터에서의 현장 구매 때 가격 할인 지원
    - 단체관람의 경우 단체관람지원 승인 절차를 밟아 단체할인 실시
  - 2.3 가격보조 수준
    - 개별관람 : 각 시도별 상황에 맞게 결정
    - 개별관람 지원한도 : 각 시도별 상황에 맞게 결정
    - 단체관람 : 각 시도별 상황에 맞게 결정
  - 2.4 단체관람 지원활성화

- . 자격 : 미성년 이하 (미취학아동, 초, 중, 고교 학생 등)
  - . 단체관람 신청자 : 교사(초중고교 학교), 사회복지사(사회복지시설), 공무원 (지역청소년 등) 교사(유치원 등 아동보육기관)
  - . 단체관람에 대해서는 관람작품, 관람단체 등을 사랑티켓 주관처에 신청하고 적격 여부를 심의, 지원
- 과제3 : 가격보조지원(사랑티켓) 외 관객지원 프로그램 추진 강화
- 3.1 저소득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 . 복권기금지원 「신나는예술여행프로그램」 또는 아름다운재단 「문화(객석)기부」 프로그램 연계 모색
    - . 공연예술단체와 협력한 공동 프로그램 실시 (공연초대 등)
  - 3.2 공연예술의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
    - . 회원을 위한 뉴스레터 (온라인 / 오프라인-사랑티켓신문) 발간
    - . 공연예술 콘텐츠 보급
- 과제4 : 관객개발 여건 조성
- 4.1 회원제 운영 및 관람료 사후지원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관객지원센터와 통합전산망을 구축
  - 4.2 통합전산망의 기능 : 회원관리, 회원의 공연예매, 공연의 공연 현대 등 가격마케팅 지원, 참가단체의 정보, 행정처리 일관 연계 지원
  - 4.3 사랑티켓 참가작품에 한해 저렴한 비용으로 티켓 예/발매 업무를 대행
  - 4.4 관객지원센터 건립
  - 4.5 사회적 관심과 지원 유도 : 관객지원사업 성과 및 경과를 담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회원에게 보고 및 의견수렴
  - 4.6 지방사랑티켓 지원 확대
    - . 연동지원비율 (매칭비율)을 높여 지원예산을 확대 : 지방사랑티켓 책정예산과 자치단체 자체 확보예산을 감안, 매칭비율 조절
    - . 서울의 개선 모델을 보급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인프라 자원을 확대해 나감. (예: 통합발매시스템)
    - . 사랑티켓 미시행 지역의 참여 유도 :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시행 첫해엔 시범 실시지역을 선정 문예진흥기금으로 사업시행을 지원하고 다음해부터 자체예산확보 유도

## 찾아가는 예술 지원

### (1) 사업개요

- 기존의 정형화된 예술 공간이나 수도권에서 벗어나 별이는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예술접촉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문화적 소외지역 및 계층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 (2) 주요추진실적

(단위 : 천원)

분야	단체	사업명	결정액	집행액	비고
문학	민작목포지부	찾아가는 청소년 문학워크숍	15,000	15,000	
	(사)시사랑문화인협의회	제3회 도서순회 시 낭송회	15,000	15,000	
미술	(사)한국건축가협회	2004 우수 건축작품지방순회전	50,000	50,000	
무용	(사)조승미발레단	동화발레 "신데렐라"	30,000	0	(포기)
	공연기획 MCT 서울발레시어터	2004무용축제춤의대중화를위하여 재미있는 발레	70,000 30,000	70,000 30,000	
음악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04 지역순회음악회	50,000	50,000	
	서울목관5중주단	순회해설음악회	40,000	40,000	
	서울모테트합창단	전남, 강원지역 순회연주회	39,000	39,000	추가
	뉴아시아 현악사중주단	목요병원콘서트 투어 2004	50,000	50,000	
	한울림 합창단	다시부르는 겨레의 노래	50,000	50,000	
전통	발탈전통극보존회	"바우덕이" 지역순회공연	70,000	70,000	
	아나야예술단	"붉은 점 아리따와 신의 탈"	60,000	60,000	
	(사) 문화마을 들소리	찾아가는 장날	66,000	66,000	추가
	여성국악실내악단 다스름	다스름과 함께하는 가족사랑음악회	50,000	50,000	
문화 일반	(사)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문학의 순회대사	30,000	30,000	
	(사)철도/지하철예술진흥연구원	레일아트 문화마당	40,000	40,000	
연극	춘천무지개인형극단	찾아가는 인형극장	35,000	35,000	추가
	민족예술단 우금치	찾아가는 예술지원	54,000	54,000	추가
	극단 아리랑	"홍도야 우지마라"	70,000	70,000	추가
	극단 연우무대	가족뮤지컬 사랑은아침햇살"	57,000	50,000	추가
	극단 민들레	"똥벼락" 순회공연	74,000	74,000	추가
	극단 수레무대	오즈의 마법사	60,000	60,000	추가
	극단 실험극장	"검정고무신" 순회공연	76,000	76,000	추가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찾아가는 우수마당극큰잔치	80,000	80,000	
	교육극단 이야기	개골개골 청개구리 순회공연	20,000	20,000	
계			1,281,000	1,244,000	

※ 책정예산액 : 1,283,000,000원 / 26개 선정사업 중 수행 25개, 포기 1개)

※ 참고 : 전체사업예산 중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 정기 지원심의에서 확정된 사업의 지

원예산 (1,204,000,000원) 외 잔여 예산의 집행을 위해 문화소외지역의 행사유치 신청을 받아 (43개 단체에 대해 99건의 신청접수) 심의한 결과, 9개 단체로 하여금 13개 지역을 추가로 찾아가도록 지원함.

### (3) 자체평가

- 기획, 홍보의 강화 필요 : 찾아가는 예술지원사업의 중요 목적은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의 문화향수 기회를 제고하는데 있음. 따라서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의 문화적 수요와 취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함. 또한, 찾아가는 현지의 사전 홍보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문화소외 지역 및 계층의 참여를 유도해야 함. 그러나 자체평가 및 평가위원 평가 내용을 종합하면 사업의 취지와 내용은 좋았으나 철저한 사전기획 및 홍보에 입각하여 현지에 밀착할 수 있는 사전 홍보와 마케팅의 강화가 필요.
- 따라서 향후 찾아가는 예술지원 사업과 같은 향수자 중심, 지역 중심 문화 예술사업의 경우는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홍보, 기획,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하며 2004년 상반기에 실시한 추가심의와 같이, 찾아가는 예술을 원하는 수요 지역으로부터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전면 시행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4) 평가위원 평가

#### <문학>

-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의 경우 대부분 지방, 오지에서 행사가 열려 현장평가 참여가 어려운데다 잦은 일정 변경으로 일정 조정이 곤란했다. 이에 수도권 거주 평가위원 외에도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 모니터링과 문예진흥원 직원의 출장 등을 통해 현장평가를 보완할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

#### <김성수>

-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방문하여 그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문학 행사를 한다는 의도와 목적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사업의 내용과 방법면에서 참신성과 성실성이 좀 더 요구된다. 주최측의 일방적인 행사가 아니라 현지인들과의 협의에 의해서 주최측과 현지인들이 상호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이동재>

#### <미술>

- 이 부분은 예술가 복지 차원에서 각 지역별 예술가, 문화행동가들의 창작 활동 활성화 겸 생활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본다. 예술체험지원,

문화복지사업 등과 함께 기획자나 행정가, 조직가 활동 자체에 대한 지원 이라기보다는 이들을 중계로 한 실제 개별 소외된 예술가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지원수혜가 돌려지는 차원의 것으로 전환되어야한다. <강성원>

#### <음악>

- 문화예술향수기회를 목적으로 한 공연으로는 뉴아시아 현악사중주단의 목요병원순회콘서트가 있었다. 특히 병원 콘서트 투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뉴아시아 현악사중주단의 공연은 음악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기적절하면서도 효과적인 공연 형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획이었다. 또한 지명도 있는 연주자들이 연주를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또 음악과 사회의 장벽을 허무는 목적에 동참함으로써 음악계에 미치는 반향이 크리라 기대를 모았다. 프로그램은 비교적 일반 청중에게 친숙한 현악사중주곡으로 구성됐고 특히 로비 연주회를 마친 후 호스피스 병실을 찾아가 환자에게 직접 연주를 들려주는 등, 성의를 다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현악사중주의 편성이 그렇게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만 하지 않을까 싶다. 좀 더 대중과 친숙할 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지숙>

#### <무용>

- 춤 확산 측면에서 계속 권장되어야 할 사업이다. 다만 단체에 따라 지원액에 심한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들 사업과 결부하여 춤의 이해를 도울 부대 행사들이 따라 주어야 할 것이며 시민 관객들과 함께 하는 분위기가 더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춤과 일상의 측면을 연결하는 소재가 작품과 행사에서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김채현>

#### <연극>

- 평가한 사업들은 아동극, 정극, 악극, 마당극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로 대부분 소외지역민들의 '문화예술향수기회확대'에 기여했다. 특히 농어촌지역 중심으로 젓갈축제, 꽃감축제, 산나물축제, 왕새우축제 등 지역축제와 결합하여 공연문화향수 층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던 농어촌지역의 촌로들에게도 공연문화향수기회를 제공한 순회작품들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준비부족과 무성의로 빈축을 산 인형극이 있는가하면 대부분의 마당극에선 관객빈곤현상을 공통적으로 보여 주었다. <박계배>
- 우선 좋았던 것은 대중적 호응도가 높다는 것. 지방 관객의 문화적 욕구를

확인 할 수 있는 기회였음. 그러나 가능하다면 작품 선정과 사후관리에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예를 들어 지원액수가 가장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선정위원이나 제작팀들이 지방 관객을 우습게 보는 경향을 읽을 수 있음. 가령 선정된 대부분의 작품에서 예술성을 찾기가 매우 어려움. 대중성만이 아니라 예술성까지 겸비한 작품을 선정해서 지방에 보내주어야 미래의 연극이 발전하고 관객이 성숙할 수 있음. 두번째로 담당팀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연해 주어야하는데, 서울이 아닌 지방관객을 대상으로 삼다보니 지독한 불성실이 발견됨. <김명화>

- 문화예술로부터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는 공연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를 높이 살만하다. 공연 레퍼토리도 예술성과 함께 대중성을 적절히 겸비한 작품들로 선정되어 있다. 그러나 찾아가는 지역의 공연장이 본격적인 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아 과연 그런 곳에서 공연하기에 적합한 내용인지는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에 있어 그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작품의 재창조가 요망된다. 찾아가는 예술지원 사업은 공연 스케줄이 미리 정해지지 않아 평가하기가 매우 어려운 분야이다. 일일이 극단에 문의하지 않고도 월별 스케줄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김미도>
- 본인이 평가한 두 작품 모두 성공적이었다. 단 <검정 고무신> 같은 류의 작품은 '찾아가는 예술활동'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것이 앞으로의 심사에서 참고가 되어야 할 듯하다. 말하자면 대학로의 우수작이 '찾아가는' 공연으로서는 부적합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작품 자체만이 아니라 수용자와 작품의 조화가 작품선정에서 중시되어야 한다. <이영미>
- 금번 지원사업의 경우 대체로 문화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문화향수기회를 확장시킨다는 지원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전개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지원 작품의 성격이 다년간 인형극, 마당극, 악극 등의 제한된 형식과 내용 위주였던 관계로 작품성을 논하기 어려운 그저 쉽고 평이한 수준의 작품 일색이었던 점이 아쉽다. 지역민들의 향수 수준을 고려한다 해도 보다 다양하고 예술적 수준이 보완된 대중성과 작품성을 고루 갖춘 양질의 작품을 선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각 지역 공공기관 중심으로 공연공간이 확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좀 더 규모 있고 내실있는 작품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박준용>

#### <문화일반>

- 평가대상이었던 <레일아트문화마당>과 <문학의 순회대사>등은 불특정 다수의 관객과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내용이나 성격이 서로 크

게 달랐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관람객들이 여러 종류의 공연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는 점, 시인 동화작가들이 지역을 순회하며 어린이 및 지역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연과 낭독, 공연, 전시 등 갖가지 프로그램으로 책을 가까이 하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은 문화향수기회의 확대라는 사업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했다고 생각된다. 짜임새 있는 형식과 구성 등 주최 측의 기획력이 돋보였다. 두 사업 모두 우수한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박찬>

- 도서관과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예술활동지원” 사업은 참여자의 호응이 높았고, 일반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어서 수용자의 만족도가 컸다고 보여진다. 문화일반 부문 사업의 경우 저렴한 비용과 함께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중요할 것 같다. 비교적 만족도와 호응도가 높았다고 보여진다. <김영아>

### <예술정책>

- 찾아가는 예술활동은 그 영역 구분이 매우 애매한 경우가 많았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예술활동을 위한 지원인지 향수자를 위한 지원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며 공모 시와 다르게 완성도와 예술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찾아가는 예술활동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및 선정 그리고 평가를 위해서 심도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장르 간 프로그램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갑영>
-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 사업은 총 6개 세부분야(음악, 문학, 미술, 연극, 무용, 전통예술, 문화일반)로 나뉘어 시행된 바, 각 분야별 프로그램의 참신성이나 독창성과 사업목적 등은 나름대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특히 대부분의 사업들이 문화예술 향수기회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지방 등을 순회하며 진행되었으며, 지역주민들 중 특정 목표집단(청소년이나 아동, 노인 등)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공연 등이 호응을 받은 점 등은 무엇보다 당해 지원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충실히 지키고자 노력한 것으로 인정하고 싶다.
-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적할 점들이 눈에 띄었다. 프로그램의 참신성 및 독창성은 우수했으나 향수자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획이나 완성도는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나름대로 온라인, 오프라인 등을 통해 홍보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향수자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 여겨졌다. 해당분야 전문인사들의 참여도는 높은 편이었으나, 공연장소 및 시간의 잦은 교체, 공연장소의 특성이나

성격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거나 일반인들에게 사전고지 등이 부족하여 공연 시 예상치 못한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 해당 성과목표(찾아가는 예술지원을 통해 문화소외지역 및 지역민들의 향수기회 확대 및 이를 통한 역량제고의 기반마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역시 보다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여겨진다. '실질적인 성과', 즉 찾아가는 예술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발전기반 마련의 기초는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1회성 행사에 급급하며, 공연시연 자체를 성과로 오인하는 경향이 었보였다. <정동재>

문화예술 체험 지원

**(1) 사업개요**

- 아동·청소년의 직접적인 예술 체험과 참여를 통해 문화 감수성을 계발하고 미래의 예술 애호가를 육성함과 아울러 일반 국민의 문화예술 의식을 고양하고 생활화를 이루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문화 향수층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사업

**(2) 주요추진실적**

(단위 : 천원)

분야	지원결정건수	지원건수	예산액	집행액	비고
문학	30건	30건	205,400	205,400	
미술	10건	10건	53,000	53,000	
연극	26건	26건	257,000	252,000	사업축소 1건
무용	5건	5건	50,800	50,800	
음악	16건	16건	145,000	145,000	
문화일반	41건	40건	288,800	283,800	사업포기 1건
총계	128	127건	1,000,000	990,000	

**(3) 자체평가**

**<문학>**

- 민족문학 작가회의의 작가축제, 김유정문학촌의 김유정문학캠프 등이 우수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구로노동자문학회, 토지문화재단의 시민문학강좌 등 강좌 사업이 비교적 고른 성과를 거두었음
- 평가위원들과 담당 직원들의 현장평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원심의시 단체에 대한 실제적인 평가결과가 반영되어 의미있는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음

**<미술>**

- 노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년층 대상 문화예술 체험 기획프로그램의 적극 발굴과 함께 탈북자 및 이주노동자 등 특수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음악>**

- 미래의 문화예술향수세대인 아동, 청소년 대상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어짐으로서 잠재적인 관객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촉매제 역할이 필요함.

#### <무용>

- 2004년 총 5건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고, 일상 생활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무용예술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적절하게 구현한 사업으로 평가한다. 상반기 현장평가를 통해 살펴 본 마산청소년발레단의 “전국 청소년 춤 제전”은 순천 낙안읍성이라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에 야외무대를 마련, 경기, 전라, 경상 지역에서 온 미래의 춤 나무들이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여 춤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고 공연의 전 과정을 체험한 좋은 사업으로 평가되며, 공연기획 MCT의 “춤으로 클릭하는 동화”공연과 춘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된 유종선 발레의 “키드 호두까기 인형” 역시 기량 있는 무용수들이 공연장을 찾은 가족과 어린이들에게 춤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동시에 선물한 의미있는 사업이었다.

#### <연극>

- 아동·청소년들이 예술에 직접 참여하고, 또한 주로 농·어촌 및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업으로 잠재적인 관객층을 개발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단, 1회성이나, 형식에 그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현재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됨.

#### <문화일반>

- 본 사업의 사업당 지원액이 대체로 1,000만원 수준인데 비해 지자체 주관 또는 직접보조 축제의 예산이 수억원 대에 이르고 있으므로 지원효과가 의문시됨. 따라서 지역축제, 지역예술프로그램 등 지역행사 가운데 지자체 보조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 주관의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임

### (3) 평가위원 평가

#### <문학>

- 문화예술 체험지원은 평소 문화예술 활동에서 소외된 지역, 계층, 연령, 집단을 발굴해서 그들을 문화활동에 참여시키는 취지라서 그런지 기금 지원

의 의의가 가장 돋보이는 사업이다. 2004년 지원사업 각 단위에서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평소 문학을 접하기 힘든 공단지역 노동자와 아동문학, 지역 거주 일반인들에게 유명 시인, 소설가, 평론가, 아동문학가와 만나 대화하고 창작 활동에 직접 참여케 하는데 일정한 성과를 올렸다. 현장평가를 보면 1회성 행사나 외형적 규모만 중시하는 걸치레 행사가 거의 없이 소수나마 알차게 전국 각지의 다양한 계층이 어울릴 기회를 제공했다고 높이 평가된다. 다만, 행사를 주관하는 노동단체, 아동문학 단체, 지방단체 등이 행사 기획과 홍보, 진행에는 기대보다 미숙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기금을 지원할 때 기존 문화예술전문단체 및 지자체, 노조 등과의 연계를 통해 조직적 참여 및 홍보 노력을 기울이도록 방향을 지도했으면 어떨까 한다. <김성수>

- 대중적인 파급효과가 가장 큰 사업 항목이나 대부분 행사 관련자 및 문학단체 관계자들만의 참여에 그친 감이 있다. 일반인들의 관심과 참여는 여전히 미진한 편이다. 문학축제와 정기 강좌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문학축제는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아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행사에 적절히 지원된 느낌이다. <이동재>

## <미술>

- 2004년도 문화예술 체험 지원 사업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예술체험 지원 사업은 무엇보다도 사업 주체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말하자면 공신력 있는 단체인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인지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그리고 예술체험 대상을 어린이나 청소년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인을 포함할 수 있는 기획력이 요구된다. 또한 그 내용 역시 일시적으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형식에서 벗어나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그리고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같은 다변화에 대한 방안이 모색돼져야 할 것이다. <고충환>
- ‘어린이를 위한 교실 밖 건축문화 체험’은 건물(경제적 개념)만 있고 건축(사회적, 예술적 개념)은 없는 한국의 현실에서 미래의 건축 인구를 체험학습과 캠프를 통해 발굴한다는 의미가 있다. ‘청소년을 위한 도자체험 교실 및 도자 대중화를 위한 학술 세미나’는 상품화와 예술성, 즉 산업디자인과 순수 창작 사이에 다소 어정쩡하게 끼어있는 도예 분야의 활성화를 시도했다. ‘김종영 미술관 청소년 조형아카데미’는 전시장의 모태가 된 김종영과 문자를 소재로한 작품들을 전시한 자체 기획전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각색하였다. 3명의 에듀케이터가 고3 학생들 10명씩을 맡아서 교육하였는데, 문자를 소재로한 다소 고풍스런 작품들을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언어인 애니메이션의 어법으로 체험하게 한 방식이 독특하

## 다. <이선영>

- 지원대상이 주로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는데, '문화예술 체험지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원사업의 다각도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사업의 완성도와는 별도로 일회적인 사업의 성과는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개별사업의 성과나 추정을 극복할 수 있는 장기적인 단위의 사업지원 역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사업들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무난한 사업의 성과를 보였다고 생각되지만 좀더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안공간 풀 아카데미의 경우 사업의 완성도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호응도와 관심도의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평가된다.

## <민병직>

### <음악>

- 문화예술체험지원분야에서는 상반기에 두 개의 공연이 있었는데, 하나는 전문적인 어린이 음악회를 표방한 '꾸러기예술단'의 공연과, 또 하나는 지역의 성당에서 상설 예술무대를 꾸미고 있는 고한천주교회의 '작은 음악회'였다. 전자는 어린이를 주요 청중으로 설정해서 교육적인 공연 형식을 지향하는 전문 단체였고, 후자는 문화소외지역의 청중들을 대상으로 한 기획 무대였다. 특히 후자의 고한천주교회 '작은 음악회'의 경우는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작년 2003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시리즈 무대인데, 연간 12회의 공연에 비하면 지원액수는 상대적으로 턱없이 빈약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그에 비해 주최 측의 성의나 헌신적인 노력이 상당히 돋보였고, 공연의 질도 높았다고 생각한다. 청중의 많고 적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소중한 감동이 있는 무대였고, 앞으로도 지원이 계속된다면 의미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하지숙>

### <무용>

- 찾아가는 예술 활동과 유사하게 춤 확산 측면에서 계속 권장되어야 할 사업이다. 특히 지역에서 악조건을 무릅쓰고 행사를 주관하는 신청 단체들의 노고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관객의 호응도가 높았던 것으로 관측되고, 다만 춤을 폭넓게 응용하여 춤을 친근하게 느끼도록 하는 다양한 기획력이 요청된다. <김채현>

### <연극>

- 창단 43주년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인형극단이 산간의 어린이들을 위해 무

료방문공연 하는 <휴전선지역초등학교방문 순회공연>, 아이들이 직접 공연에 참여하여 단결력을 키우고 문제해결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배우는 <전국어린이연극경연대회>, 또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 교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2004 마임캠프>와 <인형극바로알기워크숍>, 이들 모두는 지원의 성과만족도가 매우 컸던 사업이었다. 공급자나 수용자 모두가 애정과 열정, 신뢰를 공유하며 모범적인 사업수행능력을 보여 주었다. <박계배>

- ‘문화예술체험 지원’과 ‘찾아가는 예술지원’이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다. 예를 들어 「인형극단 해바라기」의 <문화소외지역 어린이를 위한 인형극 순회>나 「놀이패 마루」의 <어린이 환경마당놀이 순회공연>은 ‘찾아가는 예술 지원’쪽이 더 합당하다고 본다. 이 분야는 확실히 연극행위를 체험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지원되기를 바란다. <김미도>
- 지원사업의 대부분은 차세대 문화예술의 주역이 될 청소년과 어린이를 중심으로 공연예술 활동에 보다 친근한 태도를 가지게 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지역도 서울을 비롯하여 문화소외지역에 이르기까지 적절하게 안배되었으며 형식적인 측면도 다양해졌다. 다만 지원대상 단체들의 주 예술체험 대상이 어린이와 청소년 층에 편중되어 있어, 향후 성인들의 공연예술 체험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공연예술계의 성인관객층 비율은 영화나 TV매체 수용자 층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은 해당 예술매체에 대한 체험 부족으로 인해 생긴 매체와의 거리감으로 말미암은 바가 크다. 직장인들이나 주부 등 성인층을 대상으로 한 공연예술체험 활동의 기획 및 지원이 아쉽다. <박준용>

### <문화일반>

- 올해 평가대상 사업들은 현재 대부분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시킬 계획으로 있는 사업들이었다. 그런데 이들 사업의 대부분은 일반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장이 되기보다는 펼쳐지는 행사를 단순히 보고 즐기는데 더 의미를 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사업들 모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주최 측에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애쓴 흔적도 보이고 사업 진행이나 프로그램 참여자들 모두 진지하게 행사에 임하고 있었지만 축제나 예술제라는 이름의 행사 대부분이 그렇듯 전시성에 치우치고 있다는 느낌도 없지 않았다. 일부 사업의 경우 주최 측의 과욕이 지나친 점도 없지 않았다. <박찬>
- “문화예술체험지원”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축제, 대안교육, 캠프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많았고 관람객이나 참가자가 직접

참여하여 체험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이 많았다. 문화를 단순히 보고 즐기는 형태에서 직접 참여하고 체험해보는 형태로의 전환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김영아>

#### <예술정책>

- 문화예술교육이 주 목표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체험 및 참여활동 지원은 참신한 기획을 한 경우가 대체로 많았다. 그러나 연극이 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장르 간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통문화 예술 부분의 참여 및 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궁극적으로 감성함양이 목적인만큼 감성개발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 등도 개발되어 선정 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정갑영>
- ‘예술체험, 참여활동 지원사업’은 총 5개 분야(문학, 연극, 무용, 음악, 문화일반)에 걸쳐 시행된바, 각 분야별 특정대상이나 공연목적에 걸맞는 기획의도와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며, 프로그램의 참신성도 나름대로 돋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기획된 공연들은 나름대로 대상 집단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연출이나 공연내용 및 구성방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쉬운 점은 이러한 연출 및 공연내용을 매끄럽게 수행하기 위한 무대장치 및 음향시설 등이 영세한 곳이 많아 공연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는 다소나마 부족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세부행사별 특화된 프로그램, 보다 많은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시도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홍보, 사후평가 및 자체 모니터링 등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도 향후 당해지원사업 분야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여겨진다. 영세한 공연단체들의 공연기기 및 시설설비의 문제가 단시간 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이 역시 참여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바, 이에 대한 문예진흥기금의 간접적인 지원방법 역시 중요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 향수자들의 예술체험 기회 확대라는 실질적인 해당사업 성과는 중간적인 수준(보통)이라 여겨지며, 이러한 성과측정을 위해 문예진흥기금의 지원방식 및 성과평가 방식의 보다 정교한 조작용이 요구된다. <정동재>

#### (4) 예술전용공간 지원

- 사업개요 : 활발한 작품 활동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무용공연 공간난을 해소하고, 발표공간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무용예술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대학로에 편중된 작품 발표 공간의 분산을 유도하여 대관단체와 공연장 운영주체 모두에게 직간접적인 혜택을 주고자 함.

- 주요 추진실적
  - 지원대상 : 창무 포스트극장(대표:김매자)
  - 지원액 : 60,000,000원
  - 운영실적 : 전체대관(198일) 중 무용공연 131일(66%) 대관
- 자체평가
  - 무용전문소극장 본래의 취지를 살려 사업성과가 우수하였음.
  - 무용전문지 “몸”에 매달 광고를 게재, 매달 공연일정을 명기하여 지속적인 홍보 효과를 얻고 있음. 특히, 지속적인 공연 유치로 무용전문극장에 대한 인지도와 지역민의 공연관람 빈도가 높아지고 있음. 지원금을 통한 인프라의 점진적 개선으로 공연 여건이 나아졌음.

## (5) 문화의 달 행사

- 사업 개요 : 10월 문화의 달에 문화의 날 기념식 및 문화축제 행사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문화예술 발전의 계기를 마련코자 지원하는 사업임
  - ※ 행사시행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26조(문화의 날 설정 등)
- 행사 컨셉
  - 지역에서 전국으로 :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2003년부터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의 달 행사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문화의 주체성을 드높임으로써 지역문화가 우리 문화의 뿌리이며 미래임을 널리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는다
  - 객체에서 주체로 : 일방적인 관 주도의 행사와 관람위주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무대와 객석, 예술가와 비예술가의 경계를 허물고 행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자신의 삶속에서 문화예술을 꽃피울 수 있게 하는 시민주체형 문화 프로그램의 정형을 창출한다.
  - 소통에서 나눔으로 : 문화예술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함으로써 열린 미래 사회를 위한 소통의 언어를 개발하고 나아가 물질적 부보다 더 중요한 문화적 정신과 콘텐츠를 나눔으로써 진정한 문화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기초를 세운다.
- 2005년도 문화의 날 행사 개요
  - 행사명 : 2004 문화의 달 큰잔치
  - 주제 : “예술 밖으로 일상 속으로”
  - 주최 : 2004문화의달행사추진위원회
  - 후원 : 문화관광부, 광주광역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구성 : “금남로 빛의 난장”(빛의마당, 빛의마루) / 문화의 날 수상식 /

## 국민참여 프로그램

### ○ 기념행사 : “금남로 빛의 난장”

#### ① 빛의 마당 - 낮프로그램

- 일시 : 2004년 10월 16일 (토) 13:00 ~ 18:00
- 장소 : 광주광역시 금남로 일대와 전남도청 앞
- 내용 : 시민공공미술, 아트난장, 생활예술시장, 더불어함께마당, 전통어울림 마당 등 시민참여프로그램
- 관객(참여자)수 ; 94,220명

#### ② 빛의 마루 - 밤프로그램

- 일시 : 2004년 10월 16일 (토) 18:00 ~ 21:00
- 장소 : 광주광역시 금남로 본무대
- 내용 : 식전행사(민요대합창, 시민난장 퍼레이드, 어울림 춤마당). 1부 행사 (퓨전국악-공명, 제천무-채향순가무단, 남도벚노래-윤진철과 광주국악중창단, 어제생긴예술1-재활용상상놀이단, 광주 축원시, 빛의 향연-발레 및 조명, 넥스트 공연). 2부 행사(어제생긴예술2-재활용상상놀이단, 수상식- 광주시 문화예술상, 문화관광부 지역문화발전공로상, 산도끼비-윤진철과 어린이 동요 중창단, 북춤과 가무극-채향순 중앙가무단, 스포츠 댄스-한국휠체어댄스 스포츠 연맹팀, 어울림합창, 불꽃쇼, 단는 영상)
- 관객수 : 8,000명

### ○ 문화의 날 수상식 : 훈포장수상식

- 일시 : 2004년 10월 20일( 토) 10:00~12:30
- 장소 : 서울 정동극장
- 참석 :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 시민대표, 문화예술계인사 등
- 내용 : 국립합창단 축하공연,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시상(8명),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시상(6명), 각종 문화훈장 서훈(34명), 장관 축하, 벽사춤 공연 등

### ○ 국민참여프로그램

- 문화관광부 산하단체 및 전국 16개 시도지자체 문화의 달 행사
- 전국 문화의 달 행사 현황 소개를 통한 국민 문화 향수 기회 정보 제공 및 참여 프로그램
- 190개 축제, 140개 공연, 87개 전시, 44개 경연, 기타 101개 행사. 총 562개 행사 개최

### ○ 기타 : 차기 행사 개최지 선정

- 유치 신청지 : 인천, 전주, 진해
- 차기 개최지 선정회의 개최

- . 일시 : '04.10.6(수) 13:30
- . 참석위원 : 안이영노, 김종휘, 송시경, 박영대(미참가 위원 위임장 제출)
- . 선정 결과 : 전라북도 전주시

○ 예산 집행실적

- 총 소요예산 : 501,000,000원
- . 문예진흥기금 : 320,000,000원
- . 국고보조금 : 118,000,000원
- . 광주시 보조금 : 63,000,000원

○ 자체평가

- 기념행사

- . 시민이 만들고, 참여하고, 향유하는 시민 주체형 행사가 되었음(기념행사에 10만 2천여명이 참여하여 지금까지 진행한 금남로 행사중 가장 호응이 큰 행사였음)
- . 광주지역 젊은 문화 기획가에 의한 행사 조성 및 추진으로 지역내 인적 네트워크 조성, 인적 인프라의 향상 및 이제까지 지역내에서 이루어진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기획을 체험하는 계기가 됨.
- . 추진위원간 역할 분담 불균형 및 모호, 유기적 조정 및 통합에 다소 문제점이 노정되었음.
- . 행사에 대한 홍보 부족, 밀도 있는 추진이 되지 못하여 실행단계에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게 된 점, 행사 현장준비에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으며, 야외 행사로서 우천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꺾하지 않은 점 등 일부 기획력 부족이 노정됨.

- 수상식

- . 우리나라 문화예술 유공자에 대한 시상 위주의 행사를 무난히 치름.
- . 광주에서 수상식을 치르지 않고 서울에서 치름에 따라, '03년 대구 개최부터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문화의 날 행사의 취지에 다소 반감되는 면이 있음.

- 국민참여 프로그램

- . 문화의 날 행사 개최지 이외에도, 전국에서 다양하게 열리고 있는 각종 문화 행사 및 기타 관련 정보를 국민이 종합적이면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홍보하는 면이 부족하였음.

- 종합(향후 행사시 반영할 사항)

- . 법정행사로써 문화의 달 정체성과 문화의 날 정체성에 걸맞는 아이템, 행사 내용을 사전에 충분한 장기간의 시간을 갖고 개발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음.
- . 행사추진위원간 뚜렷한 역할 분담과 아울러 종합적 조정을 통해 행사 추진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체제 및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

### (1) 사업개요

- 아동·청소년의 직접적인 예술 체험과 참여를 통해 문화 감수성을 계발하고 미래의 예술 애호가를 육성함과 아울러 일반 국민의 문화예술 의식을 고양하고 생활화를 이루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문화 향수층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사업

### (2) 주요추진실적

(단위 : 천원)

분야	지원결정건수	지원건수	예산액	집행액	비고
문학	4건	4건	28,000	28,000	
미술	8건	8건	41,800	41,800	
연극	9건	9건	69,000	69,000	
무용	2건	2건	22,000	22,000	
음악	11건	11건	88,000	85,000	사업축소 1건
전통	9건	9건	62,000	62,000	
문화일반	9건	9건	79,200	79,200	
총계	52		390,000	387,000	

### (3) 자체평가

#### <문학>

- 한국장애인문인협회의 '솟대문학'이 우리 원의 지속적인 지원하에 꾸준히 발간되고 있으며, 분산점자도서관의 한글점자의 날 문학행사가 내실있게 추진되어 좋은 평가를 받았음

#### <미술>

- 배정예산 자체가 너무 적어 지원유형의 기본목표를 달성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짐.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사업주체나 객체의 영세성을 감안할 때 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 예산 자체의 증액이 절실히 요구됨. 향후에는 문화향수 분야나 함께하는 문화복지지원사업의 경우 복권기금사업으로 수행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음악>

-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의 잠재된 예술적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타 장르와 비교해 볼때 비교적 소액을 지원하고 있는바, 동 사업은 대부분 무료공연임을 감안할 때 예산증액이 요구됨.
- 단체로부터 신청된 금액을 조정, 감액하여 지원 결정되다 보니 대부분의 단체들이 당초 계획보다 예산금액이 축소되어 공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개 단체 사업(한국장애인소리예술단)은 사업규모 축소로 결정된 지원금액을 감액 지원하였음. (13,000,000원 --> 10,000,000원 지급)

#### <무용>

- 장애인이나 문화적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주변 이웃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함께하는 목적의 사업이나, 매년 언급되는 것처럼 찾아가는 예술활동지원, 문화예술체험지원과 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사업 간의 경계가 상당히 모호하다. 상반기 사업이었던 조승미발레단의 “소중한 이웃과 함께 하는 조승미 발레 앙상블”사업의 경우, 포천과 서울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 평택시 등 3곳을 순회하면서 장애인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발레 레파토리 공연을 보여 주는 사업이었는데, 찾아가는 예술활동지원사업과 사업간 차별성이 적었다고 평가되며, (사)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장애인소재안무공연”처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좀 더 전문화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2005년 지원프로그램 중 ‘장애인접근성확대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이 신설되어 시기적절하였다고 평가한다.

#### <연극>

- 함께하는 문화복지사업은 문화예술로부터 소외된 계층에 대한 문화 향수권 확대라는 지원사업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주로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청소년보호시설 등 주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고 있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나,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예산의 규모가 크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 <전통>

-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 및 지역을 직접 방문 공연함으로써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

#### <문화일반>

- 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찾아가거나 초청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함으로써 문화예술을 통한 문화복지를 실현하는데 기여하였

음. 장애인을 초대하는 사업은 장애인을 공연장소(행사장)로 편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실행대책이 필요하였음

### (3) 평가위원 평가

#### <문학>

- 적은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행사가 잘 치루어졌다. 행사에 참여한 장애자 및 그 가족들의 반응도 호의적이었으나 지원 사업 대상이 적었다.

#### <이동재>

#### <미술>

- 찾아가는 예술지원과 체험지원, 문화복지지원 등의 지원 일종의 기초예술가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술창조, 향수활동을 보장하는 보험과 같은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소모성, 일회용 지원이 아닌 기간 서비스제도 혹은 문화활동 기회 창출을 통해 일정한 생활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서비스 차원의 실업자 구제제도 같은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강성원>

- 2004년도 함께 하는 문화복지 지원 사업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허나 지원 대상에 국내 이주 노동자들의 삶을 조망한 프로젝트를 포함시킨 것은 현실을 반영한 바람직한 경우로 보인다. 그리고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편법적으로 운영된 일부의 경우는 시정돼야 할 것이다. <고충환>

- 전체적으로 사업의 지향성 및 위상이 높은 사업들이었다고 평가되며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세 사업 중 믹스라이스의 활동이 두드러지며 주목할 만한 활동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 비디오 다이어리 순회 프로그램 등이 인상적이었다. 아울러 믹스라이스의 활동이 사회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보여주었다는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할만하다고 생각됨. 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의 경우 지원유형의 특성상 좀더 규모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민병직>

#### <음악>

- 부암아트홀이 주최한 '소리로 보는 희망의 콘서트'를 관람했다. 간혹 문화 소외계층을 두 번 죽이는 식의 이벤트성 공연을 보면서 씁쓸했던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돕기를 위한 음악회라든지, 불우한 이웃을 위한

음악회 등 타이틀만 그럴싸하고 정작 대상은 철저히 외면되는 공연들 말이다. 하지만 이번 부암아트홀의 '희망콘서트'는 명분만이 아닌, 철저히 청중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평소 공연을 관람할 수 없었던 중증 장애인들에게 소중한 체험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문화복지차원에서 이렇게 작은 규모의 소극장을 중심으로 이러한 무대가 상설화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관이 화려하거나 출연진이 화려하지 않아도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무대 말이다. <하지숙>

#### <무용>

- 장애인 및 문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복지 지원 사업은 향수권의 신장 면에서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기획력도 중요해지는데, 2004년도 지원 사업들은 특히 기획력 면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었다. 다양한 작품을 묶어 대상 관객층의 욕구에 부응하는 정신이 프로그램에서 살려져야 했으나 미흡하였던 때문에, 관객층의 욕구를 읽어내는 안목이 더 요청되었다. <김채현>

#### <연극>

- 청소년 보호시설 순회공연인 <첫사랑-2004>는 수용자들(청소년 재소자)에 맞게 대본을 수정하고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무대의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등 많은 부분 공을 들인 사업이었다. 선생님들(교도관) 눈치 보느라 숨도 크게 못 쉬던 학생들(재소자)은 공연에 빠져들면서 일반 관객들과 다름없이 즐기며 반응했고 만족해했다. 이 특수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소통시켜 주는 연극의 기능은 제 몫을 했다. 그러나 작품 선택에 있어서 보다 직접적으로 그들의 문제에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 선정이 요구된다. <박계배>
- 극단 한강의 작업, 한 편만 평가하였음.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남루했음.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은 집요하지 않았고, 예술적 성과는 볼품없었으며, 관객 역시 겨우 동원한 삼사십명 남짓의 공연을 보았음. 연극으로 할 수 있는 문화복지 지원이 무엇일지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듯. <김명화>
- 문화복지 영역은 대개 신체장애, 정신지체, 문제청소년, 고령층 등 특이성을 지닌 관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연작품의 형식이나 내용은 이러한 관객대상의 특이성을 감안한 보다 전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원사업들의 대부분은 기존의 일반적인 작품을 일률적으로 공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문화복지 영역의 경우 지원단체 선정시 일반 공연단체보다는 장애인을 비롯한 특수 관객 대상의 전문공연단체 지원을 우선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지원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분야가 그러하겠지만 특히 문화복지 영역의 지원은 좀 더 강화 및 확장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지원비율(건수, 액수)은 누구보다 문화향수가 필요한 복지분야 대상층을 아우르기에 너무나 부족한 규모이다. <박준용>

#### <문화일반>

- 현실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소외된 계층이 바로 장애인과 노인, 불우 청소년 등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문화복지 사업들은 대부분이 일회성 이벤트성 공연에 치우치고 있긴 하지만 그들에게는 소중한 문화체험의 장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들 얼마나 지속적이나 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도 문제다. 사업 주체들은 일종의 소명의식으로 임하는 단체들도 있다. 이들에게는 보다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장애인인권영화제> 등 같은 사업은 사업 규모나 일반인들의 호응이 비록 적었지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접근한 기획이 돋보였다. <박찬>
- 장애인, 혼혈가정, 여성 등의 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함께하는 문화복지지원”은 관람객이나 참가자가 많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었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경우 그들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할 듯하다. 소외계층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기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상업적인 목적만을 취하려는 단체에게는 지원금을 주어서는 안된다. <김영아>

#### <예술정책>

- 기본적으로 예술체험, 참여활동과 구분이 어려운 점이 있다. 원로문예인 복지사업 등은 기준을 확실히 하여 확대지원 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문화활동지원만이 아니라 노인이나 외국인(노동자), 수형인 등으로 다원화 하여 문화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갑영>

#### (4) 기타 : 원로문예인 복지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큰 원로문화예술인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통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문화예술인으로서 30년 이상 해당 분야 문화예술계에서 활

동하신 분

· 해당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고 생계가 곤란하신 분

○ 주요 추진실적

- 지원결정인원 : 강태열 등 60명

- 연도중반 지원중단 : 2명(황해창, 박기석 : 작고 )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720만원(월 60만원)

○ 단위사업별 자체평가

- 원로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사업으로 지원 수혜자들의 기대 및 호응도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보다 많은 원로예술인들의 지원을 위해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요구됨

## 지역문화활성화 지원

### (1) 사업개요

- 중앙 문예진흥기금을 15개 광역시도 혹은 광역시도 문화(예술)재단에 직접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협의회 구성 운영을 통한 지역간 연계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정책을 보완함으로써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역량을 신장하는 사업

### (2) 주요추진실적

- 지역문예진흥사업 지원 (예산 : 3,810,000,000원)

#### - 배분기준

평가기준		배점비율 (%)				
		2000	2001	2002	2003	2004
문예진흥기금모금실적		30	30	30	30	30
문화예술분야투자예산	투자예산증가율	30				
	1인당 투자예산증가율		30			
	1인당 투자예산액			20	20	20
문화예술지원실적	지원건수	20	20			
	지원의 효율성			20	20	20
전년도 문예진흥사업평가 결과				20	20	20
인구수		20	20	10	10	10
계		100	100	100	100	100

#### - 2004년도 지원금 교부현황 (2004.12.31 현재)

시도	결정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지원액	집행율 (%)
부산	270,000	20,000	110,000	120,000	20,000	270,000	100.0
대구	240,000	10,000	60,000	80,000	90,000	240,000	100.0
인천	270,000	70,000	100,000	100,000	0	270,000	100.0
광주	240,000	0	0	180,000	60,000	240,000	100.0
대전	240,000	80,000	80,000	60,000	20,000	240,000	100.0
울산	240,000	30,000	70,000	70,000	70,000	240,000	100.0
경기	300,000	75,000	75,000	75,000	75,000	300,000	100.0
강원	240,000	100,000	100,000	40,000	0	240,000	100.0
충북	240,000	60,000	60,000	60,000	60,000	240,000	100.0
충남	240,000	0	96,000	96,000	48,000	240,000	100.0
전북	240,000	0	0	140,000	100,000	240,000	100.0
전남	240,000	0	0	126,000	114,000	240,000	100.0
경북	240,000	0	120,000	120,000	0	240,000	100.0
경남	270,000	70,000	120,000	60,000	20,000	270,000	100.0
제주	300,000	70,000	100,000	70,000	60,000	300,000	100.0
계	3,810,000	585,000	1,091,000	1,397,000	737,000	3,810,000	100.0

※ 위 평가 기준에 따라 3억원 지원 (2개), 2억7천만원 지원 (3개), 2억4천

만원 (10개) 등 지역의 적극적인 문화예술투자 유도를 위한 차등 지원 실시

○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협의체 구성

- 2004년도 전국문예진흥기금운영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일시/장소 : 2004.5.6-7 서울 타워호텔

. 참가시도 : 14개 시도 각 1명 이상 (전라북도 불참)

. 논의내용 : 협의체 구성 합의. 명칭 및 성격을 '협의회'로 설치하고 정보교류 및 협력 사업 추진 지향. 3대 지역권역 및 문화재단 등 4개 권역의 간사 선임

(3) 자체평가

○ 지역문예진흥사업 지원

- 지역에서 순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충분한 예산배정과 투자가 미흡한 상황에서 문예진흥기금의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은 지역 문화예술의 명맥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 재원으로 기능을 다하고 있음.

- 그러나, 지역의 문예진흥기금사업(문화예술재단 사업) 총 예산규모가, '03 - '04 건당 지원규모가 평균 239만원에 이를 정도로, 극히 적은 실정인 바, 우리 원 지원 예산규모의 대폭적 확충이 필요한 실정임.

※ 참고 : '03 - '04 15개 시도 지역문예진흥기금(문화예술재단)사업 지원현황

시도명	03 지원 신청건수 (건)	03 지원 건수 (건)	03 지원액 (백만원)	03 건당 지원액 (백만원)	04 지원 신청건수 (건)	04 지원 결정 건수(건)	04 지원 예정액 (백만원)	04 건당 지원예정액 (백만원)	03-'04 평균 건당 지원액 (백만원)
부산	429	284	758	2.67	482	315	855	2.71	2.69
대구	268	190	431	2.27	250	182	415	2.28	2.27
인천	396	246	1,187	4.83	366	205	1,029	5.02	4.92
광주	323	216	385	1.78	375	220	378	1.72	1.75
대전	310	238	478	2.01	309	249	512	2.06	2.03
울산	146	99	229	2.31	143	105	240	2.29	2.30
경기	1,091	563	1,870	3.32	1,244	540	1,889	3.50	3.41
강원	837	455	804	1.77	821	536	975	1.82	1.79
충북	369	261	568	2.18	362	246	534	2.17	2.17
충남	346	255	642	2.52	380	268	643	2.40	2.46
전북	314	248	610	2.46	375	298	658	2.21	2.33
전남	636	410	717	1.75	589	475	750	1.58	1.66
경북	390	295	419	1.42	394	291	415	1.43	1.42
경남	569	379	744	1.96	531	401	783	1.95	1.96
제주	174	114	430	3.77	230	134	477	3.56	3.66
계	6,598	4,253	10,269 <sup>1)</sup>	2.41	6,851	4,465	10,551 <sup>2)</sup>	2.36	2.39

※ 15개시도 총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비 구성 현황

- 2003년도 : 총 10,269백만원( 위 <sup>1)</sup> 관련) /. 문예진흥기금 보조 : 3,810백만원, 지역 자체예산 : 6,459백만원
- 2004년도 : 총 10,551백만원( 위 <sup>2)</sup> 관련) /. 문예진흥기금 : 보조 3,810백만원, 지역 자체예산 : 6,741백만원

○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협의회 구성

-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협의회 구성에 모든 시·도가 동의하고 있음. 협력사업, 정보교류 등 구체적인 교류사업의 발굴과 추진이 필요하나 아직 미흡한 실정임.

## 통일민족 문화교류 지원

### (1) 사업개요

- 남북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한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민족문화예술교류 활동 및 재외동포 문화예술 확립 및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함

### (2) 공모사업 주요추진실적

(단위 : 천원)

분야	지원결정건수	지원건수	예산액	집행액	비고
문학	8건	8건	63,000	63,000	
미술	3건	3건	33,000	33,000	
연극	2건	2건	31,000	31,000	
무용	1건	1건	10,000	10,000	
음악	1건	1건	24,000	24,000	
전통	7건	7건	64,000	64,000	
문화일반	3건	3건	25,000	25,000	
총계	25건	25건	250,000	250,000	

### (3) 자체평가

- 재외동포 대상 지원 사업은 당초 계획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하여 재외동포들에게 우리 문화를 보급하고 민족정체성을 심어주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일부 사업은 형식적인 왕래로 그친 경우도 있어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되어야 함.
- 남북 교류 사업은 북한과의 관계 등 정치, 사회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관계로 행사일정, 장소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실현가능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지원하여야 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인 대북 사업들을 지원할 필요 있음. 또한 현장평가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성과보고서의 성실한 제출이 요구됨. 탈북자관련 행사들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국내 정착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문화예술을 통한 정서순화 및 정착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함.
- 문학 분야의 경우 장기간의 연구를 요구하는 발간 사업의 특성상 교부 신청과 발간물 제출 및 성과보고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음. 또한 성과물의 다양한 활용연구가 필요함.

### (4) 평가위원 평가

#### <문학>

- 남북작가회의 무산(또는 무기 연기) 같은 경우 통일민족 문화교류에 끼칠

후유증은 없었는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앞으로의 대처방안 마련 등 심기일전할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홍명희문학제의 경우에는 북한 소설가 홍석중의 <황진이>에 대한 관련 학자, 출판인들의 평가도 좋았지만, 정작 창작과 비평사의 만해문학상 금강산 수여식에는 문예진흥원이 참가하지 못해 안타까웠다. <김성수>

-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이나 적합한 사업이 별로 없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사업 효과를 예측하기 곤란한 점도 문제였다. 북한측의 참여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아쉬웠다. 직접적인 교류가 아니더라도 상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출판물에 대한 발간 지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북한학 총서발간 계획 및 주도, 위탁) <이동재>

### <미술>

- 이 부분의 지원은 너무 미약하다고 보인다. 아니면 공모지원 형식을 통해 서라도 지원의 당위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강성원>

### <음악>

- 통일민족 문화교류 분야는 자칫 지원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에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서류상의 행사 계획과 들어난 실제 행사의 의미가 틀리기 쉽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지원 심의 시 사업 계획의 이행 가능성과 예측 효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완규>

### <문화일반>

- 평가대상은 <동북아시아한민족문화의 정체성과 문화적 동질성 회복>과 <나라안팎 한국인기록문화상> 등으로 전자는 세미나, 후자는 발굴사업이었다. 진행 과정에서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나라 안팎~>의 경우는 해방공간, 독재시대 하에서 일어났던 갖가지 사건은 물론 북한내 기록을 발굴하거나 중국, 러시아 등지에 거주하는 동포, 일제시대 유민이나 해외거주 독립투사들의 자손, 그리고 남과 북의 항일독립운동사에서 함께 지워진 독립투사들의 자손들이 참여, 역사기록의 자산을 찾아내는 사업으로 우리 역사를 새로 쓰는데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된다. <박찬>
- “통일민족문화교류지원”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의 우수성이 돋보였다. 특히 기록문학상은 재외 한인과 입양아, 전쟁 참가 군인 등의 이야기를 출판과 함께 기록으로 보존하여 시상하는 등 기록과 재외 동포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김영아>

##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 (1) 사업개요

- 우리 문화예술의 해외 소개 및 해외 문화예술의 국내 소개 등을 위한 전시·공연교류·세미나개최 등 문화예술 국제교류를 지원

### (2) 공모사업 주요추진실적

(단위 : 천원)

분야	지원결정건수	지원건수	예산액	집행액	비고
문학	5건	5건	47,000	47,000	
미술	34건	31건	342,000	320,000	
연극	19건	18건	215,000	200,000	
무용	19건	19건	243,000	243,000	
음악	20건	18건	246,000	223,000	
전통	20건	17건	203,000	179,000	
문화일반	17건	17건	180,000	180,000	
총계	134건	125건	1,476,000	1,392,000	

※ 사업 포기단체 현황 : 총 9개 단체 84,000,000원

(단위 : 천원)

분야	단체명	대표자	사업명	장소	지원 예정액	사유
미술	김경아	김경아	한국현대미술의 얼굴	중국미술관	10,000	사업포기
미술	김애령	김애령	아시아 현대미술전 한국 파트	이태리브롤나현대미술관	7,000	국고지원
미술	박이소	박이소	예술살렘센터 작가채류 및 전시	이스라엘 JCVA	5,000	작가사망
무용	포즈댄스시어터	김준규	6th international Dance Meeting POZ	문예회관	13,000	사업포기
무용	라스칼르남무용단	남영호	EXTRA MUROS (벽을 넘어서)	서울 문예회관	10,000	사업포기
음악	두물워크샵	박완수	두물 국제 실내음악제	남양주시	15,000	사업포기
전통	돌나라문화예술단	이경란	2차 미주 순회공연	미국 LA등	8,000	사업포기
전통	중요무형문화재73호 가산오광대보존회	한우성	대만 미아오리국제가면페스티발참가	대만	8,000	사업포기
전통	임실필봉농악보존회	양진성	제3회 일본도쿠시마현 아와오도리축제	일본 도쿠시마현	8,000	사업포기

### (3) 단위사업별 자체평가

- 2004년도 국제교류지원사업은 전년도 98건 11억 4천만원에 비해 30%정도 증대되었으나 여전히 전체 지원신청 수요에 비해 낮은 지원액으로 예술단체들의 문화예술국제교류사업에 충분하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국제교류분야 지원 예산의 대폭 증대가 요망됨.
- 총 지원대상 중 지원을 포기한 단체가 8개 단체에 달해 지원 성과가 목표치에 달하지 못하였음. 이는 대상자의 사망(박이소)이나 국고지원(김애령) 등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대부분 해당 단체의 사업수행 능력 미비나 예산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지원심의시 단체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점검이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적정액이 지원되어야 함.
- 지원대상단체의 사업 중 국내에서 초청하는 사업이나 외국에서 초청받은 사업 모두 대부분의 경비를 지원대상단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국제문화교류에서 상대국과의 대등한 교류를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전략적 문화교류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지원사업의 대상 국가가 미국이나 일본, 유럽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교류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바, 향후 교류 대상 지역을 중남미, 중동, 동남아시아 등으로 확대하여 국익 차원의 문화교류 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임.

### (4) 평가위원 평가

#### <문학>

- <아시아 청년작가 워크숍 - '아시아 작가 연대와 상상력의 세계화'> 등의 행사는 해외교류 지원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예라고 평가된다. 앞으로 문학(본격문학)이 제3세계 국가와 교류하는 데 지원을 늘렸으면 한다. 다만 해외교류 행사의 경우 사전 기획과 준비상황부터 체크하고 현장 지원과 사후 평가 등을 철저히 관리하되 지원 규모는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된다. <김성수>
- 여러 나라의 작가들과 잠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교류의 토대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절실하다. 작가들의 해외연수 및 교육을 보다 다양한 나라로 확대하고 그 수혜가 좀 더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재>

## <미술>

- 현재 가장 맹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분야로 보인다. 전혀 검증할 구체적 사안도 없이 지명도나 주제 혹은 의사표현만을 가지고도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만큼 소위 일종의 선심성 혹은 눈감아주기 지원이 되가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이 부문도 보다 구체적, 목적의식적이고 공익적인 사안에 대폭 한정해 지원하고 철저한 평가과정을 거치는 게 낫다고 보인다. 아니면 문진기금은 눈먼 돈이라고 해야 할 만큼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유착될 가능성이 높다. <강성원>
- 2004년도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사업은 보통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사업은 여타의 사업에 비해서 주체의 공신력과 추진 능력이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한다. 문화교류를 빌미로 구색 맞추기 식의 전시에 머물거나, 사실상 국내 작가전이나 협회전에 다름없는 일부의 전시 형태에 대해서는 시정돼야 할 것이다. <고충환>
- '2004 금강 국제 자연미술제'는 24년 간 지역미술가들이 자생적으로 일궈놓은 '자연미술'을 국제 비엔날레 급으로 성장시킨 성공적인 예이다. '2004 공간 국제 비엔날레'는 공모를 통해 유럽과 미주, 아시아권 50여 개국 600여점의 판화를 선정 전시하여 국제전이라는 규모에 걸맞는 규모를 보여주었으나, 특화된 주제 의식이 없이 조형적으로 무난한 작품으로 채워졌다. '2004 아시아의 지금 에피소드'는 민미협이 주체가 되었지만, 다른 계열의 젊은 영상 작가들을 대거 포함시킴으로서 단체의 폐쇄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이선영>
- 전체적으로 지원된 사업의 수는 적었지만 비교적 다양한 사업들이 수행되었으며 몇몇 사업의 경우 대중적인 인지도나 관심도는 떨어졌지만 인상적인 사업의 내용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민미협의 '2004 아시아의 지금 에피소드'전이나 쌤지의 '젠-한국과 미국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프로젝트', 황해의 'In Between Conference'등이 인상적이었던 사업이었다. 하지만 거창한 사업의 명칭에 부합되지 않은 관성적인 형태의 사업 역시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사업의 수준과 편차가 다소 넓었다고 생각된다. 문화예술 해외교류의 경우 단순한 국제교류전의 내용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교류의 성과라든가 한국미술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성에 부합하는 사업들에 대한 과감하고 다양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런 면에서 거창한 명분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들의 경우 좀더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병직>

## <음악>

- 2004년에도 다양한 국제 페스티벌 행사가 개최되었는데, 그 규모와 전문성

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힘입어 해외 교류사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대표적 예로 제9회 제주국제관악제를 들 수 있는데, 이제 국제적인 페스티벌로 손색없는 행사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세계 어린이 합창제의 경우도 세계 여러 나라의 아동들과 함께 한 공연을 통하여 문화예술의 해외교류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본다. <정완규>

- 하반기의 경우 '한민족창작음악축전'과 '범음악제', 그리고 '컴퓨터 음악제'가 해당 목표의 공연이었고, 그 중 문화예술교류지원이라는 목표에 더욱 잘 부합한 것은 후자의 두 공연이었다. 우선, 올해로 7회 째를 맞는 '한민족창작음악축전'은 국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 작곡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기획된 무대로써, 특히 평소 무대에 올려지기 힘든 관현악 작품을 공모해서 오케스트라의 실연을 통해 소개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한민족 창작음악축전이라는 명분에 비해 창작계에서조차도 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호응이 낮은 것 같아 아쉬웠고, 공연의 형식면에서도 매너리즘에서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가미돼 좀 더 살아있는 무대가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 '범음악제'는 현존하는 창작 공연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무대인만큼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테마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아카데믹한 무대에 머무르기보다는 음악과 연계된 다양한 예술과의 접목을 통해 좀 더 생생한 창작음악의 현장을 담을 수 있는 무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울컴퓨터음악제'는 컴퓨터 음악의 인구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서 요구되는 무대이고, 또한 국내 음악계에서 유일한 컴퓨터 음악 페스티벌이다. 특히 컴퓨터음악제라는 공연의 특성을 살려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더해진다면 대중적으로도 더욱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 <하지숙>

#### <무용>

- 창무 국제 예술제 하나를 담당. 평가 했다. 좋은 사업 중의 하나로 10년간 지속된 사업이나 올해는 규모나 수준에서 약화된 행사였다. 참가국이나 단체수의 감소는 물론 기량도 약했다. <문애령>
- 지원이 다양하게 이뤄졌던 데 비해 성과는 평균 정도였다. 2004년도의 해당 분야에서 대부분의 행사들이 해외 교류라는 취지보다 단순 초청에 치우쳐 교류의 정신을 살리는 노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교류 지원의 원칙에서 한국의 춤이 도달한 현단계는 충분히 반영하는 행사를 중시해야 할 것이나, 2004년도 사업은 이 점에서 미비점을 노출하였다. 특히 최근 수년간 문화교류 행사는 해외작 가운데 완성도 높은 작품을 초청하는 반면에, 국내작들은 완성도가 떨어져서 국내외 관객들에게 현단계의 우리 무용

창작에 대해 저급한 인식을 심어주는 부작용도 뒤따랐으며, 2004년도에도 이런 폐단이 재연되었다. 안이한 기획 마인드부터 일신되어야 할 것이다.  
**<김채현>**

**<연극>**

- 성공한 축제, 차별화를 못 이룬 축제, 한계를 보인 축제로 나눌 수 있다. <춘천인형극제>는 수준 이상의 국내외 초청작과 원활한 축제운영, 높은 수용자만족도 등으로 지속지원의 성공사례를 보여준 반면에 <공주 아시아1인극제>는 레퍼터리 수급에서부터 수용자관심도, 홍보노력, 행사진행에 이르기까지 한계를 드러내 보였다. 또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는 토속적이고 빼어난 국내공연작들을 모아놓고도 구성과 형식면에서 타 축제들과 차별화를 이루지 못했는데 안 어울리게 섞여 있는 해외 초청작들을 과감히 축아내고 우리 것만을 모아서 한마당 펼치는, 재외동포공연단을 포함하는 <한민족야외공연축제>로 발전시켰으면 한다. **<박계배>**
- 가네샤의 <연극텍스트 워크샵> 한 편만 보았음. 흥미로운 작업이었지만, 지원신청서의 계획과 다소 달라 당황했음(현장평가 참조할 것). 가능하다면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신청서의 계획과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음. 국제 교류작업은 앞으로 좀 더 지속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라 판단됨.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한 작업이니 신청서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과정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김명화>**
- 역사가 꽤 오래 쌓인 축제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분야라서 비교적 합당하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들에서는 지원의 규모가 더 확대되어도 좋겠다. 개별 작품이나 워크샵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해외교류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데 그 성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최측의 공신력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미도>**
- 국제적 연극제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내실이 없는 행사 역시 늘어나고 있다. 다행히 본인이 평가한 두 사업은 모두 우수했다. 단 춘천인형극제는 안정감 속에 느린 속도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양주야외공연축제는 지자체와의 불화로 크게 안정감이 훼손된 상태에서 그나마 주민들의 자발성으로 행사를 해냈다는 점이 대조적이다. **<이영미>**
- 해외교류의 취지에는 문화예술인들이 상호 콘텐츠를 교류하고 그 폭과 깊이를 넓힌다는 취지도 있겠으나 대국민 차원에서 보다 국제적인 문화예술을 다양하게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의도 있다고 하겠다. 금번

사업들의 경우 전자의 목적은 적절하게 달성한 것으로 보이나 후자 부분은 여러 가지로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기본적으로 사업의 장소가 일반 관객층이 손쉽게 찾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간들이었고, 홍보 역시 미진하여 보다 많은 관객들이 해외 공연예술 작품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현장평가를 기초로 향후 지원 시 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박준용>

#### <문화일반>

- 엄밀하게 말하자면 올해 평가대상 사업 중 한국박물관학회의 <국제학술대회>와 계기성 우수기획사업으로 지원된 <국제문화전문가단체 서울총회>만이 사업의 성격에 부합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들 사업들은 단발성 국제회의로 모든 국제회의가 다 그렇듯 이 행사들도 상당히 호화스럽게 치러졌다. 그밖의 사업들은 사업기획이나 내용면에서는 그럴싸했지만 이름만 <문화예술 국제교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국제교류의 내용이 빈약해 보였다. 특히 <2004 세계타악페스티벌>의 경우는 수차례 행사 일정이 지연되다가 결국에는 행사 자체가 아예 치러지지 않기도 했다. <박찬>
-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 사업은 관람객의 참여는 높지 않고 전문가들의 참여가 더 많았다. 우리나라와 해외의 문화 예술 교류에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지만 참가 단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조금 아쉬운 것은 참가 단체의 단순 행사가 많았다는 점이다. 해외의 범위도 넓히고 전문가와 일반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김영아>

#### (5) 해외문화예술교류지원 비공모사업

##### <Kunstlerhaus Bethanien 스튜디오참가지원>

- 주요 추진실적
  - PS1 스튜디오 프로그램 한국작가 파견
    - . 2003/2004년 참가작가 김옥선 참가완료 (2004.08.31 완료)
  - Kunstlerhaus Bethanien 스튜디오참가지원
    - . 2005/2006 참가작가 김신일 선정 (2005.3.15일 시작)
- 자체평가
  - 단순한 작가 파견에 그치지 않고 작가가 현지의 예술계와 교류하고 안정적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꾸준한 관심과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함.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및 전시>

### ○ 사업개요

- 한국문화 해외소개의 장으로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을 운영하고, 세계 3대 비엔날레의 하나인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에 한국작가 참가를 지원하여 한국 미술을 세계에 알림

### ○ 2004년도 주요 추진실적

- 전시명 : 베니스비엔날레 제9회 국제건축전  
(The Venice Biennale 9th International Architecture Exhibition)
- 전시일정 : 2004년 9월 12일 ~ 11월 7일  
. 시사회 : 2004년 9월 9일 ~ 11일  
. 공식개막식 : 2004년 9월 9일 15:00 (장소 : 이태리관 앞 야외식장)
- 전시장소 : 베니스시 비엔날레 공원, 아르세날레
- 주관 : 베니스비엔날레협회  
. 총감독 : 커트 포스터 (스위스 출신 건축학자)
- 전시주제 : Metamorphoses(변형)
- 한국관 커미셔너 : 정기용(1945년생, 기용건축소장)
- 한국관 참가작가 및 작품  
. 김광수(1967년생) : xell-city  
. 송재호(1963년생) : now/where  
. 유석연(1969년생) : bang\_on\_line

### ○ 한국관 운영위원회 운영

- 구성 : 9명  
. 건축계 전문인사 : 김종성(위원장, 서울건축 대표), 박연심(여성건축가협회장), 조건영(기산건축소장), 황일인(일건건축사무소 대표), 이종호(건축연구소 스튜디오메타 대표), 김홍식(명지대 교수)
- 당연직 위원(3명) : 한국건축협회장(오기수),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사무총장(강형철), 문화관광부 예술국장(곽영진)
- 회의 개최  
. 한국관 커미셔너 선정 : 2004. 1. 16  
. 한국관 전시기획(안) 설명 및 참가작가 선정 승인 : 2004. 3. 8

### ○ 한국관 개막식

- 일시 : 2004년 9월 10일(금) 15:00 ~
- 장소 :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앞 (이태리 베니스 비엔날레공원)
- 주최 : 우리원 사무총장, 주이태리 한국대사, 커미셔너
- 참석인사 : 한국관 전시 작가(김광수, 송재호, 유석연), 한국관 부커미셔너(김성

홍), 한국관 후원회장(김택준) 및 국내외 건축가, 평론가, 기자 등 200여명

○ 2004년도 수상 내역

- 황금사자상(평생공로상) : 피터 아이젠만
- 국가관상 : 벨기에 “킨샤샤, 상상의 도시”
- 황금사자상(작가상) : 일본 스튜디오 SANAA “21세기 가나자와 현대미술관”
- 특별상 : 노르웨이연주회장(줄리앙 드 스메트, 비알케 잉겔스)의 “노르웨이 스타반제르 음악홀” 등 8개 작품
- 특별전 “물의 도시” 수상 내역
  - . 베네토주 주관 물의 도시 특별상 : 서울 청계천 프로젝트,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
  - . 최고 설계 관련 베니스 비엔날레 물의 도시 특별상 : 빌바오(스페인), 인천 치푸 프로젝트

○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전체 운영 실적

- 방문객 : 115,099명 (한국관 방문객 : 35,627명, 1일 평균 614명)
- 입장권 : 115,099장 판매. 일 평균 2,019명 (제8회 건축전 101,693장 판매 비교 11.6% 증가)
- 기자 등 언론관계자 3,457명 방문 : 이태리 1,900명, 49개국 외국인 1,559명
- 관련기사 잡지 게재 532건(전회 347건에 비해 거의 2배)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132개 프로그램
- 온라인 기사 55,300건

○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및 전시지원 자체평가

- 9월 10일 개막한 한국관은 정기용 커미셔너가 “방의 도시”(CITY OF BANG)를 주제로 하여 김광수, 송재호, 유석연 작가의 작품을 선보였으며, 좋은 작품 내용과 감각적인 작품 전시를 통해 개막식 기간 동안 한국관을 방문한 많은 외국인 기자들과 일반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프리뷰 기간 동안 함께 선보였던 어어부 프로젝트의 공연은 관람객들의 흥을 돋우면서 많은 찬사를 받았다.
- 국가관 전시 이외에 아르세날레에서 개최된 주제관에서는 한국에서 최문규, 조민석 작가가 참여했으며, 특별전으로 개최된 “물의 도시(Cities on Water)”에 서울시의 “청계천 프로젝트”가 특별상을 수상하고, 김석철 작가의 “ICITY(한국 인천)와 AQUACITY(중국 치푸) 프로젝트”가 입선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 전반적으로 이번 국제건축전은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건축적 해석을 표현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각 국가관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주제를 목청껏 외쳐대고 있으나 산업 사회 이후 불안정하게 변화하는 세계에 발맞추어 건축도 끊임없이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를 이번 건축전에서 심도 있게 드러내보이고자 하는 의도는 절반의 성공 밖에 거두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일부 전시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주제의 전달이 명확하지 않다. 이번 전시에 소개된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컴퓨터 디자인으로 완벽하게 설계되어 형상미에 치중하여 변화하는 세계의 불확실성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 해마다 이루어지는 한국관의 보수와 전시공간 설치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모되고 있다. 한국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보호막, 사무공간, 창고공간 설치 등)을 파악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장기적 차원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

## <해외문화기관교류>

### (가) 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 교류

- 본원 대표단 방중 : 2004.5.10~5.19
- 지역 : 북경, 서안, 항주, 상해
- 대표단 : 원장(현기영), 연수원장(이성겸), 국제교류팀직원(서정애), 지원협력실직원(김혜승)
- 내용 : 우리 원과 중국 문련 간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향후 문화예술 교류 방안 협의, 중국 박물관, 공연장, 현대문학관 등 주요 문화시설 견학, 문화부 등 문화예술기관 방문 및 인사 교류, 각종 전시, 공연, 영화 관람, 북경, 서안, 항주, 상해의 문화유적과 시설 시찰
- 한중 젊은 작가 교류 제안 : 2005년도에 한국과 중국의 젊은 작가들 상호 방문 교류 합의
- 자체평가
  - 1995년 시작된 본원과 중국 문련간의 문화교류는 2002년도에 체결된 제 2기 '문화예술교류의향서'와 이에 따른 양기관간 인적 교류와 문화교류를 통해 상호신뢰와 함께 보다 성숙한 교류를 위한 토대가 구축되었음.
  - 이번 방문기간 동안 특히 문학계 인사들과의 만남의 기회가 많았으며,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TV 드라마나 영화 등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양국간 대중문화 교류의 근간으로서의 순수 문학에 대한 상호 이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중 작가교류를 제의함. 이에 따라 양국의 젊고 유망한 작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문학과 시대 인식을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로 합의함.
  - 중국 문화부 방문과 관련 인사들과의 회동을 통해 문화부의 우리 원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예상되는 우리 원의 위원회 전환에 따라 중국 문화부와 우리 원과의 직접적인 교류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음.

- 중국 문련 관계자 뿐만 아니라 현대문학관, 국가박물관 등 여러 분야의 문화계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원 임직원들과 다양한 인맥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앞으로 대 중국 문화교류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됨.
- 지금까지 쌓아온 양국간의 문화예술교류를 바탕으로 앞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한중문화교류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상호 인식을 함께 하였으며 중앙 문련 뿐만 아니라 성 단위 문련 인사들과 쌓아온 인맥을 활용해 양국의 지역문화 교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나) 프랑스 세계문화의 집 문화 행정연수 참가

- 기간 : 2004. 10. 17 - 10. 27 (10박 11일)
- 지역 : 프랑스 파리, 낭뜨, 릴
- 방문자 : 사무총장, 양경학(경영기획팀장), 이호신(예술정보관), 정준화(지원건설팀), 윤지현(국제교류팀)
- 방문내용
  - 프랑스 문화커뮤니케이션부 국제개발과 면담
  - 프랑스 문화커뮤니케이션부 건축문화재과 면담
  - 오르세이 미술관, 라빌레뜨 공원 방문 및 프로그램 운영 실태연구
  - 릴 유럽문화중심도시 방문(La Piscine, La maison folie de Wazemmes)
  - 낭뜨 Lieu Unique 방문
  - Reichen et Robert 건축사무소 방문
  - 썬드니 영화스튜디오 리모델링 화력발전소 방문
  - 썬뚜앙 Main d'oeuvre (지역민 중심 문화 프로그램 운영)방문
- 내용 : 프랑스문화부 위임사업인 꾸렁 프로그램(programme courants)의 일환으로 이번 연수의 주제는 우리 원에서 선택한 '산업시설의 문화시설로의 리모델링'로서 프랑스 문화커뮤니케이션부 건축문화재과 및 라빌레뜨 공원, 낭뜨 Lieu Unique, 릴 유럽문화중심도시 등 관련 기관방문 및 케이스 스터디 등 문화행정 연수
- 자체평가
  - 프랑스 세계문화의 집 행정연수는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 문화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양국 문화 담당자들에게 문화 예술의 전문가들과 관계를 맺을 기회를 제공하였고 주제에 관련된 여러 시설 방문 및 케이스 스터디를 통하여 프랑스의 다양한 리모델링 실태 및 프로그램 운영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국에의 적용가능성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토론할 수 있었음. 연수 주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 및 실무 전문가로 이루어진 방문단을 구성함으로써 단지 양국 문화예술인들 간의 친선 방문이 아니라 자국의 문화예술 환경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연구 방문이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음.

(다) 일본국제교류기금의 “문화인초빙프로그램” 참가

- 주최 : 일본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
- 기간 : 11. 2 - 11. 11
- 참가자 : 현기영 원장
- 자체평가
  - 일본국제교류기금의 초청으로 “문화인초빙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일본 문화예술기관과 문화 예술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향후 긴밀한 상호교류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음.

(라) 중국상해국제예술제 참가

- 주최 : 중국 문화부, 상해시 정부
- 기간 : 10. 15 - 10. 20
- 참가자 : 박진홍 감사, 무용전문원 황진수
- 내용 : 상해국제예술제는 국가 주최로 개최되는 중국 내 유일의 국제 예술제로 가장 큰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공연예술 축제로 6회째를 맞이한 2004년도에는 크리스토프 에센바하의 지휘로 장엄한 야외 오페라 ‘카르멘’을 비롯하여 요요마, 제임스 골웨이 등의 음악공연, 무용공연인 ‘Burn the Floor’, 플라멩코 무용극 ‘살로메’ 등 많은 야외 공연이 펼쳐졌으며 예술제와 함께 개최된 아트 페어에서는 각 참가국들이 자국 공연단 소개 및 프로모션, 참가국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상호 공연예술 발전에 기여하였음.
- 자체평가
  - 앞으로 상해국제예술제를 비롯하여 세계공연예술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국제공연예술제 및 아트 마켓에 단순 참관이 아니라 한국 부스 설치 및 쇼케이스를 통한 적극적인 한국공연예술 소개와 프로모션이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에서도 이들과 버금가는 공연예술제 및 아트 마켓 행사 유치가 절실히 필요함.

(마) 몽골 예술위원회 관계자 교류

- 몽골 예술위원회 관계자 내한 : 2004.6.27~7.4
- 주요 프로그램 : 양국 문화정책 및 예술환경 포럼 개최, 세계작가와의 대화 참가, 암각화지대 탐사 등
- 몽골 대표단 : N.yambajav(몽골문화예술위원회 회장), B.Bayaraa(Staff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등 10인
- 추진경위 : 2003년 몽골 예술위원회와 양국문화교류의정서 교환에 따라 상호 방문 및 양국의 문화관심사에 대한 교류를 시작으로 2004년

에는 몽골 대표단이 내한

- 내용 : 한몽예술인대회(양국의 문화정책 및 예술장르별 대표 토론), 아시아 작가연대행사 참가(광주, 아시아 문학연대의 밤), 경주 남산, 울산 암각화지대 답사(몽골 암각화 지역과 문화원형 찾기), 기타 서울유적 답사 등
- 2005년 몽골예술위원회 주최 국제교류 제안 : 2005년 하반기 개최 예정인 세계작가대회 등 관련기관 국제행사에 대한 한국측 참가 요청
- 몽골 측의 요청에 따라 몽골문화연구단체인 아시아문화유목(대표 :김사인)과 공동 행사추진에 따라 우리원과 동단체와의 공동예산부담(총 예산 38,197천원 중 20,000천원 지원)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며, 향후 국제교류사업 준기획사업의 모델을 제시하였음
- 특히 금회 토론은 '아시아의 미학적 정체성을 찾아서' 라는 주제를 통하여 양국의 문화이해를 제고하는 것에 경주하였으며, 유적답사 등도 이러한 토론주제하에 관련 유적을 답사하는 등 행사 전반을 일괄된 주제로 운영할 수 있었음

#### <해외정보서비스>

- 사업개요
  - 미국의 New York Times, 영국의 BBC, The Guardian, 프랑스의 Le Monde 등 세계 주요국가의 권위있는 신문의 문화예술란에서 주요기사를 발췌 요약, 번역하여 주 1회 본원 주간뉴스레터의 <해외문예소식>란을 통해 소개
- 실적 : 2004년도 총 44호 110여개 기사의 해외문예소식을 발행하여 본원 웹사이트 게재 및 이메일링 서비스(9,100여개처)
- 자체평가
  - 해외문화예술계의 살아있는 정보와 현황을 실시간으로 국내에 소개하여 이를 국제교류사업에 활용하고 문화예술계, 언론계 인사 및 일반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본원의 대국민 문화정보서비스 향상에 기여함.

#### <한국문화체험학교 운영>

- 사업개요
  - 한국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소양을 함양시키고 한국에 대한 인식제고 및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 및 재외교포에게 다양한 한국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체험학교 운영
- 주요 추진실적
  - 교육명 : 2004 문예진흥원 한국문화체험학교
  - 교육기간
    - 상반기 : 2004. 7. 9(금) ~ 7.11(일) 2박3일간

- 하반기 : 2004. 11. 28(토) ~ 11. 30(월) 2박3일간
- 교육장소
  - 상반기 : 공주 마곡사, 안동 하회마을, 부용대, 안동민속박물관 등
  - 하반기 : 공주 마곡사, 전주 한옥마을, 전주 경기전 등
- 참가인원 : 주한 외국인 41명(상반기) /34명(하반기)
- 교육내용 : 템플스테이체험, 안동종가체험, 전통매듭공예배우기, 국악감상, 안동하회마을 답사, 전주한옥마을 체험, 단소배우기 등
- 집행현황 : 집행액 16,558,324원 ( 연관계획 : 20,000,000원 )
- 자체평가
  - 한국어를 배우고 있거나 한국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과 교포학생들에게 한국의 전통생활 및 전통 문화예술을 접하고 체험토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적인 것과 친근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참가자 모집을 선착순 아니라 신청자중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다양한 참가자를 확보하였으며 참가자의 참여의식을 고취하였음.
  - 이론 위주의 강의 방식이 아닌 현장 실습과 체험 위주로 교육함으로써 교육생들로 하여금 한국 문화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이끌어 내는 등 교육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었음.
  - 현지의 전문 가이드를 동행하여 심도 깊은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며 행사 내용을 담은 자료집을 배포하고 이동시간을 이용해 미리 설명을 함으로써 이해를 도움.
  - 2005년부터 국제교류재단 등 비슷한 유형이 사업이 있음에 따라 예산배정을 받지 못함에 따라 2004년 사업으로 중단됨.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보다 많은 외국인들에 대한 한국문화의 이해 및 친한 인사 확보를 위해서는 각 기관마다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일간지(문화일보) 및 방송사(아리랑TV), 잡지사(행복채널)를 동행하여 취재했으며 일간지에 소개되어 참가한 학생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 원의 이미지 제고 및 홍보에 크게 효과를 냄.

## 예술보존 조사연구 지원

### (1) 사업개요

- 소중한 예술 유산과 각종 예술 자료의 구축 및 기록 보존, 예술 현상에 대한 비평과 연구 활동,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지원하는 사업

### (2) 주요추진실적

(단위 : 천원)

분야	지원결정건수	지원건수	예산액	집행액	비고
문학	18건	17건	121,000	113,000	사업포기 1건
미술	16건	16건	121,000	121,000	
연극	8건	8건	88,000	88,000	
무용	7건	7건	56,000	56,000	
음악	12건	12건	78,000	78,000	
문화일반	18건	18건	126,000	126,000	
총계	79건	78건	590,000	582,000	

### (3) 자체평가

#### <문학>

- 문학단체들의 세미나 및 심포지움 행사에 대한 지원 및 중요 문학 자료 간행에 대한 지원을 지원하였음
- 이오덕 선생을 조명한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세미나가 충실한 준비와 짜임새 있는 행사 운영으로, 한국수필가협회의 세미나는 역량있는 발제자의 선임, 열기있는 토론 등 내실있는 행사 운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일부 단체의 연례적인 세미나 행사는 평가위원들의 현장평가에서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지원심의 시 그 결과가 반영되었음

#### <미술>

- 시각예술의 사회문화적 담론 형성 기능 강화를 위한 현장비평 활동 및 저널 발간 등의 지원영역 확충이 요구됨.

#### <음악>

- 문화향수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문화예술인구 저변확대기여하고 있으나, 사업성격에 비해 예산배정액 증액이 필요함.

- 사업수행시기가 연간단위로 진행되어 대부분사업이 연말 및 익년 초에 성과보고서가 나오는바 사업수행시기조정이 필요함.

#### <무용>

- 지원대상사업의 추진일정에 맞게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며, 춤지, 몸지, 춤과사람들지 등 무용관련 주요 월간지의 경우 무용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무용애호가와 일반인들에게 심도 깊게 알려주는 주요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연에 대한 리뷰와 비평의 장을 열어 무용의 가치를 자료화, 대중적으로 보급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리을춤 연구원의 “배정혜의 7일간의 춤여행”은 ‘가장 문학적인 무용가상’ 수상자이자 한국무용의 큰 어른 중 한 분이신 배정혜 선생의 최근 저서로 1권 한국춤의 원리, 2권 한국춤 훈련 메소드, 3권 명상과 용어로 구성되어 우리 춤과의 즐거운 대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으며, 김영태 “무용가론 2”에서는 그의 전 저서 ‘무용가론 1’에 이어 국내 스물 한 명의 중견무용가들의 예술세계를 눈으로 보는 듯이 세밀하게 그려내고 있다.

#### <연극>

- 사업의 학술적 내용은 좋은 편이었고 그 과정에서 전문성이 확보되었으며, 필요분야에 학술적 기여도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문화일반>

- 도서발간 및 세미나 등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예술 창작에 밑거름이 되고 기반을 넓히는데 기여하였음. 동 사업유형은 정책연구 성과물이 정책과정 및 문화예술지원프로그램 개선에 향후 활용되는 것이 중요한 바, 연구 성과물의 공유 및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4) 평가위원 평가

#### <문학>

- 예술의 보존과 계승이라는 목표 아래 각종 문학 자료를 수집 연구하고 그 성과를 학술 세미나로 발표하여 문화사업을 연계하자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적잖은 경우 개별 학회, 문학단체의 내부자 연수 프로그램으로 지원이 몰리는 경우가 많았다. 문학작품 보존·조사·연구라는 본질적 목표보다 부수적 목표인 단체 성원의 친목을 위한 연수성격 행사가 과다하여 옥석을 좀더 엄밀하게 가릴 필요가 있다. 특히 모 협회 여름 세미나의 경우 문학

적 학술적 알맹이보다 겉치레와 관광, 지자체나 관변단체장과의 친교 등이 위주로 된 행사였다. 예술 보존 조사 연구라는 본래 사업목표보다는 평소 중앙에서 소외된 지역문학의 활성화나 노장층 지역문인들의 <문화예술 향수기회의 확대>라는 목표로 방향을 수정 설정해서 문예진흥기금 말고 아예 지자체 후원성격의 행사로 열리도록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노장청 연합의 문학 향수 인구 확대를 위한 노력에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김성수>

- 심포지움이나 세미나의 이름을 달고 있었으나 그 내용과 효과가 의심스러운 사업들이 있었다.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관례적인 행사에 그친 감이 있었다. <이동재>

### <미술>

- 모든 부문의 문진기금지원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이 부문에서도 기획지원 개념이 적용될 필요를 느낀다. <강성원>

### <음악>

- 예술보존조사연구지원에 해당하는 행사에는 민족음악연구회의 '정기 및 상시 음악학교'가 있었다. 평소 공연이 아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예술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게 하는 장이 마련되었으면 하고 바라던 차에, 민족음악연구회에서 마련하는 음악학교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백화점이나 공연장을 중심으로 무비판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강좌형식에 비해서, 민족음악연구회의 음악학교는 비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이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음악 관련 학생들과 전문가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준 자리였다. 앞으로도 건전한 학술, 연구쪽의 지원이 보다 확장되길 바란다. <하지숙>

### <연극>

- 해당 행사 모두 관람. 비교적 우수한 편이다. 이들 프로그램이 좀더 체계적이면 좋겠고, 소속된 회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연극계 전체가 공유하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은 있다. 연극 공연만이 아니라 학술적 사업이나 연극인 재교육 사업도 연극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인식과 홍보의 부족 탓에 이런 프로그램이 소수 관계자들의 참여로 끝나는 것은 다소 아쉬운 일이다. <김명화>
- 대개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들로서 지원액도 상식적이지만

행사의 성과도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학술 심포지움의 경우, 의례적인 연례행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다 특별한 기획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김미도>

#### <문화일반>

- “예술보존조사연구지원”은 공연예술계 전문가들의 참여만 있어서 문화일반 부문의 사업 취지에 어긋난 것 같다. 관람객과 참여자에 대한 부분이 아쉬웠다. <김영아>

#### (5) 기타 : 한국 근·현대 예술사 구술채록사업

(가) 사업개요 : 구술사 채록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한 근·현대 예술 사료의 집대성

(나) 제1차년도(2003년도 이월분) 사업 추진

- 연구용역수행
  - 연구수행기관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총괄책임연구원 이인범)
  - 연구수행기간 : 2003년 12월 10일 ~ 2004년 6월 30일 (7개월)
  - 연구수행내용 : 김천홍, 김홍수 등 장르별 원로예술인 32명 구술생애사 영상채록 (대상 원로예술인 및 채록자 명단 붙임 자료 참조)
  - 연구 성과물 : 원로예술인 32명의 구술채록 영상, 녹음, 녹취문
  - 사업비 : 340,000,000원 (238,000,000원 전년도 사업비에서 이월)
- 자문회의 운영
  - 자문위원 신규 위촉 : 최열(미술분야)
  - 자문회의 개최 2회 : 구술사 선정, 최종결과물 검수 및 2차사업계획 자문
- 학술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 워크숍 개최 (2회)
    - . 일시 : 2004년 2월 7일, 14일 (토) 오후 2시~7시
    - . 장소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프로젝트실
    - . 주제 : 구술사 방법론의 이해와 실무 지침 제공
    - . 발제자 : 정혜경(정신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 남신동(서울대학교 한국교육사고 연구원) 등
    - . 주관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 공개학술세미나 개최
    - . 일시 : 2004년 6월 19일 (토) 13시 30분 ~ 18시
    - . 장소 : 마로니에미술관 3층 세미나실
    - . 주제 : 한국 근현대 예술사 증언채록사업의 성과와 전망

- . 발제자 : 이인범(동 사업 총괄책임연구원) 및 부문별 책임연구원 등
- 홍보실적
  - 경향신문 기획시리즈 '나의 藝, 나의 生' 연재기사 13회 수록
  - KBS, MBC, EBS,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세계일보 등 주요 언론매체 기사 방영 또는 수록
  - KBS, EBS 구술채록 영상제작 관련 자문 활동

(다) 제2차년도(2004년도) 사업 추진

- 2차년도 연구용역 수행 기관 공모
  - 연구용역수행기관 공모 결과
    - . 예술부문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경희대학교 예술경영연구소 (2개소)
    - . 문학부문 : 민족문학연구소 (1개소)
- 연구 용역 추진
  - 연구수행기간 : 2004년 11월 ~ 2005년 6월 (7개월)
  - 연구수행기관 및 사업비

구분	연구수행기관	연구수행내용	사업비
예술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인범)	원로예술인 14명 생애사 구술 영상채록	140,000천원
문학	민족문학사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성수)	원로예술인 3명 생애사 구술 영상채록	30,000천원

- 구술채록 워크숍 개최 (2회)
  - . 일시 : 2004년 10월 2일 (토) / 10월 30일(토)
  - . 장소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세미나실
  - . 주제 : 사례분석 및 구술사 방법론 공유
  - . 주관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 자체 채록사업 진행
  - 사업기간 : 2004년 11월 ~ 2005년 5월 (7개월)
  - 구술자 : 원로예술인 전황(무용 및 전통부문)
  - 채록자 : 송혜진(숙명여대 교수, 우리원 동 사업 자문위원), 이승연
  - 사업추진내용 : 원로예술인 전황 구술생애사 영상채록 7회 및 녹취문 작성
- 구술채록 영상제작 전문화 및 원로예술인 생애사 영상 다큐멘터리 제작
  - 영상제작업체 전문업체 위탁
  - 원로예술인 생애사 영상 다큐멘터리 제작
    - . 제작편수 : 2편 (김규동, 이은관)
    - . 활용방안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콘텐츠 제공
- 제1차년도 사업결과물 영상콘텐츠 제작 및 홈페이지 제작

- 자문회의 운영
  - 자문위원 신규 위촉 : 방민호(서울대 국문과 교수, 문학부문 추가)
  - 자문회의 개최 (3회) :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구술자 선정 등
- 사업비 집행내역 : 261,776,842원 (예산액: 350,200,000원)

(라) 자체 평가

- 제1차년도 사업의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업 성과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이 이루어졌음.
- 제1차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거쳐 제2차년도 사업에서는 영상제작의 전문화를 꾀하였으며, 문학부문 및 예술부문으로 사업 추진을 이원화하여 보다 전문적인 채록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제1차년도 사업 추진의 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 순연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음.

## 예술자료 정보화 및 보급 지원

### (1) 사업개요

- 예술창작 여건 개선 및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을 활용한 예술 정보화 및 보급, 기 개발(발간)된 문화예술 콘텐츠(문헌·시청각자료 등)의 확산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

### (2) 주요추진실적

(단위 : 천원)

분야	지원결정건수	지원건수	예산액	집행액	비고
문학	4건	4건	24,000	24,000	
미술	8건	8건	43,000	43,000	
연극	1건	1건	6,000	6,000	
음악	2건	2건	18,000	18,000	
전통	3건	3건	15,000	15,000	
문화일반	6건	6건	44,000	44,000	
총계	24건	24건	150,000	150,000	

### (3) 자체평가

#### <문학>

- 총 4개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및 웹진 발간 사업들을 지원하였음. 사업의 성격상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며, 지원금의 규모의 상향 조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미술>

- 시각예술 표현매체 확장 및 매체의 유비쿼터스화 등 새로운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부응하는 실험적 활동에 대한 지원 확충이 요구됨.

#### <음악>

- 동 사업은 문화향수권 신장과 기반조성을 위해 기획된 사업인바, 사업내용상 문화예술인들과 공유하기 어려운 과제 및 해당단체만의 자료로 한정되어 사업효과가 미지수임.
- 사업유형존속이 필요할 경우 예산액을 대폭 증액하여 공연예술단체들의 홈

페이지를 전문적으로 구축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됨.

#### <연극>

- 공연정보, 해외소식 및 이론 소개 등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자료적 가치가 높은 잡지인 '한국연극'을 CD로 영구 보존·활용할 수 있게 됨

#### <전통>

- 인터넷을 활용한 예술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증액

#### <문화일반>

- 작게나마 문화예술단체의 정보화 활동을 도움을 주고 있으나 독립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44,000,000원의 예산으로 6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어 문화예술계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예산을 현실화하거나 아예 본 사업을 폐지하는 등 선택이 필요하다는 판단임
- 디지털정보화사업이 많이 신청되고 있으므로, 기금투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관련 전문가가 심의에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전통예술 발표 및 전승보급 지원

### (1) 사업개요

- 전통예술의 보존, 계승발전과 보급 확산을 위하여, 전통예술의 원형보존, 전시, 공연, 전문인 육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

### (2) 주요추진실적

- 지원결정건수 및 금액 : 146건, 11억원
- 집행건수 및 금액 : 144건, 10억8천5백만원
- 사업포기건수 및 금액 : 2건, 1천5백만원
  - 고악기연구회의 “사라진 악기 공후 복원연주회 (5백만원)
  - 풍물소리사위의 “두드리의 꿈” 공연 (1천만원)

### (3) 자체평가

- '04년도 “전통예술발표 및 전승보급지원사업”은 총 146건 지원예정에 144건이 지원되어 98%의 지원율을 보임. (단체사정으로 사업포기 2건)
- ‘전통예술발표 및 전승보급지원사업’은 신청 대비 44%의 지원선정율을 보여 수혜자 만족도는 어느 정도 충족되었으나 지원액이 최하 4백만원도 있어 예산의 증액이 요구됨. 특히, 동사업은 예술창작, 예술체험, 예술보존조사 등의 사업유형이 모두 통합되어 있고, 세부장르별로는 국악기악, 국악성악, 민속, 전통무용, 전통공예 등이 모두 혼재되어 있어, 예산 증액은 더욱 절실함.

### (4) 평가위원 평가

- 연주 내용의 구성이 관습적이지 않고 오히려 교육적이었으며 더 나아가 국제적 보편성을 획득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기 충분한 내용이었음. 또한 현재 별로 연주되지 않는 음악을 재현하는 등의 활동은 문화유산을 복원하는데 일조를 하였음 <임재원>
- 평창소리마을 메밀꽃 국악학교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 국악을 심고 보급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예술활동과 유사한 측면이 있었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별이는 사업이기에 전승보급에 더욱 효과가 있다고 평가됨. 전통예술 발표의 경우 예술적 가치와 기획성의 괴리가 극복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음. 예술성은 높으나 기획력이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 대중적 영향력을 키울 노력이 필요함. <황루시>
- 전통춤을 중심으로 한 공연을 평가하였다. 이들은 모두 생음악 연주를 하였

는데, 우선 그 점이 좋았다. 전통춤은 춤 자체의 동작과 더불어 그 음악의 흐름을 반영하여 춤을 추는 능력도한 많은 경험을 통하여 체득해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전통춤의 전승이요, 전통춤꾼의 됴됨이를 갖추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세대에서는 녹음 테이프를 틀고 오로지 옷을 잘 갖춰 입고 갖은 치장을 하여서 공연하는 무늬만 전통춤 공연이 허다하다. 전통예술 발표 및 보급지원이란 이름 하에 지원한다면 악사의 사용문제도 중요한 심사기준이 되었으면 한다. <진옥섭>

- ‘제 1회 황병권 탈 전시회’의 경우 탈꾼으로 탈 만들기 10년 만에 처음 개인전을 가졌다. 솜씨 면에서는 재능이 덧보였으나, 관객 동원이 지엽적枝葉的 이였고 관객도 문하생 수준이었다. ‘한국 피리음악 연구회 정기연주’는 중, 고등학생과 피리전공자들의 관심 속에 우리전통피리와 북한의 개량 피리를 비교 연주함으로써 관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향후 남북한 전통악기와 북한의 개량 악기류의 연구를 통해 남북간의 새로운 문화교류를 시도하여 남북문화의 이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였다. ‘제 34회 판소리 유파 발표회’를 통해 개개인의 독창성과 노련함이 돋보이는 판소리를 한자리에서 비교, 감상할 수 있었다.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관객들이 참석하여 판소리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판소리 유파발표회는 지역순회를 통해 전국 각, 시도로 확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전은자의 전통춤 2004’는 부채춤, 태평무, 살풀이춤 등 전통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춤을 잘 소화해냈다. 특히 사계절(춘, 하, 추, 동)을 민속적인내용으로 담아 현대무용으로 연출했던 내용은 참으로 좋았다. 일반남녀 관객과 전승자, 학생들로 많은 반응을 얻었다. 그리고 ‘제 29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은 전국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기능인들로부터 출품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출품작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과 정부시상을 수여함으로써 전통공예의 위상을 세우고 장인 발굴과 전통공예 전승 보존에 기여하였다. <신타근>
- 전통예술분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단위사업은 모든 면에서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많은 사업주체들이 전문성을 이미 인정받은 개인이나 단체였다는 데에서 그러한 성과를 얻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일부에서는 아직도 몇몇 예술가들이 모여 ‘이름 내세우기’식 공연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런 경우 독창성이나 참신성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전통음악이나 프로그램의 반복 혹은 의미 없는 재구성을 일삼기 때문이다. 사실 일단 공연이 진행되기 전에 사업계획서 만으로는 이러한 공연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 하지만, 더 많은 훌륭한 전통예술발표의 기회를 위해서 또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연결과를 놓고 그 옥석을 객관적으로 가리는 일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평가시스템을 통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그러한 판단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 그 이전에 이미 ‘전통예술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여러 예술인들의 합의된 견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이 그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김명옥>

## 5. 문예진흥기금 복권기금사업

### 가. 문화관광부 주관사업

#### 1) 민속마을전통축제지원

- 사업 필요성
  - 유·무형의 전통이 간직된 민속마을에 내재된 유·무형의 전통 계승 및 민속마을 보존·활용 기반 조성
  - 전통이 살아 있는 대국민 문화체험 교육·관광자원 제공
- 사업내용
  - 마을별 전통민속과 관련된 축제 또는 행사 운영비, 장비 및 재료구입비 등 지원
  - '04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수립된 행사를 대상으로 지원, '05년도 이후부터는 기지원행사와 전통재현 신규행사 지원
- 마을별 지원행사
  - 안동하회마을 : 정월대보름 마을당제, 물돌이축제, 선유줄불놀이, 하회별신굿 탈놀이 상설공연 등
  - 아산외암마을 : 짚풀문화제, 외암장승제 등
  - 성읍민속마을 : 정의골민속축제, 갈옷짓기 체험행사 등
- 사업추진기관 : 문화재청
- 지원대상 : 6개 민속마을(안동하회, 제주성읍, 경주 월성양동, 고성왕곡, 아산외암, 순천낙안읍성)
- 지원방법 : 자치단체경상보조
- 총사업비 : 1,000,000,000원
  - 안동하회마을 : 400,000,000원
  - 아산외암마을 : 200,000,000원
  - 기타 민속마을 : 400,000,000원 (100,000,000원×4개 마을)
- 지원근거 : 문화재보호법

#### 2) 도시저소득주민 및 농어민대상 생활친화적 문화환경 조성

- 사업 목적
  - 주민밀집지역 및 문화소외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문턱 낮은 생활 문화 공간 또는 작은 도서관을 조성해줌으로써 이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적 문화 불균형 해소

○ 사업 기간 : 2004. 6 ~ 2005. 1

○ 주관기관

- 전국문화원연합회(생활문화공간 조성, 사업추진협의회에서 업무지원)
- 한국도서관협회(작은생활도서관 조성, 사업추진협의회에서 업무지원)

○ 소요 예산 내역: 7,500,000,000원

○ 세부 사업내용

- 생활문화 공간 조성 사업

. 지원 규모 : 총 25개소 내외, 1개소당 2억원 내외 지원

. 소요 예산 : 5,000,000,000원(문예진흥기금)

. 사업 내용 : 주민 밀집 지역 및 문화 소외지역에 해당 지역 주민의 문화적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 친화적 문화 공간을 조성토록 지원함. 일정 선정 기준에 의거하여, 지원사업자를 선정, 기존 유휴 공간의 문화 공간화를 위한 리노베이션 경비(90%내외) 및 프로그램 운영경비(10%내외) 지원

\* 예시: 지역 문화 체험관, 복합문화센터, 마을 문화 쉼터 등

- 작은 생활 도서관 조성

. 지원 규모 : 총 25개소 내외, 1개소당 1억원 내외 지원

. 소요 예산 : 2,500,000,000원

. 사업 내용 :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한 공공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작은 도서관(30평~50평 내외, 장서 2,000권~3,000권)을 조성하고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친화적인 독서공간 조성

○ 지원대상 선정 방법

-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문화관광부와 주관기관이 함께 심사하여 선정함
- 서류 심사(1차) 및 현지 실사(2차)를 통해 대상 지역 선정

### 3) 아동복지시설 대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제공

○ 사업 목적

- 문화복지 분야의 소외계층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향유력과 창의력 계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 지속적인 문화향유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기간 : '04. 6 ~ '05. 1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275개 시설, 18,818명)
- 주관단체 : 한국메세나협의회
  - ※ 한국메세나협의회를 통해 체계적 추진 및 추가적인 기업협찬 도모
- 지원방법 : 주관단체를 통해 아동복지시설에 전문강사 및 교보재 등 지원
- 지원예산 : 5,000,000,000원
- 세부 사업 내용
  - 사업 규모 : 275개 시설, 장르별 학령별 프로그램 개발
  - 장르 : 음악(국악포함), 연극, 무용, 영화, 미술
    - ※ 장르별 전문가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학령 : 유아, 초·중·고교 : 4단계

#### 4) 지방문예회관 특별공연프로그램 개발지원

- 사업목적
  - 문예회관의 시설 특성을 활용한 질 높은 공연 및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지방문예회관의 운영 활성화
  - 지역민들에게 수준높은 문화예술 관람 제공을 통해 지방의 문화향수권 신장
  - 문예회관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민들의 문화향유능력 계발 및 중장기적인 문화예술 수요기반 확대
- 지원대상 : 전국 지방문예회관 121개소(서울지역 문예회관(6) 제외)
- 지원방법 : 민간경상보조(정액지원)
- 주관기관 : (사)전국문예회관연합회(협회장 : 김용배)
  - ※ 문화관광부가 사업추진총괄 및 사업수행과정 관리감독
- 사업기간 : 2004. 7월 ~ 2005. 1월
- 총사업비 : 14,600,000,000원
- 사업내용
  - 공연 프로그램
    - . 국립 및 민간 예술단체의 우수 공연프로그램 순회공연
      - : 작품성 및 대중성 등에서 검증된 우수 공연프로그램을 선정, 각 지방의 문예회관에서 순회공연 실시
    - . 지방문예회관의 기획공연 제작·운영 지원
      - : 지역기반 문화예술단체를 활용하여 해당 지방문예회관이 자체적으로 제작·운영하는 기획공연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
  - 교육 프로그램

- . 분야 : 음악(대중음악 포함), 연극, 무용, 미술, 전통예술, 전통문화,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의 전 장르 포괄
- . 구성 방향 : 공연장 등 문예회관의 시설 특성을 활용하여 장르별 예술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이 결합되는 형태로 구성
- 프로그램 선정 절차
  - 프로그램 제안 공모를 받아 1차로 총 100개 내외 프로그램 선정
  - 1차 선정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문예회관 수요조사
    - 문예회관 담당자 대상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마켓 형식)
    - 기관 여건이나 선호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총액 32백만원 범위 내에서 단수 혹은 복수의 프로그램 지원 요청
    - 지원금은 최종 선정된 프로그램 수행단체에 직접 지원
  - 문예회관별 지원 프로그램 최종 선정

## 5) 사립박물관·미술관 특별전시 프로그램 지원

- 사업 필요성
  - 사립박물관(미술관)은 전체 박물관(미술관) 총 355관 중 174관으로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중한 문화자산 전시를 통한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이라는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경영의 어려움으로 중요한 소장자료가 사장되고 상설전시외에 교체전시, 기획전시, 특별전시 등의 다양한 전시가 곤란한 실정
  - ※ 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실태(2002년말 기준)
    - 1관당 연평균 수입 97,084,000원, 연평균 지출 192,814,000원으로 평균 95,730,000원 적자
    - 1관당 연평균 재정자립도 : 50.4%, 연평균 관람객 수는 108,245명임
- 사업내용 : 재정형편이 열악한 사립박물관·미술관에 특별기획전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
- 지원대상 : 등록사립박물관·미술관 중 개인이 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 120개 관 (운영주체 : 개인 또는 법인)
  - ※ 사립박물관 174관중 공공적 성격이 강한 독립기념관 등 7개관과 기업이 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은 제외
- 주관기관 : 한국박물관협회
- 지원방법 : 민간 경상보조(정액지원)
- 집행절차 : 박물관협회 등을 통한 지원신청후 심사 지원
  - 지원액 신청(박물관협회) → 심사위 구성, 지원규모확정(박물관협회) → 예산교부(문예진흥원→박물관협회) → 집행 및 실적평가 보고(박물관협회→ 문예진흥원)

- 총사업비 : 3,600,000,000원

## 6) 문화의 집 계층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지원

- 사업목적 : 각 문화의 집별로 어린이, 청소년, 주부 및 노인 대상 계층별 문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시행 운영 지원을 통한 지역단위 문화 활동 활성화 및 지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주관기관 : 한국문화의집협회
- 총사업비 : 1,000백만원
- 지원대상 : 문화의집 100개소
- 지원규모 : 1개 프로그램당 250만원 내외, 1관당 10백만원내외
- 지원내용 : 어린이/청소년/주부/노인 대상 문화체험프로그램 개설 운영 지원  
<프로그램 예시>
  - 어린이 대상 : 글짓기 교실, 창작동요, 종이접기, 컴퓨터 교실 등
  - 청소년 대상 : 시·수필·독서 토론, 사진 강좌, 전통풍물교습 등
  - 주부 대상 : 생활도예, 꽃꽂이, 서예교실, 가요교실, 컴퓨터교실 등
  - 노인 대상 : 건강 생활 강좌 등
- 지원방법 : 민간 경상 보조(정액지원)
  - 한국문화의집협회 등의 신청에 따라 사업추진단 심사후 지원
- 집행절차 : 기금 신청(문화의집협회) → 심사위원회 구성, 지원대상 선정(문화의집협회) → 지원액 교부(문예진흥원→문화의집협회)

## 7) 지방문화원 중심 지역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 사업 목적
  - 전국 220개소에 설치된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표준문화체험 프로그램 시행을 통한 지역의 문화소의 계층에 대한 다양한 문화향수 기회제공 및 지역 민간단체의 지역문화진흥 활동 활성화 도모
- 사업 기간 : 04. 7 ~05. 1
- 주관 기관 : 전국문화원연합회
- 소요 예산 : 3,664,000,000원
- 지원 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대상 : 전국문화원연합회(특수법인)을 통한 220개 지방문화원
- 지원기준 : 220개문화원 정액보조+우수 사업자 인센티브
- 지원내용 : 표준 프로그램 모델 개발 제시 이후 각 지방문화원별 해당 문화 체험프로그램 시행 지원

- 지원절차
  - 표준모델 프로그램 개발 제시후(8월초)
  - 지방문화원별 자체 세부시행계획서 작성 제출(8월중)
  - 프로그램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 확정(8월말)
  - 각 문화원별 예산지원 및 사업시행(9월~10월)
  - 사업평가후 우수문화원 인센티브 지원(10월말)

## 나. 자체사업

- 부록 1의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 복권기금사업 자체평가보고서' 참조

## 6. 국민모니터링 성과평가

### 가.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국민 모니터링 추진 현황

- 1) 국민 모니터링 요원 모집
  - 일시 : 2004. 3. 19 ~ 3. 25
  - 신청인원 : 515명
  
- 2) 국민 모니터링 요원 선정
  - 전문 모니터링 요원 : 9개 분야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 다원, 문화일반, 예술정책), 각 1명씩 총 9명
  - 일반 모니터링 요원 : 총 91명
    - 지역별 분포도
      - 서울 50명, 경기도 및 인천 22명, 대전 1명, 대구 2명, 광주 2명, 부산 4명, 강원 1명, 충북 1명, 충남 1명, 전북 4명, 전남 1명, 경남 1명, 제주 1명
    - 연령별 분포도
      - 20대 50명, 30대 32명, 40대 7명, 50대 2명
    - 관심분야별 분포도
      - 문학 7명, 전시예술 15명, 공연예술 47명, 전통예술 6명, 다원/문화일반 16명
  
- 3) 국민 모니터링 요원 인터넷 오리엔테이션 : 2004. 4. 12
  
- 4) 국민 모니터링 추진 : 2004. 4. 7 - 11. 30
  
- 5) 국민 모니터링 설문조사 : 2004. 11. 11 - 11. 21
  
- 6) 국민 모니터링 간담회 : 2004. 11. 25(목)
  
- 7) 2004년도 국민 모니터링 추진실적 : 총 1,188회, 294건 (건당 평균 4명 수행)

※ 표 1. 2002 - 2004 국민모니터링 추진실적

	2002년	2003년	2004년
횟 수	527회	1,169회	1,188회
건 수	150건	290건	294건
등 급	B	B	B
평균점	76.5점	77.83점	78.16점

## 나. 국민모니터링 평가현황 및 평가결과

### 1) 문예진흥기금사업 국민모니터링 평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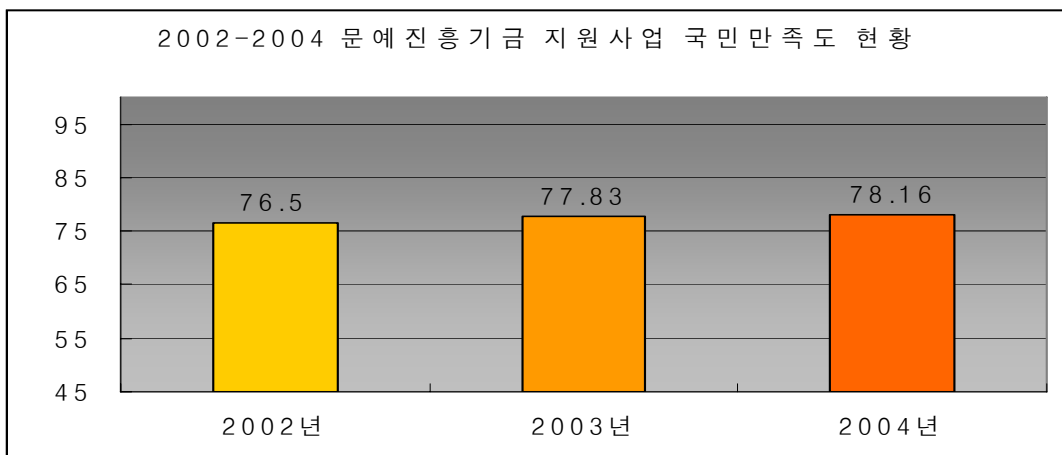
실시 3회째로 접어든 국민모니터링 평가 실적은 2003년도에 회수와 건수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으며, 2004년도의 경우 전년도와 대비하여 소량 성장한 가운데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참조)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국민모니터링 평가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적으로 모집한 국민모니터링 요원이 지원사업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모니터링하였으며, 지원목표별 가중치를 토대로 주요평가기준인 <사업 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해당 성과 목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만족도>를 바탕으로 국민의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 2) 문예진흥기금사업 단위사업(지원유형)별 국민 모니터링 평가실적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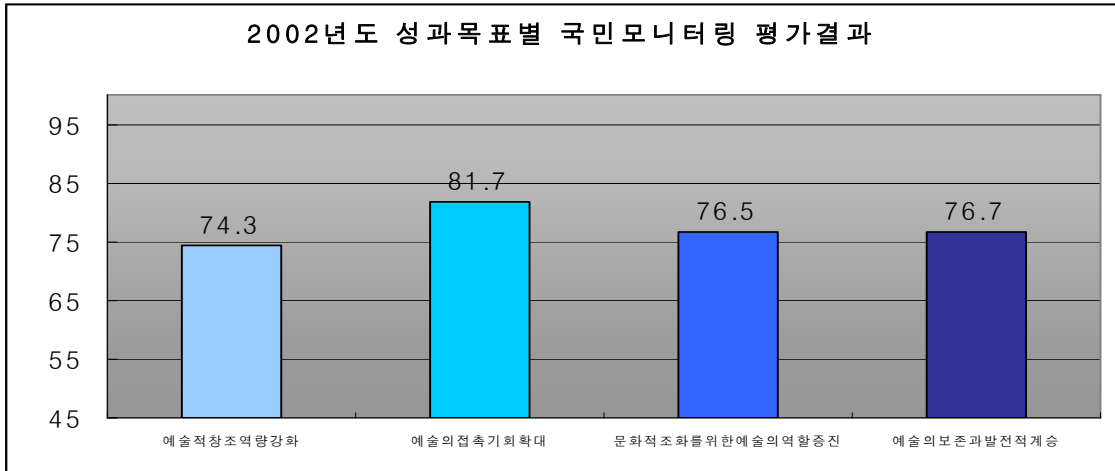
구분	예술 창작 지원	창작 공연 활성화 지원	다원적 예술 활동 지원	신진 예술가 지원	전국 규모 예술 행사 지원	기획 전시 공연 지원	찾아가는 예술 활동 지원	문화 예술 체험 지원	함께 하는 문화 복지 지원	통일 민족 문화 교류 지원	문화 예술 국제 교류 지원	예술 보존 조사 연구 지원	전통 예술 발표 및 전승 보급	계
연간 모니터링 가능 건수	198	37	37	28	2	23	24	124	46	5	46	22	123	715
평가 건수	103	12	20	15	2	2	11	47	11	1	22	10	38	294
비율 (%)	52	32	54	54	100	9	46	38	24	20	48	45	31	41

### 3) 2002년 - 2004년 문예진흥기금사업 국민모니터링 종합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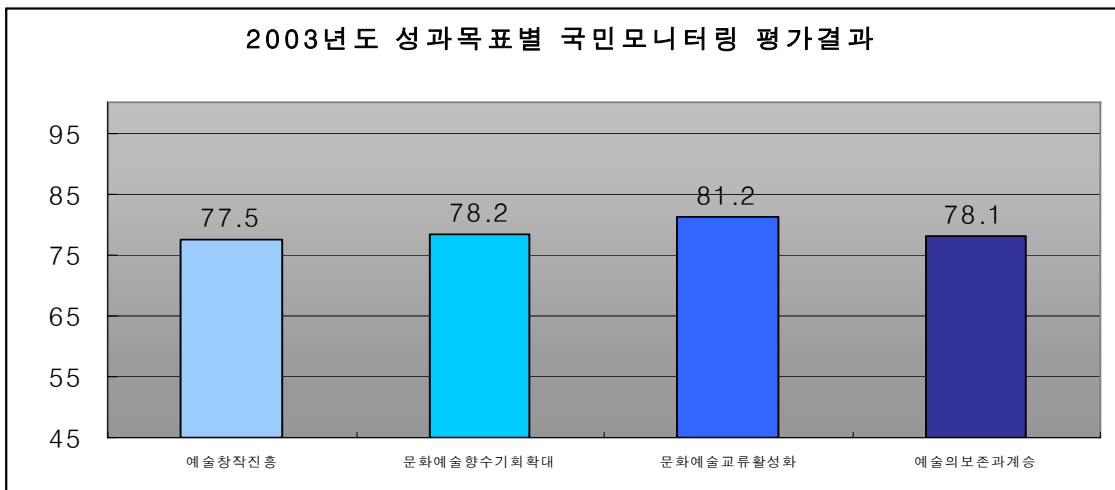


4) 2002년 - 2004년 문예진흥기금사업 성과목표별 국민모니터링 종합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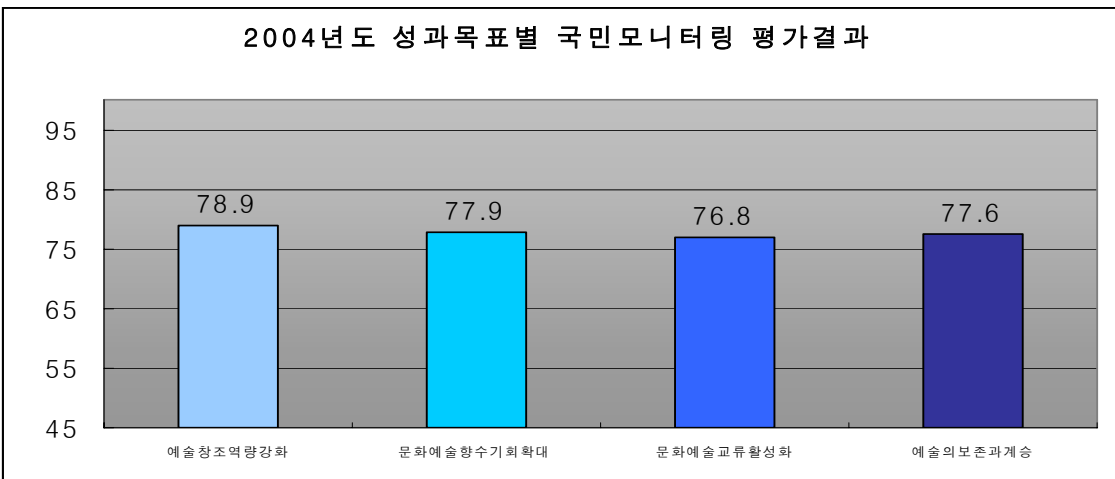
○ 2002년도



○ 2003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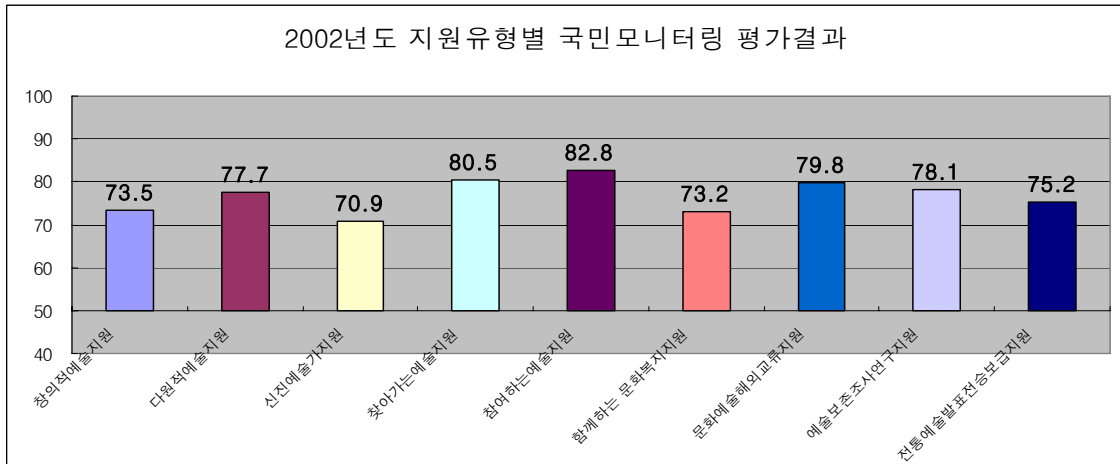


○ 2004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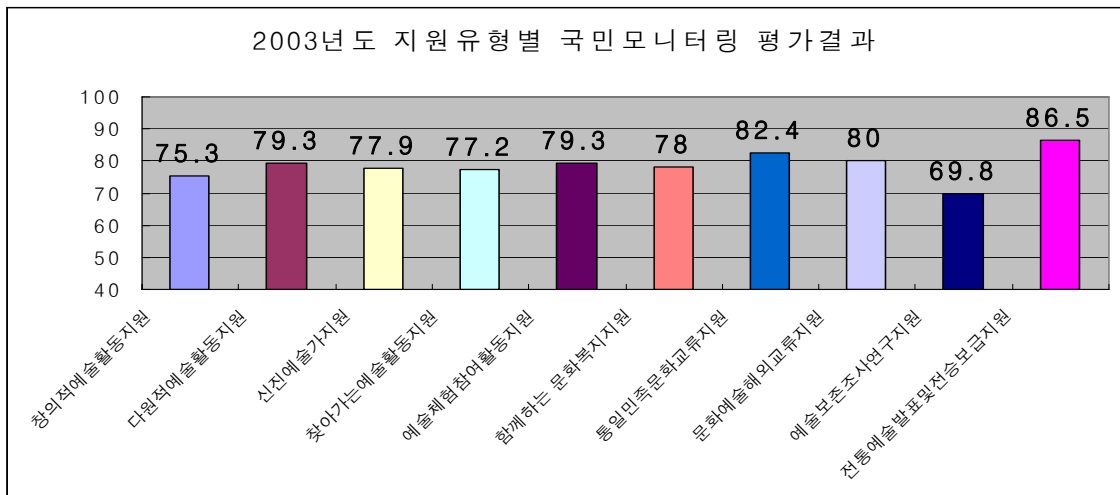


5) 2002년 - 2004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유형별 국민모니터링 종합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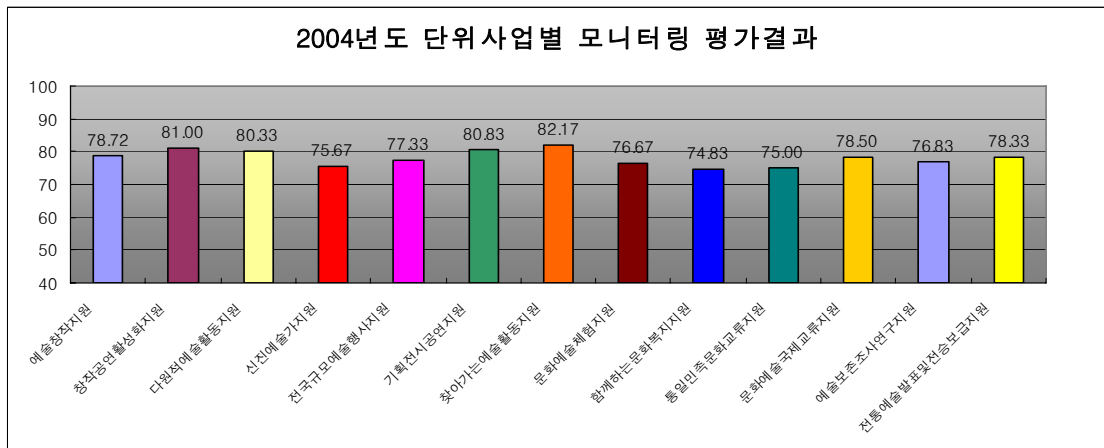
○ 2002년도



○ 2003년도



○ 2004년도



○ 평가결과 분석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국민 모니터링 요원들이 수행한 평가를 바탕으로 문예진흥기금의 만족도를 분석해 본 결과, 위와 같은 결과치를 얻었다. 실제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은 구체적인 성과목표의 달성을 위해 단위사업(지원유형)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2004년에는 보다 세분화된 여러 분야에서 모니터링 평가가 수행되었다.

2004년도 평가실적에 따른 평가결과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얻어진 전체 평균은 78.16점으로, 2002년도의 76.50점, 2003년도의 77.83점과 비교해 볼 때 평균점이 꾸준히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4년도의 경우 특기할 점은 4대 성과목표 중 이전에는 최하의 만족도를 기록했던 '예술창조역량강화' 목표에 대한 만족도가 78.9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반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 왔던 '문화예술교류활성화' 목표의 경우 76.8점으로 상대적인 최하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4대 성과목표별로 4-7점에 달하는 차이가 나타난 2002년 - 2003년에 비해 2004년의 경우 각 성과목표별 사업들이 비슷한 점수대의 평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최대 점수와 최소 점수의 차이 : 2.1점) 이는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이 성과목표별로 비교적 균일한 성실도로 수행되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다. 국민 모니터링 요원 대상 설문조사 주요 결과

1) 설문자 일반현황

- 응답자 비율 : 67.6% (응답자 48명 / 모니터링 실지 참여자 71명 중)
- 응답자 성비 : 14.6% / 85.4% (남성 / 여성)
- 응답자 지역분포 : 83.3% / 16.7% (서울 및 경인 / 기타지역)

2) 예술적 완성도, 문화적 파급효과 및 국민만족도, 문예진흥기금 지원방향

- 문화예술적 우수성 및 완성도
  - 대체로 만족하는 정도 / 64.6%
  - 보통 / 29.2%
- 일반 국민과 해당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적 기여도와 파급효과
  - 대체로 높은 정도 / 37.5%
  - 당연히 기대되는 정도(보통) / 39.6%

- 일반 국민들의 종합적인 만족도
  - 대체로 높은 정도 / 45.8%
  - 당연히 기대되는 정도(보통) / 39.6%
- 지원단체의 서비스 수준
  - 보통 / 35.4%
  - 대체로 미흡한 정도 / 43.7%
- 문예진흥기금 지원방향에 대한 의견
  - 지원단체의 자체적 사업운영 전문화와 이에 따른 지원 / 33.3%
  - 일반국민 대상 수용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 / 33.3%

3) 문예진흥기금사업 및 모니터링 제도 운영 관련 의견

- 지원금 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 필요
- 지원단체의 홍보부진. 적극적 마케팅 필요
-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필요
- 철저한 사후평가와 그 내용의 심의 반영 필요
- 모니터링 시기 초에 오리엔테이션 간담회 개최
- 사업 특성별로 평가항목의 차별화, 다양화 및 배점의 세분화 필요
- 더 많은 모니터 요원을 선정하여 전수평가 필요
- 정보의 효율성 제고 필요
- 모니터링 요원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문화예술 홍보 기능 강화

※ 보다 자세한 결과는 부록의 2004 국민모니터링 설문결과 참조

### Ⅲ. 기관운영 평가

# 1. 경영혁신 과제 추진 실적

코드	과제 및 추진내용	추진 시한	세부추진실적
1.	조직·인사관리의 합리화		
1-1 (미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명 : 다면평가제 도입 등 직원 평정제도 개선</li> <li>○ 추진내용 : 상급자만의 평정제도를 개선하여 보다 합리적인 인사관리 추진</li> <li>○ 추진효과 : 업무 효율화 및 창의적 업무제도 구현</li> </ul>	'0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완료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면평가제 세부추진 방안은 마련되었으나, 직원평정제도 개선은 단체협약에 의거 노사협의를 거쳐 확정할 사항으로서 현재 노사협의 진행중임</li> </ul> </li> <li>○ 기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 평정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자료 수집 및 최적모형 분석</li> <li>- 다면평가를 도입하여 추진한 성과평가 점수의 반영방안 마련</li> </ul> </li> <li>○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년도 1/4분기내 노사협의를후 추진 방안 확정 예정</li> </ul> </li> </ul>
1-2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명 :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li> <li>○ 추진내용 : 직위·직급·직종에 부합하는 전문 교육제도 마련</li> <li>○ 추진효과 : 전직원의 교육참여 및 전문성 향상</li> </ul>	'0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 교육훈련 추진내용(1/4~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 소양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경영 도입 등 2개 분야 : 전직원 교육 4회</li> <li>· 리더쉽 혁신과정 : 임원·부서장 교육 9명</li> <li>· 문화마인드정립 기본교육 등 2개분야 : 개인 교육 67명</li> </ul> </li> <li>- 직무 전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경영 업무 등 9개분야 직무교육 : 25명</li> <li>· 어학능력향상 교육 : 15명</li> </ul> </li> </ul> </li> </ul>

코드	과제 및 추진내용	추진 시한	세부추진실적
2.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2-1 (완료)	<p>○과제명 : 기금의 수익성 제고 등을 통한 자체 수입 증대</p> <p>○추진내용 : 기금운용 적극화, 신규재원 개발</p> <p>○추진효과 : 모금폐지에 따른 대체재원의 확보</p>	'04.12	<p>○기금운용위원회 기능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금운용자문회의를 기금운용위원회로 확대 개편(2/4분기)</li> <li>- 위원확충 보장 : 현 6명→ 8명(2/4분기)</li> <li>- 위원회 회의의 확대, 정례화 (총 4회 개최)</li> <li>- 기금운용 정책 수립 및 운용 의사결정 과정에 협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li> </ul> <p>○신규재원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서울CC 관련 신규수익사업 개발</li> <li>· 신규사업 T/F팀 신설 운영(1/4분기)</li> <li>· 신규사업 타당성조사 실시(2/4분기, 외부전문기관 의뢰)</li> <li>· 신규사업과 관련 문화관광부 보고(4/4분기)</li> <li>- 기부금 모집 활성화</li> <li>· 문예진흥기금 기부제도 활성화 중기 계획 수립 보고(4/4분기)</li> <li>· 문예진흥기금 기부제도 전반에 대한 재조정을 하기위한 연구 용역 계약 체결(4/4분기)</li> </ul>

코드	과제 및 추진내용	추진 시한	세부추진실적
3.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		
3-1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명 :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개선</li> <li>○추진내용 :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li> <li>○추진효과 : 합리적인 업적 평가제도 시행을 통한 업무 성과 제고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li> </ul>	'0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대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현황 분석 및 의견 수렴('04.8~10)</li> <li>- 업무추진실적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04.11.24)</li> <li>-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04.12.24)</li> </ul> </li> <li>○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부패활동에 대한 평가항목 추가</li> <li>- 지식경영활동에 대한 평가항목 추가</li> </ul> </li> </ul>
3-2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명 : 기금운용의 위험관리 체계 개선</li> <li>○추진내용 : 기금운용의 위험관리 및 대처를 위한 지표 연구 (외부전문기관과 공동 추진)</li> <li>○추진효과 : 기금운용의 위험관리 대처 및 안정적 기금운용 도모</li> </ul>	'0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량 위험관리지표(VAR)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 위험관리지표인 VAR지수 산출 허용위험도 지표로 활용</li> <li>- 기금운용위원회 VAR도입 협의 보고 (3/4분기)</li> <li>- 위험관리 위탁계약사인 한국펀드평가(주)에 산출활용 아웃소싱 계약 체결 (2/4분기)</li> </ul> </li> </ul>
3-3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명 : 지식경영 체제 구축</li> <li>○추진내용 : 직원 각자가 갖고 있는 지식정보를 직원 전체가 공유·활용하기 위한 체제 구축</li> <li>○추진효과 : 흩어져 있는 지식자원을 효율적으로 수집, 관리, 활용 등 효율적 운영을 통한 조직 전체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li> </ul>	'0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계획수립 완료('04.2.2)</li> <li>○직원 지식경영 자체교육 실시('04.4.2)</li> <li>○지식지도 작성 완료('04.5.10)</li> <li>○전자결재 내 지식경영 시스템 운영 ('04.5.20)</li> <li>○자료등록(2/4~4/4분기) : 총 1,070건</li> </ul>

코드	과제 및 추진내용	추진 시한	세부추진실적
4.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4-1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명 : 민원업무 처리 강화</li> <li>○ 추진내용 : 민원업무 처리방안 개선</li> <li>○ 추진효과 : 공개적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li> </ul>	'0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버민원 운영 개선('0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처리절차에 대한 자세한 이용안내 및 유의사항 등 내용 보완 및 추가 게시</li> <li>· 민원내용에 대하여 공개 및 비공개를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며, 접수된 민원은 처리상황, 처리부서 등을 바로바로 민원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함</li> </ul> </li> <li>- 민원 접수·처리 건수(1/4~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버 민원 : 98건</li> <li>· 인터넷 정보공개 : 15건</li> <li>· 일반민원 : 13건</li> </ul> </li> </ul> </li> </ul>
4-2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명 : 보유 시설물의 대국민 이용 확대</li> <li>○ 추진내용 : 주차장 등 일반인 시설 활용</li> <li>○ 추진효과 : 대국민 서비스 확대</li> </ul>	'0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상가 임대건물을 일반인 및 예술인 이용시설로 전환</li> <li>- 위치 : 예충회관 옆 '문화가족 쉼터'</li> <li>- 개소일 : 2004.5.20.</li> </ul> </li> <li>○ 운영효과 : 일반국민들에 대한 문화예술 관련 정보제공서비스 및 예술인 교류 활성화 촉진</li> </ul>
4-3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명 : 국민제안참여센터 운영 지속</li> <li>○ 추진내용 : 우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의 다양한 제안 참여 유도</li> <li>○ 추진효과 : 국민의 정책 제안, 제도 개선 제안 등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li> </ul>	'0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년도 국민제안참여센터 대상과제안 수립(내부, '04.5.10)</li> <li>○ 국민제안참여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04.6.21~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사업명 : 「의견을 듣습니다」</li> <li>- 운영방법 : 우리원 홈페이지에 별도 코너를 마련, 연중 상설 운영</li> <li>- 제안 접수 및 조치 실적 : 총12건 (개선요청 4건, 질문 5건, 민원3건)</li> </ul> </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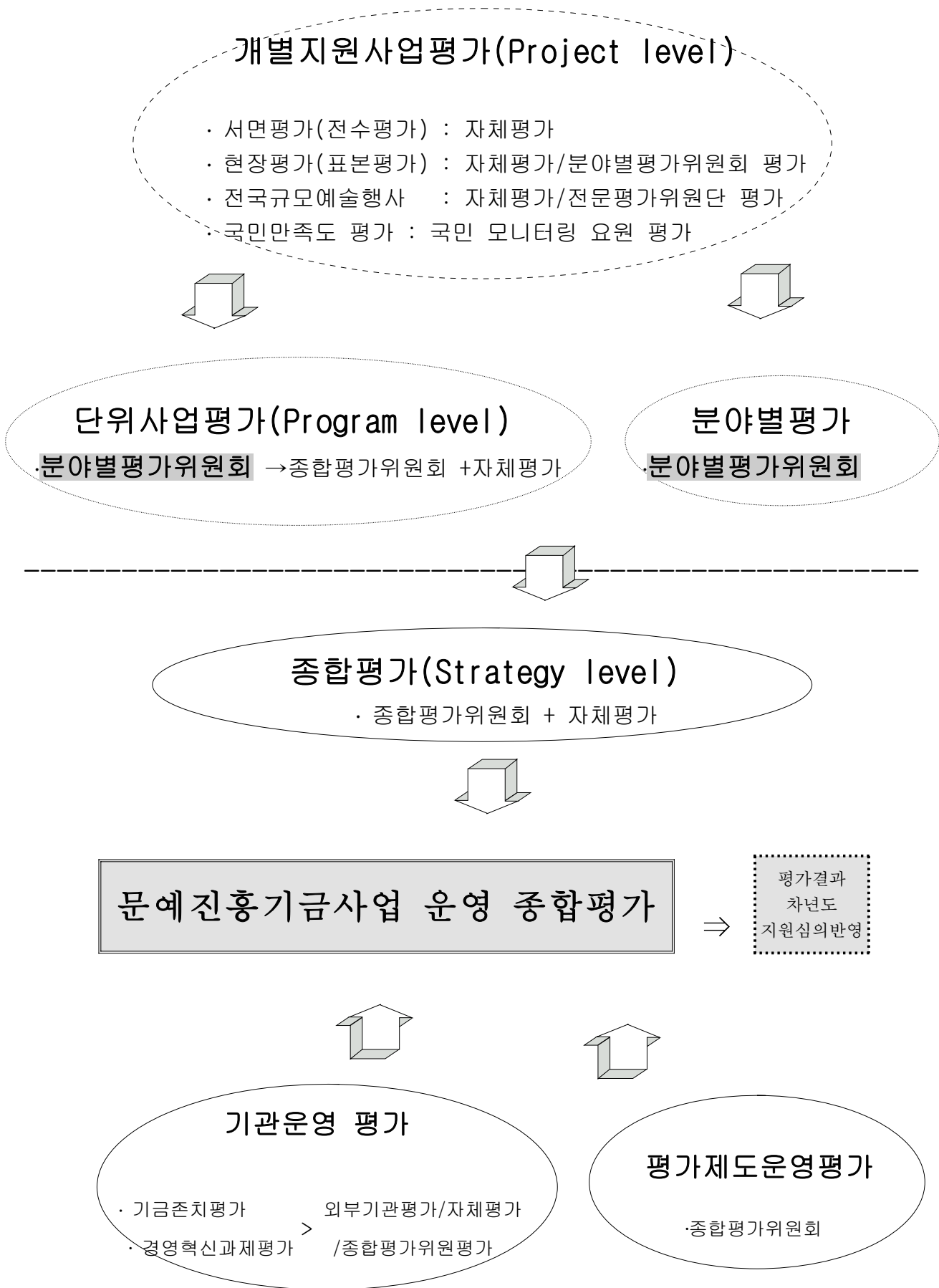
코드	과제 및 추진내용	추진 시한	세부추진실적
4-4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명 :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고객지향 시설운영</li> <li>○ 추진내용 : 우리원 예술극장, 마로니에미술관, 예술정보관, 문화예술연수원 등 대중 이용 문화시설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고객 불만사항에 대한 개선 과제 적극 발굴 및 시정</li> <li>○ 추진효과 :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고객 불편사항 개선</li> </ul>	'0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극장 관람객 고객만족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수립('04.5.10)</li> <li>- 실시기간 : 5.15 ~ 7.20(총15회)</li> <li>- 조사방법 : 장르별 관람객 설문조사</li> <li>- 설문내용 : 인지도, 선호도, 극장환경, 관람객 응대 태도 등</li> <li>- 설문지 회수 : 550부</li> <li>- 설문분석내용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람좌석 공간 확대 및 고객서비스 강화 교육 실시 등 관람객 불편사항 발굴 해소</li> </ul> </li> </ul> </li> <li>○ 예술정보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기간 : 6.14 ~ 7.3 (3주간)</li> <li>- 조사방법 : 방문이용자 설문조사</li> <li>- 설문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 서비스, 시설 및 기자재 등 예술정보관 운영 전반</li> </ul> </li> <li>- 설문지 회수 : 140부</li> <li>- 설문분석내용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람실 소음문제 등 불만족요인 개선대책 마련</li> </ul> </li> </ul> </li> <li>○ 마로니에미술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기관 : 동덕여대 (연구자 : 큐레이터학과 교수)</li> <li>- 조사기간 : 7월~12월</li> <li>-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 대상으로 설문지 및 인터뷰조사</li> <li>· 잠재 이용자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li> </ul> </li> <li>- 설문 및 인터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의 인식 및 요구 분석</li> <li>· 미술관의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 및 요구 조사</li> </ul> </li> <li>- 추진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 인터뷰 결과 분석을 통하여 2005년도 미술관 전시 및 프로그램 시설 개보수 추진시 적극 반영</li> </ul> </li> </ul> </li> </ul>

코드	과제 및 추진내용	추진 시한	세부추진실적
(4-4)	(과제명 :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고객지향 시설운영)	(‘04.1 2)	○ 문화예술연수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실시기간 : 각 연수별 개별추진 - 조사방법 : 교육생 설문조사 - 설문내용 : 강의평가, 연수만족도, 시 설만족도 등 - 설문조사 횟수 및 인원수 · 단기연수 : 23회, 769명 · 무대예술아카데미 교육 : 2회, 97명
5.	<b>경영 투명성 및 윤리 경영체제 확립</b>		
5-1 (완료)	○ 과제명 : 조달업무의 투명성 · 효율성 제고 ○ 추진내용 : 전자조달 비율 확대 ○ 추진효과 : 조달과정의 투명성 제고	‘04.12	○ 전자조달 추진내용(1/4~4/4분기) - 구매 : 14건 / 90,795,600원 - 공사 : 3건 / 1,543,215,699원
5-2 (완료)	○ 과제명 : 경영의 투명성 제고 ○ 추진내용 : 위원회의 사업 추 진상황 및 예산·자금운영 등 주요경영사항 공시 및 관련자 료 수시 보완 ○ 추진효과 : 우리 원의 업무내 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 자료를 게시함으로써 문 화행정의 투명성 제고	‘04.12	○ 2004년도 경영공시추진계획 수립(‘04.2.3) ○ 기존자료 수정 보완 및 추가자료 게시 (2/4~4/4분기) - 일반현황, 기금조성현황, 사업계획 및 운영성과, 지원시설안내, 예산 및 결 산, 관련법규, 경영혁신, 외부평가 등 (기존목록수 : 49 / 수정보완추가목록수 : 62 / 기존목록수 대비 79.03% 증가)
6.	<b>책임경영체제 및 성과관리시스템 강화</b>		
6-1 (완료)	○ 과제명 : 이사회 활성화 지속 추진 ○ 추진내용 : 정기이사회 이외에 수시 업무보고 등 이사회운영 활성화 지속 추진 ○ 추진효과 :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를 통한 기관운영의 투명 성 및 효율성 제고	‘04.12	○ 이사회 운영 추진(1/4~4/4분기) - 개최횟수 : 7회(제177회~제183회) ※ 정관상 정기이사회 소집은 연4회로 규정 - 안건심의건수 : 2004년도 뉴서울골프장(특 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7건 - 업무보고건수 :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 운용계획 등 14건 ○ 이사진 간담회 추진(1/4~4/4분기) - 개최횟수 : 7회 - 내용 : 조직운영 체제 개편(안) 보고 등 13건

코드	과제 및 추진내용	추진 시한	세부추진실적
7.	기 계획된 경영혁신과제의 지속 추진		
7-1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인사관리의 합리화(조직 재설계)</li> <li>- 전문위원제 및 사업팀제 도입을 통한 조직 활성화</li> </ul>	'0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개편 완료('04. 2. 17)</li> <li>- 6부 14개팀을 3실 4관 7팀 체제로 전환</li> </ul>
7-2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한·책임 명료화 및 하부위임</li> <li>- 하부 위임 확대를 통하여 의사결정 및 사업 추진의 능률성·효율성 제고</li> </ul>	'0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정 개정 추진 완료('04. 3. 12)</li> <li>- 개편된 직제에 따라 위임전결권 설정 및 정비</li> </ul>

## IV. 평가제도 운영평가

# 1.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 심사평가 추진 체계



## 2.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 심사평가 추진 방안

### 1) 중점 목표

- 목표 지향적 성과관리 체제에 부합된 심사평가제도의 지속 정착 및 개선
- 평가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현장평가 강화 및 체계적인 누적 평가 관리 시스템의 운영
- 문예진흥기금사업의 국민만족도 측정을 위한 평가관리 지속 및 결과 적극 반영
- 실질적인 기금사업운영 및 기관경영 개선을 위한 효율적 평가 실시

### 2) 주요 추진 방침

- 본격적인 심사평가 4년차를 맞이하여 동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전년도에 기본 계획과 그 성과 틀을 유지하되, 보완해야할 사항을 적극 반영 개선함
- 평가위원회와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시 분야별 1인이 상호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심의 전에 심의를 대비한 평가회의를 별도 개최하여 평가의견이 지원심의회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사평가와 지원심의회 연계성 강화를 통해 현장성과 책임성을 확보함
- 평가서에 평가자의 의견을 직접 기재하도록 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량적 평가(점수) 외에 정성적 평가(중요 의견)를 지원심의 및 사업 개선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가서의 지표 및 배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예술정책(행정)분야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문화예술향수기회확대' 성과 목표 사업의 평가에 참여시켜, 금년도 사업을 대폭 개선한 '찾아가는 예술 행사지원사업'의 성과 측정에 새로운 시각의 의견을 반영함
- 전년에 비해 50% 이상 증가된 건수의 현장평가 외에 년도 중반에 선정되는 창작공연활성화지원사업 등 집중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등 현장평가를 강화함.
- 집중지원 사업 중 특별한 점검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일반평가와 달리한 심층평가를 실시 후 보고서를 만들고 개선책을 제시하여 차기년도 사업운영에 적

## 극 반영을 꾀함

- 평가위원 수 확대를 통해 동일 사업에 2인 이상의 평가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1개 사업이 장기간 또는 다수 지역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평가자가 서로 다른 프로그램의 평가에 참여토록 안배하여 균형 있는 평가를 유도함
- 문예진흥기금사업의 평가에 국민의 보다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만족도 평가의 효과성을 한층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모니터링제도(일반모니터링요원 및 전문모니터링요원으로 구분)를 지속, 운영함.
- 지원협력실, 경영기획팀, 관련 지원부서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심사평가 결과가 지원심의, 사업계획 수립 등 문예진흥기금사업운영 및 기관경영에 최대한 실질적으로 피드백(feed-back)될 수 있도록 함.

### 3. 분야별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 가. 구성 : 2004년도 분야별 평가위원 및 전문 모니터링 요원

분야 (인원)	성명	성별	생년	현직 / 주요 경력	비고
문학 (3)	최인석	남	1953	소설가	04지원심의위원
	김성수	남	1959	문학평론가, 성대 교수	03전문모니터링요원
	이동재	남	1965	전주대학교 객원교수, 문학박사	전문모니터링요원
미술 (5)	최민	남	1944	미술평론가, 예종 미술원 교수	04지원심의위원
	강성원	여	1955	미술평론가	03평가위원, 04지원심의위원
	고충환	남	1962	미술평론가	신규
	이선영	여	1967	미술평론가, 미술평단 편집장	신규
	민병직	남	1970	서울산업대, 계원조형예술대 강사	전문모니터링요원
음악 (4)	김용환	남	1958	음악평론가, 한세대 교수	04지원심의위원
	정완규	남	1957	음악평론가, 중앙대 교수	03평가위원
	장일범	남	1968	음악평론가	신규
	하지숙	여	1973	KBS음악실 구성작가, 2003 전문모니터링요원	전문모니터링요원
무용 (4)	문애령	여	1959	무용평론가	04지원심의위원
	김채현	남	1954	무용평론가, 예종 무용원 교수	03평가위원
	이종호	남	1953	무용평론가, 연합뉴스 기자	신규
	송종건	남	1954	무용평론가	전문
연극 (5)	박계배	남	1957	연출가, 극단 서전 대표	04지원심의위원
	이영미	여	1961	연극평론가	03평가위원
	김명화	여	1966	연극평론가, 극작가	신규
	김미도	여	1964	연극평론가, 서울산업대 교수	신규
	박준용	남	1970	한양대, 총신대 강사	전문모니터링요원
전통 예술 (5)	임재원	남	1957	국악, 서울대 교수	04지원심의위원
	황루시	여	1951	민속, 관동대 교수	03평가위원
	진옥섭	남	1964	국악및무용평론, 전 KBS 굿모닝코리아 연출	신규
	신탁근	남	1947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사무국장	신규
	김명옥	여	1979	가야금 연주자, 기획자	전문모니터링요원
다원 예술 (3)	주홍미	여	1967	문화기획자	04지원심의위원
	안이영노	남	1966	문화평론가	03평가위원, 04지원심의위원
	서민갑	남	1973	ohmynews 게릴라 기자	전문모니터링요원
문화 일반 (3)	박찬	남	1948	시인,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04지원심의위원
	김윤태	남	1960	뉴욕대 연극교육학 박사, 단국대강사	03평가위원
	김영아	여	1969	연극배우, 국정 넷포터	전문모니터링요원
예술 정책 (3)	정갑영	남	1954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실장	03평가위원, 04지원심의위원
	이대회	남	1955	광운대 행정학과 (문화정책) 교수	02평가위원
	정동재	남	1973	대한민국 국회 정책비서관	전문모니터링요원
종합평가위원 (9인)	김성수(문학), 강성원(미술), 정완규(음악), 문애령(무용), 박계배(연극), 임재원(전통), 주홍미(다원), 박찬(문화일반), 정갑영(예술정책) / 분야별 각 1명				

## 나. 역할

- 1) 문예진흥기금사업평가 중 단위사업평가 및 분야별 평가
- 2) 각 위원별로 분담한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개별 평가(현장평가)

## 4.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

### 가. 문예진흥기금사업평가

#### 1) 종합(Strategy level) 평가

- (1) 중점 정책목표의 타당성 및 종합 달성도
- (2) 문예진흥사업의 구조와 운영, 지원관리체계의 적정성
- (3) 분야간, 핵심역량사업간, 4대 목표간 자원배분의 적정성

#### 2) 단위사업(Program level) 평가

- (1) 계획 수립 단계 : 14개 핵심역량사업에 대한 목표의 타당성, 계획의 적정성
- (2) 추진 단계 : 추진(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 (3) 종결 단계 : 목표의 종합 달성도와 사업의 효과성

#### 3) 개별지원사업(Project level) 평가

##### 【 서면평가대상사업 평가 】

- (1) 사업 계획 실현의 충실성
- (2)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3) 종합평가

##### 【 현장평가대상사업 평가 】

- (1) 사업 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 (2)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3) 해당 성과 목표의 종합 달성도 및 기금지원의 성과만족도
- (4) 향후 지원심의에 반영할 의견

##### 【 심층평가대상사업 평가 】

- (1) 대상 사업별로 평가계획 별도 수립 시행

## 【 전체지원사업 - 국민만족도 평가 】

- (1) 사업 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 (2)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3) 해당 성과 목표의 종합 달성도 및 기금지원의 성과만족도

### 나. 기관운영평가

#### 1) 기금존치평가

- (1) 기금 존치 여부와 관련하여 기획예산처 등 외부 기관을 통해 평가
- (2) 외부기관의 평가결과를 종합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 반영  
※ 2003년도의 경우 우수기금으로 선정되어 기존의 기금운용평가대상 제외

#### 2) 경영혁신과제 평가

- (1) 2004년도 기관 경영 혁신 과제 평가
- (2) 경영기획팀에서 경영혁신과제를 추진하고 자체 평가결과를 종합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 반영

### 다. 평가제도운영평가

- (1) 평가 결과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한 평가
- (2) 평가제도 운영 목표의 달성도와 효율성에 대한 평가

## 5.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심사평가 추진 절차

### 가. 단위사업별/분야별 평가 중점 착안사항

- 1) 단위사업별 사업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총평
  - ◆ 기획, 연출, 구성, 내용 등 프로그램의 참신성과 독창성, 차별성에서 탁월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가치 중심의 평가)
  - ◆ 기획, 연출, 구성, 내용 등 프로그램의 완성도에 만족할 수 있는가(형식 중심의 평가)
- 2) 단위사업별 지원목표(분야)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 수용자(관람객 등)의 규모, 연령, 지역적 범위의 분포 등을 고려한 참여정도와

호응도가 높았는가

◆ 해당 지원목표(분야) 관련 전문가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높았는가

3) 해당 성과목표의 종합 달성도

◆ 해당 성과목표의 달성에 대한 비계량적 성과까지 포함하는 종합평가

### 나. 단위사업별/분야별 사업 실행의 분석, 평가

## 6.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표

지원목표 평가항목	예술창조역량 강화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문화예술 교류활성화	예술의 보존과 계승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사업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30	16	26	24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16	30	20	22
해당 성과목표의 종합 달성도 및 기금지원의 필요성 정도	14	14	14	14
계	60점	60점	60점	60점

※ 평가 항목별 배점

- 개별 지원대상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 총 40점, 현장평가 총 60점으로 함.
- 현장평가의 경우, 지원목표별로 평가 가중치를 적용
- 현장평가 항목별 배점 총괄

## 7. 심사평가 대상사업 현황 분석 (2004.12.31 현재)

### 가. 심사평가 실적

#### 1) 평가 대상사업 선정

- 서면평가 : 전 지원대상사업 1,184건(연도중반 지원사업 포함)
- 현장평가 : 표본 추출(sampling)한 지원대상사업 335건

#### 2) 심사평가 실적

##### 가) 2004년도 심사평가 실적 (2004.12.31 기준)

- 평가건수

구분	대상건수	평가건수	추진율	비고(05.2월기준)
서면평가	1,184건	657건	55%	893건
현장평가	335건	259건	77%	266건
총평가실적	1,184건	728건	61%	

- 총평균점 : 80.44점 (B등급)

##### 나) 분야별 기준

- 분야별 전체 평가 실적

구분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	기금심의	계
연간 평가 대상 건수	233	176	128	100	148	195	47	96	61	1,184
평가 건수	118	97	98	61	116	120	31	63	24	728
비율 (%)	51	55	77	61	78	62	66	66	39	61

- 분야별 서면평가 실적

구분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	기금심의	계
연간 평가 대상 건수	233	176	128	100	148	195	47	96	61	1,184
평가 건수	112	79	89	54	105	114	25	58	21	657
비율 (%)	48	45	70	54	71	58	54	60	34	55

○ 분야별 현장평가 실적

구분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	기금심의	계
연간 평가대상 건수	19	54	39	34	66	72	15	24	12	335
평가 건수	19	42	34	26	55	40	15	24	4	259
비율 (%)	100	78	87	76	83	56	100	100	33	77

다) 단위사업(지원유형)별 기준

○ 단위사업별 전체 평가 실적

구분	예술 창작 지원	창작 공연 활성화 지원	다원적 예술 활동 지원	신진 예술가 지원	전국 규모 예술 행사 지원	기획 전시 공연 지원	기간 문예 단체 지원	찾아 가는 예술 활동 지원	문화 예술 체험 지원	문화 예술 참여 지원	함께 하는 문화 복지 지원	통일 민족 문화 교류 지원	문화 예술 국제 교류 지원	예술 보존 조사 연구 지원	예술 자료 정보화 및 보존 보급	전통 예술 발표 및 전승 보급	계
연간 평가 대상 건수	358	46	47	57	6	52	2	26	128	1	52	25	134	79	24	147	1,184
평가 건수	210	32	31	25	1	23	0	25	96	0	37	18	101	35	4	90	728
비율 (%)	59	70	66	44	17	44	0	96	75	0	71	72	75	44	17	61	61

○ 단위사업별 서면평가 실적

구분	예술 창작 지원	창작 공연 활성화 지원	다원적 예술 활동 지원	신진 예술가 지원	전국 규모 예술 행사 지원	기획 전시 공연 지원	기간 문예 단체 지원	찾아 가는 예술 활동 지원	문화 예술 체험 지원	문화 예술 참여 지원	함께 하는 문화 복지 지원	통일 민족 문화 교류 지원	문화 예술 국제 교류 지원	예술 보존 조사 연구 지원	예술 자료 정보화 및 보존 보급	전통 예술 발표 및 전승 보급	계
연간 평가 대상 건수	358	46	47	57	6	52	2	26	128	1	52	25	134	79	24	147	1,184
평가 건수	194	27	25	19	1	20	0	20	83	0	33	14	99	33	4	85	657
비율 (%)	54	59	53	33	17	38	0	77	65	0	63	56	74	42	17	58	55

○ 단위사업별 현장평가 실적

구분	예술 창작 지원	창작 공연 활성화 지원	다원적 예술 활동 지원	신진 예술가 지원	전국 규모 예술 행사 지원	기획 전시 공연 지원	기간 문예 단체 지원	찾아가는 예술 활동 지원	문화 예술 체험 지원	문화 예술 참여 지원	함께 하는 문화 복지 지원	통일 민족 문화 교류 지원	문화 예술 국제 교류 지원	예술 보존 조사 연구 지원	예술 자료 정보화 및 보존 보급	전통 예술 발표 및 전승 보급	계
현장 평가 대상 건수	63	29	15	17	1	11	0	26	39	0	20	8	43	12	0	51	335
평가 건수	54	18	15	12	0	4	0	21	38	0	15	6	36	10	0	30	259
비율 (%)	86	62	100	71	0	36	0	81	97	0	75	75	84	83	0	59	77

3) 국민(일반)모니터링평가 실적

(단위:건)

구분	예술 창작 지원	창작 공연 활성화 지원	다원적 예술 활동 지원	신진 예술가 지원	전국 규모 예술 행사 지원	기획 전시 공연 지원	찾아가는 예술 활동 지원	문화 예술 체험 지원	함께 하는 문화 복지 지원	통일 민족 문화 교류 지원	문화 예술 국제 교류 지원	예술 보존 조사 연구 지원	전통 예술 발표 및 전승 보급	계
연간 모니터링 가능 건수	198	37	37	28	2	23	24	124	46	5	46	22	123	715
평가 건수	103	12	20	15	2	2	11	47	11	1	22	10	38	294
비율 (%)	52	32	54	54	100	9	46	38	24	20	48	45	31	41

※ 국민모니터링평가 총횟수는 1,188회로서 294건 각각에 대하여 평균 4명이 수행

4) 참고 : 연간 평가 대상사업 건수 (2004.12.31 기준)

□ 분야별 지원대상사업

(단위:건)

구분	문학	미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	기금심의	계
지원대상건수	233	176	148	100	128	195	47	96	61	1,184

□ 현장평가 대상사업

(단위:건)

구분	예술 창작 지원	창작 공연 활성화 지원	다원적 예술 활동 지원	신진 예술가 지원	전국 규모 예술 행사 지원	기획 전시 공연 지원	기간 문예 단체 지원	찾아가는 예술 활동 지원	문화 예술 체험 지원	문화 예술 참여 지원	함께 하는 문화 복지 지원	통일 민족 문화 교류 지원	문화 예술 국제 교류 지원	예술 보존 조사 연구 지원	예술 자료 정보화 및 보존 보급	전통 예술 발표 및 전승 보급	계
연간 평가 대상 건수	358	46	47	57	6	52	2	26	128	1	52	25	134	79	24	147	1,184
현장 평가 대상 건수	63	29	15	17	1	11	0	26	39	0	20	8	43	12	0	51	335
비율 (%)	18	63	32	30	17	21	0	100	30	0	38	32	32	15	0	35	28

□ 서면평가 대상사업 (전수평가)

(단위:건)

구분	예술 창작 지원	창작 공연 활성화 지원	다원적 예술 활동 지원	신진 예술가 지원	전국 규모 예술 행사 지원	기획 전시 공연 지원	기간 문예 단체 지원	찾아가는 예술 활동 지원	문화 예술 체험 지원	문화 예술 참여 지원	함께 하는 문화 복지 지원	통일 민족 문화 교류 지원	문화 예술 국제 교류 지원	예술 보존 조사 연구 지원	예술 자료 정보화 및 보존 보급	전통 예술 발표 및 전승 보급	계
연간 평가 대상 건수	358	46	47	57	6	52	2	26	128	1	52	25	134	79	24	147	1,184
서면 평가 대상 건수	358	46	47	57	6	52	2	26	128	1	52	25	134	79	24	147	1,184
비율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나. 2005년도 지원심의 대상 평가결과 반영 실적

### 1) 심사평가 결과 반영 대상

- 2005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신청자(단체) 중 최근 3년간(2002~2004년) 심사평가(현장평가/서면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자(단체)

### 2) 심사평가 결과 반영 원칙

-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등급은 해당 단체의 사업 추진 종합 능력으로 간주, 2005년도 공통심의기준 중 '신청인(단체)의 사업 추진 능력' 항목에 적용함.
- 따라서 2002~2004년도 심사평가 종합 등급은 2005년도 지원신청사업의 분야나 유형에 관계없이 해당 신청인(단체)의 모든 신청사업 심의에 일괄 적용함.
- 심사평가 종합등급의 지원심의 반영시 일관성과 체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심사평가의 체계와 공통지원심의기준의 체계를 동일하게 A/B/C/D/E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적용함.
- 또한 문예진흥기금지원금관리규정시행세칙 제6조(정산 및 보고) ①항에 의거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케 되어 있는 보고서를 토대로 서면평가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이의 준수 정도를 심사평가 종합등급 책정 및 지원심의에 반영함.

### 3) 심사평가 결과 합산 및 등급 책정 방법

- ※ 최근 한해의 것을 60%, 그 전해까지의 것을 40%의 비율로 합산하여 반영
- 한 해만 평가를 받은 경우
  - 해당 연도의 점수(등급)를 그대로 적용
- 두 해만 평가를 받은 경우
  - 2002년 + 2003년 → 2002년 40% + 2003년 60%
  - 2002년 + 2004년 → 2002년 40% + 2004년 60%
  - 2003년 + 2004년 → 2003년 40% + 2004년 60%
- 세 해 모두 평가를 받은 경우
  - 2002~2003년 40% + 2004년 60%를 적용하되,
  - 2002년과 2003년을 1:3, 즉 2002년 10%, 2003년 30%의 비율로 함.

### 4) 평가등급 책정 기준

- 2002년 - 2004년도에 누적평가된 점수들을 토대로 아래 <표1>과 같은 일관된 등급책정기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함(2004년과 동일).

<표1>

등 급 책 정 기 준					비 고
A	B	C	D	E	
100점 ~ 88.0점이상	88.0점미만 ~ 75.0점이상	75.0점미만 ~ 63.0점이상	63.0점미만 ~ 50.0점이상	50.0점미만	2004년과 동일

※ 백점으로 환산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를 절삭(버림) 처리함

5) 2002년 - 2004년 누적 평가 현황

	2002년도	2003년	2004년 11월 30일 현재	2002-2004년 누적 평가 현황	(비고) 04 일반모니터링 평가현황
평가수행 단체수	843개 단체	797개 단체	581개 단체	1,582개 단체 (2002-2004 중복 639개 단체 제외)	1,188회, 294건
평가수행 사업수	1,036건	937건	735건		

6) 연도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종합 평가결과

종 합 평 가 결 과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비고
문예진흥기금사업 종합평가결과	평균점	77.87	76.2	79.62	
	등급	<b>B</b>	<b>B</b>	<b>B</b>	
	참고)국민 만족도 평가	76.5	77.83	78.16	

※ 2004년도 결과의 경우, 2004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심의에 반영되었으므로  
상기했던 2004년 12월 31일 기준 결과와 경미한 차이가 있음

7) 지원목표별 평가결과 종합

지 원 목 표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비고
예술창조 역량 강화	평균점	78.61	74.62	79.7	
	등급	<b>B</b>	<b>C</b>	<b>B</b>	
	참고)국민만족도 평가	74.99	77.33	78.85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평균점	75.28	75.58	78.17	
	등급	<b>B</b>	<b>B</b>	<b>B</b>	
	참고)국민만족도 평가	78.99	77.83	77.88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평균점	82.43	76.35	79.66	
	등급	<b>B</b>	<b>B</b>	<b>B</b>	
	참고)국민만족도 평가	78.33	81.33	76.75	
예술의 보존과 계승	평균점	76.66	79.91	81.65	
	등급	<b>B</b>	<b>B</b>	<b>B</b>	
	참고)국민만족도 평가	75.49	75.24	77.58	

8) 2002년 - 2004년 누적 평가 등급 결과(단체수)

2002년 - 2004년 누적 평가 등급 결과					비 고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116개	845개	532개	86개	3개	총 1,582개 단체 중 2005년도 지원심의에 735개 단체, 1,201건에 반영 * 미제출 포함시 1,205건
7.3%	53.4%	33.6%	5.4%	0.18%	

9) 2004년 11월 1일 이후 수행한 사업으로서 11월 30일 현재 제도적으로 서면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의 평가 결과는 2006년도 이후의 지원심의시 반영

10) 2004년 문예진흥기금사업 국민모니터링 평가결과 반영

- 국민모니터링 국민만족도 평가의 경우, 평가결과를 토대로 2005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사업개선, 사업 평가방향 수립시 적절한 사항을 반영할 예정임

## 8.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제도 평가

### 가) 종합평가위원 평가

#### 1) 김성수

기관 운영이나 평가 시행의 경우 단체 간 균분이나 인위적 안배를 정책적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시행했던 과거가 있었다면, 현 사업에 대한 세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어렵다. 더욱 공정하게 변화된 현행 지원 심의 원칙과 공정 투명한 평가방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다만 사업에 아예 지원도 한 적이 없어 계량적 실적 근거가 없더라도 참신한 기획과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해당분야의 지명도 높은 우수단체 및 개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견인책이 절실하다. 일종의 <기획 발굴 지원> 같은 아이템 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현 사업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하겠다.

오늘날은 지방화, 세계화시대인 만큼 수도권 중심의 우물 안 개구리 식 행사는 가급적 줄이고 지역행사 우선, 통일 및 해외 교류 우선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장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국외(북한을 포함) 사업과 행사의 경우 일종의 선심성 혹은 눈감아주기 지원, 교류를 빌미로 한 요식행사가 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교류사업 및 행사의 사전 기획과 준비상황부터 치밀하게 체크하고 현장 지원과 사후 평가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별도의 평가 시스템(매뉴얼)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전제 하에 지원 규모는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평가제도의 경우 현장 모니터, 평가위원과 담당 직원의 현장평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유기적으로 지원 심의에 반영됨에 따라 긍정적 성과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기금 지원 심의 시 행사 주관 단체에 대한 실제적인 평가결과가 반영되어 의미 있는 피드백이 이루어진 올해 성과를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을 제안한다.

끝으로, 문학분야가 아닌 정책분야에 대한 건의를 하나 한다면, 지원이 필요한 “원로문예인복지사업 등은 선심성이나 알음알음이 아니라 기준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의견의 보완 장치로, 예술정보관에서 주관하는 <한국근현대 예술사 구술채록사업>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구축한 원로예술인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자료(사망 여부 확인후)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감히 제안 드린다.

## 2) 강성원

### ○ 기관운영평가

- 그간의 운영방식과 운영효과에 비해 훨씬 뛰어난 비전과 능력, 객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조직이나 조직원의 이익이나 이해관계 보다는 문진기금사업의 목적과 원칙이 얻을 수 있는 바 공공이익과 이해가 무엇인지를 좀 더 앞세우는 방향에서 운영이 되어야한다고 본다. 물론 조직이나 조직원의 이해를 살려나가는 것에 조직운영의 묘가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공공기금을 다루는 조직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기금 사용의 공공성과 이를 위한 전문성이다. 공공성과 전문성은 공공기금의 원칙이 확립돼있고, 원칙에 따라 지원하며, 이를 위한 심의에서도 ‘사실’에 근거한 평가, 사실의 질적 내용에 대한 전문적 감식안을 둔 사람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현재 문진원의 이러한 면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 ○ 평가제도 운영평가

- 평가제도 운영은 공공기금 지원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절대적인 장치이다. 하지만 문진원의 평가제도는 평가제도 운영의 근본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효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다. 이것은 평가 자체의 공공성이나 객관성 부족에서 오기보다는 평가제도 자체의 운영의 묘를 못 살리는데서 온다고 본다. 아니면 평가제도를 여전히 유명무실한 형식적 장치로만 인식하는 안이함이거나 문진원 조직의 공공의식 결여에서 기인한다고 보인다.

평가제도는 기금수혜자들에 대한 평가일 뿐만 아니라 기금지원을 관리하는 조직이나 조직원들 자체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병행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잘못된 기금지원에 대해서는 수혜자와 심사, 심의위원, 내부 관계자들 전체의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어야 한다. 평가는 엄중하고 그러기 위해 문진원으로부터 독립적인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일종의 전문적으로 공공기금 지원과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과의 연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잘못된 지원과 잘못된 평가에 대해서는 별점이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인다.

### 3) 정완규

기관이 보여주고 있는 조직·인사관리의 합리화,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경영 효율성 제고,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경영 투명성 및 윤리 경영체제 확립, 책임경영체제 및 성과관리시스템 강화, 그리고 기 계획된 경영혁신과제의 지속 추진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기를 기대한다.

기관은 평가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 왔다고 생각한다.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는 기관과 의뢰받아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앞으로의 몫일 것이며 계속 발전해 나가리라 믿는다.

### 4) 문애령

문예진흥기금 사업 평가에 대한 담당자들의 의지와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 그러나 몇몇 운영상의 문제를 발견했다.

공연장이나 공연횟수를 고려하지 않은 지원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일례로, 지원 사업의 일부는 공연날짜가 하루에 불과했다. 또한, 대학 내부에서 진행되는 행사도 많아 지나치게 관대한 지원책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특히, 서울에서의 공연은 공연장 사정으로 인해 해를 넘긴 작품들이 많아 평가가 중단되었다. 2월 말에 공연된 작품도 있었기 때문에 공연시기 혹은 평가시기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공연일정에 대한 정보도 부족했다. 본인에게 배당된 사업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공연이 이뤄진 것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보다 상세한 정보를 평가위원에게 제공해주기 바란다.

평가대상 공연 입장권을 확보해주기 바란다. 평가위원 별로 배당된 공연을 찾아서 날짜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단체장과 직접 연락을 취해 관람권을 얻는 절차가 생소했다. 이 방식은 매우 위험한 관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무용분야 평가는 그다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본다. 평가위원 연령층을 하향 조정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결과를 얻기 바란다.

## 5) 박계배

### ○ 기관운영평가

- 기관운영의 세부추진실적과 추진중인 사항을 열람한 결과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함.

### ○ 평가제도운영평가

- 현장평가대상 사업은 4개 지원목표에 10개의 지원유형(창작공연활성화, 방발기금 포함)으로 분류되어 있다. '예술창작지원'에 포함된 <2004겨울연극제> <전국민족극한마당><목포전국우수마당극제전>은 많은 참가팀으로 구성된 축제로서 "예술창조역량강화"보다는 "문화예술향수기회확대"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축제를 평가할 때는 참가작뿐만 아니라 부대행사를 비롯하여 행사운영능력까지 평가영역에 포함시켜야할 것이다.
- '문화예술체험지원'에 있는 <휴전선지역초등학교방문공연><문화소외지역어린이를위한인형극순회>도 '찾아가는예술지원'으로 옮겨가야할 것 같다. 또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해외작품을 잘 사오는 것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양방향교류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특히 축제의 경우), 그 사업을 통해 우리작품을 얼마나 팔고 있는지 아트마켓 역할도 중요한 평가대상이 되어야할 것이다.
- 사업에 따라 좀더 유연한 평가를 하기 위해선 평가항목의 배점 란에서 C항목(성과목표달성도 및 만족도)이 14점이 아닌 최소 20점 이상이 되었으면 한다.
- 비슷한 내용으로 지원유형을 다르게 하여 이중지원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선 심의 시 (A분야, B분야로 나누어하는 분야별 심의, 창작활성화기금심의, 방발기금심의 등) 심의위원들이 타 분야의 심의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 6) 임재원

문화 예술 국제 교류 지원이나 전통 예술 발표 및 전승 보급 지원은 수혜자들이 비교적 많으나 신진 예술가 지원은 그 대상자들의 수가 적으므로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존 유명 단체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신진들에게 보다 많

은 기회를 줌으로서 그들의 의욕을 고취시켜 전통 예술 분야의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케 해야 하기 때문이다.

평가대상자들의 최초 계획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바로 평가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1인 담당 현장 평가의 건수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 7) 주홍미

- 평가제도의 공정성, 효율성 및 합리적 시스템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점은 2004년 문예진흥원의 두드러진 발전상 중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 평가위원들의 보다 세밀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문진원 담당직원들의 자료 백업 등의 노력은 높이 평가할만함. 담당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 평가대상 사업별로 서류와 보도자료 및 기사스크랩 등을 백업해서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서프트 해줌으로써 효율적 평가시스템을 만드는 데 큰 몫을 했다고 보여진다.
- 장기간 진행되는 행사, 하나의 Concept로 묶어져 있지만 개개별 특성이나 수준이 현저히 다른 행사,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다양한 장소에서 펼쳐지는 축제 등이 주조를 이루고 있는 다원적예술 분야는 1회행사 1회답사로는 합리적인 평가를 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근원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 평가를 위해서는 사업성격별로 2~5회 정도의 현장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평가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 평가지표 60%의 내용은 현재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사업내용의 예술적 우수성과 완성도 30%,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16%, 성과목표의 종합 달성도 및 기금지원의 성과만족도 14%)  
사업의 성격상 현재의 평가지표로는 본 분야의 다양성에 걸맞는 합리적 평가를 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여러 작품을 아우르는 축제 또는 장기행사의 경우와 작품 자체의 실험성 및 독창성 혹은 탈장르와 퓨전의 경우 현재의 평가틀로는 평가결과가 과연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모순을 안고 있다. 행사의 특성별로 대분류 및 소분류를 통해 새로운 평가지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평가와 지원이 일관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반영되고 적용되는 시스템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년도 사업의 심의위원과 당해연도 사업의 평가위원 차기년도 사업의 심의위원들의 워크샵 등을 통해 긍정적 부분의 확대와 부정적 부분의 개선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의 틀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 8) 박찬

개별지원사업 평가에 있어서 <서면평가대상사업 평가>는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것이 <현장평가대상사업 평가>와는 어떻게 다른지 현재로서는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음. 따라서 <서면평가 대상사업>과 <현장평가 대상사업>을 연계해 평가내용을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1회성 사업이 아닌 연중 계속사업의 경우 실제 사업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상, 하반기 두 번에 걸쳐 현장평가를 실시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됨.

다음은 현장평가 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지만 평가를 위해 지방을 다니면서 현지 문화예술인들과 접촉해보면 진흥원 측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지원해주는 소액사업에 대해 현지 문화예술인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는 현지의 문화예술 기득권층과 지역 토호들과의 밀착으로 소위 '나눠먹기'식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현지 기득권층과의 밀착되지 않고서는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임. 따라서 지금까지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는 이 지원기금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각 지자체로 내려 보내는 기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기금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최소한 지원 주체에서 한번쯤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9) 정갑영

기관운영은 자료상으로만 볼 때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잦은 조직의 체계변화는 문예진흥기금 사업을 진행하는 조직으로서 과연 효과적인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전문위원회와 사업 팀제를 통해 기관 활성화가 가져왔다는 주장의 타당성이 검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조직체계의 변화가 문화예술 지원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쳐서 어떻게 효과적이 되었는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평가제도 운영도 지원사업의 다면적인 측면을 확보하려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지원목표에 맞게 평가지표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며 특히 향수의 경우 수요자 입장에서의 지표개발과 반응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이 엿보인다.

예를 들어 체험, 복지, 찾아가는, 교육 등과 같은 분야의 지원목표는 다소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문화감성 함양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분야

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창조, 전통, 일반, 보존 등과 같은 목표를 지닌 영역에서도 나름대로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 것인 만큼 이에 부응하는 평가지표개발이 필요하다.

동일한 사업이 여러 회에 걸쳐 장소와 대상을 다르게 하여 공연하거나 전시할 경우 여러 회에 걸친 평가가 필요하다.

지원서에 나타난 내용과 실제 공연이나 전시에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일련의 계획된 예술제에 참여하면서 향수자를 위한 공연으로 위장하는 경우 등과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인지를 지원결정시에 언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